

628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광복 80년, 우리말 문법 연구의 성과와 과제

○때 : 2025년 5월 16일(금), 오전 10시~오후 3시 40분

○곳 : 한글학회 강당

주최: **한글 학회**

후원: 한글재단

628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광복 80년, 우리말 문법 연구의 성과와 과제

•차 례•

[기조 발표] (사회: 이관규)

유현경: 광복 이후 우리말 문법 연구의 성과와 과제 7

[제1부/ 주제 발표] (사회: 이문규)

김양진: 한국어 형태소 연구의 성과와 전망

—형태 및 형태소 개념의 전개를 중심으로— 41

정한테로: 사전으로 살펴본 형태론의 몇 주제들

—『조선어사전』, 『큰사전』 등을 중심으로— 63

이정훈: 한국어 통사 현상의 통사이론적 함의:

다중 분열문과 괴팍한 접속의 경우 95

구본관: 우리말 형태론 연구의 성과와 과제 103

[제2부/ 주제 발표] (사회: 남길임)

목정수: 한국어 통사론의 본령 찾기 185

최용환: 우리말 문장 구성과 결합의 몇 양상 207

조용준: 한국어 실험통사론의 현황과 과제

—수용성판단을 중심으로— 225

김건희: 북한 문법론 연구의 성과와 과제 269

기조 발표

광복 이후 우리말 문법 연구의 성과와 과제 / 유현경

628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광복 80년, 우리말 문법 연구의 성과와 과제
2025년 5월 16일(금) 10:00~15:40 / 한글학회 강당

□ 기조 발표

광복 이후 우리말 문법 연구의 성과와 과제

유현경

연세대학교 교수
yoo@yonsei.ac.kr

1. 서론

이 연구는 광복 이후의 우리말 문법¹⁾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말 문법 연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하여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대 문명의 전환기인 19세기 말에 유길준, 주시경, 최광옥 등의 연구로 근대 국어학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초부터 광복 이전까지의 우리말 문법 연구는 일제 강점기에 당면한 시대적 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광복 이전의 우리말 문법 연구는 민족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언어를 언어 공동체의 사고와 정신적인 원리로서 보는 훔볼트의 언어철학에 근간을 두고 있었다. 이 시기의 문법 연구는 우리말의 올바른 말본을 수립하여 우리 민족을 계몽하고 민족을 갱생시키는 데에 그 목표가 있었으므로 광복 이전의 우리말 문법 연구는 조선어 연구와 조선어 교육, 그리고 어문 규정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었다. 광복 이전의 우리말 연구들은 맞춤법을 비롯한 어문 규정에 관한 내용과 이를 교육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현대적

1) 이 글에서의 '문법'은 형태론과 통사론을 아울러 이르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의미의 문법 연구는 많지 않았다. 광복이 된 이후 사회적 환경은 달라졌지만 민족주의적인 국어학 연구는 일정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광복 이후의 우리말 문법 연구를 살펴볼 때에도 광복 이전의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연구사적인 고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말은 교착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이므로 형태론과 통사론이 밀접하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말의 주요한 문법적 기능은 주로 조사와 어미 등의 교착소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조사와 어미는 음운론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서 단어 내부의 요소로 볼 수 있어 형태론적인 대상이지만 그 기능은 단어를 넘어서기 때문에 통사론적인 대상이기도 하다. 한국어와 같은 언어 유형의 문법 연구는 형태소의 분석에서부터 시작되고 이에 통사론적인 연구가 더해져야 비로소 완전한 문법 체계의 기술이 완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말 문법 연구에서 형태론과 통사론은 서로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어서 광복 이후의 문법 연구사를 기술할 때 형태론과 통사론 분야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19세기 말에 근대 국어학이 태동하고 광복 이후 외국의 언어 이론들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현대적 의미의 국어학 연구가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국어학 연구의 역사가 130여 년에 이르는 동안 우리말 연구의 흐름을 살펴본 연구사적 업적도 상당히 축적되었다. 국어학사 분야의 주요 선행 연구로는 강신항(1979/1988), 김민수(1980), 고영근(2001), 김석득(1983/2009) 등 국어학사에 대한 단행본들이 있고 개별 학회에서 창립 이후의 특정한 주기를 기념하기 위하여 학술지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통시적인 단기 연구사를 기술한 기획 연구들이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다. 본고는 광복 이후의 우리말 문법 연구의 흐름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지난 80여 년 간 문법 연구의 주요 업적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국어학사를 다룬 단행본의 문법 연구에 대한 서술, 주요 학술지에 실린 형태론과 통사론 분야의 업적을 사적으로 정리한 기획 논문들, 근현대 문법의 주요 업적에 대한 연구사적 논의 등을 참고하여 기술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연구사를 기술할 때 시간적인 축을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도 있고 연구의 배경이 되는 이론이나, 연구 방법론과 자료, 연구의 대상, 연구의 주체 등을 기준으로 삼아 살펴볼 수도 있다. 광복 이후 80년에 축적된 우리말 문법 연구의 성과가 방대하기 때문에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다. 본고는 광복 이후의 문법 연구의 사적 흐름을 4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광복 이후 우리말 문법 연구의 시대 구분에 대하여 먼저 논의하게 될 것이다. 3장에서는 이론의 변화나 방법론, 대상, 연구의 주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각 시대별로 드러난 특징을 기술하려 한다. 이를 통하여 광복 이후의 우리말 문법 연구의 성과를 거시적으로 종합하게 될 것

이다. 4장에서는 3장에서 기술한 광복 이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말의 문법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전망해 보고 5장 결론 부분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2. 광복 이후의 문법 연구사 시대 구분

광복 이전의 연구들은 민족어의 존립과 어문 규정의 정비, 그리고 우리말 교육을 통한 계몽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19세기 말부터 광복 이전의 문법 연구는 민족어를 지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대 국어학에서 언어에 대한 연구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근간을 연구하는 것인 동시에, 올바른 말본을 수립함으로써 민족의 올바른 정신을 길러내는 정신적 활동이기도 하였다.(이재섭 2023 : 336) 송기중(1999)에서는 최광옥과 유길준의 문법 연구는 품사론이 주요 관심사였으며 1937년까지 30여 종의 문법서가 출판되었고 1945년 광복 이후 1950년 한국전쟁까지도 20여 종의 문법 교과서가 출판된 것으로 보아 국어학의 초창기부터 일제 시대를 거쳐 한국전쟁까지 문법학이 국어학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남기탁(2012)에서는 현대 국어학 연구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1) 현대 국어학의 시대 구분(남기탁 2012)
 - ㄱ. 현대 국어학의 출발기 1900년대~1940년대
 - ㄴ. 현대 국어학의 정립기 1950년대~1970년대
 - ㄷ. 현대 국어학의 정착기 1980년대~현재

남기탁(2012)에서는 1900년대부터 1940년대에 해당하는 시기로 약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설정하고 이를 ‘현대 국어학의 출발기’라고 하였고 1950년대부터 1970년대를 현대 국어학이 자리를 잡았던 ‘현대 국어학의 정립기’로 보았으며 1980년대부터 2012년 현재까지를 ‘현대 국어학의 정착기’로 명명하였다. 남기탁(2012)는 광복 이전의 연구를 현대 국어학의 출발기로 보았는데 이와 달리 이재섭(2023 : 336)에서는 국어학사의 시대 구분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견해 차이가 있으나 1894년 갑오경장을 근대 국어학의 시작으로, 1945년 광복 이후 1950년대 서구 이론 유입의 전환점을 현대 국어학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근대국어학과 현대국어학의 시대 구분은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의 수용 시점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구조주의 언어학의 수용 시점을 광복 이후로 설정한 입장에는 강신항(1979/1988), 김민수(1980), 김형주(1982) 등이 있고 광복 이전으로 보는 입장은 김석득(1983), 유창균(1991),

박종국(1994) 등이 있다. 광복 이전의 연구들을 보면 형태론과 통사론이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품사론 중심으로 기술된 것이 대부분이고 음운론까지 문법에 포함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문법 연구사의 측면에서 광복 이전은 근대적 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광복 이전의 문법 연구들이 광복 이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지만 광복 이후부터 우리말 문법 연구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현대 국어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법 연구와 같은 순수한 학문적 영역에서도 외부 환경의 변화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광복’이라는 정치·사회적 사건이 우리말 문법 연구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광복 이후의 연구사를 크게 네 개의 시대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대 구분에는 문법 내적인 이론과 방법론 및 자료 등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이나 변혁 등이 고려되었다. 본고에서는 광복 이후의 우리말 문법 연구의 시대 구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2) 광복 이후 우리말 문법 연구의 시대 구분

- 제1기: 발아기(1945년~1960년대 전반, 구조주의 언어학의 수용)
- 제2기: 변혁기(1960년대 후반~1980년대 전반, 생성문법의 수용)
- 제3기: 확장기(1980년대 후반~2000년대 전반, 사회 환경의 변화와 자료의 등장)
- 제4기: 안정기(2000년 후반~2020년대 전반, 이론의 다양화)

(2)의 구분은 광복 이후 80년을 약 20년씩 나누어 본 것이다. 광복 이전과 이후가 ‘광복’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전혀 다른 시대적 환경이 도래하게 되지만 광복 이후에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문법 연구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특정한 사건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누는 것은 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연구의 결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건과 연구사의 시대 구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구사적 시대 구분은 다소 느슨하게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제1기는 현대적 의미의 문법 연구가 시작된 시기인 ‘발아기’이다. 광복 이전의 문법 연구가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한 것들도 있었지만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지배적이었고 우리말 문법 체계가 완전한 의미의 현대 언어학적인 기술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광복 이전의 국어학 연구가 하위 분과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제1기에서는 미국의 구조주의 언어학의 분석 이론이 도입되면서 음운론과 형태론, 통사론의 하위 분과가 체계적으로 확립되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파이크(Pike), 글리슨(Gleason), 호켓(Hockett), 나이다(Nida)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기술적 언어 분석 이론과, 트루베츠크이(Trubetzkoy), 야콥슨(Jakobson)으로 대표되는 프로그 학파의 언어 이론, 그리고 마르티네(Martinet)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언어 이론이 도입되어 형태론 연구를 진작시켰다.(고영근 2001 : 40)

제2기는 1960년대 중반에 촘스키(Chomsky)의 변형생성문법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문법 연구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시기이다. 생성문법이론은 자율 통사론을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형태론에 설 자리가 많지 않았다. 제2기 ‘변혁기’는 촘스키에 의한 이론의 수정이 거듭되면서 생성문법의 이론적 변화가 우리말 문법 연구에도 시차를 두고 수용되었으며 전통문법과 구조주의 언어학의 이론에 의한 연구들도 병행되었던 시기이다. 생성문법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20세기 후반기를 풍미한 언어 이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3기인 ‘확장기’는 1980년대 급격한 경제 발전과 맞물려 졸업 정원제 도입으로 인한 대학의 양적 팽창이 우리말 문법 연구에도 인적, 물적 자원의 확대로 이어진 시기였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는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본격화되고 실제 언어 자료를 전산화한 말뭉치(corpus) 구축과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우리말 문법 연구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었다. 말뭉치 자료의 등장은 20세기를 풍미했던 생성문법에 대한 회의를 가져왔으며 우리말 문법 연구의 방향성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제4기는 2000년 후반~2020년대 전반을 일컫는데 우리말 문법 연구는 풍부한 언어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으며 생성문법이 주도적인 이론이었던 이전 시기에 비하여 다양한 이론들이 우리말 문법 연구에 적용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안정기’로 이름하였는데 통사론 분야에서 실제 말뭉치 자료를 대상으로 계량화한 수치를 근거로 제시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생성문법의 등장으로 위축되었던 형태론 분야의 연구들도 활성화되면서 통사론과 형태론이 균형을 맞추게 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광복 이후의 우리말 문법 연구의 시기를 발아기, 변혁기, 확산기, 안정기 등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 대략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이어지는 장에서는 연구의 시기별로 우리말 문법 연구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전개되었는지에 대하여 기술해 보기로 한다.

3. 시기별 문법 연구의 특징

광복 이전 한글지의 문법 관련 연구를 분석한 서민정(2024)에 의하면 『한글』에 실린 문법 관련 연구는 40여 편으로 전체 논문의 약 4%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광복 이전의 문법 연구는 현대적 의미의 언어학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광복 이전의 연구로 대표적 업적인 최현배(1937) 『우리말본』은 학교문법의 근간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영향이 지대하다. 외솔의 언어관은 훔볼트(W. von Humbolt, 1776~1835)의 언어철학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고영근 1995 : 265) 이는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개화기 이후 일제 강점기의 국어학자들에게 공통된 언어관이기도 했다. 이러한 언어관은 외솔이 문법 연구의 목표를 말과 글자의 정리를 위한 실천적 가치와 국어교육을 위한 실용적 가치에 두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권재일(2000 : 3-4)에서도 주시경 선생이 말과 정신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언어관을 세웠다면 외솔은 말과 문화 창조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언어관을 세웠다고 하였다. 즉 문법 연구가 단지 한 언어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그 말을 사용하는 민족과 민족의 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외솔의 문법관은 실천적 이상주의의 성격을 띠게 되며 이는 곧 문법의 규범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각각의 단어로 보는 분석적 문법 체계의 주시경 문법과 달리 외솔의 문법 체계는 언중들이 인식하는 언어의식을 근거로 하여 토는 독립적인 품사로 보고 어미는 어간에 의존적인 요소로 보아 어간과 어미를 한 단위로 보는 종합적인 기술 방식을 택하였다. 외솔의 언어관은 주시경의 언어관과 훔볼트의 언어관에 상통하며 귀납적 기술은 경험주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김석득 2000 : 166-169) 고영근(1995 : 273)에서도 외솔의 이러한 문법 연구 방법이 실천적 이상주의에 입각한 규범적인 문법관에 기초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외솔은 문법 연구의 일차적 목표를 국어 국문의 정리를 위한 실천적인 가치에 두고 있으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는 국어교육을 위한 실천적, 실용적인 성격과 맞닿아 있다. 말본이 실제 언어현실을 반영하여야 하지만 입음법과 때때김법을 연역적으로 체계를 잡고 기술한 이유를 문법이 언어현실에 앞서갈 수 있음을 근거로 내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유현경 2022) 이러한 연역적인 방식은 외솔의 계몽적이고 규범적인 문법관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광복 이전의 대표적인 업적인 『우리말본』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광복 이전에는 문법 연구가 국문 정리와 교육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광복 이전의 연구를 근대 국어학적 문법 연구로, 광복 이후의 연구를 현대적 의미의 문법 연구로 본 것이다.

3장에서는 광복 이후의 문법 연구의 흐름을 시기별로 상세하게 살펴볼 것인데, 연구의 바탕이 되는 이론의 측면, 연구 방법론과 자료의 문제, 연구 대상의 문제, 연구의 주제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1. 연구 이론의 측면

현대적 의미의 문법 연구가 시작된 제1기 ‘발아기’와 제2기 ‘변혁기’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이론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제3기의 ‘확장기’나 제4기 ‘안정기’에 이론이 다양화되고 사회적 환경 변화와 자료의 중요성 등이 부각된 것과 비교된다. 광복 이후 40년 동안 서구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우리말 문법 연구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광복 이전의 우리말 문법 연구가 주로 일본을 통한 간접적인 언어 이론의 수용을 기반으로 하였다면 광복 이후의 연구에서는 서구의 이론들이 직접적으로 도입되어 연구에 적용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광복 이전에도 소수의 연구자들이 유학을 통하여 서구의 학문을 접한 경우도 있었지만 광복 이후에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유학을 하거나 여러 경로로 수입된 원서들을 통하여 서구의 언어 이론이 들어오게 되었다.

제1기의 초기인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 국어학자들은 구미의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광복 이전과 이후에 소쉬르(F. Saussure)의 구조주의 언어학과 트루베츠크이(Trubetskoj), 야콥슨(Jakobson) 등의 프라그 학파 언어 이론을 비롯하여, 람스테트(Ramstedt), 포페(Poppe) 등에 의하여 한국어가 알타이제어에서 분화되었음을 주장한 이론이 소개되어 국어계통론을 중심으로 한 역사언어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이재섭 2023) 광복 이전의 문법 연구를 보면 음운론적인 기술도 문법서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문장에 관한 기술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문장의 근간을 이루는 문법 범주는 품사론의 영역 안에서 다루어져 엄밀하게 형태론과 통사론이 분화되지 못하였는데, 광복 이후에 우리말 연구는 객관적 절차에 의하여 언어를 분석하고 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구조주의 이론이 적용되면서 자연스럽게 음운론과 형태론 그리고 통사론이 국어학의 하위 분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광복 이전과 이후에 걸쳐 도입된 기술언어학 이론은 현재까지도 우리말 문법 연구에 기본적인 이론으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말 문법 연구가 언어 자료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한국어의 교착어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광복 이전까지는 주시경의 ‘늦씨’ 개념에 바탕을 둔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분석 단위의 체계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는데,²⁾ 구조주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

2) ‘늦씨’에 대해서 형태소(morpheme)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김민수 1961), 형태(morph)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이기문 1976), 형태소가 아니라 원소적 기본 단위의 ‘늦’으로 분석할

아들이면서 비로소 블룸필드(Bloomfield 1933), 호케트(Hockett 1958) 등의 형태소 개념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광복 이후 대표적인 형태론 연구의 업적 중 하나인 허웅(1966, 1975)³⁾ 등에서는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라는 기준을 내세우고 구조주의적 관점의 형태소 분석 방법론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60대 중반부터 미국의 변형생성문법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우리말 문법 연구의 제2기 ‘변혁기’가 시작된다. 송기중(1999)에서는 1950년대 연구들이 프로그 학파,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의 기본 이론들을 습득하여 중세국어 연구에 적용하였으나 현대국어 연구에 보편적으로 응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근거로 현대국어에 대한 문법 연구는 제2기에 변형생성문법에 도입된 이후에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광복 이전부터 광복 이후의 제1기인 1960년대 전반기까지 우리말 연구는 품사론이나 중세국어를 중심으로 한 형태론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고 제1기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기술언어학 이론도 형태론 연구에 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통사론보다는 형태론 연구가 대종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이 반전된 것은 변형생성문법이라는 이론의 등장이다. 변형생성문법은 생성음운론과 생성통사론을 중심으로 하여 문법에서는 자율 통사론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형태론 연구의 위축을 가져왔다. 임흥빈(1982)에서는 이때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3) ㄱ. 70년대, 특히 그 전반은 국어형태론을 위해서는 아주 불행한 시기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언어연구에서 형태론이 차지하는 영역이 아주 불확실하여 그 존재 자체를 의심받고 위협받던 시기, 그래서 형태론의 활동 무대가 극도로 좁아지고 형태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형태론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령 어떤 논의가 “그것은 형태론적이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던,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면 형태론의 소멸 위기 시대이었다고 해도 과히 지나치지 않는다. 이전에는 통사론이라고 하면 형태론과 더불어 문법론의 2개 분야의 하나라고 하면서도 개론서 등에 몇 페이지 정도를 할당하면 그만인 그런 통사론, 그림 몇 개 그리면 족했을 그런 통사론의 위치에서 언어 연구의 핵심으로 그 자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언어학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흔들여 놓은 이른바 촘스키 충격이 그것이다.(임흥빈 1982 : 168)

수 있는 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병근 1979) 등이 있었다.(구분관 2002 : 7 참고) 오늘날의 형태소 단위와 비교했을 때 낫씨는 그 외연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낫씨는 국어 형태 분석을 위한 최초의 단위라는 데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허웅(1966)이나 허웅(1975)는 현대국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세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구조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형태소를 분석한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ㄴ. 학교문법통일안이 만들어진 60년대를 지나면서 형태론을 주조로 하는 문법론은 품사논쟁과 용어 시비로 온갖 정열을 모두 소모하고 이론적인 석화작용까지 경험하면서 지칠 대로 지쳐 버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맞은 70년대가 외국의 새로운 이론에 몰두하게 된 것은 어떤 일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임흥빈 1982 : 169-170)
- ㄷ. 형태론의 영역이 모호하게 된 데에는 구조언어학이 형태론의 영역을 단어에 제한한 데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 단어라는 것이 정확히 정의되지도 않고 또 실제에 있어 어느 것이 단어라고 정확히 진단하거나 예언할 수도 없다는 점에 있다. 최소자립형식에 의한 정의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잠재적인 휴지에 의한 정의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를 병용하는 절충안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히 국어의 경우 조사 문제는 그 어느 방법으로도 해결되기 어렵다.(임흥빈 1982 : 171)

위의 기술을 통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제2기 변혁기에 형태론의 위상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임흥빈(1982)에서는 이 시기 형태론의 위기에 대하여 생성문법이라는 외부 변수뿐 아니라 국어학 내부의 문제에도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생성문법 이론의 문제(3ㄱ)도 있었지만 1960년대 학교문법통일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어학 내부의 소모적인 논쟁(3ㄴ)과, 제1기 문법 연구의 주된 이론적 배경이 되었던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 내에서 형태론의 연구 대상을 한정하는 문제(3ㄷ)에서도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그동안 국어 문법학사에서 60년대 중반 생성문법의 등장이 형태론 연구의 쇠퇴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 지적되어 왔으나 임흥빈(1982)와 같이 다각도로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츨스키의 변형생성문법은 인간의 언어능력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하였고 언어습득론의 생득설에 기반한 보편문법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된 변형생성문법은 이론의 수정을 거듭하여 현재의 최소주의까지 이르렀고 1960년대 중반부터 국내의 문법 연구들도 변형생성문법의 이론의 변화를 반영하여 왔다. 제2기인 변혁기에는 생성문법 이론의 도입으로 통사론이 국어학의 핵심적인 분야로 떠올랐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해외 유학파들의 학위논문들이 우리말 연구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고영근(2001 : 41)에서는 1970년대에 생성문법이론과 더불어 독일의 내용중심문법, 프랑스와 독일의 의존문법 등이 수용되어 한국어에의 적용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고 하였고 생성문

법이 한국 언어학계를 강타하는 가운데서도 전통적인 한국어학자들은 구조주의적인 방법론을 외면하지 않고 현대국어의 형태론을 깊이 있게 연구하였다고 하였다.

제3기는 확장기로,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전반에 이르는 시기이다. 생성문법 이론의 등장 이후 국어학 연구의 중심에서 멀어진 듯이 보였던 형태론 연구는 1980년 중반 이후 생성 형태론과 문법화 이론의 등장으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론적인 변화에 힘입어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우리말 형태론 연구는 단어를 분석하여 구조를 밝혀내는 분석적 연구에서 단어를 생성하는 화자의 언어 능력을 밝혀내는 형성의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통사론에서 단어를 통합하여 문장을 만드는 문장 형성 규칙을 밝혀내는 것과 유사하게 형태론에서는 형태소를 결합하여 단어를 만드는 단어 형성 규칙을 설정하여 국어 형태론의 부활을 가져오게 되었다. 구분관(2020)에서는 초기의 생성문법은 통사론이 중심이 되었으므로 형태론의 위축을 가져왔지만, 차츰 생성 형태론이 체계적으로 발전하면서 어휘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조어론 중심의 형태론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보았다.

초기 생성문법의 영향으로 위기를 맞이했던 형태론 연구는 생성문법적 관점의 형태론 연구, 즉 ‘생성 형태론’ 이론과 방법을 수용하면서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송철의(1977)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생성 형태론은 조어법 문제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파생 및 합성의 규칙과 이들에 적용되는 다양한 층위의 제약을 설정함으로써 조어론 기술의 체계성과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생성 형태론에서는 이러한 규칙과 제약이 화자의 어휘부 내에 표상되어 통사부와 상호작용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휘부에 대한 탐구가 병행되었다. 어휘부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생성 형태론이 설정한 규칙과 제약 중심의 어휘부 모형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추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국어 문법 연구에 인지언어학이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형태론 연구에서도 인지적 타당성을 갖춘 어휘부 모형을 상정하고자 ‘유추’라는 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조어론 이론이 급속도로 활발해졌다. 그 결과 한동안 규칙론과 유추론 간의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국어 형태론 연구 역시 한층 더 활기를 띠게 되었다.

김영희(1989)는 이론의 수용에 따른 1959년부터 1989년까지 30년간의 국어 통사론의 전개를 살펴보았는데 이 시기는 그 이전의 60년 동안의 근대 국어학의 시기와 뚜렷이 구별되었다고 하면서 품사론 중심의 문법론 연구에서 통사론이 국어 문법론의 중심 분야로 부각된 것으로 보았다. 김영희(1989)에서 500여 편의 통사론 논문 분석을 통하여 전통문법을 비롯하여 구조주의, 변형생성문

법, 격문법, 생성의미론, 해석의미론, 확대표준이론, 지배결속이론, 관계문법, 기능통사론, 어휘기능문법, 일반구조문법, 몬테규문법, 성층문법, 자릿값 이론 등 일반 언어학계에서 창출되었던 거의 모든 이론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국어 통사론에 도입되었음을 보였다. 물론 이 중에서 이론적인 주류는 언어 생성과 습득에 관한 이성론적 가설을 주창, 보편문법을 추구하는 변형생성 이론 및 그 가설을 추종하는 이론들이었지만 김영희(198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변형생성문법 이외의 이론들도 다양하게 수용되었다. 김영희(1989)에서는 1980년대 후반까지의 국어 통사론이 자생적 이론 보다는 외래 이론의 추종적 자세에 있었으며 국어 현상을 기술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 이론의 모형이나 개념들을 즉흥적, 무비판적으로 빌려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외래 이론의 도입은 국어 통사론 연구에 새로운 발견과 인식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 통사 현상을 치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을 키워 준 점, 통사 현상 간의 유기성을 인식하고 개별 통사 현상에 대한 시각을 다양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긍정적인 요소로 지적하였다. 김영희(1989)의 이러한 지적은 현재 통사론 연구에도 시사점이 있으며 앞으로도 이론의 중요성은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남기탁(2012)에서도 1980년대를 다양한 문법 이론이 소개된 시기로 보았고 1980년대를 지배한 보편문법을 추구하는 지배결속 이론은 변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통사부와 의미 해석부에 작용하는 원리체계를 내세웠고, 이는 다시 지배와 한계 이론을 통합한 장벽이론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이론의 최소화와 설명의 최대화를 통한 경제성을 주장하는 최소주의 이론이 지배결속 이론의 뒤를 이으면서 이 두 이론은 1990년대 국어 통사론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이처럼 생성문법의 수정이 계속되면서 통사론의 논의는 지속적으로 열기를 띠게 되었고, 그 결과 국어 통사론은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남기탁(2012)에 의하면 1990년대에도 생성문법에 의한 국어통사론의 연구가 이어졌으나 최소주의 이론의 극단적인 추상화에 대한 반발과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말뭉치 자료의 등장으로 인한 생성문법에 비판적 시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기능문법의 도입은 우리말 문법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90년대에 수용된 인지문법은 앞선 이론들과는 달리 언어의 이해와 사용이 인지능력과 중요한 관계에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통사론뿐만 아니라 언어학 전체에 영향을 주어 2000년대의 연구에 직접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인지언어학에 기반한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이 도입된 것은 제3기인데 제4기에 이르러 구문문법 이론은 통사론뿐 아니라 형태론 분야의 연구에도 적용되고 있다.

국내의 우리말 문법 연구들은 생성문법의 이론적 성과와 함께 연역적인 연구

방법론을 수용하는 한편 구조주의적인 언어학적 이론도 병행하여 우리말에 대한 탐구를 이어왔다고 할 수 있다. 제2기와 제3기 문법 분야의 주요 업적인 허웅 선생의 문법 기술과 체계를 살펴보면 형태론 부분은 구조주의 언어학에 근거를 두고 있고 통사론에 관한 기술은 구조주의와 초기의 생성문법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윤평현(2011)에서는 허웅 문법의 형태론은 구조주의 언어학을 근거에 두고 있고, 통사론은 구조주의와 초기 생성문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허웅의 국어학 연구는 주시경과 최현배의 연구를 바탕으로 삼고, 아울러 서양의 최근 일반언어학 이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전통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학 연구사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제4기 안정기는 이전 시기가 변형생성문법 이론이 주를 이루었던 것에 비하여 이론이 다양화되었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국어 문법 현상에 외래 이론을 적용할 때 초기와 달리 개별 언어로서 국어의 특성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한국어가 인구어와 달리 문법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적 표지가 분명하고 담화적인 맥락이 중요한 언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한국어와 다른 유형의 언어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이론을 적용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초기의 연구들이 이론에 국어 자료를 맞추었다면 후대로 오면서 국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론의 수정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최근에는 정보구조 이론이나 언어유형론적인 배경을 가진 통사론 연구들이 늘어난 것도 국어에 대한 자각이 기본이 되었다. 유현경(2020)에서는 학회지 『국어학』에 게재된 통사론 관련 논문을 사적으로 분석한 결과, 생성문법 등 서구의 이론적인 방법론을 활용한 논문은 313편 중 143편으로 45%에 이르며 10년 주기 변화 추이를 보았을 때 2000~2009년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최근 그 비율이 다소 낮아졌다고 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우리말 문법 연구의 역사는 외국 이론의 도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 이론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초기의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생성문법이론, 인지언어학, 언어정보학 등이 문법 연구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최근에는 어느 특정 이론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다양한 이론적 경향을 반영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특정한 이론적 배경 없이 세밀하게 자료의 양상을 해석 없이 기술하는 연구들도 문법 연구의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 아마도 당분간 이러한 방향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2. 연구 방법론 및 자료의 문제

문법 연구의 방법론은 연구의 기반이 되는 이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제

1기 발아기에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도입으로 문법 연구가 귀납적인 방법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연구 방법론의 문제는 언어 자료에 대한 관점과도 무관하지 않는데 실제 언어 자료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귀납적 연구 방법론을 선택하게 되고 연역적인 방법론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로 머릿속에 있는 인위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게 된다. 귀납과 연역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어서 배타적인 방법론은 아니지만 연구의 관점이나 이론에 따라 그 비중이 달라지게 된다.

광복 이전의 연구에서도 문법 연구자들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 방법론과 자료에 대한 고민이 있어 왔다. 유현경(2022)에서는 『우리말본』의 연구 방법론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실증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방법론이다. 언어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문법 기술에 반영한 것은 『우리말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문법 기술에서 살아있는 예를 제시하고 그 출처까지 명시한 것은 실증적인 방법론을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귀납과 연역의 방법론이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우리말본』은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귀납적 연구방법론에 의한 것이다. 『우리말본』에서는 문법 연구가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말의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과, 언어 자료를 귀납적으로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귀납적인 방법론을 통한 기술적, 설명적인 것이 문법 연구의 기본이지만 이러한 귀납적 사실은 말을 쓰고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규범적인 것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말본』은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외솔은 문법 연구의 일차적 목표를 국어 국문의 정리를 위한 실천적인 가치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에 의하여 『우리말본』은 귀납적인 연구방법론과 함께 연역적인 연구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셋째, 대조언어학적 연구방법론이다. 『우리말본』은 우리말 문법 기술에서 영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에스키모어, 산스크리트어, 몽고어, 불어 등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의 문법에 대한 기술을 참고하였다는 것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말본』은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국어 문법의 체계와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이는 현재 우리말 문법 연구에도 그대로 이어 내려져 왔다.

제1기인 발아기에 구조주의 언어학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수용되면서 우리말 문법 연구는 언어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으로 도출된 결과를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국어의 문법 체계를 서술하고자 하였다. 이후 생성문법이 도입된 제2기 변혁기에는 생성문법의 이론적인 성향에 의하여 연역적인 연구 방법론이 주가 되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생성문법은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언어 능력을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보편문법을 설정하여 세계의 모든 언어를 하나의 언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생성문법 이론은 언어학 이론 중 가장 추상적이고 연역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 이론 내적인 정합성이 중요시된다. 제2기에 수용된 생성문법은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도 연역적인 방법론을 선호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귀납적 연구 방법론에 의한 연구들도 진행되어 형태론 분야의 형태소 분석 등에 적용되었다.

제1기와 제2기가 이론이 부각된 시기였다면 제3기부터는 자료의 문제가 대두된 시기였다. 제3기 확장기의 시작인 1980년대 말 말뭉치 자료 기반 연구가 처음으로 국내에 등장하였다.(유현경 2018) 유현경(2018)에 의하면 말뭉치라는 키워드로 국내에서 발행된 최초의 소논문은 이상섭(1989) ‘낱말 빈도를 추정하기 위한 말뭉치 자료 수집의 실제’라는 논문인데⁴⁾ 이후 국내에서 1989년부터 1990년대까지 총 113편의 소논문이 발표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481편,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75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말뭉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귀납적인 연구 방법론의 경향을 띠는 것이 대부분인데 말뭉치 자료를 사용한 통사론 연구는 몇 가지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말뭉치가 장르별로 양적인 균형을 유지하여 구축되면서 이전의 연구가 국어를 맥락에서 떼어내 분석했던 것과 달리 맥락 안에서 설명하려는 연구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통사론 연구도 맥락을 고려한 연구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한국어는 영어 등 서구의 언어에 비하여 맥락이 매우 중요한 언어인데, 이전의 연구는 문장 중심의 서구 언어를 자료로 하여 기술된 언어 이론을 배경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어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문장 중심의 문법이 한국어 자료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기 이전의 연구는 연구자의 머릿속에서 예문을 만들어 내야 했기 때문에 맥락을 고려한 연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말뭉치 자료가 풍성해지면서 실제 한국어 사용에 근접한 자료들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구어 연구, 담화적 기능을 분석한 연구나, 문법 형태들의 화용론적 기능 연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한국어 통사론의 연구가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유현경 2018)

말뭉치 용례를 분석해 보면 절대적으로 옳은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이분법적으로 가를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고 한국어가 사용되는 경향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게 된다. 또한 문법적으로 가능한 문장보다 어떤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장르에서 얼마나 더 자주 사용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빈도라는 계량적인 측면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빈도를 통하여 우리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빈도와 경향성은 말뭉치 자료를 활용한 연구

4) 국내에서 ‘말뭉치’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상섭(1988)에서부터이다. 이상섭(1988)에서는 corpus linguistics를 ‘뭉치 언어학’이라 번역하고(이후 ‘말뭉치 언어학’으로 굳어짐) corpus를 ‘말뭉치’로 옮겼다.

방법론은 이전의 연구와 변별되는 지점이다.

말뭉치 자료를 사용한 귀납적인 연구 방법론이 증가하게 된 것에는 몇 가지 국어학 외적인 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연세한국어사전』(1998)의 편찬을 목표로 하여 국내 최초로 말뭉치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사전 편찬을 위한 한국어 말뭉치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고려대한국어사전』의 발간 과정에서도 ‘말모듬’이라는 한국어 언어 자료 구축이 이루어졌다. 사립대학의 연구소 중심의 말뭉치 구축과 검색 도구의 공개는 문법 연구자들의 자료 기반 연구로 이어졌으며 이는 문법 연구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1990년에 국립국어연구원이 국립기관으로 발족되어 우리말 문법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말뭉치를 사용하는 연구가 증가한 것은 국가 주도의 말뭉치인 21세기 세종말뭉치가 공개된 영향이 지대하다. 2000년대에 들어서 연구 자료로 실제 말뭉치 용례를 사용하게 되면서 한국어 통사론 연구에서도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문어 말뭉치뿐 아니라 구어 말뭉치도 구축되면서 문어와 구어 자료에 대한 연구가 증가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문법 요소의 담화·화용론적 기능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문법 요소의 담화·화용론적 연구는 통사적 기능을 전제로 하거나 문법 요소의 의미 기능을 밝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통사론적 연구와 병행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제3기에서 말뭉치 자료가 우리말 문법 연구에 중요하게 작용한 외적 환경의 변화 중 하나로는 1980년대 말부터 개인용 PC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개인용 PC의 보급으로 인하여 연구자들은 말뭉치 자료를 구축하거나 기존의 말뭉치 자료를 쉽게 가공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문법 연구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어의 교착어적인 특성은 형태소 분석이 전제되어야 그 언어 자료를 문법 연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뭉치 구축과 보급에는 말뭉치 검색 도구가 필수적으로 개발되어야 했다. 제3기에는 말뭉치 구축과 검색 도구의 개발에 관한 국가 주도의 과제가 개발되고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어정보학이라는 국어학의 하위 분야가 정립되었다. 정보학이라는 응용 언어학적 관점은 형태론과 통사론의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실제 언어 자료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인 생성문법 이론에 균열을 가져오기도 했다. 남기탁(2012)에서는 2000년대 통사론 연구의 특성으로 실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계량화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자료를 해석하기 위한 이론의 요구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제3기 확장기의 연구 방법론적인 특징 중 하나는 대조언어학적 연구가 증가했다는 것인데 이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의 정립과 확산 경향에 따라 한국어교육 연구자들, 특히 외국인 연구자가 증가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대조언어학적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인 한국어와 외국어의 병렬 말뭉치가 본격

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것도 대조언어학적 연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대조언어학적 연구 방법론에 의한 한국어 문법 기술은 우리말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모국어 화자뿐 아니라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법 체계를 별도로 기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생성문법의 등장으로 다소 위축되었던 형태론 연구도 제3기에서는 공시적인 형태소 분석에 통시적인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생성 형태론의 단어 형성에 대한 연구도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다양한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공형태’의 설정 여부 및 분석 방식에 관한 논의가 개진되었는데 이는 형태소 분석의 공시성과 조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말뭉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형태론 연구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구본관 2020) 이전의 형태론 연구가 공시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는데 이 시기에는 하나의 형태를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이르는 통시적인 변화 양상을 관찰하는 연구도 등장하였다.

제4기 안정기는 전통적인 구조주의 언어학적 방법론, 생성문법적인 연구 방법론, 제3기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자료 기반 연구 방법론과 대조언어학, 언어 유형론적인 연구 방법론 등 다양한 연구 방법론들이 공존하는 시기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통시적, 공시적 말뭉치, 신문말뭉치, 균형말뭉치, 병렬말뭉치, 학습자말뭉치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말뭉치를 구축, 공개하여 우리말 형태론과 통사론 연구에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들을 공급하였다.

1999년 국립국어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한 후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신어를 조사하고 목록화한 자료는 우리말 형태론의 단어 형성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형태론의 신어 관련 연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형태론의 단어 형성에 대한 연구에서 언어 사용자의 단어 생성 능력과 단어의 실재성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 방법론이나 실험적인 방법론을 도입한 실험형태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실험형태론은 전통적 형태론이 제공한 이론적 틀 위에, 실제 언어 사용자들의 단어 생성·판단 과정을 실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론과 실제 간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초기의 한국어 통사론 연구가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가 구별되고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등의 국어학의 하위 영역 구분이 뚜렷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의 국어 통사론 연구는 이 영역 구분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학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문법 요소에 대한 연구에서 형태론과 통사론, 통사론과 의미론의 접점은 당연시된 경향이 있지만 음성학과 통사론, 통사론과 화행 이론, 통사론과 담화론 등의 만남은 극히 드물었는데 최

근에는 이러한 경계가 무너지고 국어학 내에서의 영역 간 학제적 연구가 증가했다.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의 경계도 희미해졌는데 공시적 목적으로 통시적 분석을 활용하는 연구가 늘었으며 이러한 연구 경향은 문법화라는 지점에서 더욱 활발해졌다.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통사적 연구에 담화·화용적인 관점이 도입되면서 맥락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문법 요소의 기능을 어디까지 한정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되었다. 어미나 조사와 같은 문법 형태소의 의미는 맥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법 형태소의 기본적인 의미와 맥락 의미를 구분하는 일이 더욱더 어려워지면서 문법 요소의 의미 기능에 대한 논의에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졌다. 최근에 구어 자료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구어 문법을 기술하는 문제에서도 통사론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구어 문법을 기술할 때 문어 문법의 방법론이 일부 활용되면서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적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3.3. 연구 대상의 문제

광복 이전의 주시경과 최현배의 전통문법에서 형태론과 통사론은 명시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주로 품사 분류 위주로 기술되어 왔다. 허웅(1963)에 의하면 문법론의 연구 대상을 분명하게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단어 이하의 언어 형식으로 이루어진 형태론적 구성과 단어나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통사론적 구성을 구분하여, 형태론적 구성을 연구하는 형태론과 통사론적 구성을 연구하는 통사론으로 나누었다.

광복 직후 1950년대는 국어학 연구에서 국어사나 국어학사 분야의 연구가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연구가 편중된 면이 있고(이홍식 2012) 본격적인 우리말 문법 연구가 시작된 것은 제1기의 후반에 이르러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이 수용된 후였다. 광복 이전의 연구에서 우리말 문법은 주로 품사론을 위주로 연구되었는데 광복 이후에도 연구의 대상이 품사론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많았다. 제1기 발아기에서는 품사론과 함께 국어의 형태소 분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제2기 변혁기에는 형태론은 조사나 어미에 대한 연구, 조어법, 품사론에 대한 논의가 고르게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통사론은 부정법이나 시제, 격과 문장 구조 등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졌으며 의존명사나 조사에 대한 연구, 문장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깊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초까지 형태론 분야는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공시적 연구들이 양적으로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장윤희 2010) 제3기인 1980년대 중반에

들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현대국어에 대한 공시적인 형태론 연구는 1990년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제3기에 이르러 형태론 논의에서는 형태소 분석이나 품사론에 대한 연구보다 조어법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국어가 굴절어가 아니기 때문에 굴절론은 형태론의 주요 주제가 되기 어렵고 품사론 역시 순수하게 형태론의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구본관 2020) 조어론이 우리말 형태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생성 형태론이 도입된 제3기에 와서 조어법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제3기에서는 단어의 구조를 연구할 때 분석의 관점에서 형성의 관점으로 무게추가 이동하게 된다. 제3기의 통사론에서는 접속어미 등 어미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아졌으며 이는 제2기에 수용된 생성문법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생성문법 이론에서 보면 국어의 어미를 문장의 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론적인 경향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개별 어미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제4기에는 제3기에 이어 말뭉치 자료에 기반한 연구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말뭉치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통사적 구성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서 특정 구문이나 구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정 구성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교육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한국어교육학 분야에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어미, 조사 등 문법 형태소뿐 아니라 소위 문형(pattern)이라는 이론적으로 불분명한 단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순수 국어학 이론 연구 분야에서도 우연적 구성이 연구 대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연구 대상으로 양태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이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이 우리말 문법 연구에 적용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말뭉치 자료를 정보학적으로 계량한 양적 연구도 늘어났는데 그동안 연역적 논의에서 가설로 존재했던 것을 검증하거나 특정한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계량적인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연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제4기에서도 제3기에 이어 형태론 분야에서는 단어의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보다는 단어의 형성을 다루는 연구가 다수를 이룬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신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신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사전에 등재된 기존 단어를 중심으로 규칙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신어 목록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화자들이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는 단어들, 즉 '임시어(nonce word)'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화자의 공시적 단어 형성 양상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단어 형성 양상의 생산성(productivity)이나 조어 방식의 변화

등을 실증적으로 탐구하는 연구가 활발해졌다. 나아가 신어라는 대상이 일시적 유행이나 개인적 창조물이 아니라 언어 공동체 및 사회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신어 형성에 대한 연구는 심리언어학, 사회언어학, 말뭉치 기반 연구 등과의 학제적 연계를 통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에는 연구 분야나 관점뿐 아니라 연구 대상도 복합적인 경향을 보인다. 통사론에서 접속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이 개별 접속어미에 의미 기능에 집중되었었다면 최근에는 접속문의 시제 현상을 다루는 등 하나의 연구 대상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연구 대상을 복합적으로 연구하는 논의들이 늘어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우리말 문법 연구의 결과가 축적되어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연구 대상으로 양태를 들 수 있다. 양태는 양태 표지가 여러 층위에 존재하고 표지 간의 대립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문법 범주가 아니라 의미 범주로 간주되었었는데 최근 어미 등의 문법 형태소뿐 아니라 우연적 구성을 고려한 대립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늘어나면서 문법 범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그러나 양태의 개념이나 범위 등에서 아직 학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양태는 이론 국어학 분야뿐 아니라 국어교육이나 한국어교육 등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연구 대상이기도 하다.

3.4. 연구의 주체

연구의 주체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우리말 문법 연구자가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인지에 따라 국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말 문법을 연구하는 목적도 다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에 대한 관점과 문법 연구의 목표에 따라 연구 방법론이 바뀌게 되고 문법의 체계나 세부 기술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말 문법 연구의 주체는 초기 서양인 연구자에서 일본인을 거쳐 점차 우리 민족으로 변화해 왔다. 개화기를 전후하여 리델(Ridel 1881), 언더우드(Underwood 1890) 등 서양 선교사들은 선교의 목적으로 한국어를 연구하였으며 이들의 연구는 한국과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개화기를 전후하여 서양인에 의한 우리말 문법 연구나 일본인에 의한 우리말 문법 연구는 대체로 서구의 전통문법의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는 계기로 작용했다. 서양인들에 의한 우리말 문법 연구는 유길준, 김규식, 김희상 등의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구본관 2020) 광복 이전에는 주시경(1910, 1914), 최현배(1937) 등 한국인에 의한 연구들이 본격화되었고 일본인 연구자들의 한국어 연구도 이루어졌다.

연구의 주체가 되는 연구자들의 특성도 광복 이후 변화를 겪었는데 연구 주체의 변화에 따라 우리말 문법 연구도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제1기 발아기의 연구 주체는 주로 국어학을 연구하는 국내 한국인들이었고 광복 이후 연구 주체의 변화가 감지되는 시기는 제2기 변혁기에 이르러서이다. 1960년대 중반 통사론 중심의 언어 이론인 변형생성문법이 들어와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통사론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해외 유학파들이 국어 자료를 이론에 적용한 학위 논문을 발표한 것이 국내 통사론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국내 국어학 관련 학술지에도 영어학이나 이론 언어학 전공자들의 논문이 다수 게재됨으로써 이론에 기반한 통사론 연구는 전통문법 연구와 함께 학계를 이끌어 왔다. 제2기에는 영어학, 불어학, 독어학 등 다양한 언어학 연구자들이 국어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국어학 연구자들과 함께 학회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이론들을 수용하여 이를 국어 문법의 연구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제2기의 변형생성문법의 도입과 수용은 연구 주체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기 확장기는 1980년대 초반에 대학의 양적 확대가 문법 연구자의 확대로 이어진 시기였다. 이때는 국가적으로 경제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였으므로 고등교육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문법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대학의 확대는 연구자의 양적 증가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이중언어학회(1981), 우리말글학회(1982), 한국현대언어학회(1983), 한국알타이학회(1985), 한국어학회(1985), 국제한국어교육학회(1985), 우리어문학회(1985), 국제어문학회(1986), 한국어전산학회(1988), 구결학회(1988), 현대문법학회(1989), 한국사회언어학회(1990), 국어교육학회(1991), 한국텍스트언어학회(1991), 배달말교육학회(1983), 대한언어학회(1994), 한국어의미학회(1997), 한국화법학회(1998) 등 다수의 학회가 이 시기에 창립되었다.(남기탁 2012) 이때 신설된 학회는 기존에 있었던 국어학 주도 학회나 국어학과 국문학의 종합 학회와 달리 세부 분야에 초점을 맞춘 학회가 많았다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국어학 연구자들의 양적 확대는 세부 전공별로 학회의 창립을 가능하게 했으며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증가로 우리말 문법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제4기 안정기에는 우리말 문법 연구의 주체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제2기인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영어학 연구자 등 외국어학 연구자들이 우리말 문법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는데 1970년대 이후 해외에서 언어학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국내 국어학 연구자들과 학문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국어 통사론이 국어학의 주요 분야로 정립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발행된 우리말 문법 연

구의 주요 학회지의 논문 저자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국어학 연구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토종 연구자들이 자생력을 보여 주는 동시에 어쩌면 폐쇄성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해외 연구자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다른 언어권의 연구자들과도 학문적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하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한국어학을 전공한 외국인 연구자들의 증가이다. 이는 한국어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와도 관련이 있는데 외국인 연구자들은 한국인 연구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한국어의 현상들에 대한 연구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최근 연구의 질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에서 우리말 문법 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4. 우리말 문법 연구의 과제

3장에서 연구의 배경이 되는 이론과 연구 방법론, 자료의 문제, 연구 대상과 주체의 관점에서 광복 이후에 우리말 문법 연구가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이 장에서는 2장과 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우리말 문법 연구의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문법 연구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언어 이론의 문제를 중심으로 보면 제1기의 구조주의 이론에 이어 제2기의 생성문법,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서구의 여러 이론들이 도입되어 국어의 문법적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 기여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두 가지 이론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론들이 다양하게 연구에 활용되는 추세이다. 제3기에 언어 자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제4기에 와서는 특정한 이론 없이 대량의 말뭉치에 나타난 언어 현상의 기술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등장하였다. 언어 자료의 객관성은 이미 검증되었으나 자료 구축의 문제도 있고 자료 분석에 대한 귀납적 연구는 결국 연역적인 연구로 수렴될 필요가 있으므로 자료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론의 중요성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말 문법 연구에서 이론과 자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말은 형태론적으로 교착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태론의 비중이 높고 형태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사론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19세기 말 근대 국어학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형태론적인 연구가 선행되었다. 유길준, 주시경, 최현배 등의 연구에서 전체적인 문법 체계가 품사론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도 국어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말의 형태론과 통사론의 연구는 경계를 짓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국어 문법학사의 기술을 보면 형태론과 통사론 연구사에서 언급되는 연구들이 중복되어 기술되기도

한다. 특히 조사와 어미는 형태론과 통사론 모두에서 주요한 연구 대상이 되어 왔는데 특히 통사론적 연구는 형태론적인 논의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기술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국어 문법의 특징은 동일한 용어를 형태론과 통사론에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여 혼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형태론과 통사론 분야를 하나의 단행본에서 기술하는 국어 문법서들에서 형태론적인 기술과 통사론적인 기술의 불일치한 부분이 보이기도 한다.

광복 이전의 우리말 문법 연구의 대표적인 업적이 최현배(1937)라면 광복 이후에 형태론과 통사론 연구는 허용(1995/2000)과 허용(1999)을 들 수 있다. 허용 문법에 대하여 살펴본 윤평현(2011)에서는 하나의 언어 사실이 형태론과 통사론 두 분야에 걸칠 때 두 가닥을 아울러 한 체계 안에서 기술할 수 있을지, 하나의 일관된 원리로 두 분야의 문법 기술을 통일성 있게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허용 교수가 이러한 물음 속에서 언어 현상들을 고찰하였지만 뚜렷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은 허용(1995/2000)과 허용(1999)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였다.⁵⁾

문법 연구에서 전제 중 기본적인 것은 문법 단위의 문제이다. 형태소나 단어, 구, 절, 문장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외연을 한정하는 것이 문법 기술의 출발인데 형태론과 통사론의 연구에서 이러한 문법 단위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말 연구사에서 생성문법이 수용된 제2기 변혁기에 형태론 연구에 위기가 있었던 것은 생성문법에서 통사론에 절대적인 비중을 둔 것에도 기인하지만 국어의 교착어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구 문법의 단어의 개념을 그대로 국어 연구에 적용했던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어의 조사와 어미는 음운론적으로 의존적인 요소이어서 단어로 볼 수 없지만 그 기능이 구나 절, 혹은 문장 단위를 넘어서는 작용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어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소의 자립 형식(minimal free form)이라는 구조주의 문법관에서의 단어의 정의를 국어에 적용하면 조사나 어미는 단어가 될 수 없다. 동사와 형용사도 어미와 결합하지 않고는 문장에 나타날 수 없는 의존 형식이므로 이러한 단어의 정의를 적용하면 단어가 아니다. 우리말 문법 연구사에서 단어의 정의에 대한 반성은 제3기에서 시작되어 제4기에 오면서 단어의 개념을 해체하기에 이르렀다. 형태론에서는 구(phrase)의 개념을 합성어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구성은 구로 보고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구성은 단어, 즉 합성어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통사론에서는 구와 단어가 나타나는 자리가 같고 문장에서 하나의 단어가

5) 허용 문법의 형태론은 구조주의 언어학을 근거에 두고 있고, 통사론은 구조주의와 초기 생성문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허용의 형태론과 통사론이 이질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성 요소로 쓰일 때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어와 구를 구분하기 어렵다. 최근 형태론 분야의 신어 연구에서 구와 합성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신어의 경우 구와 합성어를 경계 짓는 것이 불가능하고 완전하게 합성어가 된 것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문법 연구에서 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법 단위의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태론과 통사론의 경계에 대한 논의는 명확하게 영역을 나누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형태론과 통사론의 겹침을 인정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형태론과 통사론의 경계뿐 아니라 최근 통사론 연구는 담화론이나 정보구조 이론의 연구와도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향도 국어의 교착어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우리말의 문법 범주는 조사와 어미 등에 의하여 형태적으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지만 조사나 어미의 기능은 통사론 층위에 한정되지 않고 문장 범위를 넘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을 완전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문장 이상의 단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향후 우리말 문법 연구에서 형태론과 통사론, 통사론과 담화론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탈경계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하위 분야 간의 경계를 전제로 하여 깊이 있는 문법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국어의 정체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 영역을 분리하기보다 영역 간의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형태론과 통사론의 쟁점들을 풀어나가게 됨으로써 좀더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복 이전의 연구자들이 국어라는 대상 전체에 대하여 연구를 했었는데 광복 이후에는 문법 연구가 세부 분야가 나누어지고 개별 분야의 연구가 깊이를 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다른 의미의 통합적 연구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20세기 현대 언어학이 성립되면서 공시와 통시의 구별이 천명되었지만 최근에는 공시적으로 풀리지 않는 쟁점이나 설명이 어려운 현상들에 대하여 통시적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그 간극을 메꾸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공시와 통시의 구별을 전제로 하면서도 공시적인 문법 기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제4기의 우리말 문법 연구는 한국어교육이나 국어교육과 같은 언어교육이나 사전 편찬, 그리고 최근의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과학에 이르기까지 응용적인 분야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특히 한국어교육 연구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학문적으로 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면서 언어교육에서 기능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결과가 이론적인 문법 연구에도 반영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는 음성 인식이나 담화 분석 등의 실제적인 언어 자료에 대한 요구가 분명하기 때문에 언어학 연구의 방향성이 추상적인 언어 이론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언어 자료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법은 추상적인 언어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지만 음성학이나 담화론,

정보구조 이론과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과 언어의 문제를 다루는 인지 언어학적 연구, 언어 교육 연구, 계량 언어학 내지 전산 언어학적 연구, 인공지능 어휘부 관련 연구 같은 분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세계적인 흐름인 응용 언어학에도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한 구본관(2020)의 지적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대형 언어 자료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주도의 말뭉치 구축을 비롯하여 국어학 분야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되는 언어 자료들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문법 연구가 기여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하여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이때, 우리말 문법 연구가 인공지능의 언어 인식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우리말 문법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여러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광복 이후 80년 동안 축적된 우리말 문법 연구 성과는 양적, 질적으로 상당한데 이는 신진 연구자들이 새로 진입하여 연구하는 데에 어려운 점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이중주어구문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우리말 연구의 핵심 쟁점인데 선행 연구만 해도 수백 편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기가 쉽지 않다. 인문학 연구에서도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선행 연구를 정리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등의 시도가 많이 있는데 표절 등 연구 윤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필요하다.

과거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 보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근대 국어학이 싹텄던 초기에 외국인 선교사 등 외국인 연구자들의 역할이 있었고 광복 이후에 서구의 언어학 이론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외국어학 연구자들이 한국어 문법 연구에 일정한 기여를 해 온 바 있다. 제3기 확장기에 국어학의 세부 전공들이 정립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서 영어학 등 외국어학 연구자들의 국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지만 국어학 연구자들과 분리되는 경향이 있어 최근 우리말 문법 연구는 이전처럼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 간의 소통이 많지 않은 경향이 있다. 윤종열(2015)에서는 국어는 언어 이론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언어이나 그 유명도에 비해 국어의 제반 현상이나 자료를 중심으로 제시된 언어 이론, 규칙, 원리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어학과 영어학을 비롯한 외국어 언어학의 통섭적 교류가 더욱 절실하다고 하였다. 국내외의 외국인 연구자, 혹은 외국어학 연구자들과의 교류와 함께 우리말 문법 연구의 주요 업적을 번역하는 작업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근대 국어학 초기의 외국인 연구자들이 주로 선교사 중심이었다면 제4기의 외국인 한국어 연구자들은 전문적인 학자 집단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들은 제3기부터 제4기에 오면서 비약적인 양적인 증가를 보였는데 주로 한국어교육 전공자들이고 자신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대조하는 대조언어학적인 연구가 대종을 이룬다. 외국인 한국어 연구자들은 우리말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고 한국어교육이나 대조언어학에서 나아가 우리말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한국어 연구자들의 양적인 증가에 비하여 우리말 문법 연구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미미한 편이다. 국내에서 국어학이나 한국어교육학 학위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연구자들과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말 문법 연구의 과제로 남한과 북한의 문법 연구의 문제를 들고자 한다. 광복 이후 남한과 북한은 분단되어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문법 연구를 진행해 온 지 80여 년이 지났다. 남한의 경우에는 서구의 문법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현재에 이르렀다면 북한은 나름대로의 자생적인 문법인 토문법을 표방해 왔다. 남한과 북한의 문법 기술에서 남한은 최현배의 절충적 문법 체계를, 북한은 정열모의 종합적 문법 체계를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남한의 경우는 최근 주시경의 분석적 체계와 상통하는 문법 기술을 하는 경향도 있어 북한에 비하여 다양한 관점의 문법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광복 80주년이면서 동시에 분단 80년인 시점에서, 우리말 문법 연구는 남한의 문법 연구와 북한의 문법 연구의 접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말 문법 연구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문법 연구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송기중(1999)에서 언급하였듯이 근대적 의미의 국어학은 민족적 각성에서 출발하였고 연구자들은 민족적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950년대 초반까지는 일반인들도 국어학을 민족의 정체성(identity)를 확인, 혹은 탐구, 혹은 유지하는 애국·애족적 학문이라는 관념을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광복 이후의 문법 연구는 민족주의적인 관념이 희석되고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과 절차를 갖춘 학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의 문법 연구자들은 상아탑 속에 갇혀 이론을 위한 이론을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문법 연구가 고도의 추상적인 학술적인 활동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와 괴리되어 연구자들만을 위한 결과에 집착

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광복 이후 80년을 4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연구의 이론적인 면과 연구 방법론과 자료의 문제, 연구의 대상, 연구 주체인 연구자에 초점을 맞추어 각 시대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광복 이후 40년간인 제1기와 제2기에는 주로 이론의 문제가 부각되어 형태론과 통사론 연구를 이끌었으며 제3기, 제4기의 40년간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대학의 유관 학과와 학회들을 중심으로 우리말 문법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도약하는 학문적인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말 문법 연구의 방향성을 고민해 보아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한 연구 환경의 악화와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우리말 문법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 논리로만 본다면 우리말 문법 연구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인문학의 위기를 논한 지가 10년 이상이 지났고 이제는 위기를 지나 고사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역사는 미래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지난 8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말 연구의 방향성을 전망하는 것은 광복 이전의 우리말을 연구하는 선학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말과 우리 민족의 앞날을 밝히는 바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신항. 1979/1988. 『國語學史』. 보성문화사.
- 고영근. 1979. 「주시경의 문법이론」, 한국학보 5-4. 일지사. 126~144쪽.
- 고영근. 1990. 「텍스트 이론과 국어통사론 연구의 방향」, 배달말 15. 배달말학회. 1~33쪽.
- 고영근. 1995. 『최현배의 학문과 사상』. 집문당.
- 고영근. 2001. 『한국의 언어 연구』. 역락.
- 고재설. 2007. 「한자어 형태론 연구의 현황과 과제-노명희, 2005. 를 중심으로-」, 형태론 9-1. 형태론 편집위원회. 205~218쪽.
- 구본관. 1992. 「생성문법과 국어 조어법 연구 방법론」, 주시경학보 9. 주시경연구소. 50~77쪽.
- 구본관. 1996/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 구본관. 2002. 「형태론의 연구사」, 한국어학 16. 한국어학회. 1~48쪽.
- 구본관. 2020. 「국어학회 60년과 한국어 형태론」, 국어학 93. 국어학회. 391~426쪽.
- 권인한. 2010. 『『국어학』 50년-총론적 고찰』, 국어학 57. 국어학회. 251~291쪽.
- 권재일. 1992. 「'우리말 말본 연구' 분야에 대하여」, 한글 216. 한글학회. 67~88쪽.
- 권재일. 2000. 「외솔의 「우리 말본」과 말본 연구의 방향」, 겨레어문학 25. 겨레어문학회. 1-16.

- 권재일. 2004. 「국어사 연구 방법과 외래 이론 수용」, 국어학 43. 국어학회. 385~405쪽.
- 권재일. 2004. 「눈뵈 허웅 선생의 학문 세계」, 2004년 한국언어학회 겨울학술대회 발표집. 한국언어학회. 1~13쪽.
- 김기혁. 1992. 「국어 통사론 연구사」, 『국어국문학 40년』. 국어국문학회. 433~471쪽.
- 김민국. 2023. 「통사론 연구에서의 의미론의 역할」, 한말연구 64-43. 한말연구학회. 1~19쪽.
- 김민수. 1961. 「늦씨와 morpheme - 주시경 및 Bloomfield의 문법적 최소단위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4. 국어국문학회. 44~51쪽
- 김민수. 1980. 『新國語學史』. 일조각.
- 김민수·하동호·고영근. 1977~1986. 『歷代韓國文法大系』. 탑출판사.
- 김석득. 1983/2009. 『우리말 연구사』. 태학사.
- 김석득. 1996.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이 차지하는 국어학사의 자리」, 나라사랑 92. 외솔회. 121~124쪽.
- 김석득. 2000. 『외솔 최현배의 학문과 사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 김석득. 2005. 「눈뵈 허웅 선생의 학문과 사상」, 나라사랑 110. 외솔회. 25~42쪽.
- 김석득. 2006. 「우리말의 ‘역사연구’와 ‘연구역사’의 한 시각」, 임용기, 홍운표 편. 『국어사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15~44쪽.
- 김영옥. 1989. 「중세국어 원칙법 ‘-니-’와 둘째 설명법 어미 ‘-니라’의 설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공형태 설정과 비문법화-」, 관악어문연구 1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7~36쪽.
- 김영희. 1989. 「이론 수용과 통사론의 전개」, 국어학 19. 국어학회. 241~290쪽.
- 김유범. 2004. 「언어 변화 이론과 국어 문법사 연구」, 국어학 43. 국어학회. 429~460쪽.
- 김윤신. 2014. 「허웅 선생의 형태론 연구의 새로운 해석」, 권재일 편. 『허웅 선생 학문 새롭게 읽기』. 박이정. 33~126쪽.
- 김일웅. 1995. 「‘우리말 말본 연구’ 분야에 대하여」, 한글 230. 한글학회. 39~86쪽.
- 김일환·박종원. 2003. 「국어 명사화 어미의 분포에 대한 계량적 연구」, 국어학 42. 국어학회. 141~175쪽.
- 김주필. 2010. 「『국어학』 50년-음운 연구의 성과와 전망」, 국어학 57. 국어학회. 293~333쪽.
- 김창섭. 1984. 「형용사 파생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답-’, ‘-스럽-’, ‘-롭-’, ‘-하-’와 ‘-적-’의 경우」, 진단학보 58. 진단학회. 145~161쪽.
- 김창섭. 1992. 「국어 형태론 연구의 흐름과 과제」, 『국어국문학 40년』. 국어국문학회. 483~501쪽.
- 김형주. 1982. 『국어학사』. 학문사.
- 남기심. 1987. 「『국어학』의 눈뵈 문법」, 한글 196. 한글학회. 377~384쪽.
- 남기심. 1988. 「국어학의 구미 언어 이론 수용의 역사」, 국어국문학 99. 국어국문학

회. 227~233쪽.

- 남기삼·고영근·유현경·최형용. 2019. 『표준국어문법론(전면개정판)』. 한국문화사.
- 남기탁. 2012. 「국어학 연구 60년의 회고와 전망」, 국어국문학 161. 국어국문학회. 27~62쪽.
- 남길임. 2014. 「‘이론으로서의 말뭉치언어학’에 대한 연구 현황과 쟁점」, 한국어 의미학 46. 한국어 의미학회. 163~187쪽.
- 노명희. 2009. 「한자어 형태론 연구의 몇 문제-고재설(2007) 과 관련하여-」, 형태론 11-1. 형태론 편집위원회. 119~133쪽.
- 리의도. 2024. 「항일 투쟁 시기의 잡지『한글』」, 한글 85-4. 한글학회. 775~816쪽.
- 목정수. 2022. 「유형론과 한국어 연구의 상관 관계-한국어 구문 유형론에서 경계해야 할 것들-」, 국어학 101. 국어학회. 383~437쪽.
- 박동근. 2000. 「국어학: 계량적으로 살펴본 20세기 형태론 연구 경향과 전망」, 겨레어문학 25. 겨레어문학회. 69~88쪽.
- 박영환. 2003. 「한국언어문학 국어학 분야 수록논문분석」, 한국언어문학 51. 한국언어문학회. 1~20쪽.
- 박재연. 2007. 「문법 형식의 의미 기술과 통사론·의미론·화용론」,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181~206쪽.
- 박재연. 2020. 「국어학회 60년과 한국어 의미론」, 국어학 93. 국어학회. 469~508쪽.
- 박종국. 1994. 『국어학사』. 문지사.
- 박진호. 1999. 「형태론의 제자리 찾기」, 형태론 1-2. 형태론 편집위원회. 319~340쪽.
- 박철우. 2018. 「종합적 단어관의 전개 가능성 검토」, 한글 79-2. 한글학회. 327~368쪽.
- 서민정. 2024. 「광복 이전 한글지에 실린 문법 연구에 대한 고찰」, 한글 85-4. 한글학회. 817~847쪽.
- 서정목. 1999. 「국어 연구의 반성」, 서강인문논총 10.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61~113쪽.
- 서정목. 2002. 「국어 연구 -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 人文研究論集 30. 西江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165~262쪽.
- 서정목. 2016. 「국어학 연구의 현재와 미래-문말앞 의미소의 통사론과 국어학의 고유 영역 문헌학을 중심으로-」, 어문학 134. 한국어문학회. 285~344쪽.
- 서태룡. 2000. 「형태론과 국어 연구 / 국어 형태론에 기초한 통사론을 위하여」, 국어학 35. 국어학회. 251~285쪽.
- 서형국. 2013. 『『한국언어문학』 50년의 문법·의미 연구』, 한국언어문학 86. 한국언어문학학회. 27~55쪽.
- 석주연. 1995. 『근대국어 파생형용사의 형태론적 연구』, 국어연구 132.
- 송기중. 1999. 「20세기 국어학의 연구 방법」, 국어학 34. 국어학회. 251~282쪽.
- 송원용. 2002. 「인지형태론의 과제와 전망」, 한국어학 16. 한국어학회. 65~87쪽.
- 송원용. 2002/2005. 『국어 어휘부와 단어 형성』. 태학사.

- 송원용. 2007. 「형태론 연구의 대상과 술어의 이론적 정합성」, 형태론 9-2. 형태론 편집위원회. 293~310쪽.
- 송원용. 2010. 「형태론 연구의 쟁점과 전망-유추론자와 규칙론자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48. 한국어학회. 1~44쪽.
- 송철의. 1977. 「파생어형성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38.
- 송철의. 1983. 「파생어 형성과 통시성의 문제」, 국어학 12. 국어학회. 47~72쪽.
- 송철의. 2000. 「형태론과 국어 연구/형태론과 음운론」, 국어학 35. 국어학회. 287~311쪽.
- 시정근. 1996. 「형태·통사론의 최근 동향 -통사론적 형태론과 형태론적 통사론-」, 한국어학 3. 한국어학회. 277~297쪽.
- 시정근. 2000. 「공형태소를 다시 생각함」, 한국어학 12. 한국어학회. 147~165쪽.
- 시정근. 2002. 「현대형태론의 과제와 전망」, 한국어학 16. 한국어학회. 89~104쪽.
- 시정근. 2006. 「10년 후 국어 연구의 지형도」, 『응용언어학의 탐구』. 월인.
- 신지영. 2014. 「구어 연구와 운율: 소리를 담은 의미·통사론. 의미를 담은 음성학·음운론 연구를 위한 제언」, 한국어 의미학 44. 한국어의미학회. 119~139쪽.
- 양동휘. 1984. 「한국어 통사론 연구의 새로운 전망」, 한글 183. 한글학회. 141~188쪽.
- 연재훈. 2013. 「허용(1995/2000),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서울: 샘문화사, 1530면」, 형태론 15-2. 형태론 편집위원회. 266~283쪽.
- 오규환·김민국·정한데로. 2014. 「한국어 형태론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서- 최형용(2013)을 중심으로 -」, 형태론 16-2. 형태론 편집위원회. 241~281쪽.
- 유창균. 1991. 『국어학사』. 형설출판사.
- 이상섭. 1989. 「날말 빈도를 추정하기 위한 말뭉치 자료 수집의 실제」, 인문과학 61.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67~74쪽.
- 이재섭. 2023. 「현대 국어학 개론서의 동향과 추이 연구」, 국어학 108. 국어학회. 335~361쪽.
- 이정민. 1990. 「주제별로 훑어 본 서울대 언어학 40년-통사론. 의미론 및 음운론의 공시적 연구-」, 인문논총 2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85~90쪽.
- 이정훈. 2015. 「어미의 통사론, 그 반성과 모색」, 우리말연구 41. 우리말학회. 5~30쪽.
- 이지영. 2020. 「국어학회 60년과 한국어 문법사」, 국어학 93. 국어학회. 509~556쪽.
- 이흥식. 2012. 「『국어국문학』 60년 - 국어학」, 국어국문학 160. 국어국문학회. 105~139쪽.
- 이흥식·이은경. 2023. 「통사론에 대한 표현론적 접근에 대하여」, 국어학 108. 국어학회. 3~43쪽.
- 이희자. 1996. 『어미 및 어미형태류의 하위 범주 문제-어미·조사의 한국어 사전 편찬 연구 I -』, 국어학 28. 국어학회. 335~393쪽.
- 임동훈. 1995. 「통사론과 통사 단위」, 어학 연구 31-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87~138쪽.
- 임동훈. 2010. 『국어학』 50년-통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 국어학 57. 국어학회. 373~420쪽.
- 임동훈. 2012. 「'은/는'과 종횡의 의미 관계」, 국어학 64. 국어학회. 217~271쪽.
- 임용기. 2008. 「눈뫼 허 응 선생의 국어학 연구」, 한글 281. 한글학회. 73~119쪽.
- 임흥빈. 1982. 「기술보다는 설명을 중시하는 형태론의 기능정립을 위하여」, 한국학보 8-1. 일지사. 168~192쪽.
- 장윤희. 1999. 「공형태 분석의 타당성 검토」, 형태론 1-2. 형태론 편집위원회. 227~244쪽.
- 장윤희. 2010. 『국어학』 50년-형태 연구의 성과와 전망』, 국어학 57. 국어학회. 335~372쪽.
- 조용준. 2023. 「한국어 실험 통사론의 전개」, 한말연구 64-34. 한말연구학회. 1~20쪽.
- 주시경. 1910. 『국어문법』, 김민수 편. 1992. 주시경전서 3. 탑출판사.
- 주시경. 1914. 『말의 소리』, 김민수 편. 1992. 주시경전서 3. 탑출판사.
- 채현식. 2000/2003.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태학사.
- 최경봉. 2010. 『국어학』 50년-의미 연구의 성과와 전망』, 국어학 57. 국어학회. 421~468쪽.
- 최규수. 2001. 「통어론과 형태론의 관계에 대하여-한국어 토를 중심으로-」, 언어과학 8-1. 한국언어과학회. 179~197쪽.
- 최명옥. 2007. 「한국어 형태론의 문제점과 그 대안」, 서강인문논총 22.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52쪽.
- 최성호. 2018. 「한국어 조사와 어미 성격 규정:형태론과 통사론 경계 문제와 관련하여」, 한글 79-4. 한글학회. 793~828쪽.
- 최현배. 1937.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최형용. 2007. 「한국어 형태론의 유형론-하스펠마트(2002), Understanding Morphology를 중심으로-」, 형태론 9-2. 375~401쪽.
- 최형용. 2011. 「한국어의 형태론적 현저성에 대하여」, 형태론 13-1. 형태론 편집위원회. 1~28쪽.
- 최형용. 2013. 「어휘부와 형태론」, 국어학 66. 국어학회. 361~413쪽.
- 최형용. 2016. 「形態論. 爭點들에서 길 찾기」, 어문연구(語文研究) 44-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7~88쪽.
- 최형용. 2021. 「한국어 형태론의 쟁점과 그 해결 방안의 모색 - '경계'에서 '전체'로-」, 한말연구 61. 한말연구학회. 389~423쪽.
- 하치근. 2005. 「허 응 선생의 현대 국어 형태론」, 나라사랑 110. 외솔회. 133~174쪽.
- 한영균. 1996. 「국어의 형태 분석 전산기에 의한 형태분석과 사전정보」, 국어학 27. 국어학회. 251~276쪽.
- 한영목. 1999. 「정렬모 문법의 통사론 연구」, 어문연구 31. 어문연구학회. 25~47쪽.

- 한정한. 2016. 「통사론(統辭論)과 학교문법(學校文法) - 언어(言語) 유형론(類型論)의 관점(觀點)을 중심(中心)으로 -」, 어문연구 44-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89~130쪽.
- 허웅. 1963. 『언어학개론』. 샘문화사.
- 허웅. 1966. 「서기 15세기 국어를 대상으로 한 조어법의 서술방법과 몇 가지 문제점」, 동아문화 6.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53쪽.
- 허웅. 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웅. 1995/2000.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허웅. 1999.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문화사.
- 홍종선. 1989. 「국어 형태론 연구의 흐름」, 국어학 19. 국어학회. 353~374쪽.
- 황화상. 2008. 「언어 해석을 위한 형태론 연구」, 사림어문연구 18. 사림어문학회. 317~334쪽.

Bloomfield. L.. 1933. *Language*. New York: Henry Hold and Company.

Hockett. C. F.. 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Macmillan.

Riedel, F.. 1881. *Grammaire Coréene*. Yokohama.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 한국역대 문법대계에 실림.

Underwood, H. G.. 1890., *A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Yokohama.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 한국역대문법대계에 실림.

사전류

『고려대한국어사전』. 201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세한국어사전』. 199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 국립국어원.

제1부/ 주제 발표

한국어 형태소 연구의 성과와 전망

—형태 및 형태소 개념의 전개를 중심으로— / 김양진

사전으로 살펴본 형태론의 몇 주제들

—『조선어사전』, 『큰사전』 등을 중심으로— / 정한데로

한국어 통사현상의 통사이론적 함의: 다중 분열문과 괴팍한 접속의 경우 / 이정훈

우리말 형태론 연구의 성과와 과제 / 구본관

628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광복 80년, 우리말 문법 연구의 성과와 과제
2025년 5월 16일(금) 10:00~15:40 / 한글학회 강당

□ 제1부/ 주제 발표

한국어 형태소 연구의 성과와 전망 —형태 및 형태소 개념의 전개를 중심으로—

김양진

경희대학교 교수
kimrj@khu.ac.kr

†관련 항목

형태소, 형태, 어소, 몰골지, 구성소, 형성소, 등재소

1. 서론

이 글은 1945년 광복 이후, 지난 80여년간의 국어학의 연구 성과 중 형태론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라 할 수 있는 ‘형태소(morphology)’와 ‘형태(morph)’의 기초 개념이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김봉주(1984)에서는 형태론을 “단어(word)의 내적구조를 다루는 분야”로 보고 주로 ‘단어형성, 굴절변화(어형변화), 어파생, 형태소 배열’ 등을 다룬다고 보았고(김봉주 1984 : 2), 박진호(1997)에서도 ‘단어’의 개념을 중심으로, 형태론의 하위 연구 분야를 크게 “조어론(造語論)/단어형성론, 형태음소론/이형태론, 굴절론, 형태소배열론, 어휘부학”의 5가지로 들었는데, 이 가운데 조어론은 통시언

어학에 해당하며 형태음소론은 음운론과의 경계에 있다고 보고, 형태소배열론과 굴절론, 어휘부학이 형태론 고유의 영역이되 특히 이 가운데 어휘부학이 형태론의 중심 내용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80년간의 한국어 형태론 연구의 핵심 영역은 단연 파생과 합성, 중첩 등을 포함하는 조어론 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 이래 지난 30여년간은 신어의 형성이라는 공시적 조어론에 초점이 모아져 왔던 측면이 있다.(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한대로 선생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조어론(造語論) 분야에 대한 형태론 분야의 지대한 관심을 뒤로 하고 형태론 분야에서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잊혀져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형태론이라는 학문의 중심에 자리해 온 ‘형태소론’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본고의 논의는 ‘형태소(morpheme)’와 ‘형태(morph)’의 다양한 형식들 즉 어소, 구성소, 형성소, 등재소, 화합형태 등의 개념이 형태론을 포함하는 문법 연구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2. 형태소 개념의 형성과 낫씨

형태소(形態素, morpheme)란 ‘뜻을 지니는 가장 작은 언어의 단위’이다. 형태론의 기본 단위인 ‘형태소’에 대한 인식은 매우 최근의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발생한 것이다.

기실 한국어의 형태소에 대한 인식은 멀리 차자표기로 한국어의 말음이나 문법 형태를 표기하는 등 형태 표기를 했을 때나 15세기 훈민정음 창제와 함께,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등을 작성할 때 분철 표기에 반영된 형태 인식 등으로까지 거슬러올라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대적 학문의 개념에서 ‘형태소’에 대한 인식을 가장 명확히 드러낸 이는 구한말에 활약한 주시경(1914)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시경 『말의소리』(1914)에서는 우리말의 소리를 홀소리와 닷소리(달소리)로 나누어 실제 소리 나는 양상을 다양하게 소개한 끝에 이 책의 부(附)에서 <훈민정음 어제서문>, <훈몽자회 범례>, <용비어천가 1, 2장>, <월인석보 1장>과 새로 만든 학술용어 씨난들의 ‘임’, ‘엇’, ‘움’, ‘갓’, ‘잇’, ‘긋’의 보기와 ‘씨’, ‘몸씨’, ‘토씨’ 등의 개념을 용례와 함께 소개한 뒤 ‘별잇’이라는 기호의 설명을 “‘^’이.는. 별^잇. 이.니. 꾸.민. 씨.의. 사이.에. 두.어. 낫. 씨.와. 낫. 씨.를. 가르.는. 보이.라. [보기] 해^바라^기”라고 하여 ‘해바라기’를 ‘해^바라^기’와 같이 세 단위로 나누고 이들이 각각 ‘낫씨’에 해당하는 보기라고 하였다.

김민수(1961)에서 ‘늦씨’를 “‘씨’의 기본 요소”로서 ‘형태소’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기 이전까지 김두봉(1916/1922)이나 최현배(1937) 등에서 단어로서의 ‘씨’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주목하였지만 ‘늦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은 ‘늦씨’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후 이때의 ‘늦씨’가 ‘형태소’에 해당하는 개념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기문(1976), 이병근(1979), 김희진(1985) 등에서는 주시경의 늦씨가 ‘해△바라△기’와 같은 의미소들을 분리하는 것을 넘어 ‘으니’의 ‘으’와 ‘느’를 구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김양진(1999)나 양정호(2005) 등에서는 주시경의 ‘늦씨’가 결국 “의미의 최소 단위”서의 ‘형태소’라기보다는 “언어적 최소 단위”인 ‘형태’에 대한 기술로 판단된다고 보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형태소의 단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즉 ‘유의미(meaningful)’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매개모음 ‘으’에 대한 형태소 판단 여부가 갈리는 것이지 주시경의 ‘늦씨’가 형태 혹은 형태소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한편 김희숙(1985)과 양정호(2006)는 주시경이 늦씨로 본 매개모음 ‘으’ 및 서술격조사로부터 기원한 조사의 내부 요소 ‘이’에 대한 분석을 벌임(^)과 우권점(·), 중권점(◦) 등의 모든 분석 표지와 연결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면서도 결론에서는 “‘늦씨’는 형태소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형태소가 아니며, 구문분석에서 가능할 때까지 쪼개어진 형태분석의 종극요소 곧 최소의 문법원소”일 뿐이라는 판단(김희숙, 1985 : 31)과 “늦씨에 대해 접근하고 형태소와의 일치 여부를 논점으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일치와 불일치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양정호, 2006 : 342)으로 상이한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김양진(1999)에서는 늦씨가 형태소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지만 언어적으로 유의미한 ‘형태 단위의 분석’에 이른 것으로 보고 매개모음 ‘으’를 선행 형태의 형태론적 형태 보존의 기능을 가진 기능요소로 보고 이러한 추상적 기능 역시 형태소의 하나로 언급될 수 있음을 암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논증에 이르지 못했다. 양정호(2006)에서는 이런 점에서 주시경이 ‘으로’에서의 매개모음 ‘으’가 별개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이니’의 ‘이’는 늦씨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늦씨’가 “현대 언어학에서의 형태소(形態素, morpheme)보다 형태(形態, morph)와 상당히 정밀한 정도의 일치를 보이게 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주시경 사망(1914) 이후 ‘늦씨’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인 후속 연구로 이어지지 못한 채, 사장되었다. 김두봉(1922)이나 최현배(1934) 등 뒤를 이은 연구에서 ‘늦씨’에 대한 언급이나 변형, 발전된 결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3. 형태소(morpheme)의 정립

‘형태소’라는 학술 용어는 1950년대 중후반, 미국의 구조주의 언어학과 유럽 언어학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소개된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¹⁾ 1950년대 후반까지 ‘형태소(形態素)’라는 용어는 우리 학계에 적극적으로 소개되어 있지 못했다. 『국어학개설』(이희승, 1955, 민중서관)에는 아직 ‘형태론’ 혹은 ‘형태소’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1957년에 완간된 한글학회의 『큰사전』(1947~1957)이나 그 이전의 어떠한 국어사전에도 ‘형태론(形態論)’이나 ‘형태소(形態素)’가 단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형태론’의 경우만 하더라도 아마도 이 당시에는 일본어 번역판 『言語學原論』(Ferdinand de Saussure, *the Principal of General Linguistics*, 1916 ; 小林英夫 譯, 1954, 岩波文庫.)이나 『文法の 原理』(Otto Jespersen, *The Philosophie of Grammar*, 1922 ; 半田一郎 譯, 1958, 岩波文庫.)로부터 ‘morphology’의 번역어로 ‘형태론(形態論)’이 수입된 것으로 보이고 Samuel E. Martin의 *Korean Morphophonemics*(1954)과 국역본 『언어학원론』(Albert Dauzat, 1929, *La Philosophie du langage* ; 이기문 역, 1955, 민중서관.)의 등장으로 ‘형태론’ 및 ‘형태소’의 개념이 우리 학계에 점차 일반적 용어로 자리 잡아 가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무렵까지도 여전히 ‘형태소’의 개념은 잡혀 있지 않았다.²⁾ 김민수(1955, 「문법 연구의 방법」 사상계 1955년 11월호)에서는 ‘morpheme’의 번역어로 일관되게 ‘어소(語素)’를 사용하였다. ‘형태소(形態素)’라는 학술 용어의 등장은 그 후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김민수(1960 : 50)에 와서 “Bloomfield(1933)에 의하여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라는 정의 밑에 morpheme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애초에 morphème란 용어가 J. 방드리예(Vendryes, 1921)에 의해 semanteme 즉 어의소에 상대되는 뜻으로 쓰였던 까닭에 이에 따라 흔히 들 形態素라고 옮긴다.”고 하면서 “(‘morpheme’에 대한) Bloomfield의 정의는

1) 이 형태소라는 용어가 우리 나라에 들어와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로 알려졌으며 그전의 전통 문법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서정수, 1994 : 44)

2) S.E.Martin의 책(1954)을 번역한 전재호·김태한의 번역서(1969)의 서문에는 학술 번역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sape’를 樣態로, ‘form’을 語形으로, ‘morph’를 형태로, ‘morpheme’을 형태소로 번역하여 서로 비슷한 것을 구별해야 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때까지도 ‘morpheme’을 형태소로 번역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음을 말해 준다.

형태소란 역어가 타당하지 않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에 대하여 ‘어소(語素)’란 명칭을 제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라고 김민수(1955)의 주장을 반복하였는데, 같은 논문(김민수, 1960 : 40)의 다른 구절에서는 여전히 “국어는 문법적 직능을 나타내는 요소가 품사의 재료인 단어의 한 조어성분으로 되어 있다. 즉 대부분이 어의소(semanteme)에 첨가된 형태소(morpheme)-토와 어미-로서 행한다.”고 ‘형태소’를 방드리에(1921)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형태소’의 개념이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미완성의 상태였음을 말해 준다.

하지만 어쨌든 이미 이 즈음에는 ‘morpheme’을 ‘형태소’라고 번역하는 일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다. 박창해(1960)은 ‘형태소’가 공공에게 알려진 첫 번째 글인데 경향신문 1960년 10월 9일자 생활/문화면에 실린 <한글學界의 當面課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국어학도 구조주의시대에 들어선 학문연구를 일삼아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 以上에 말한 所謂時制를 構造言語學的 立場에서 살피면, 그 形態素에 對한 機能과 概念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動詞 語尾에서...(습니다, 습디다, 비시다)의 {니}{디}{시}가 놓인 位置는 어떠하여 그 機能과 뜻이 무엇이며 그 앞에 놓인 {니}과 뒤에 놓인 {디}, {까} {오}는 무엇을 말하는가 함을 分析하여 그 構造를 살피고 그 配合法則에 따라 뜻이 어찌 다르냐 함을 찾아야 한다.”고 하여 철저하게 블룸필드식 구조주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형태소를 밝히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심의 결과가 박창해(1963)으로 정리되어 한국어의 형태소론(morphemics) 및 형태소배합론(morphotactics)을 철저한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살피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고 박창해(1963)의 형태소론이 블룸필드의 형태소론을 그대로 따랐던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박창해(1963)에서의 형태소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음운 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다른 형태소와의 대립 관계에 있는 상보적 분포 관계에 있는 것이며 구조적 의미를 가진 것”이다. 즉 형태소를 단순히 의미를 가진 최소의 단위로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한국어의 형태소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가다, 오다’ 등이 문장 발화 상황에 따라서 구조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들을 고려할 때 형태소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형태소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양정호(2004)에 와서 한번 더 강조된 바 있다.

김민수(1964)에 오면 초기의 ‘형태소’ 개념이 방드리에(Vendryes, 1921)의 입장에서처럼 ‘실사’에 대해 ‘형식형태소’에 한정하는 개념과 블룸필드(Bloomfield, 1933)에서처럼 “의미의 최소단위”로 보는 견해가 뒤섞여 있음을 들어 ‘형태소’를 ‘어소(語素)’로 바꿔 부르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미국식 구조주의 문법 즉 기술문

법의 유입과 함께 1960년대의 대부분의 국어 연구자들은 ‘형태소’를 “가장 작은 의미 단위”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었음 인정하게 되었는데 김석득(1962, 1964 ㄱ, 1964ㄴ) 등 일련의 논문들은 모두 블룸필드의 관점에서 ‘형태소(形態素)’ 혹은 ‘이형태(異形態)’에 대해 소개한 것이다. 최현배의 논문에서는 1960년대 초까지도 형태소의 개념이 소개되지 않다가 최현배(1965)에 이르러 전격적으로 블룸필드의 이론 소개와 함께 ‘형태소’와 함께 우리말 대응의 ‘몰골지’를 제시하기도 한다.

- (1) 뿔루움 피일드는... 곧 그것은 내용의 뜻과 겉꼴의 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더 쪼가를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뜻으로 보아서는 semanteme(뜻지, 意義素)라 하고, 그 꼴로 보아서는 morpheme(몰골지, 形態素)이라 한다. 뜻지와 몰골지는 상관개념으로서, 뜻지가 없이는 몰골지가 없고 몰골지가 없이는 뜻지가 성립할 수 없다. [잡이] ‘뜻지’, ‘몰골지’의 ‘지’는 ‘-아지’, ‘가지’, ‘먼지’들의 ‘지’이니, 작은 것, 본민, 가닥과 같은 뜻이 있는 뒷가지로 쓴 것이다.(최현배, 1965 : 19)

‘몰골’이란 ‘形態’를 순우리말로 반영한 것이고 ‘지’는 ‘아지, 가지, 먼지’에서의 ‘지’로 작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였으니 ‘몰골지’는 ‘가장 작은 형태’라는 의미를 담은 학술용어이다. 앞절에서 언급된 ‘늦씨’의 ‘늦’이 ‘일의 근원’을 가리키는 말이고 ‘씨’가 단어를 뜻하는 말이니 ‘늦씨’란 ‘단어의 근원’으로서 “단어를 구성하는 최초의 단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몰골지’보다는 ‘늦씨’가 ‘형태소(morpheme)’에 더 부합하는 우리말 대응어라고 할 수 있다. ‘몰골지’는 이후 어디에도 인용되지 못한 채 소멸하였고 ‘늦씨’는 이기문(1976), 이병근(1978), 김희진(1985) 등의 비판을 거쳐 김덕모(1992), 김양진(1999), 양정호(2006) 등에서 재해석되며 ‘형태소’의 개념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지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4. 형태소 개념의 확장

문제는 이러한 형태소의 설정이 의미의 분절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형태소를 “의미의 최소단위”로 보는 한에 있어서는 형태소의 분절체계는 의미의 최소 분절체계에 부속하는 잉여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언어학에서 의미의 최소 분절 체계가 밝혀진다면 형태소는 거기에 대응될 뿐, 어쩌면 별반 연구의 필요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박창해(1963)은 한국어의 형태소를 크게 분절형태소와 초분절형태소로 나누

고 분절형태소를 다시 연속절 서열의 분절 형태소와 비연속적 서열의 분절 형태소로 나누었다. 훗날의 자립분절형태론의 테마에 해당하는 ‘노랑-’의 형태소를 /nolah-/으로 볼 게 아니라 /n-l-h/ 과 /-o-a-/의 배합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찰은 형태론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주장임에도 훗날의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아마도 /n-l-h/을 기초 색채 의미 담당 형태로, /-o-a-/와 /-u-ə-/를 ‘작은말-큰말’ 관계 의미 추가 형태로 분리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김양진(1999)에서는 /노르-/, /누르-/와 /-알-/, /-영-/을 구별하여 전자를 주변형태, 후자를 핵형태로 보고 전자에서 색채 의미를 담당하고 후자에서 형식 기능(활용에서의 제약)을 담당하는 방식의 배합 형태로 볼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같이 형태소를 의미를 나타내는 최소단위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 최소의미의 실체는 무엇인가, 또 그 의미 분절과 형태소 분절간의 차이는 과연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 뒤따른다. 전자의 문제는 곧바로 단어 설정의 문제와 연결된다. 애로노프(Aronoff, 1976)에서 지적되었듯이 언어의 형태소에는 그 의미를 한정적으로 포착할 수 없는 형태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형태소의 분절 체계로는 의미 분절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낼 수 없다. 그러므로 기존의 논의처럼 형태소를 의미의 최소단위로, 따라서 형태소 분절체계가 의미 분절체계에 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비의미적 언어 형태(공형태소)나 다의미적 언어 형태(화합형태소)에 대한 설명이 어렵게 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논의에서의 “가장 작은 의미 단위”로서의 ‘형태소’와 애로노프(Aronoff, 1976)에서 지적된 비의미적 형태소들을 ‘형태’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형태소’는 “의미 분절에 대한 대응체”인 데 대하여 ‘형태’는 의미와 상관없이 “언어의 형식 체계를 분절하고 있는 최소 단위”를 포괄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들이 모여서 일정한 의미 단위와 결합하거나 여러 형태들이 하나의 의미 단위와 결합하게 될 때, 그것들의 추상적 대표형만을 ‘형태소(morpheme)’라고 할 수 있다.(김양진 1999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라면 이른 바 ‘사이시옷’과 ‘사이소리’의 사례들도 형태소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이 표기에 반영되건 반영되지 않건 ‘사이시옷’ 혹은 ‘사이소리’의 문법적 기능을 인정하려는 입장(임흥빈 1981, 최호철, 김양진 등)과 ‘사이시옷/사잇소리’의 문법적 기능 혹은 의미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최형용 등)이 대립되어 있다.³⁾

3) 이 맥락에서 매개모음 ‘-으-’의 문법적 기능이 하나의 언어적 형식 절차로 인정된다면 앞서 논의해 온 ‘늑씨’와 ‘형태소’의 상관성에 대한 논쟁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

형태소에 대한 생성문법적 비판의식은 점차 논의를 달리하여 생성문법과 대립각을 세운 인지문법 연구자들이나 유형론적 관점의 언어연구자들에 의해 새로운 개념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형태소’가 구조주의적 개념에서 ‘구성소’에 가깝다면, 단어 형성, 혹은 문장 형성의 관점에서 볼때 ‘형성소’라는 개념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셸커크(1981)에서 비롯하여 고영근(1992)에서 구체화하였다. 고영근(1992)에서는 주로 고유어 접미사를 대상으로 형성소와 구성소를 나누는 것이고 고영근(2015)에 이르러서는 한자어를 대상으로 형성소와 구성소를 나누고자 한 것이다. 최명옥(2007)은 형태소의 개념을 공시 형태소와 통시 형태소나 나누어 설명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 논문에서의 공시 형태소는 고영근(1992)에서의 구성소에 가깝고 통시 형태소는 형성소에 개념에 가깝다.

한편 형태소에 대한 전통적 견해와 생성문법적 견해를 모두 비판적으로 보는 유추론 기반의 형태론 연구자들은, ‘형태소’가 인지적 관점에서 국어 화자의 어휘부 어딘가에 저장되는 방식에 따라 ‘등재소(listeme)’와 같은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채현식(2001)의 주장에 따라 형태소를 등재소의 일부로 처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한국어의 문법형태소를 교착소라는 개념으로 다루어서 국어의 형태소를 어휘소-교착소의 대립체계로 설명하려고 한 임홍빈(2001)의 주장 등은 국어 형태소 개념을 한층 발전시킨 논의라고 할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방드리예(1921)의 어휘소-형태소(문법형태소) 개념으로 회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5. 형태소 설정 기준의 확립

형태소의 설정은 설정 기준의 확립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국어에 미국식 기술문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박창해(1964)에서는 철저한 구조주의적 개념에서 최소쌍과 상보적 분포에 따라 국어의 형태소를 설정하였다. 최소쌍은 의미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상보적 분포는 구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어의 형태소는 크게 분절형태소와 언침형태소(초분절형태소)로 나뉜다. 그는 분절형태소에는 다시 연속적 형태소와 비연속적 형태소가 있음을 지적하고 어간과 접사, 자유형과 종속형의 구분이 뒤따른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소의 기준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후속 논의에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석득 1964ㄱ, 김석득1964ㄴ, 김민수 1982, 김봉주 1984 등 참조).

다.

고영근(1978)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문제를 제기한다. 고영근(1978)에서는 허웅(1965)에서 제시된 안맺음씨끝(불구 어미) ‘-ㄱ’, ‘-디’의 앞에 개재하는 ‘-오/우-’를 개별형태소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조주의에서의 일반적인 형태소의 분석 기준인 ①구조적 양상의 공통성(분포면의 기준) ②의미상의 특수성(의미면의 기준)에 생성문법론자인 애로노프(Aronoff, 1976)의 견해를 받아들여 새로운 형태소 분석 기준 ③음운론적 현현방식(顯現方式)의 특수성(음운면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널리 알려진 것처럼 애로노프(Aronoff, 1976)에서는 최소의 의미적 단위를 단어(word)로 보고 형태소는 -mit과 같이 의미를 알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단어 이하의 단위로 보고 있다. 이들이 공통된 의미를 갖지 않음에도 동일한 형태소로 묶일 수 있는 것은 ‘-mit ∞ -miss’와 같은 교체에서 공통된 변화를 겪는다는 형태음운론적 특성에 의해서이다. 고영근(1978)은 이를 음운론적 기준으로 해석하였다.)

고영근(1978)은 이러한 이 기준을 통해 (2), (3)과 같이 중기국어 예를 분석하고 있다.

- (2) (가) ㄱ. ㅎ려니 ㄴ. ㅎ거니
- (나) ㄱ. ㅎ려니와 ㄴ. ㅎ거니와
- (다) ㄱ. ㅎ련마는 ㄴ. ㅎ건마는

- (3) (가) ㅎ여서, ㅎ여다가
- (나) ㅎ여도, ㅎ여야
- (다) ㅎ였다

중기 국어에서 ‘거’는 계사 ‘이’나 선어말어미 ‘리’와 결합할 때 ‘ㄱ’이 탈락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리’와 결합할 때는 ‘ㄱ’의 탈락과 더불어 ‘려’로 축약을 일으킨다. (2가)의 예들은 그와 같은 ‘거’의 탈락에 의한 ‘려니/려니와/련마는’의 예로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음운론적 환경에 따른 이형태 관계에 있다. 그런데 (2)에서 ‘거니/어니, 거니와/어니와, 건마는/언마는’에서 앞에는 ‘거/어’를 분리할 경우, ‘-니와, -ㄴ마는’의 개별적 의미나 ‘-어-’, ‘-거-’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별개의 형태소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ㅎ거시니/ㅎ거시면’등에서 ‘-거-’의 형태론적 동형성이 보장되고 ‘리’ 뒤에서의 ‘거’의 변화가 동일하게 ‘니/니와/ㄴ마는’의 앞에서 나타나므로 ‘-거-’를 음운적 형식의 동형성에 의해 하나의 형태소로 구별해 낼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연히 분포적 대립에 의해 ‘-니, -니와, ㄴ마는’도 개별 형태소로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3)에서의 ‘-여서, -여다가, -여도, -여야, -였-’등도 ‘-여-’와 ‘-서, -다가, -도, -야, -ㅁ-’을 분리하였을 때, 고유한 개별 의미가 보존되지 못하므로, 기존의 분포와 의미를 기준으로 형태 분석을 하였을 때의 기준으로는 이들을 분리할 수 없다. 하지만 고영근(1978)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어간 ‘ㅎ’의 뒤에서 ‘어’가 ‘여’로 바뀌는 불규칙적 변화를 동일하게 겪으므로 ‘-여서, -여다가, -여도, -여야, -였-’등의 ‘여’는 다른 일반적 서술어의 뒤에서 출현하는 연결어미 ‘어’와 동일한 형태소로 인식가능하다. 그러므로 음운론적 현현방식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3)의 예들도 분석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음운론적 현현방식의 특수성은 사실 애로노프(Aronoff, 1976)에서의 무의미 형태의 분석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그런데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음운론적 현현방식의 특수성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즉 이러한 견해는 의미적 상사성과는 직접적인 상관없이 음운 형식의 동형성에 근거해서 형태소를 설정하려는 태도로 인식되는데 이러한 음운 형식의 동형성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중기국어의 예를 형태 분석하지 못한다.

- (4) (가) 놀랴 ; 놀- + -시- + -아
 (가') 놀려 ; 놀- + -이- + -어
 (가'') 머거 ; 먹- + -어 /자바 ; 잡- + -아
 (나) 定 ㅎ산 ; 정ㅎ- + -시- + -아- + -ㄴ
 (나') 날온 ; 니르- + -오- + -ㄴ
 (다) 올ㅁ삼 ; 올- + -으- + -시- + -암
 (다') 올뎌 ; 올- + -음
 (다'') 구름 ; 구르- + -음

즉 (4 가, 나, 다)의 예들은 선어말어미 ‘-시-’의 뒤에서 ‘-어, -오-, -음’의 이형태로 ‘-아, -아-, -암’이 선택된 예들이다. 이들은 모두 의미(기능)와 분포 상 상이한 서로 다른 형태들이 ‘-시-’라는 형태조건 아래에서 ‘-아’라는 형태로 바뀐 예들이다. 음운론적 현현방식에서 유사하지만 이들은 동일한 형태소의 이형태가 될 수 없다. 여기서 (4 가)의 ‘아/어’, (4 나)의 ‘-아-/-오-’, (4 다)의 ‘-암/-음/-움’을 동일한 형태소로 보기 위해서는 위의 ③의 기준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①의 구조적 양상의 공통성이라는 기준에 형태적 구조 양상의 공통성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킨 상보적 분포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보적 분포를 단순히 음운론적 분포에서만 확인할 것이 아니고 형태

론적 분포를 염두에 둔 상보적 분포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동일한 의미(기능)로 동일한 구조에서 나타나고 동일한 형태 환경을 가지면서 동일한 음운론적 현현방식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요소”라야 동일한 형태소로 묶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원칙에 따라 ‘ㅎ-’의 뒤에 나타나는 ‘-여’나 ‘푸르-’의 뒤에 나타나는 ‘-러’가 각각 ‘-어/-아’의 이형태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수정된 의미에서의 ①분포적 대립(형태범주 환경을 포함한), ②의미적 상사성, ③음운론적 현현방식의 특수성(형태적 구조 양상의 공통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된 국어의 형태소들은 각각 그 형태 구조에서 다른 양상을 띤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소들이 어떻게 문법의 각 부문에서 통사, 음운, 의미적인 다양한 모습들을 나타내도록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이 생성문법에서 애로노프(Aronoff, 1976)의 지적이 우리 학계에 수용되면서, 형태소 개념은 구조주의적인 개념에서의 생성문법적 개념으로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김성규(1987)는 “최소의 의미 요소”라는 기존의 형태소에 대한 개념을 본격적으로 비판하면서 둘 이상의 언어 단위가 어휘적으로 굳어서 하나의 의미를 지니게 된 요소들을 포함하는 ‘어휘소’ 설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고영근(1992)에서는 우리말의 접사를 형성소(생성문법적인 개념에서의)와 구성소(구조주의적인 개념에서의)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를 제기하였다. 고영근(1992)에서는 형태소에 대해 김민수(1964)에서 제안된 용어 ‘어소’를 받아들인 뒤, 기존의 형태소 개념이 어소를 혼합적으로 인식한 결과(즉 구성소 + 형성소 ≠ 형태소)라고 비판하고 (주로 파생어에 한정해서) 다음과 같이 국어의 접미사들을 구별할 것을 제안하였다.

- (5) 어소 ⊃ 구성소 ⊃ 단어 구성소: 불규칙적 접미사: (잡+)-음, (물+)-엄, (꿀+)-악서니
 ↳문장구성소: 교착적 선어말어미: -는/느/ㄴ/니-
 ↳형성소 ⊃ 단어형성소: 규칙적·생산적 접미사: (덜-, 지우-, 가리-, 손톱깎+)-개
 ↳문장형성소: 분리적 선어말어미: -시-, -었-, -겠-

한편 이남순(2000)에서는 형태소 분석에서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기준이 모두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흥식(2010)에서는 기존의 형태소 처리 기준에 문제가 있었음을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어들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여기에서 ‘네, 네, 제’의 형태소 분석 문제, 분철된 접사(-붙이 등) 및 분철된 어미(습니다, -듯이, -ㄹ값에(경상방언), -ㄹ밖에, -ㄹ세말이지, -ㄹ에도, -ㄹ에랴, -았었-, -어근에(제주방언), -였었-, -였었-, -을값에(경상방언), -을밖에, -을세말이지, -음에도, -음에랴) 및 ‘작은아버지’에서의 ‘작은’의 형태소 처리가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에서는 한국어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전체 복합어 약 17만여 단어를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사전의 형태 분석 기준에 대해서는 김양진·이현희(2009)와 홍종선·김양진(2012)에 자세히 제시되었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모든 형태 분석을 공시적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로 제한하였는데 여기서 공시적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란 <한글맞춤법>(1988)에서의 표준어 정의에 따른 공시적 분석 가능성을 말한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1988)의 공시적인 표기 단위인 분철의 단위로 형태 분석을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였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아울러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형태 분석을 진행하였다.

(6) ㄱ. 커지다 [+크(크)_어+지_다]

ㄴ. 커다랗다 [+커-다랗_다]

(7) ㄱ. 밝아지다[+밝_아+지_다], 쏟아지다[+쏟_아+지_다],

넘어지다[+넘_어+지_다], 이루어지다[+이루_어+지_다],

주어지다[+주_어+지_다]...

ㄴ. 걸다랗다 [+걸-다랗_다], 곱다랗다 [+곱-다랗_다],

굵다랗다 [+굵-다랗_다], 깊다랗다 [+깊-다랗_다],

높다랗다 [+높-다랗_다], 되다랗다 [+되-다랗_다],

두껍다랗다 [+두껍-다랗_다], 작다랗다 [+작-다랗_다],

잔다랗다 [+잔(<잘)-다랗_다], 좁다랗다 [+좁-다랗_다]

(6 ㄱ) ‘커지다’와 (6 ㄴ) ‘커다랗다’의 ‘커’는 일견 동일한 형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듯하나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를 고려할 때 ‘커지다’는 [+크_어+지_다]로, ‘커다랗다’는 [+커-다랗_다]로 분석된다는 점에서 다르게 처리되었다. 즉 (7 ㄱ)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다’는 용언 어간과 직접 결합하는 일이 없이 항상 연결어미 ‘-어’를 매개하여 합성어를 이루기 때문에 ‘커지다’ 역시 ‘[+크(크)_어+지_다]’로 분석되지만 (7 ㄴ)에서처럼 ‘-다랗-’은 반드시 용언 어간에 직접 결합하거나 용언 어간으로부터 변화된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커다랗다’는 ‘[+커-다랗_다]’로 분석되어야 한다. ‘[+크-다랗_다]’의 존재는 이러한 분석을 지지해 준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한국어의 모든 복합어를 이러한 “최대한의 일

관성 있는 공시적인 분석”을 일반적 원칙으로 분석하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에 따랐다.

첫째, 형태 위주의 분석이다. 형태 분석은 형태소 중심의 분석이 아니라 형태 중심의 분석을 기본으로 하였다. 형태 분석의 결과의 뒤에 형태소를 밝혀 형태소 분석과 형태 분석의 이원적 처리를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형태 분석이 1차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주의적 관점에서의 분석이라면 형태소 분석은 1차 자료로부터 추출된 대표 형태를 밝혀 보이는 2차적 분석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 (8) ① 도와주대[+도오(돕)-아+주-다], 아드님[+아드(아들)-님],
② 좁쌀[+좁(조)+쌀], 좁씨[+좁(조)+씨], 찹쌀[=잡(찰)+쌀],
 힙-싸대[=힙(휘)-싸-다], 힙-쓸대[=힙(휘)-쓸-다]
③ 암캐[=암+캐(개)], ... 수강아지[=수+강아지(강아지)], ...
 머리카락[+머리+카락(가락)], 살코기[+살+코기(고기)]
④ 아드님[+아드(아들)-님], 나날이[+나(날)+날-이],
 소나무[+소(솔)+나무], 다달이[+다(달)+달-이],
 무더위[+무(물)+더우(덥)-이], 미달이[+미(밀)+달-이],
 고살[+고(골)+살], 부삽 [+부(불)+鋏], 화살[+화(활)+살],
 무쇠[+무(물)+쇠], 끄집대[+끄(끌)+집-다], 무좀[+무(물)+좀]

이상의 형태(소) 분석 결과들은 모두, 주어진 한국어 복합어형 전체에 대해서 (최대한) 형태 위주의 분석을 거쳐 이형태 묶음을 만들고 이를 통해 대표 형태(형태소)를 설정하는 기준을 공시적으로 일관되게 가져온 결과이다.

둘째, 가장 작은 의미 단위로 알려진 ‘형태소’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처리상의 문제가 있다. ‘형태소’를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언어 단위라고 했을 때, 형태소 설정 이전의 형태 분석은 마땅히 의미를 지닌 최소의 언어 단위로서의 분석을 뜻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태 분석은 무조건적인 분석이 아니라 의미를 지니는 가장 작은 언어 단위로까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 그 기준이 되는 ‘의미’의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분석의 결과가 표류될 여지가 크다. 여기서 형태(소)의 의미는 문장 의미, 화용 의미, 관용 의미를 배제한 어휘/기능 의미를 한정적으로 지시하는데, 이때 형태(소)가 나타내는 의미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추상적이고 원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태소가 지니는 추상적이고 원형적인 의미란, 해당 형태소의 다의(多義)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통합적 의미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를 들어 <고려대 한국어대

사전>에서 ‘보다’의 경우 타동사 용법이 22가지, 자동사 용법이 2가지, 보조동사로서의 용법이 3가지, 보조형용사로서의 용법이 6가지로 총 33가지의 용법이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에서 어디까지를 같은 형태소에 속하는 의미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형태소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자동사, 타동사, 보조동사, 보조형용사의 4가지 하위 범주로 실현되는 ‘보다’뿐 아니라 ‘맷다[자동사]~맷대[타동사]’, ‘먹다[타동사]~먹대[자동사]’, ‘크다[형용사]~크대[동사]’, ‘덕[명사]~덕[의존명사적 용법]’, ‘바람[명사, 風]~바람[의존명사]’ 등의 처리 문제에서 반복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길[명사]~길대[형용사]’, ‘가물[명사]~가물대[자동사]’, ‘신[명사]~신대[타동사]’ 등의 처리에서 보듯이 통사 범주가 다르면 의미적, 형태적 상관성이 있더라도 동일한 형태소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대비되는데, 상위의 통사범주(용언, 체언 등)가 같고 의미적, 형태적 상관성이 있는 요소의 의미들은 최대한 동일 형태소의 범주 안에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6. 맷음말

이상에서 해방 80년 이래 한국어의 ‘형태소’ 개념이 전개되어온 양상의 대략을 살펴 보았다. 형태소와 관련해서는 화합형태의 처리를 포함하여 이형태 문제 및 보충법 형태, 공형태, 영형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다양한 주장들이 깊이를 더해 가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형태소’와 ‘형태’의 개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우리 학계에 ‘형태소’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엄밀한 합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주시경. 1910. 『국어문법』.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 역대한국문법대계에 1-11).
주시경. 1914. 『말의소리』.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 역대한국문법대계에 1-13).
김두봉. 1916. 『조선말본』.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 한국역대문법대계에 실림).
김두봉. 1922. 『김두봉조선말본』.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 한국역대문법대계에 실림).
小林英夫 譯(일본어역). 1954. 『言語學原論』(Ferdinand de Saussure, the Principal of General Linguistics, 1916). 岩波文庫.
김민수. 1955. 「문법연구의 방법」. 사상계 1955년 11월호. 111-121쪽.
이기문 역. 1955. 『언어학원론』(Albert Dauzat, 1929, La Philosophie du

- langage). 민중서관.
- 이희승. 1955.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 半田一郎 譯(일본어역). 1958. 『文法の 原理』(Otto Jespersen, The Philosophie of Grammar). 岩波文庫.
- 김민수. 1961. 「‘뜻씨’와 ‘Morpheme’-周時經 및 文法的 最小單位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4. 국어국문학회.
- 김석득. 1961. 「形態素<Morphemes>의 分析. 『왕십리』 1, 漢陽大 文理大. 25-32쪽.
- 박창해 역. 1961. 『기술언어학개론』(Gleason, Herry A. 지음). 경문사.
- 김석득. 1962. 「형태소(Morpheme)의 변이형태소(Allomorph)로의 분석. 『한글』 129. 한글학회. 300-321쪽.
- 김석득. 1963. 「국어 형태구조의 연구. 인문과학 9.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55-80쪽.
- 김석득. 1963. 「국어의 '불연속형태'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6. 국어국문학회. 226-238쪽.
- 박창해. 1963. 「국어의 엮침 음운에 관한 연구. 동방학지 6. 19-46쪽.
- 박창해. 1963/1991. 『한국어 구조론 연구』. 탑출판사
- 유창돈. 1963. 「이조어의 말어미고. 『인문과학 10』(연세대).
- 유창돈. 1964. 『이조국어사연구』. 선명문화사.
- 김민수. 1964. 「신국어학」(초판, 1964.12.30). 서울:일조각.
- 김석득. 1964. 「형태소(形態素) 및 형태소연결(形態素連結)의 의미(意味) -Sememes. Allosemes. Episemes를 중심(中心)으로. 인문과학 11. 1-
- 박창해. 1964. 『한국어구조론 연구 III -형태소론 및 형태소배합론-』.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유창돈. 1964. 『이조국어사연구』. 선명문화사.
- 최현배. 1965. 「낱말에 대하여. 한글 135. 한글학회. 16-47(504-535)
- 김석득. 1966. 「국어 형태론 - 형태류어의 구성요소 분석. 『연세논총 4』.
- 신창순. 1966. 「15세기 국어의 보충법과 존대말. 『한글 137』. 한글학회.
- 김석득. 1968. 「직접구성요소(IC)의 기능적 관계. 『이송녕박사송수기념논총』. 을유문화사.
- 안병희. 1968. 「중세국어의 속격어미 -스에 대하여. 『이송녕박사송수기념논총』. 을유문화사.
- 김규선. 1969. 「국어의 허형태(Empty Mushin)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 1. 국어교육학회. 149~166쪽.
- 배양서. 1969. 형태소 "사이시옷"의 소리값. 한글 144. 한글학회. 321-342쪽.
- 성기철. 1969. 「명사의 형태론적 구조. 『국어교육 15』.
- 전재호·김태한 역. 1969. 『韓國語形態音素論』(Martin, S. E. . 1954. Korean Morphophonemics). 선명문화사.
- 김석득. 1971. 「한국어의 형태·통사 구조론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창돈. 1971. 『어휘사연구』. 선명문화사.
- 김완진. 1972.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 『동아문화』 11. 서울대학교).
- 이승욱. 1974. 「동사어간형태소의 발달에 대하여」. 『진단학보』 38. 진단학회. 151-
- 김완진. 1975. 「음운론적(音韻論的) 유인(誘因)에 의한 형태소(形態素) 증가(重加)에 대하여」. 국어학 3. 국어학회. 7-
- 허 응. 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이기문. 1976. 「주시경의 학문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학보 5』.
- 이승욱. 1977. 「문법사의 몇 문제」. 『국어학 5』. 국어학회.
- 高永根. 1978. 「形態素의 分析限界」. 언어학 3. 29-35쪽.(고영근 1989b에 다시 실림.)
- 이병근. 1979.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낚씨」. 『국어학 8』. 국어학회.
- 김종택. 1980. 「사잇소리 '스'와 형태소 '스'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 12. 15-26쪽.
- 김차균. 1980. 「국어 시제 형태소의 의미-회상 형태소[더]를 중심으로-」. 한글 169. 263-298쪽.
- 김차균. 1980. 「국어의 미정 형태소의 의미」. 한국언어문학 19. 131-156쪽.
- 김광해. 1981. 「'의'의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서태룡. 1981. 「문법형태소 중심의 통사론(統辭論) 연구에 대하여」. 한국학보 4. 136-159쪽.
- 이승녕. 1981. 『중세국어문법(개정 증보판)』. 을유문화사.
- 임흥빈. 1981. 「사이시옷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어학 10』.
- 고영근. 1982. 「주시경의 문법이론에 대한 형태-통사적 접근」. 『국어학』 11, 국어학회. 25-46쪽.
- 남기심. 1982. 「국어의 공시적 기술과 형태소의 분석」. 배달말 7. 경상대학교. 1- (이병근,채완,김창섭 편 形態(1993)에 재록)
- 임흥빈. 1982. 「기술보다는 설명을 중시하는 형태론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학보 26』.
- 이강로. 1983. 「맞춤법에서 형태소를 다루는 원리」. 광장 123. 135-135쪽.
- 이승재. 1983. 「흔효형 형성에 대한 문법론적 고찰」. 『어학연구 19-1』.
- 김봉주. 1984. 『형태론』. 서울:한신문화사.
- 김희숙. 1985. 「『국어문법』 대 「말의소리」의 주시경언어이론」. 청주대학교논문집 18. 청주대학교. 1-31쪽.
- 서태룡. 1985. 「정동사어미의 형태론」. 『진단학보 60』.
- 임흥빈. 1985. 「형태」. 『국어국문학연구사』. 우석.
- 한동완. 1985. 「현재시제 선어말 {-느-}의 형태소 정립을 위하여」. 서강어문 5. 29-
- 고영근. 1987. 「보충법과 불안전계열의 문제」. 『어학연구 23-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35-60쪽.
- 김성규. 1987. 「어휘소 설정과 음운 현상」. 국어연구 77.
- 서태룡. 1987.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복. 1987. 국어 사전 편찬과 문법형태소의 처리—조사와 연결어미의 기술을 중심

- 으로. 인문과학 57. 59-88쪽.
- 서태룡. 1988.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태학사.
- 성광수. 1988. 「국어형태소의 유형과 의미」. 한국어문교육 3.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
- 이석주. 1988. 「국어 약어형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교 논문집 12』.
- 고영근. 1989a. 「파생접사의 분석한계」. 『어학연구 25-1』.
- 고영근. 1989b. 『국어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임흥빈. 1989. 「통사적 파생에 대하여」. 어학연구 25-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67-196쪽.
- 김창섭. 1990a. 「영파생과 의미전이」. 『주시경학보 5』.
- 서태룡. 1990. 「활용어미」.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손주일. 1990. 「{-오/우-} 의 형태소 정립을 위하여」. 서강어문 7. 5-
- 안명철. 1990. 「국어의 융합현상」. 『국어국문학 103』.
- 전철웅. 1990. 「사이 시옷」.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고영근. 1991. 「불연속형태에 대한 논의」.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 김차균. 1991. 「/ㄴ/의 분포와 형태론적 지위의 분석」. 동방학지 72.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59-81쪽.
- 박흥길. 1991. 「낱말의 겹친 구조 연구-같은 기능의 형태소가 중복되는 경우-」. 새얼어문논집 5. 121-
- 배주채. 1991. 「유추변화는 문법변화인가」. 주시경학보 7. 137-139.
- 최호철. 1991. 「의미상의 중심과 경음화」. 어문논집 30.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 고영근. 1992. 「형태소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근수선생회갑기념논문집』. 1-11.
- 김덕모. 1992. 「주시경과 그의 <늦씨>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5.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13-15쪽.
- 송기중. 1992. 「현대국어 한자어의 구조」. 『한국어문 1』(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승재. 1992. 「융합형의 형태 분석과 형태의 화석」. 『주시경학보』. 10. 주시경학회. 59-80쪽.
- 송철의. 1993. 「언어 변화와 언어의 화석」.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352-370쪽.
- 이지양. 1993/1998. 『국어의 융합현상』. 태학사.
- 최명옥. 1993. 「어간의 재구조화와 교체형의 단일화 방향」. 『성곡논총』. 24.
- 채현식. 1994. 국어 어휘부의 등재소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120.
- 김영옥. 1995.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변화의 이론과 실제』. 서울:박이정
- 엄태수. 1995. 「국어 형태소에 대한 재약중심의 설명」. 서강어문 11. 21-
- 임동훈. 1995. 「통사론과 통사 단위」. 『어학연구』. 31-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87-138쪽.
- 허 응. 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김양진. 1996. 「형태구조 시론 I」. 『한국어학』. 4, 한국어학회, 171-206쪽.

- 김창섭. 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太學社.
- 왕문용. 1996. 「국어의 통시적 연구에서의 형태 분석」. 『국어학』. 27, 국어학회, 215-232쪽.
- 고영근. 1997. 「중세어의 ‘ㄹ, ㄷ’ 규칙활용론에 대하여」. 『국어학연구의 새지평(이돈주 선생 화갑기념논총)』. 태학사, 731-760쪽.
- 김영옥. 1997. 「공형태소에 대하여」. 전농어문연구 9. 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181-198쪽.
- 노명희. 1997. 「한자어 형태론」. 『국어학』 29. 국어학회.
- 이승욱. 1997. 『국어 형태사 연구』. 태학사.
- 임홍빈. 1997. 「국어 굴절의 원리적 성격과 재구조화: ‘교착소’와 ‘교착법’을 제안하며」. 관악어문연구 22.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정인호. 1997. 「ㄴ-불규칙 용언어간의 변화에 대하여」. 『애산학보』. 20, 145-178쪽.
- 구본관. 1998. 「단일 어기 가설과 국어 파생 규칙」. 『어학연구 34-1』.
- 노명희. 1998a. 「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명희. 1998b. 「한자어」.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 김양진. 1999. 국어 형태정보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 박진호. 1999. 「형태론의 제자리 찾기」. 형태론 1-2. 형태론연구회. 319-340쪽.
- 이종도. 1999. “영형태소의 현재시제 표지 설정에 대하여.” 한글 245. 한글학회.
- 장윤희. 1999. 「공형태 분석의 타당성 검토」. 형태론 1-2. 형태론연구회. 227-244쪽.
- 김양진. 2000. 「특수 어간 교체설 재고」.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287-311쪽.
- 송철의. 2000. 「형태론과 음운론」. 국어학 35, 국어학회, 192-220쪽.
- 시정근. 2000. 「공형태소를 다시 생각함」. 한국어학 12. 한국어학회. 147-165쪽.
- 채현식. 2000.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하치근. 2000. 「말본형태소의 공형태소 되기 연구」. 한글 250. 한글학회.
- 황화상. 2000. 「국어 형태구조 연구」. 한국어학 11, 한국어학회. 339-357쪽.
- 김유범. 2001.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형태론과 음운론,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창섭. 2001. 「한자어 형성과 고유어 문법의 제약」. 국어학 37. 국어학회. 177-195쪽.
- 김 현. 2001. 「활용형의 재분석에 의한 용언어간 재구조화」. 『국어학』. 37, 국어학회, 85-114쪽.
- 이승욱. 2001. 「문법화의 단계와 형태소 형성」. 국어학 37. 국어학회. 263-283쪽.
- 홍종선. 2001. 「국어 단어 형태의 정보화」. 『배달말』. 28, 배달말학회, 29-55쪽.
- 신승용. 2002. 「표시층위 재론」. 『어문학』. 75, 한국어문학회, 39-60쪽.
- 이혁화. 2002. 「교체에 대하여」. 형태론 4-1. 형태론연구회. 59-80쪽.
- 이현희. 2002. 「중세국어 형태론의 몇 문제」. 『고영근선생 정년기념논문집』.
- 배주채. 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이홍식. 2003. 「교착소 설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한국어학 21. 한국어학회.
- 박선우. 2004. 「불규칙활용의 불규칙성에 대하여」. 『청람어문교육』. 30, 청람어문교육학회, 223-249쪽.

- 시정근. 2004. 「등재소 설정 기준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22. 한국어학회.
- 양정호. 2004. 「형태소 개념과 국어사 기술」. 한국문화 34. 1-19쪽.
- 고영근. 2005. 「형태소의 교체와 형태론의 범위-형태음운론적 교체를 중심으로-」. 『국어학 46. 국어학회. 19-52쪽.
- 김양진. 2005ㄱ. 「형태소와 의미」. 『국어 연구와 의미 정보』. 월인. 231-249쪽.
- 김양진. 2005ㄴ. 「일음절 한자어 어기의 형태론적 재해석」. 어문논집 52. 민족어문학 회. 97-120쪽.
- 양정호. 2005. 「늦씨 개념의 재고찰」. 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323-346쪽.
- 이진호. 2006. 「국어의 기저형 설정 조건」. 어문학 96. 한국어문학회. 139-160쪽.
- 한 길. 2006. 「우리말의 융합 형태소와 형태소 중복 현상」. 강원인문논총 15. 강원 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55-84쪽.
- 한성우. 2006. 「국어 단어의 음소 분포」. 『어문학』. 91, 한국어문학회. 163-191쪽.
- 김창섭. 2007. 「부접명사의 설정과 식별」. 『국어학』. 50, 국어학회, 27-55쪽.
- 최명옥. 2007. 「한국어 형태론의 문제점과 그 대안」. 서강인문논총 22.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52쪽.
- 김양진.정연주. 2008. 「접미사 ‘-이’의 동음이의 구별 방안 - 형태론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12, 한국사전학회, 185-207쪽.
- 김유범. 2008. 「이형태교체의 조건과 중세국어 이형태교체의 몇 문제」.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1-222쪽.
- 송철의. 2008. 『한국어 형태음운론적 연구』. 태학사.
- 최명옥. 2008. 『현대 한국어의 공시 형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용환. 2008. 「형태소의 유형 분류」. 문학과 언어 30.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1-26쪽.
- 김양진. 2009. 「한자어의 형태 분석과 동음이의 처리-두 가지 ‘문학사(文學史)’를 중심으로」. 형태론 11-2. 형태론연구회. 377-405쪽.
- 김양진.이현희. 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형태 분석 정보」. 민족문화연구 5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55-117쪽.
- 배주채. 2009. 「‘달라, 다오’의 어휘론」. 『국어학』. 56, 국어학회, 192-220쪽.
- 이선웅. 2009. 「공형태소를 또다시 생각함」. 『국어학』. 55, 국어학회, 3-24쪽.
- 최전승. 2009. 『국어사와 국어방언사와의 만남』. 역락.
- 최형용. 2009. 「현대 국어의 사이시옷은 과연 형태소인가」. 형태론 11-1. 형태론연구 회. 61-78쪽.
- 한정한. 2009.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시급한 이유들」. 한국언어연구 34-3. 761-788쪽.
- 노명희. 2010. 「혼성어(混成語) 형성 방식에 대한 고찰」. 國語學 58, 國語學會, 255-281쪽.
- 이홍식. 2000. 「교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성심어문논집』. 22, 가톨릭대학교, 247-272쪽.
- 김양진.정경재. 2010. 「{-술-} 통합 어간의 활용 양상」. 『한국언어문학』. 72, 한국언어

- 문학회, 5-41쪽.
- 박재연. 2010. 「이형태 교체와 관련한 몇 문제」. 『국어학』. 58, 국어학회, 129-155쪽.
- 시정근. 2010. 「공형태소와 형태 분석에 대하여」. 국어학 57. 국어학회. 3-30쪽.
- 이정택. 2010. 「형태소의 유형」. 인문논총 19. 인문과학연구소. 31-54쪽.
- 이흥식. 2010. 「형태소와 문법 기술」. 어문학 109. 한국어문학회. 1-35쪽.
- 장윤희. 2010. 「《국어학(國語學)》 50년-형태 연구의 성과와 전망」. 국어학 57. 국어학회. 335-372쪽.
- 장윤희. 2010. 「언어 화석의 확인과 공시적 처리 방안」. 한국어학 48. 한국어학회. 45-76쪽.
- 하정수. 2010. 「현대국어(現代國語) 형태소(形態素) {ㅅ}의 의미(意味)와 기능(機能)」. 어문교육 38-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41-167쪽.
- 김창섭. 2011. 「부접어의 설정과 부접 구성」. 國語學, 國語學會, 47-72쪽.
- 송창선. 2011. 「국어 형태소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언어과학연구 57. 언어과학회. 175-196쪽.
- 최전승. 2011. 「불규칙 활용의 규칙화와 ‘ㅎ’[?]에 대한 인식의 전개와 음운현상의 본질」. 『교과 교육 연구』. 4, 전북대학교 교과 교육 연구소, 241-337쪽.
- 김양진·홍종선. 2012.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접사 선정의 기준-‘공시적 분석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53, 한국어학회, 325-329쪽.
- 백문식. 2012. 『우리말 형태소 사전』. 박이정.
- 송정근. 2012. 「복합어 형태 분석과 공형태」. 국어국문학 162. 국어국문학회. 85-107쪽.
- 엄태수. 2012. 「소위 복수기저형에 대한 재론」. 한국어학 56. 한국어학회. 119-148쪽.
- 정병철. 2012. 「형태소와 단어의 불분명한 경계에 대한 학교 문법의 처리 방안」. 청람어문교육 46. 청람어문교육학회. 513-544쪽.
- 오규환. 2013. 「단어 형성 과정으로서의 어휘화」. 國語學 68, 國語學會, 323-366쪽.
- 이흥식. 2013. 「공형태에 대하여」. 한국어학 58. 한국어학회. 201-233쪽.
- 최형용. 2013. 「어휘부와 형태론」. 『국어학』. 66, 국어학회, 361-413쪽.
- 김건희. 2014. 「이형태 설정의 문제」, 어문학 123. 한국어문학회. 1-37쪽.
- 오규환·김민국·정한대로. 2014. 「한국어 형태론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서: 최형용(2013)을 중심으로」. 형태론 16.2., 형태론 편집위원회, 241-281쪽.
- 양정호. 2014. 「보충법에 대하여: ‘나’와 ‘우리’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어문연구학회, 5-22쪽.
- 이진호. 2014. 「형태소 교체의 규칙성에 대하여」. 『국어학』. 69, 국어학회, 3-29쪽.
- 이현희. 2014. 「구어성 언어 단위의 설정과 그 유형」. 한글 303. 한글학회. 41-76쪽.
- 고영근. 2015. 「한자어 형성에 있어서의 구성소와 형성소」. 『한글 308. 한글학회. 5-30쪽.
- 이진호. 2015. 「불규칙’의 개념과 용법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학연구』. 36, 한국학연구소.
- 이진호. 2015. 「형태소의 교체조건」. 『형태론』. 17-1, 형태론연구회.

- 주지연. 2015. 「한국 한자어의 형태소 분포 조사」. 국어학 76. 국어학회. 39-66쪽.
- 최형용. 2015. 「형태론의 융합과 유형」. 국어국문학 170. 국어국문학회. 139-177쪽.
- 오규환. 2016. 「한국어 어휘 단위의 형성과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이찬영. 2016. 「현대 한국어 혼성어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정한데로. 2016. 「한국어 형태론. 넓고 깊게 보기-최형용(2016)을 대상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39.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391-414쪽.
- 최형용. 2016. 「형태론(形態論), 쟁점(爭點)들에서 길 찾기」. 어문연구 44-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7-88쪽.
- 김양진. 2017. 「한국어의 형태와 형태소」. 국어학 81. 국어학회. 227-261쪽.
- 김유범. 2017. 「이형태의 성격과 이형태교체의 유형」. 국어학 81. 국어학회. 325-349쪽.
- 이선웅·오규환. 2017. 「형태소의 식별과 분류」. 국어학 81. 국어학회. 263-294쪽.
- 배주채. 2017. 「교체의 개념과 조건」. 국어학 81. 국어학회. 295-324쪽.
- 오규환. 2017. 「한국어 단어 형성론을 위한 문법 단위-유현경 외(2015)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4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389-411쪽.
- 오규환. 2017. 「형성소(形成素)와 구성소(構成素), 다시 생각하기」. 어문연구 45-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61-83쪽.
- 이흥식·이은경. 2017. 「교체의 분류에 대하여」. 국어학 82. 국어학회. 67-99쪽.
- 최규수. 2017. 「형태론의 단위와 체계에 대한 국어학사적 검토-이승녕과 허 웅의 형태론에 비추어-」. 우리말연구 51. 우리말학회. 53-80쪽.
- 고영근. 2018. 「형성소와 형성소 연쇄체 그리고 절-새로운 문법 단위의 제안-」. 『형태론 20-2. 형태론연구회. 167-179쪽.
- 박재희. 2018. 「국어 문법 단위와 접어 설정에 관해서」. 코기토 84.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19-244쪽.
- 이진호. 2019. 「자동적 교체는 항상 규칙적 교체인가?」. 국어학 89. 국어학회. 3-34쪽.
- 송창선. 2020. 「국어 형태소와 이형태의 관계」. 국어교육연구 73. 국어교육학회. 49-70쪽.
- 이영제. 2020. 「형태소 교체의 조건」. 형태론 22-2. 형태론연구회. 285-311쪽.
- 이영제. 2020. 「이형태 교체의 조건에 대하여」. 형태론 22-2, 형태론 편집위원회. 285-311쪽.
- 이정택. 2020. 「형태소의 교체와 변이형태-혼란의 양상과 대안-」. 문법교육 40. 한국문법교육학회. 307-323쪽.
- 안혜지·이형주. 2021. 「한국어 수어 형태소의 유형」. 국어국문학 195. 국어국문학회. 67-102쪽.
- 양정호. 2021. 「교체의 유형에 대한 일고찰」. 인문과학연구 32. 인문과학연구소. 349-378쪽.
- 오규환. 2021. 「한국어 복합 서술어 구성의 유형과 특성」. 國語學 97, 國語學會, 293-339쪽.
- 이진병. 2021. 「문법적 의미와 문법 형태소의 기술적 타당성-규범 문법에 정착된 문

- 제점을 중심으로」. 한글 331. 한글학회. 119-159쪽.
- 이홍식. 2021. 「교체의 조건과 규칙성에 관련된 몇 문제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60.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67-91쪽.
- 김상민. 2022. 「혼성어의 형태론적 지위」. 『국어학 104. 국어학회. 317-351쪽.
- 문숙영. 2022. 「파생도 겸하는 굴절, 한국어의 전성어미」. 언어 47.4, 한국언어학회, 777-807쪽.
- 오규환. 2022. 「한국어 복합 서술어 구성의 형성 원리와 변화 요인」. 형태론 24.2, 형태론 편집위원회, 311-346쪽.
- 정병철. 2022. 「구문 형태론에 기반한 형태론 용어들의 정의」. 청람어문교육 89. 청람어문교육학회. 251-287쪽.
- 최호철·정유남. 2022. 「한국어 어휘의 의미 기술에 대하여」. 한국사전학 40. 한국사전학회. 235-282쪽.
- 김건희. 2023.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이형태’ 새로 보기」. 『국어학 108. 국어학회. 67-96쪽.
- 송정근. 2023. 「공시적 단어 분석과 순차성」. 반교어문연구 64. 반교어문학회. 7-26쪽.
- 오규환. 2024. 「한국어 단어 분류 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시론」. 형태론 26-2, 형태론 연구회, 116-144
- 이선웅·문병열·오규환. 2024. 『한국어 문법론의 점과 선』. 한국문화사.

- Aronoff, M.(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Mass): MIT Press.
- Chomsky, N.(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 In R. Jacobs and P. S. Rosenbaum ed.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Ginn.Waltham(Mass): Blaisdell.
- Di Sciullo, A. M. D. and Williams, E.(1987), On the Definition of Word, Linguistic Inquiry Monographs 14.
- Hockett, C.(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The Macmillan.
- Martin, S. E.(1954), Korean Morphophonemics,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Baltimore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 한국역대문법대계에 실림.).
- Nida, E. A.(1949), Morphology : the Descriptive Analysis of Word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628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광복 80년, 우리말 문법 연구의 성과와 과제
2025년 5월 16일(금) 10:00~15:40 / 한글학회 강당

□ 제1부/ 주제 발표

사전으로 살펴본 형태론의 몇 주제들 —『조선어사전』, 『큰사전』 등을 중심으로—

정한대로

가천대학교 부교수
word4@gachon.ac.kr

1. 머리말

20세기 전반기의 문법 연구는 여러 문법가들의 견해가 지금보다 훨씬 역동적으로 공존하였던 시기로 평가된다. 따라서 수십 년 전에 출간된 각 문법서, 그리고 시기별 사전에 기록된 표제어의 형태·품사·의미 정보를 매개로 당시 문법서를 집필하거나 사전 편찬에 참여한 이들의 국어학적 인식을 직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1945년 해방을 전후로 출간된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38년 초판, 1940년 수정증보판)과 한글학회의 『큰사전』(1947~1957년(권1~권6))도 당시 한국어 화자의 문법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우리말 기록이다.¹⁾ 이 글은 같은 언어 대상을 형태론적으로 상이하게 분석해 낸 사전 기록들에 먼저 주목하고자 한다.²⁾

1) 이 글은 『조선어』(『조선어사전』), 『표준』(『표준국어대사전』), 『대사전』(『국어대사전』), 『금성판』(『금성판 국어대사전』), 『고려대』(『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약호를 사용하였다.

2) 인용 부분에 표시된 밑줄, 음영, 기호(㉠, ㉡)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1) ‘답다, 스럽다, 룬다’의 사전 등재

사전	표제어	뜻풀이
『조선어』 (1938)	답다	[形] 어떠한 명사 아래에 붙어 그럴듯하다는 뜻을 표하는 말.
	스럽다	[接尾] 어떠한 명사 아래에 붙이어 형용사를 만드는 말.
	룬다	[接尾] 어떠한 명사 아래에 붙이어 형용사를 만드는 말.
『큰사전』 (1947~)	-답다	[발] 명사 밑에 붙어 “무엇과 같다”, 또는 “얼마나한 값어치가 있다”는 뜻으로 형용사를 이루는 말.
	-스럽다	[발] 어떠한 명사에 붙이어 형용사(形容詞)를 이루는 말.
	-룬다	[발] 어떤 명사나 어떤 어근(語根) 밑에 붙이어서 형용사를 만들어 그리됨을 인정하는 말.

(2) ‘거리다, 대다’의 사전 등재

사전	표제어	뜻풀이
『조선어』 (1938)	거리다	[自] 언어 동작들을 형용할 때에 그 말 밑에 쓰는것.
	대다	[自] 「거리다」와 같음.
『큰사전』 (1947~)	-거리다	[발] 같은 동작(動作)을 잇달아 자꾸 함을 나타내는 말.
	-대다	[발] ==거리다.

‘-답다, -스럽다, -룬다’와 ‘-거리다, -대다’는 각각 오늘날 형용사 파생 접사와 동사 파생 접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1), (2)의 『큰사전』이 이들을 접미사([발], 발가지)로 기술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조선어』는 ‘답다’를 형용사([形])로, ‘거리다, 대다’를 동사([自])로 파악함으로써 이들에 단어의 지위를 부여한 점이 특징적이다.

(3) 박승빈(1935 : 196, 202)

- 가. 명사에 「다오, 스러우」가 연속한 말에 「다오, 스러우」를 ㉠불완전 형용사로, 명사를 그 보어로 설명하게 되는 것이 원칙임
- 나. ㉠불완전 형용사 (중략) (1) 다오, (2) 스러우, (3) 가트, (4) 시프 (후략)

(4) 최현배(1937 : 921-926)

- 가. 이름씨를 어떻씨로 만드는 ㉡발가지: -하다, -지다, -없다, -답다, -스럽다, -룬다, -버다
- 나. 어찌씨를 움직씨로 만드는 것: -하다, -거리다 (-대다)

앞서 박승빈(1935)와 최현배(1937)은 (1)의 같은 대상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3)의 박승빈(1935)는 ‘답(다오), 스럽(스러우)’을 불완전 형용사

(㉞)로 파악한 반면, (4)의 최현배(1937)은 ‘-답다, -스럽다, -롭다’를 발가지(㉞)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1), (2)의 『큰사전』에 기술된 내용은 최현배(1937)에서 ‘-답다, -스럽다, -롭다, -거리다, -대다’를 접미사(발가지)로 목록화한 사실과 일치한다.³⁾

사전에 기록된 다양한 언어 정보는 당대 연구자의 문법 기술이나 일반 화자의 인식을 기초로 사전 편찬자의 일정한 태도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사전이 지닌 대표성과 규범성, 그로 인한 사전의 보수적 속성을 고려할 때 사전 내 문법 및 의미 정보의 시기별 변화는 문법 연구 측면에서도 뜻깊은 기록이라 할 만하다. 따라서 각 사전에 반영된 정보(표제어 선정, 범주 설정, 뜻풀이 등)가 통시적으로 어떠한 거시적 흐름을 보이는지 살피는 작업도 문법 연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1950년대 이후 한국어 형태론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는 대표적인 주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들이 초기의 『조선어』와 『큰사전』에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확인하고, 이후 관련 연구가 확대되며 발전해 가는 양상을 살피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사적 흐름 위에서 과거에 편찬된 사전 기술을 들추어 봄으로써 현대 한국어 문법을 ‘낫설고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한국어학사 연구의 의미도 함께 조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과 (2)에서 확인한 두 사전의 차이를 발판 삼아, 오늘날 접사로 당연시되는 대상이 과거 사전이나 논저에 따라 달리 인정되었거나 시대에 따라 그 지위가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는지 등 여러 대상과 주제로 관심을 확장할 수 있다. 그중 이 글은 접사를 둘러싼 세 가지 주제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먼저 2장에서는 구조주의 형태론, 생성 형태론, 인지 형태론에 이르기까지 접사 목록(접사 판단)에 관한 연구자들의 입장 차이 및 접근 방식의 변화 문제를 다룬다. 3장에서는 구조주의 형태론은 물론 그 이후로도 여러 관점이 공존해 온 ‘-음, -기’의 지위 문제를 다루고, 마지막 4장에서는 [명사(N)+동사(V)+접사(suf)](예: 시집살이, 고기잡이) 구성에 관한 선행 연구의 다채로운 접근 방식을 통시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한 어휘가 오랜 기간의 변화를 거치며 ‘단어의 삶’을 살아가듯이, 특정 형태의 문법적 지위 역시 시간 축 위에서 다양하게 해석되며 삶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동일한 언어 자료와 현상이 문법가에 따라서, 또는 시대적·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어 온 모습들을 성글게나마 정리해 보고자 한다.

3) 박승빈(1935)는 ‘답다’를 불완전 형용사로 파악한 점에서 『조선어』(1938, 1940)와 유사한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정한테로 2024 : 17).

2. 파생 접사의 목록과 사전 등재

오늘날 한국어 파생 접사의 목록은 『표준』을 중심으로 한 규범적 틀 안에서 대체로 합의되고 있지만, 한때는 접사 목록 및 판단 기준에 관한 상이한 관점이 형태론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특히 1960~70년대는 한국어 구조주의 형태론의 관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접사를 목록화하는 데 있었기에, 김계곤(1968ㄱ, 1868ㄴ, 1969ㄱ, 1969ㄴ), 고영근(1972ㄱ, 1972ㄴ, 1973ㄱ, 1973ㄴ) 등처럼 당시 출간된 사전이나 최신 논저를 바탕으로 연구자 간 이견을 확인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장에서는 김계곤(1969ㄱ 등), 고영근(1972ㄱ 등)에서 언급된 일부 접사의 『조선어』, 『큰사전』 출현 양상을 중심으로 논저 간의 견해 차이를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접사 판단을 둘러싼 이후 연구의 변화와 성과도 간단히 논의할 것이다.

고영근(1972ㄱ)은 접미사 판단을 위한 확립 기준 및 목록화 문제를 다룬다. ‘의존성·특수성·어휘성을 띠는 것, 조사나 어미와의 통합에 제약이 없을 것’과 같은 판단 기준을 통해 『큰사전』(1947~1957), 『대사전』(1961), 최현배(1937/1961), 김계곤(1969ㄱ, 1969ㄴ) 등 당시 사전과 논저를 중심으로 쟁점 대상이 검토된다. 이로써 오늘날 『표준』에서 접사로 당연시되는 대상도 한때는 사전과 논저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5) ‘-꾼, -끼리, -투성이’의 사전 등재

사전	표제어	뜻풀이
『조선어』 (1938)	군(軍)	[名] ①「군대」(軍隊)의 준말. ②노역에 종사하는 사람. ③어떠한 일에 장기가 있는 사람.
	끼리	[名] 뜻이 같은 사람. 한곳에서 가치 일을 하고 있는 사람.
	투성이	[名] 문쳐서 더럽게 된것.
『큰사전』 (1947~)	-군	[발] 어떠 어떠한 일을 직업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명사(名詞) 밑에 붙이어 쓰는 접미어(接尾語).
	-끼리	[발] 여럿이 함께 패를 짓는 뜻을 나타내는 말.
	-투성이	[발] 온몸에 문치어 더럽게 됨.

『표준』에 접사로 등재된 ‘-꾼, -끼리, -투성이’가 한때는 『조선어』와 『큰사전』에서 각각 명사와 접미사(받가지)로 달리 기술된 사실이 있다. 『조선어』에서는 한자 ‘軍’이 ‘군’과 병기되고 뜻풀이에 ‘「군대」(軍隊)의 준말’이 포함되는 등 기원 형식과의 긴밀한 특성이 드러나는데, 명사로 기술된 결과도 그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두 사전 모두 ‘나뭇군, 사냥군, 일군’ 등의 표제어를 수록함으로써 오늘날의 ‘-꾼’과는 상이한 ‘군’의 형태를 취하는데, 안확(1923 : 100)에서 접미어(接尾語)로 제시하였던 ‘군’(일군, 나무군)이 최현배(1937/1977 : 671)에서도 접미사(뒷가지) ‘-군’(일군, 장삿군)으로 등장한 점을 볼 때에 오랜 기간 ‘군’의 형태가 통용된 사실이 관찰된다.⁴⁾ 『대사전』(1961)의 접사 ‘-군’(軍)이 수정증보판 『대사전』(1982)에서 ‘-꾼’으로 형태 변화를 겪는 등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된다.⁵⁾

‘끼리, 투성이’도 두 사전에서 명사와 접미사로 범주 차이가 뚜렷한데, 이들은 사전뿐만 아니라 논문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 확인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김계곤(1969ㄱ : 400-402)이 ‘끼리’와 ‘투성이’를 각각 형식명사(안용군이름씨)와 명사로 분류한 반면에, 고영근(1972ㄱ : 85, 88)은 ‘끼리, 투성이’가 지닌 의존성을 근거로 이를 모두 접사로 분류한 바 있다.

(6) ‘가량, 집, 빨’의 사전 등재

사전	표제어	뜻풀이
『조선어』 (1938)	가량 (假量)	[名, 副] ②쯤. ④정도.
	집	[名] ⑤안해 혹은 남편.
『큰사전』 (1947~)	가량 ² (假量)	[절이] 수량(數量)을 대강으로 나타낼 때, 명사(名詞)나 수사(數詞) 밑에 붙는 말.
	집 ³	[절이] ①시집간 딸이나 조카딸에게 대하여, 그 친정 어버이나 그 웃어른이 남편의 성(姓) 아래에 붙이어 아무의 아내라는 뜻을 표하는 말. ②남의 적은집이나 기생첩에 대하여, 그 전 머물러 있던 지명(地名)의 아래에 붙이어 쓰는 말.
	빨	[절이] 거래붙이로서의 무엇이 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말.

『표준』에 접사로 등재되어 있는 ‘-가량, -집, -빨’도 한때는 (6)처럼 사전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술된 바 있다. 『조선어』에는 명사로, 『큰사전』에는 형식

4) 『조선어』와 『큰사전』에 등재된 [X+ 군] 구성의 단어는 아래와 같다.

사전	관련 단어
『조선어』	가랫군, 가평군, 나뭇군, 놀음군, 놀잇군, 도망군, 말쟁군, 방정군, 빨랫군, 사냥군, 살림군, 소릿군, 술군, 심부름군, 씨름군, 염탐군, 일군, 작란군 등
『큰사전』	가랫군, 개평군, 건성군, 나뭇군, 노름군, 놀잇군, 농삿군, 도망군, 말쟁군, 방정군, 빨랫군, 사냥군, 살림군, 소릿군, 술군, 심부름군, 씨름군, 염탐군, 일군, 장난군, 장삿군, 재쫓군 등

5) ‘군’이 아닌 ‘-꾼’으로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김계곤(1969ㄱ : 420-421)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명사(절이⁶)로 등재된 점에서 (5)와 차이가 있다. 『조선어』에 다의어 명사 ‘집’의 한 의미로 ‘⑤안해 혹은 남편’이 기술된 데 반해, 『큰사전』은 ‘①시집간 여자, ②첩’을 가리키는 용어로 명사 ‘집¹’과 별도의 형식명사 ‘집³’을 설정한 점이 눈에 띈다. ‘뺨’은 『조선어』에 표제어로 오르지 않았기에 『큰사전』과 비대칭적이기도 하다.

(6)과 달리 『큰사전』(1961, 1982)은 ‘김(金)집, 평양집’의 ‘집’이 지닌 의미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접사로 판단하였으나 김계곤(1969ㄱ: 103), 고영근(1972ㄱ: 83)은 이때의 ‘집’을 명사로 분류하였다.⁷⁾ ‘집사람’의 준말인 ‘집’과 관련지어 처리한다면 ‘시집간 여자, 첩’의 공통된 ‘여자’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따라서 명사 ‘집’과 한가지로 보아도 된다는 것인데, ‘집사람’의 중간 단계를 설정한 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늘날 『표준』은 『큰사전』(1961)과 같은 입장에서 ‘시집간 여자, 첩’을 접사 ‘-집⁴’로 따로 제시하고 있다. ‘뺨’은 『큰사전』과 마찬가지로 『대사전』(1961) 등에서도 형식명사로 분류된 바가 있으나, 고영근(1972ㄱ: 89)에서는 체언과의 통합이 다소 제약적이라는 이유로 접미사로 분류하였다.

(7) ‘마님’의 사전 등재

사전	표제어	뜻풀이
『조선어』 (1938)	마님	[接尾] 귀인의 존대.
『큰사전』 (1947~)	마:님 ²	[발] 귀인(貴人)에 대한 존대.

(5), (6)과는 반대로, 오늘날 『표준』에 명사로 등재된 대상이 이전 두 사전에서는 접사로 오른 예가 있다. 명사 ‘마님’이 이에 해당하는데, ‘대감마님, 영감마님’의 용례와 함께 『조선어』와 『큰사전』 모두에 ‘마님’이 접미사(발가지)로 기록되었다. 이후 『대사전』(1961), 『대사전』(1982), 『금성판』(1991)에서도 ‘-마님’은 꾸준히 접사로 등재되었으며, 고영근(1972ㄱ: 88)도 접미사의 특수성을 근거로 ‘-마님’을 접미사로 판단하였다.

6) “먼저 [절이]가 눈에 띄는데, 그것은 당시 몇몇 문법학자들이 불완전 동사를 “절움”이라 일컫는 데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김 윤경은 『나라말본(1948)』에서 “절임”-“절름발이 임씨”의 줄임말로 보임-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큰사전』 제1권은 그보다 앞서 1947년에 나왔다. (중략) 김두봉이 『조선말본(1916)』에서 불완전 동사를 “절움(不完全動)”이라 하였다. 이 규영도 『현금 조선문전(1920)』에서 “절움(不完全動詞)”으로 썼고, 최 현배(1937)는 “절움직씨(불구동사)”라 하였다가 고침관(1959)에서는 “모자란 움직씨”로 바꾸었다. 『큰사전』의 [절제](불완전 자동사), [절남](불완전 타동사)은 이를 적용하여 가른 것 같다.” (한글학회 2009: 547)

7) 김창섭(1994/1996)에서는 (6)의 『큰사전』 ‘집³’의 두 뜻풀이 가운데, ①(시집간 여자)은 ‘접사’로 분류한 반면, ②(妾)는 ‘단어형성 전용 요소’로 달리 기술한 바 있다. (10) 후술.

『표준』(1999, 2025)은 명사 ‘마님’을 다의어로 설정하고 그중 ‘대감마님, 영감마님’에 쓰인 ‘마님’이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쓰인다는 분포 특성과 함께 ‘상전(上典)을 높여 이르는 말’로 기술한다.⁸⁾ 이는 『조선어』(1938)에서 『금성판』(1991)에 이르기까지 앞선 사전들과는 다른 처리인데, 『고려대』(2025)는 『표준』과 동일하게 ‘마님’을 명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듯 (5)~(7)의 대부분은 지금의 『표준』과 다른 방식으로 『조선어』와 『큰사전』에 기술된 바 있으며, 이후 사전이나 1960~70년대 구조주의 연구 논저(김계곤 1969ㄱ, 고영근 1972ㄱ 등)에서 논쟁 주제가 되었을 만큼 접사 목록의 정비는 당대 형태론 연구의 중요한 과업으로 평가받았던 것이다.⁹⁾

이후 1980~90년대의 한국어 형태론 연구는 생성 문법의 영향으로 규칙과 제약 기반의 단어 형성 원리를 탐색하는 데에 큰 관심을 두었다. 송철의(1977, 1985, 1988, 1989/1992), 김창섭(1983, 1984), 하치근(1987, 1989/1993), 시정곤(1993/1998) 등이 대표적이다. 이 시기는 접사 판단이나 대상 목록 전반을 두루 다루기보다는 한정된 접사의 어근 결합 양상, 접사의 분포와 의미, 계열 관계 어휘를 고려한 생산성 등으로 연구 주제가 옮겨 간다. 이에 따라 ‘-이, -기, -음, -개, -질, -보; -답-, -스럽-, -롭-’ 등 특정 접사에 집중한 연구들이 여럿 등장한다.

구조주의적 접근에 바탕을 둔 기존 접사 목록은 구본관(1992, 1996/1998, 1999) 등에서 비판적으로 논의된다.

(8) 가. 여태까지, 마음대로, 요만큼

나. 더불어, 따라서(따르--+아서), 그러나(그렇--+으나)

다. 배심, 배꼽, 암컷

구조주의적 관점의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8)의 밑줄 친 대상을 파생 접사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이때의 접사를 결합 단위가 아니라 분석 단위로 보았기 때

8) 『표준』의 ‘마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그중 ②의 뜻풀이가 『조선어』와 『큰사전』에서 접사로 기술된 것이다.

① 지체가 높은 집안의 부인을 높여서 이르는 말.

②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상전(上典)을 높여 이르는 말. 예 대감마님, 영감마님

9) 이밖에도 김계곤(1969ㄱ 등), 고영근(1972ㄱ 등)과 『표준』에서 기술 차이를 보이는 사례를 몇 가지 더 추가해 볼 수 있다.

(ㄱ) 김계곤(1969ㄱ)에서 ‘형식명사’로 판단한 대상: 꽃, 풀, 님, 어치, 째

(ㄴ) 고영근(1972ㄱ)에서 ‘접사’로 판단한 대상: -노릇, -서방, -자락, -티; -것

(ㄱ)의 ‘꽃, 풀, 님, 어치, 째’는 김계곤(1969ㄱ)에서 형식명사로 분류하였으나 현재 『표준』에는 접사로 등재되어 있고, (ㄴ) ‘-노릇, -서방, -자락, -티’는 고영근(1972ㄱ)에서 접사로 판단하였으나 현재 『표준』에 명사로 올라 있다. 그리고 ‘암컷, 수컷’의 ‘컷’은 『큰사전』에 형식명사로 등재된 바 있으나, 고영근(1972ㄱ: 88)은 접두사 ‘암ㅎ-, 수ㅎ-’과의 통합 관계가 특정된다는 점에서 ‘-것’을 접미사로 처리하였다. 한편, 기존 입장과 달리 고영근(1989/1999: 608)에서는 ‘암ㅎ, 수ㅎ’를 관형사로 보는 것이 무난할 듯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문이다(구본관 1999 : 17). 그러나 (8가)~(8다)를 조사와 어미가 결합한 통사론적 구성이 단어화(어휘화)한 것, 형성 당시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1990년대 한국어 형태론 연구는 생성 관점의 공시적 생산성을 강조하면서, 분석보다는 결합에 근거한 파생 접사 선정 기준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¹⁰⁾

(9) 파생접미사의 변별 기준 (구본관 1999 : 19)

- 가. 음운론적인 기준 - 파생접미사는 (공시적으로) 음운론적으로 의존적인 요소이다.
- 나. 통사론적인 기준 - 파생접미사는 (공시적으로) 어기로 단어를 가지며(구를 가지지 않으며) 단어 밖의 요소와 통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 다. 조어론적인 기준 - 파생접미사는 (공시적으로) 어기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요소이다.
- 라. 의미론적인 기준 - 파생접미사는 (공시적으로) 굴절접사에 비해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며, 실질 어휘에 비해 문법적인 의미를 갖는다.

구본관(1999)는 (9)와 같이 ‘음운·통사·조어·의미’로 세분화한 네 가지 기준을 활용하여 접사를 변별하였다. 앞서 고영근(1972)이 ‘의존성·특수성·어휘성을 띠는 것’을 접사 판단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는 (9)의 ‘음운·조어·의미’ 기준과 각각 상통한다. 다만 구본관(1999)는 각 기준을 단계적으로(1단계~6단계) 적용함으로써 연속적 정도의 관점에서 접사를 구분한 점에서 접사 가부 판단에 천착해 온 이전 연구와 차별화된다.¹¹⁾ 가령 용언 어간과 결합하는 ‘-이’는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1단계) 가장 확실한 파생 접사인 데 반해, ‘-님’은 ‘음운·통사·의미’의 3가지 기준을 만족하는(3단계) 접사, ‘-들’은 음운론적 기준만을 만족하는(5단계) 접사로 분류하는 것이다. 또한 (9)는 생성 형태론적 차원에서 ‘결합’과 ‘공시성’(밑줄 참고)을 강조한 점에서도 구조주의적 관점의 선행 연구와 차별화된다.

10) 15세기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구본관(1996/1998)도 ‘공시적인 결합가능성’이 있는 과정에 한정하여 파생법을 논의한다. 파생과 굴절을 ‘정도성’의 문제로 환원하여 논의한 점도 주목된다.

11) 파생접미사의 변별 기준의 단계적 적용 (구본관 1999 : 15)

- 1단계 : 음운론적인 기준, 통사론적인 기준, 조어론적인 기준, 의미론적인 기준 만족
- 2단계 : 음운론적인 기준, 통사론적인 기준, 조어론적인 기준 만족
- 3단계 : 음운론적인 기준, 통사론적인 기준, 의미론적인 기준 만족
- 4단계 : 음운론적인 기준, 의미론적인 기준 만족
- 5단계 : 음운론적인 기준 만족
- 6단계 : 모든 기준 불만족

1990년대 이후의 형태론 연구는 중간 범주를 설정하거나 형성의 중간 과정으로도 관심을 확장하는데, ‘명사, 접사’ 등 명확한 범주 결과를 강조해 온 선행 연구와 궤를 달리하며 논의를 축적해 나간다.

(10) 단어형성 전용 요소, 의사 접사, 고정소

가. 김창섭(1994/1996 : 35)

㉠아직 파생접사화가 완료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단어로 인정되는 형식 가운데 단어형성에만 참여하는 요소를 ‘단어형성 전용 요소’로 부르는 것이다.

나. 송원용(2002/2005 : 70, 183)

의사 파생(pseudo-derivation)은 합성, 파생 등으로 형성된 단어의 일부분이 ㉡의미의 특수화를 겪거나 재분석되어 단어 형성 과정의 중추적 직접성분으로 참여하는 유추 과정이다. 의사 파생은 단어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한 직접성분의 문법적 지위가 의사 접사인 유추 과정이다.

다. 시정곤(2008 : 99)

‘거품목욕’에서 ‘거품’과 ‘목욕’은 ‘참여소’이다. 그런데 단어형성 과정이 생산성을 획득하게 되면 ‘X+거품’이나 ‘거품+X’와 같은 형식을 갖게 되고, 이때 ‘거품’은 ‘고정소’가 된다. ㉢단어 형성 과정에 고정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고정소는 생산성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앞서 (6)에서 ‘아내, 시집간 딸’을 뜻하는 ‘집’이 『조선어』와 『큰사전』에 각각 명사와 형식명사로 달리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김창섭(1994/1996 : 29-36)은 다의어로 쓰인 ‘집’의 의미를 검토하면서, [X+집] 구성에서 ‘匣, 妾’의 의미로 쓰인 ‘집’(예: 안경집, 서울집)을 단어 형성에만 참여하는 ‘단어형성 전용 요소’로 명명한다.¹²⁾ 명사와 접사 사이에서 그 지위가 뚜렷하지 않은 대상에 관한 관심을 확대하여, 명사와 접사가 아닌 제3의 방안, 즉 두 경계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범주를 새롭게 설정한 것이다. ‘노래방, 비디오방, 머리방’ 등 영업 장소로 최근 형성된 [X+방] 구성의 ‘방’도 단어형성 전용 요소로 분류된다(김창섭 1994/1996 : 38).

이후 송원용(2002/2005 : 185)은 ‘匣’의 의미로 쓰인 ‘집’이 명사나 접사로는 인정될 수 없으며 (10나)의 의사 파생 과정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집’을 ‘의사 접사’로 판단한다. 그리고 의사 접사의 예로 ‘벼락-(벼락스타, 벼락인

12) (6)의 『큰사전』에 뜻풀이 된 ‘집’처럼 ‘시집간 여자’를 의미하는 ‘집’은 김창섭(1994/1996)에서 접사로 처리된다. 『대사전』(1961, 1982)에서도 이를 접사로 처리한 바 있다.

기), 소나기-(소나기땀, 소나기골), 실-(실개천, 실구름)’ 등이 제시된다. 한편, 시정곤(2008)은 (10가)와 (10나)의 두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집’의 고정적 분포와 생산성을 기준으로 ‘고정소’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기도 한다. ‘거품경기, 거품성장’(거품+X), ‘빨래방, 머리방’(X+방)과 같이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여러 단어를 활용하여 고정소 개념을 소개한다.

(10가)~(10다)에 밑줄 친 ‘단어형성 전용 요소, 의사 접사, 고정소’는 (9)와 마찬가지로 연속적 정도의 관점에서 범주 판단을 시도한 것이며, 이는 접사의 형성(접사화)을 과정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기도 하다. 접사 판단에 천착했던 1960~70년대 구조주의 형태론과 비교한다면, 범주가 불분명한 대상에 대해 별도의 문법적 개념과 용어를 부여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시대적 변화가 확인된다.

(11) ‘거품, 벼락, 실, 방’의 사전 등재

	사전	표제어	뜻풀이
가.	『금성판』 (1991)	거품	-
		벼락 ¹	[명사] ③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의 비유.
		실 ¹	[명사] (생략) [접두] 일부 명사 앞에 쓰이어, ‘가느다란’, ‘씩 작은’, ‘얇은’의 뜻을 나타내는 말.
		방	-
나.	『표준』 (1999) 『표준』 (2025))	거품	[명사] ④현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생겨 꺾데기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벼락 ¹	[명사] ⑤매우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실 ⁻¹¹ (실 ⁻⁹)	[접사] ‘가느다란’, ‘얇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방	-
다	『고려대』 (2025)	거품	[명사] ③어떤 현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생겨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은 없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벼락 ¹	[명사] ③어떤 일이 매우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실	-
		-방 ¹⁶	[접미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을 주로 하는 영업 장소’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10)에 언급된 대상들은 1990년대 이후 사전에 상이한 방식으로 올라 있다. ‘의사 접사, 고정소’로 예시되었던 ‘거품, 벼락’이 일부 사전에 다의어의 확장

의미로 기술된다. 비유적으로 쓰인 용법이 ‘의미적 신어’로 인정받으며 사전에 한 의의(sense)로 고정된 결과이다. ‘의사 접사’로 다루어진 ‘실-’이 『금성판』과 『표준』에 접사로 등재되었던 사실, ‘단어형성 전용 요소, 고정소’로 예시된 ‘방’이 『고려대』에 접사로 등재된 사실이 주목된다.

3. ‘-음, -기’의 지위와 파생 접사

1960년대 구조주의 언어학 이후, 생성 문법과 인지언어학적 연구 방법론으로 이어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어 형태론에서 ‘-음, -기’는 문법적 지위, 결합 양상과 분포, 의미 기술 등 다방면으로 관심을 받아 왔다. 특히 생성 형태론 이후 ‘-음, -기’와 함께 ‘-이, -개, -질, -보’ 등 파생 접사의 결합과 대치가 단어형성론의 연구 주제로 부상하면서 접사의 통합 양상과 생산성, 관련 어휘의 계열 관계, 어휘부 등재 등 더욱 넓은 영역으로 단어형성론의 대상이 확장된다. 이 장에서는 ‘-음, -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사적 흐름을 짚으면서 거시적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개관하고자 한다. 먼저 『조선어』와 『큰사전』에 기록된 ‘음, 기, 이’의 기술에서 논의를 시작해 보자.

(12) ‘음, 기’와 ‘이’의 사전 등재

	사전	표제어	뜻풀이
가.	『조선어』 (1938)	음	[語尾] 바침이 있는 동사 어간(語幹)에 붙이어 명사를 만드는 것. 바침이 없는 말에는 「ㅁ」으로 씀.
		-	-
	『큰사전』 (1947~)	-음	[끝] 받침 있는 동사(動詞) 또는 형용사(形容詞)의 어간(語幹)에 붙이어 명사를 만드는 어미(語尾).
-기		[끝] 모든 용언(用言)의 어간(語幹)에 붙어 그 말을 동작적(動作的)인 명사의 노릇을 하게 하는 어미(語尾).	
나.	『조선어』 (1938)	이	[語尾] 어떠한 설명어 어간(語幹)에 붙이어 명사 또는 부사를 만드는 것.
	『큰사전』 (1947~)	-이	[발] 「ㄹ」 어떤 형용사나 동사의 어간(語幹)에 붙어 명사로 만드는 접미사.

(12가)에서 보듯이 두 사전은 모두 ‘음, 기’를 어미(씨끝)로 분류한다. 세부적으로는 비대칭적인 모습이 관찰되는데, 『조선어』는 어미 ‘음’만을 사전 표제어로 올렸을 뿐 ‘기’는 사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이후 『큰사전』에 이르러서 ‘-음’과 ‘-기’가 균형 있게 어미로 등재된다. 한편 (12나)의 『조선어』에 제시된

‘이’의 사전 기술을 보면 (12가)의 ‘음’과 마찬가지로 ‘이’도 어미로 기록된 점이 특징적이다. ‘음’과 ‘이’가 평행하게 뜻풀이된 사실을 볼 때에 ‘음, 이’를 대등한 수준의 어미로 파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큰사전』은 ‘-음, -기’와 달리 ‘-이’를 접미사(받가지)로 분류한 점에서 『조선어』와 차이가 뚜렷하다.

(13) 어미 ‘-ㅁ, -음’과 접사 ‘-이’ (최현배 1937 : 927-928)

(2) 움직씨를 이름씨로 만드는 것:

『ㅁ』, 『음』 (⊙이것은 움직씨의 껌목법의 이름꼴이 아주 이름씨로 익은 것만을 보기로 든다)

꿈(夢), 잠(眠), 춤(舞), 놀음(遊宴, 賭博, 演劇), 이름(名), 얼음(氷), 걸음(肥料, 步), 열음(結實), 울음(哭, 泣, 鳴), 줄음(鬚), 알음(知面)

『-이』

갈이(耕), 놀이(遊, 演劇), 먹이(食物), 벌이(生業).

『큰사전』의 이러한 처리는 최현배(1937)의 입장과는 상통한다. 어미 ‘-ㅁ, -음, -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동사(움직씨)의 명사형(이름꼴) 가운데 ‘-ㅁ, -음’이 참여한 구성 일부가 명사로 굳은(“익은”) 예가 소개된다(⊙).¹³⁾ 따라서 (13)에 ‘ㅁ, 음’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는 ‘-이’와 같이 접사로 목록화된 것은 아니다. 이처럼 ‘-음, -기’를 접사로 인정하지 않는 관점은 이후 1980년대까지도 여러 논저에서 꾸준히 등장하는데, 아래의 몇 논의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4) 어미 ‘-음, -기’

가. 이익섭(1965 : 122)

비록 두 어간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라 할지라도 그 복합어의 최종 형태소가 명사형성접미사(ⓐ파생접미사 -이, -개 및 ⓑ명사형어미 -기, -ㅁ/-음)일 경우의 IC 분석은 그리 단순치 않다.

나. 김계곤(1969 : 40-42)

풀이씨의 줄기에 ⊙이름꼴 씨끝 “-기”가 붙어서 된 것을 사전의 올림말로 다루기에는 문제시 된다. 그 이유는 거의 모든 풀이씨에는 이름꼴 씨끝 “-기”가 붙어 쓰일 수 있어, 앞의 몇몇 보기의 낱말만을 파생어로 다루고 그 밖의 것은 파생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앞 “-기”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여기 “-(으)ㅁ”의 경우도 앞의 몇몇 보기의 낱말만을 파생어로 다루고 있는 점은 사전의 올림말 처리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13) 최현배(1937 : 931)에서 같은 방식으로 형용사(어떻씨)의 명사형이 명사로 굳은(익어 버린) 예로 ‘기쁨, 슬픔, 아픔, 설움’이 제시된다.

다. 심재기(1982 : 307)

명사화에 쓰이는 접미형태소에 초점을 맞추어 ㉠전성명사를 만드는 접미형태소를 제일군 명사화소라 하고, ㉡동명사를 만드는 접미형태소를 제이군 명사화소라 구별하여 (중략) ㉢제일군 명사화소에는 {-개}, {-애}, {-이}, {-오} 등이 논의되었고, ㉣제이군 명사화소에는 {-ㅁ}, {-기} 등이 논의될 것이다.

(14가)와 (14나)도 (13)의 최현배(1937)과 마찬가지로 ‘-음, -기’를 어미(명사형어미, 이름꼴 씨끝)로 기술한다. ‘접미형태소’라는 용어가 쓰이기는 했으나 동명사를 만드는 유형으로 ‘-ㅁ, -기’를 다룬 점에서 (14다)도 앞의 두 논의와 유사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14가)의 ㉠, ㉡가 (14다)의 ㉠, ㉡와 평행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14나)의 ㉢, ㉣을 참고한다면 김계곤(1969)은 어미 ‘-음, -기’가 결합한 대상들을 사전 표제어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찍이 『조선어』, 『큰사전』에도 등재된 바 있는 ‘돋보기, 얼음’ 등의 단어는 동명사가 아닌 특정 대상을 지시하는 구체 명사라는 점에서 사전 표제어로 인정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단순히 명사형으로 처리하기에는 뚜렷한 어휘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음’이나 ‘-기’를 접사 목록에 포함하여 논의한 입장이 있다.

(15) 접사 ‘-음, -기’와 어미 ‘-음, -기’

가. 이희승(1955 : 264-266)

㉦기어+접미어(suffix) 목록¹⁴⁾

-이(먹이, 벌이 등), -음(걸음, 믿음 등), -ㅁ(잡, 춤 등), -질(부채질, 물레질 등), -기(내기, 본보기 등), -개(노리개, 이쑤시개 등), -데기(부엌데기 등), -장이(구두장이 등), -보(떡보 등) (후략)

나. 고영근(1972 : 92-93)

‘-기’와 ‘-(으)ㅁ’은 종래에 명사형 전성어미로 알려져 왔는데 특정한 문법서 이외에는 대부분의 사전에 어미로 등록되어 있다. 이들이 분명한 주술구성을 이루고 있어서 문법성이 파악되면 어미로 볼 수 있으나(예: 나는 가기가 싫다, 밥을 많이 먹음은 건강에 좋지 않다), ㉧어휘성만 파악되면 단순한 접사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예: 걸음이 빠르다, 기쁨과 슬픔; 내기, 본보기).

다. 김창섭(1983 : 73)

‘줄넘기’, ‘갈림길’의 ‘넘기’, ‘갈림’은 ㉨동사 어간에 접미사 ‘-기’.

14) 이희승(1955 : 260-262)는 파생어 구성을 기어(basic word, 基語)와 접어(affix, 接語)의 결합으로 보았으며, prefix는 접두어, suffix는 접미어로 기술한다.

‘-음’이 붙은 것이지만 ‘넘기’, ‘갈림’은 독립된 단어로서의 명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일찍이 이희승(1955)는 (15가)처럼 ‘-음, -기’를 접미사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한 바 있으며(㉠), (15나)에서도 어휘성이 파악되는 용례(걸음, 기쁨, 내기, 본보기 등)를 근거로 접사 ‘-음, -기’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 [명사+동사+접사]('줄넘기'형) 및 [동사+접사+명사]('갈림길'형) 구성을 다룬 (15다)도 구성 내부의 ‘-음, -기’를 접사로 처리한 바 있다(㉢). (15가)~(15다)의 연구는 어미 ‘-음, -기’와 독립된 단위로서 접사 ‘-음, -기’의 존재를 인정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Halle(1973), Aronoff(1976) 이후로 파생어 중심의 단어 형성 규칙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한국어학에서도 각종 접사의 결합 관계나 제약을 다룬 성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송철의(1977, 1985, 1988, 1989/1992), 김창섭(1983, 1984), 하치근(1989/1993) 등에서 파생어 형성 규칙에 기반한 각종 단어 형성이 논의된다. 접사 ‘-음, -기’의 지위도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 명확해지는데, 특히 (16)처럼 접사 ‘-이, -음, -기’의 결합 분포를 근거로 한 파생어 간 저지(blocking) 현상이 주목되면서 세 형식이 대등한 지위의 틀을 확립해 나간다.

(16) 명사파생 접미사 ‘-이, -음, -기’의 저지 현상 (송철의 1989/1992 : 158-159)

		-이	-음	-기
(동사)	걷-(步)	*	걸음	*
	믿-	*	믿음	*
	굽-	구이	*	*
	놀-	놀이	*	*
	달리-	*	*	달리기
	던지-	*	*	던지기
(형용사)	게으르-	*	게으름	*
	괴롭-	*	괴로움	*
	밝-	*	*	밝기
	굽-	*	*	굽기
	높-	높이	*	*
	길-	길이	*	*

하나의 동사나 형용사에 대하여 ‘-이, -음, -기’의 배타적인 분포가 관찰되는데, 이는 Aronoff(1976 : 43-45)에서 논의한 ‘-ity’와 ‘-ness’ 간 저지 현상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물론 이 현상만으로 ‘-음, -기’가 접사라는 사실이 확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 -기’가 (16)의 체계 내에서 접사 ‘-이’와 어울려

서술됨으로써 ‘-음, -기’의 접사적 지위가 점차 확립되어 나간 것으로 여겨진다.¹⁵⁾ 이러한 배경에서 음운현상(‘으’ 탈락, 축약) 등을 활용하여 접사 ‘-음’과 어미 ‘-음’을 변별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진다(송철의 1977, 1989/1992).

한편, 시정곤(1993/1998 : 112-132) 이후로 ‘-음, -기’를 어미로 보는 시각이 다시금 주목받게 된다. 명사형 어미 ‘-음, -기’가 결합한 통사 구성이 점차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단어화한 것이므로, 통사부에서 형성된 단위가 어휘부에 저장된 결과로서 현재 [X+-음], [X+-기] 단어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명사 파생 접사 ‘-음, -기’와 명사형 어미 ‘-음, -기’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관점에 기초한다.¹⁶⁾ 이후 박진호(1994), 송원용(1998), 최형용(2000) 등 어미 ‘-음, -기’가 결합한 [X+-음], [X+-기] 구성이 단어화(또는 어휘화¹⁷⁾)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 여럿 등장한다.

(17) 통사론적 구성의 단어화 - 통시적 차원

가. 시정곤(1993/1998 : 121)

우리는 현대국어의 ‘-음’ 형태 명사들도 대부분 ㉠동명사형어미의 결합형이 그대로 굳어져 단어화한 것으로 가정한다.

나. 박진호(1994 : 13)

‘달리기’, ‘공부하-’는 본래 둘 이상의 통사원자로 이루어진 통사적 구성이었다. 그러던 것이, 이들이 ㉡결합된 채로 자주 쓰이다 보니 하나의 통사원자로 굳어진 것이다.

다. 송원용(1998 : 53)

어휘화(원자화)라는 단어 형성 과정을 ㉢통사적 구성이던 것이 빈번하게 사용되어 높은 빈도(token frequency)를 획득하여 어휘부에 등재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명사형이 단어 형성에 참여한 단어들 중 ‘느낌, 달리기’라는 단순형의 단어들은 ㉣어휘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휘부에 등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17가)~(17다)는 통사적 구성이 높은 빈도에 따라 단어로 굳어지는 현상을 강조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때 ‘자주 쓰여 굳어진다’(㉠~㉡)는 것은 화자들의 실제 사용에 근거하는바, 곧 ‘통시적 차원’에서 통사론적 구성이 단어화한 것임

15) 하치근(1989/1993 : 35, 116)에서도 파생 접사 ‘-이, -음, -기’의 저지 현상이 소개된다.

16) 이러한 시정곤(1993/1998)의 입장에 대해 하치근(1996)에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뒤이어 시정곤(1999)에서 지상 토론이 이루어진 바 있다.

17) 박진호(1994 : 13)는 ‘어휘부 밖에 존재했던 요소가 어휘부에 등재되는 현상’을 ‘어휘화’로 정의하고, 그 하위 유형으로 ‘규약화’(conventionalization)와 ‘원자화’(atomization)를 제시한다. 원자화란 둘 이상의 통사원자로 이루어진 통사적 구성이 자주 쓰임에 따라 하나의 통사원자(syntactic atom)로 굳어지는 현상이다. 예컨대, ‘달리-’, ‘-기’의 두 통사원자가 원자화되어 ‘달리기’라는 하나의 원자가 된다.

을 의미한다. 굳어진 구성이 어휘부에 등재(㊟)됨으로써 단어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이는 어휘부의 문법적 역할 및 등재 단위에 관한 관심이 형태론 연구에서 부상하였던 당시 분위기와도 관련이 깊다. (17가)~(17다)의 입장이 시간적 흐름을 전제한 통시적 차원의 단어화라면, 이와 달리 공시적 차원에서도 통사론적 구성의 단어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18) 통사론적 구성의 단어화 - 공시적 차원

가. 김창섭(1994/1996 : 26)

구 구조를 가진 이들이 단어가 된 것은 ‘어떤 성분으로서 문장 속에서 쓰임’에 의한 것도 아니고 ‘통시적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다. (중략) 이러한 구 구조를 가진 채로의, 재분석에 의한 공시적 단어화를 인정하고, 이를 ㊟‘구의 공시적 단어화’라고 부르기로 하자.

나. 이상욱(2004 : 67-68)

통사론적 구성의 단어화는 임시어 형성의 한 가지 원리로서, ㊟‘통사적 구에 상응하는 구성이 공시적으로 단어의 자격을 획득하는 절차’라 정의된다.

(18가)는 ‘[스승의 날]_{NP} → [[스승의 날]_{NP}]_N’과 같이 구 구조를 띠면서 단어로 인정되는 것들을 ‘공시적 단어화’(㊟)로 이해하였으며, (18나)는 ‘-음, -기’를 중점 대상으로 삼아 (18가)와 마찬가지로 통사적 구에 상응하는 구성이 공시적으로 단어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⁸⁾ 다만 (18가)가 통사적 구성의 ‘재분석’을 인정한 것과 달리, (18나)는 ‘통사론의 원리에 따른 통사원자 배열’ 이후 ‘창의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단어를 만든다고 보아 재분석과는 별개의 입장에 선다(이상욱 2004 : 69). 이에 따라 ‘기다림, 베끼기’([V+-음/기]), ‘속쓰림, 줄서기’([X+V+-음/기])와 같은 임시어는 어미 ‘-음, -기’가 참여한 통사적 구성으로부터 공시적으로 단어화한 결과로 파악된다(이상욱 2004 : 86-98).

(19) 선행 연구에서의 ‘-음, -기’ 지위¹⁹⁾

18) 김창섭(1994/1996)은 파생 접사 ‘-음, -기’를 인정하기에 어미 ‘-음, -기’ 결합형을 단어화의 결과로 보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공시적 차원의 단어화를 언급한 초기 논의라는 점에 의의가 있어 (18)에 제시한 것이다.

19) 김희상(1911 : 22-27)에서 ‘행동명사’와 ‘형용명사’와 관련하여 ‘기, 개, 이’를附하거나(예: 쓰기, 덮개; 크기, 높이) ‘口’을接하는(예: 춤, 큼)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이때 행동명사는 동사가 명사로 전성된 것, 형용명사는 형용사가 명사로 전성된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기, 개, 이’를 접사와 어미 중 무엇으로 파악하는지 이들의 뚜렷한 문법적 지위는 드러나지 않는다. 주시경(1910)에서도 ‘기뻐박굴’의 예로 ‘힘, 검음, 히기, 검기; 감, 먹음’ 등이 제시되는데 이는 파생명사가 아닌 명사형에 가까운 대상이다(정한데로 2020 : 101-104).

한편, 15세기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허웅(1975 : 637)는 “그러나 아무래도 「-기」는 파생의 가지에서 그 생산성을 획득하여 활용의 씨끝으로 변화해왔을 가능성이 깊다.”라고 보아 어미 이전

	선행 연구	파생 접사	어미
가.	최현배(1937)	...	-ㅁ, -음, -기
	이익섭(1965)	...	-음, -기
	김계곤(1969ㄴ)	...	-음, -기
	심재기(1982)	...	-ㅁ, -기
나.	이희승(1955)	-음, -ㅁ, -기 ...	-음, -기
	허웅(1966, 1975)	-ㅁ, -기 ...	-ㅁ, -기
	고영근(1972ㄱ, 1989/1999)	-음, -기 ...	-음, -기
	송철의(1977, 1989/1992)	-이, -음, -기 ...	-음, -기
	김창섭(1983, 1994/1996)	-음, -기, -이, -개	-음, -기
	하치근(1987, 1989/1993)	-이, -음, -기 ...	-음, -기
	이재인(1991, 1994)	-이, -기, -음, -개	-음, -기
	김인균(1995, 2002/2005)	-이, -음, -기, -개	-음, -기
다.	시정곤(1993/1998, 1999ㄱ)	...	-음, -기
	박진호(1994)	...	-음, -기
	송원용(1998, 2002/2005)	...	-(으)ㅁ, -기
	최형용(2000, 2002/2003)	...	-(으)ㅁ, -기
	이상욱(2004, 2007)	...	-음, -기

‘-음, -기’에 관한 이상의 선행 연구를 거칠게 정리해 보면, (19가)~(19다)와 같은 거시적 유형이 확인된다. 『조선어』와 『큰사전』에도 반영되어 있듯이 어미 ‘-음, -기’의 문법적 지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음, -기’가 ‘-이, -개, -질, -보’ 등과 마찬가지로 접사로 분류되는 것은 1950년대의 이희승(1955)에서 관찰된다. 이후 구조주의에 바탕을 둔 허웅(1966, 1975), 고영근(1972ㄱ) 등의 연구를 중심으로 ‘-음, -기’에 뚜렷한 접사의 지위가 부여된다.

생성 형태론에 바탕을 두고 단어 형성 규칙에 기반한 파생어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음, -기’ 접사 파생으로 도출된 출력형의 형태 및 의미 기술이 여러 논저로 축적된다. 이때 저지 현상을 근거로 동사 어근과 결합하는 세 접사 ‘-이, -음, -기’가 대등하게 논의되거나(송철의 1977, 1989/1992, 하치근 1989/1993), 또는 ‘-이, -음, -기, -개’의 네 접사가 묶음을 이루며 함께 서술된 연구가 다수 등장한다(김창섭 1994/1996, 이재인 1994, 김인균 1995, 2002/2005 등).²⁰⁾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다시 ‘-음, -기’를 어미만으로 파악한 입장들이 재차 등장한다. 시정곤(1993/1998), 박진호(1994) 등처럼 어미 ‘-음, -기’가 결합한 통사적 구성이 점차 굳어져 명사로 단어화(어휘화)한다는 견해, 이상욱(2004, 2007) 등처럼 공시적 차원에서 통사론적 구성의 단어화를 인정하는 견해가 등장하면서 접사가 아닌 어미로서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음, -기’에 관한

에 접사가 먼저 존재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20) 송철의(1989/1992)에서 명사파생 접미사로 제시한 ‘-개, -질, -장이, -보, -새’ 가운데 『조선어』나 『큰사전』에 등재된 것은 ‘-질, -장이’뿐이다.

논의가 다시금 주목받게 된다.²¹⁾

(20) ‘-음, -기’의 사전 등재

	사전	표제어	뜻풀이
가.	『대사전』 (1961)	-음	[어미]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명사로 만드는 말.
		-기 ⁴	[어미] 용언(用言)의 어간에 붙어 그 말을 동작적인 명사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대사전』 (1982)	-음	[어미] 받침 있는 용언(用言)의 어간에 붙어 명사로 만드는 명사형 어미.
		-기 ⁷	[어미] 용언(用言)의 어간에 붙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명사형 어미.
나.	『금성판』 (1991)	-음 ¹	[접미] 용언의 어근에 붙어, 그것을 명사로 만드는 말.
		-음 ²	[어미]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붙어, 명사형을 만드는 어미.
		-기 ¹	[접미] 용언의 어근에 붙어서, 용언을 명사로 만드는 말.
		-기 ²	[어미] ‘이다’ 및 용언의 어간에 붙어, 명사형을 만드는 전성 어미.
	『표준』 (1999)	-음 ⁹	[어미]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음 ¹⁰	[접사]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기 ³⁶	[어미]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기 ³⁸	[접사]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20가)에서 (20나)로의 기술 변화를 통해 ‘-음, -기’가 어미뿐만 아니라 접사로도 사전에 등재되기 시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사전인 『금성판』, 『표준』에서 어미 ‘-음, -기’와 더불어 접사 ‘-음, -기’가 표제어로 자리를 잡는다. 『금성판』에서 접사 ‘-음¹, -기¹’의 어깨번호가 어미 ‘-음², -기²’보다 우선되었다가 『표준』에 이르러 그 순서가 달라진 점도 눈에 띈다.

4. [V+-이/음/기]의 지위와 파생 접사

일찍이 이익섭(1965)은 한국어 복합명사의 IC 분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 및 관련 예시를 정리한 바 있다.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21) 허철구(2015)는 어미 ‘-음, -기’가 통사부가 아닌 어휘부에서 단어를 형성한다고 파악한 점에서 (19다)의 입장들과 차이가 있다.

(21) [N+V+suf] 복합명사의 몇 가지 유형 (이익섭 1965 : 122-126)

	유형	특성	관련 예시
가.	밥벌이, 눈웃음	‘벌이, 웃음’이 명사로 쓰임.	웃놀이, 뺏놀이, 닭구이, 더덕구이, 밭갈이, 하루갈이, 물굽이, 산굽이, 까치걸음, 차례걸음, 박첨지놀이, 돈놀이 등
나.	시집살이, 고기잡이	‘시집살-’, ‘고기잡-’ 복합어가 없고, ‘살이, 잡이’가 독립된 단어로 쓰이지 않음.	머슴살이, 옥살이, 칼잡이, 부채잡이, 귀걸이, 모자걸이, 바람막이, 액막이, 바람받이, 이슬받이, 꽃꽂이, 나무꽂이, 일가붙이, 금붙이, 재떨이, 해돋이 등
	줄넘기	‘줄넘-’ 복합어가 없고, ‘넘기’가 독립된 단어로 쓰이지 않음.	팽이치기, 무릎치기, 술래잡기, 줄다리기, 보물찾기, 널뛰기, 모심기 등
	말다툼 ²²⁾	‘말다툼-’ 복합어가 없고, ‘다툼’이 독립된 단어로 쓰이지 않음.	눈가림, 앞가림, 판가름, 땅울림, 눈속임, 눈어림, 말막음, 입가심, 말벗김, 관디벗김, 액땀, 꿈땀 등

(21)은 종합합성어(synthetic compound) 또는 동사성 합성어(verbal compound)로 불려온 [명사(N)+동사(V)+접미사(suf)] 구성의 예를 일부 가져온 것이다. (21가)는 후행하는 [V+suf] 구성이 ‘벌이, 웃음’처럼 독립된 단어로 쓰이지만, (21나)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주지하듯이 해당 구성 내 [N+V] 또는 [V+suf] 구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접사 ‘-이, -기, -음’이 참여한 각각의 이들 복합어는 IC 분석을 기준으로 파생어([N+V]+suf) 또는 합성어([N+[V+suf]])로 달리 파악된다. 이 장에서는 [N+V+suf] 복합명사의 분석과 형성을 다룬 선행 연구를 확인하면서, 그와 관련한 사전 기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조선어』와 『큰사전』에 등재된 아래의 [V+-이], [V+-음] 명사 표제어를 살펴보자.

(22) [V+-이], [V+-음] 명사의 사전 등재

	사전	표제어	뜻풀이
가.	『조선어』 (1938)	놀이	[名] 「놀음놀이」의 준말.
		몰이	[名] 사냥 때 새나 짐승을 몰아내는것.
		벌이	[名] 벌어먹고 살기 위하여 하는 일. 생화. 勞働.
	『큰사전』	놀이 ²	[이] ①노는 일. ②“놀음놀이”의 준말.

22) 이익섭(1965 : 126)는 ‘말다툼-’라는 복합어가 없고 ‘다툼’이라는 독립된 단어도 없기는 하나 후자의 독립성이 더 높다고 기술한 바 있다.

	(1947~)	몰이	[이] 사냥할 때나 물고기를 잡을 때에 짐승을 모는 일.
		벌이	[이] 먹고살려고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노릇.
나.	『조선어』 (1938)	걸음	[名] 걷는것. 걸어가는것. 步.
		웃음	[名] 웃는것.
	죽음	[名] 죽는것. 주검. 死.	
	『큰사전』 (1947~)	걸음 ¹	[이] 두 발을 번갈아 앞으로 옮겨 놓는 동작.
		웃음	[이] 웃는 모양이나 동작이나 소리.
		죽음	[이] 죽는 일.

(21가)에 ‘벌이, 웃음’을 예로 든 이익섭(1965)보다 이른 시기에 이미 (22)처럼 두 사전에 [V+suf] 구성이 독립된 명사로 등재된 사실이 관찰된다. 또한 『조선어』와 『큰사전』에 ‘꽃놀이, 말몰이, 팔자걸음, 눈웃음’ 등과 같은 [N+V+suf] 구성도 고르게 확인된다.²³⁾ (22가)와 (22나)의 각 [V+-이], [V+-음] 명사는 오늘날 『표준』에도 여전히 등재된 점에서 이익섭(1965)의 견해를 벗어나지 않는다.

한편, (21나)에 예시로 등장한 [N+V+suf] 복합명사 내부의 [V+suf] 구성이 대체로 오늘날 『표준』에 독립된 단위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서도 이익섭(1965)의 판단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그중 일부 [V+-이], [V+-음] 구성은 『조선어』와 『큰사전』에 표제어로 수록된 바 있는데, 다만 구체적인 기술 방식은 차이가 있다.²⁴⁾

(23) 일부 [V+-이], [V+-음] 구성의 사전 등재²⁵⁾

	사전	표제어	뜻풀이
가.	『조선어』 (1938)	-	-
		맞이	[이] 오는 이를 맞아 들이는 일.
	『큰사전』 (1947~)	-걸이	[발] ①거두는 일.
		-살이	[발] 무엇에 종사하여 살아 가는 일.
나.	『조선어』 (1938)	-	-
		-않이	[발] 다른 말 밑에 붙이어 “병(病)”의 뜻을 나타냄.

23) 『큰사전』에서 ‘말몰이’와 ‘소몰이’는 상이한 방식으로 IC 분석이 이루어진다. 동사 ‘소몰다’가 독립된 표제어로 올라 있지는 않으나, 사람을 나타내는 의미를 고려하여 ‘-이’를 분석한 것이 아닌가 한다.

(ㄱ) 말-몰이 [이] 말을 몰고 다니는 일.
(ㄴ) 소몰-이 [이] 소를 몰고 다니는 사람.

24) (23)에 제시된 표제어 중에서 ‘-맞이, -살이’는 접사로, ‘갈이, 가심, 다툼, 뺨’은 명사로 현재 『표준』에 올라 있다. ‘-잡이’도 『표준』에 접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조선어』와 『큰사전』에는 모두 올라 있지 않아 (23)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25) (21나)에 소개된 관련 예시 가운데 [V+-기] 구성인 ‘치기, 잡기, 찾기, 뛰기, 심기’ 등은 두 사전에서 모두 표제어로 관찰되지 않는다.

	『큰사전』 (1947~)	-같이	[절이] ①『농』 논밭을 가는 일.
		-풀이	[절이] 오해(誤解)나 원한(冤恨)이나 살(煞) 따위를 풀어 버리는 일.
다.	『조선어』 (1938)	-	-
	『큰사전』 (1947~)	가심 땀	[이] 깨끗지 아니한 것을 가시는 일. [절이] 어떠한 액회(厄會)나 액운(厄運)을 당하여 넘기거나, 또는 다른 고생으로 대신하여 당하는 일.
라.	『조선어』 (1938)	다툼	[名] 다투는것.
	『큰사전』 (1947~)	-	-

(23가)~(23다)처럼 『조선어』에 등재되지 않았던 대상이 『큰사전』에 명사나 접사로 새롭게 오른 경우가 있다. 이때 [V+suf]의 문법적 지위는 명사(이름씨), 형식명사(절이(불완전 이름씨)), 접미사(받가지)로 다양한데, 그 판단 기준이 명료해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표준』에 ‘-맞이, -살이’는 접사로, ‘같이, 가심, 땀’은 명사로 등재된 반면에 ‘같이, 많이, 풀이’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오늘날 사전과도 차이가 적지 않다. 한편, 『조선어』에 등재되었으나 『큰사전』에 오르지 않은 예는 (23라)처럼 ‘다툼’ 정도가 확인될 뿐이다.²⁶⁾

이렇듯 그 지위가 뚜렷하지 않은 [V+suf] 구성을 문법적으로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지를 놓고 그간 여러 견해가 있어 왔다.

(24) [V+suf] 구성 - 명사, 준접미사 등

가. 김계곤(1969L : 432)

○ 뒷가지로 처리될 수 없는 것 (중략)

(나) 제1류 형태소와 제2류 형태소가 결합된 것으로 처리한 것

a) 「풀이씨의 줄기+뒷가지 ‘-이’의 결합으로 다름 …… 같이, 낱이, 들이, 박이, 붙이, 살이, 많이, 꽃이, 풀이 (이상은 모두

⊙임자씨로 전성된 것)

b) 「풀이씨의 줄기+뒷가지 ‘-기’의 결합으로 다름 …… 내기, 치기

나. 고영근(1972ㄱ : 78-79)²⁷⁾

26) 『조선어』에는 ‘다툼’만이, 『큰사전』에는 ‘다툼질’만이 등재되었으나, 이후 『대사전』(1961, 1982), 『금성관』(1991), 『표준』(1999)에는 ‘다툼, 다툼질’이 모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27) 아래의 기술에서도 [V+suf] 구성을 ‘준접미사’로 처리한 입장이 확인된다(고영근 1972ㄱ : 80-81).

“아래의 것은 실질형태소의 활용형이 접미사의 직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나기, -내기, -치기 (번호 생략, 내용 중략)

그 형성이야 어쨌든 자립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역시 준접미사로 처리함이 마땅

아래의 것은 실질형태소에서 파생되었지만 의존성만 파악된다는 점에서 접사적인 성격이 농후하다.

-걸이, -걸이, -꽃이, -날이, -뜯이, -들이, -박이, -뿔이, -불이, -살이, -얹이, -풀이 (번호 생략, 내용 중략)

이들 파생명사들이 용언의 어간을 바탕으로 형성되기는 했지만 의존성을 발휘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준접미사의 일원으로 처리해 보고 싶다.

다. 연재훈(1986 : 23-25)

우리는 이것을 접미사로 보지 않고 자립성이 없는 동사성명사 (verbal noun)라고 부르고자 한다.

-걸이, -걸이, -꽃이, -날이, -들이, -뜯이, -박이, -불이, -뿔이 (중략)

두 형태소의 결합을, 더구나 실질형태소에서 파생된 말을 접미사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들을 잠정적으로 동사성명사 (verbal noun)라 이름 붙이고 이것들이 다른 낱말과 결합되어 합성어를 이룰 경우 그것을 ‘㉠동사성명사 합성어’라고 부르기로 한다.

(24가)~(24다)는 [N+V+suf]를 구성하는 단위 중 [V+suf]의 긴밀한 관계에 주목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다만 (24가)는 [V+suf]를 ‘명사’(임자씨)(㉠)로 파악한 데 반해, (24나)는 [V+suf] 구성이 지닌 의존성을 강조하며 ‘준접미사’(㉡)로 처리한 점에서 그 차이가 선명하다. 그리고 (24다)는 [V+suf] 구성의 의존적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동사성명사’(㉢)로 달리 명명함으로써 결국 단어로 파악하였다. 이후 채현식(2000/2003 : 201)은 고영근(1972 ㄱ)을 좇아 ‘준접미사’로, 송원용(2002/2005 : 203-210)는 ‘의사 접사’(의사 파생)로 부르는 등 [V+suf]의 문법적 지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었다.

한편, (24)와는 다르게 [N+V+suf] 구성 내부의 N과 V의 통사적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N+V]의 우선적인 결합을 강조한 연구도 확인된다. (24)가 [N+[V+suf]]의 합성어를 논의하였다면 (25)는 [[N+V]+suf]의 파생어를 다룬 것이다.

(25) [N+V] 구성 - N과 V의 ‘통사 관계’

가. 김창섭(1983 : 80)

줄넘기형 합성명사에서 제1요소 x와 제2요소 V의 통합관계를 살펴해보았다. x의 자리에는 V의 통사 자질에 따라 V와 직접 결합할 수 있는 명사, 부사 및 數와 관련된 명사구가 오며, 명사나 명사구 뒤에 조사는 나타날 수 없다. (12)-(15)는 어떤 줄넘기형 합성명사의 형성 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줄넘기형 합성명사들에 유추

할 것이다.”

하여 형성된 것들이다.

나. 이재인(1989 : 824)

‘고기잡이’의 의미는 동사 ‘잡-’에 내포된 내용구조(하위범주화 자질, 의미역)의 구체적인 실현이 ‘고기’라고 인식할 경우에만 올바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기잡이’의 구조분석은 ‘고기’와 ‘잡-’이 하나의 구성단위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김창섭(1983 : 76-77)은 [N+V+suf] 구성 내 [N+V]가 대체로 ‘주어-자동사’, ‘목적어-타동사’, ‘부사어-자동사’ 관계를 이룬다는 점에 주목하며 V의 통사 자질에 따라 구성된 [N+V]의 용례를 검토한 바 있다. (25가)는 V와 직접 결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때에 명사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된다.²⁸⁾ 그와 동시에 V에 선행한 성분이 고유어 어근, 한자어 어근, 접두사인 경우(예: 심심풀이, 양(愒)값음, 되풀이)는 V의 통사 자질에 따라 선택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단어는 유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따로 논의하였다.

(25나)는 ‘고기잡이’를 구성하는 동사 ‘잡-’의 하위범주화 자질 및 의미역이 선행하는 ‘고기’와 긴밀함에 주목하고 ‘고기잡-’을 하나의 단위로 파악한 논의이다. 이재인(1989 : 825)은 ‘고기잡-’을 어휘범주와 구범주의 중간범주인 V’로 기술하면서, ‘고기’와 ‘잡-’ 사이에 통사적 관계가 유지됨과 동시에 단일한 의미체를 이루는 어근 ‘고기잡-’에 접사 ‘-이’가 결합한다고 주장한다.

김창섭(1983) 이후 [N+V+suf] 구성 내 N과 V가 지닌 통사적 관계는 중요한 단서로 자리매김하는데, 특히 통사부와 연관된 방식으로 확장된 논의들이 등장한다.

(26) [N+V] 구성 - N의 핵 이동과 통사부 형성

가. 고재철(1992 : 44)

명사와 동사 사이에 ㉠‘목적어-타동사’ 관계, ‘주어-자동사’ 관계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사 협성이라는 통사적 이동을 상정할 수 있다는 것과, 그와는 달리 ‘부사어-동사’의 관계를 상정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후행하는 ‘동사+-이’에 대해서 재구조화를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 시정곤(1993/1998 : 348)

(12가)은 주어-자동사의 관계이며, 나머지는 목적어-타동사의 관계이다. 이러한 통사적 구성과의 연관성 때문에 이를 통사적 복합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중략) 우리는 ㉡선행 명사구의 핵인 명사가

28) 이러한 입장은 김창섭(1994/1996 : 119-120)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후술할 이재인(1989)의 입장은 이재인(1994)에서 [V+suf] 구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후행 동사로 핵 이동을 하여 통사적 복합어가 형성된다고 가정하겠다.

(26가)는 김창섭(1983)에서 강조된 N과 V의 관계 해석에 그치지 않고, 통사부에서의 명사(X⁰) 이동에 따라 Baker(1985)식의 명사 포함(noun incorporation) ㉠을 거쳐 [N+V](구두땀-)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 점에서 앞선 연구와 차이가 있다.²⁹⁾ 이와 마찬가지로 (26나)도 핵 이동(㉡)에 따른 [N+V](해돋-) 구성의 통사적 단어 형성을 주장한다. 형태론적 원리(단어 형성 규칙)에 따른 [N+V] 합성동사 형성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통사부의 통사적 단어 형성이 1990년대 초중반 [[N+V]+suf]의 구조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된다.³⁰⁾

(27) [V+suf] 구성 - 재구조화와 재분석

가. 고재설(1992 : 39)

처음에는 명사협성의 과정을 통해서 ㉠‘고등어구이’([[고등어구]V’-이]N) 등의 합성어들이 생겨나고, 그 후에 그런 형식의 합성어들이 ㉡재구조화되면서 ‘구이’가 점차 접미사적인 것으로 쓰이기 시작하여 다른 명사들에 결합하는 힘을 지니면서, 점차 ㉢‘굽-’과 목적어-타동사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명사들에도 ‘구이’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형성하는, 일종의 유추를 통해서 형성된 것들인 것이다.

나. 채현식(1999 : 38-39)

‘[N-V-이]’ 틀이 활성화될 때 ㉣[V-이]’ 부분을 공유하는 단어들이 충분히 등재되어 있고 이들이 높은 정도로 활성화된다면, [V-이]는 따로 떨어져 하나의 단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기존의 구조를 ㉤새로운 내적 구조로 재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가 은유적 쓰임 등을 통해 특수화된다면 마치 접사처럼 쓰일 수도 있다.

(27가)는 명사 포함에 따라 통사부의 [N+V] 합성동사 형성을 주장하였고, (27나)는 어휘부에 등재된 단위들 간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N+[V+-이]]가 유추에 기반한 틀(pattern)을 구성한다고 본 점에서 이 둘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입

29) “우리는 ‘구두땀이’형의 합성명사에 대해 그것이 통사부에서 명사협성이라는 과정을 거친 복합 동사들이 ‘-이’로써 다시 파생된 것으로 보았다.” (고재설 1992 : 34)

‘명사협성’은 ‘명사 포함’(noun incorporation)을 의미한다. 고재설(1992 : 32)는 D-구조의 [구두땀]_V이 명사 포함 이후에 S-구조에서 [t₁ [구두₁땀-]_V]_V과 같이 ‘구두땀-’ 동사를 형성하고,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파생어 [[구두땀-]_V -이]_N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30) 김창섭(1994/1996 : 122)은 ①통사적 원리에 따른 ‘해돋-’ 형성과 ②처음부터 끝까지 어휘부에서 진행된 ‘해돋-’ 형성의 두 접근 가운데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장이다.³¹⁾ 그러나 관련 어휘가 충분히 생겨나고(㉠, ㉡), ‘재구조화(㉢), 재분석(㉣)’의 단계를 거치며 [V+suf] 구성이 접사와 같은 하나의 단위를 이룰 수 있다고 본 점에서 평행하다.³²⁾ (25가㉠)과 더불어 (27가㉡)도 유추에 따른 단어 형성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추를 단어 형성 기제로 강조하는 (27나)와 접점을 지닌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계열관계 어휘가 다수인 [N+V+suf] 구성(예: 고기잡이, 명태잡이, 고래잡이 등)을 대상으로 유추에 기반한 단어 형성 논의가 주목받기 시작한다. ‘채현식(1999, 2000/2003, 2002), 최형용(2000), 송원용(2002/2005)’과 ‘시정곤(1999ㄴ), 연재훈(2001, 2003), 김인균(2002/2005)’ 등은 각각 유추와 규칙을 중심으로 [N+V+suf]의 단어 형성을 주장한 당시 연구들이다.

(28) 어휘부 내 계열관계 및 유추 기반의 단어 형성 - 채현식(2000/2003 : 178, 203, 225)

가. 화자의 공시적인 어휘부를 논의의 중심에 두고 있는 본고의 입장에서는, (2)의 단어들이 최초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나. [N-V-이] 명사들도 서로 연결되어 계열체를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연결의 축이 되는 것이 [V-이]이다. [V-이]는 그것을 축으로 삼아서 연결된 복합명사들과의 계열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식된다.

다. [N-V-이] 복합명사는 [N-[V-이]]의 내부구조를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N-[V-이]]로 분석할 때 N과 동사 사이의 논항 관계는 논항 전수라는 기제를 이용해서 설명된다.

(28가)처럼 채현식(2000/2003) 등은 최초의 단어가 형성된 방식이 아닌, 화자의 공시적 어휘부에 관심을 둔다. 종래 ‘규칙’(rule)과 같은 ‘결합’(통합관계)이 강조된 접근이 기원 중심적(source-oriented, input-oriented)이라면, ‘대치’(계열관계)와 ‘틀’(schema)이 강조된 접근은 결과물 중심적(product-oriented, output-oriented) 입장에 있다(Bybee 1995 : 430, Booij 2010 : 4 참고). (27나)의 ㉡과 ㉢에서도 확인했듯이 (28나)는 [N+V+suf] 구성 내 [V+suf]를 축으로 한 계열관계를 통해 새로운 내적 구조가 재분석된다고 본다. 다만 N과 V 사이에서 포착되는 논항 관계는 ‘논

31) 김창섭(1994/1996 : 129)은 ‘상투잡이, 안경잡이’ 등의 ‘잡이’가 접사 ‘-쟁이, -뱅이, -짜리’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보고, 이때의 ‘잡이’가 하나의 접미사로 재분석되었다고 하였다.

32) 채현식(2000/2003 : 193)의 ‘재분석’은 공시적인 화자의 어휘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김창섭(1994/1996)과 고재철(1992)의 ‘재분석, 재구조화’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된다.

항 전수'(argument inheritance)를 활용하여 해결한다. [N+[V+suf]] 구성에서 비핵 V의 논항이 [V+suf]에 전수됨으로써 N과 [V+suf] 사이의 다양한 논항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9) ‘[살이], [잡이]’의 재분석

가. 채현식(1999 : 38-39)

시집살이, 감옥살이, 처가살이 → [N [살이]]

‘[N-V-이]’ 틀이 활성화될 때 ‘[V-이]’ 부분을 공유하는 단어들이 충분히 등재되어 있고 이들이 높은 정도로 활성화된다면, [V-이]는 따로 떨어져 하나의 단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기존의 구조를 새로운 내적 구조로 재분석한 것이다.

나. 송원용(2002/2005 : 81)

‘-잡이’의 의사 접사화 과정을 인지적 과정으로 재구성해 보자.

① 초기의 단어 구조

: [[장구-잡]-이], [[북-잡]-이], [[징-잡]-이]

② 형태론적·의미론적 유사성에 따른 재분석

: [장구-[잡-이]], [북-[잡-이]], [징-[잡-이]]

③ 유추의 틀 형성: [X-[잡이]]_{인물명사(X=약기)}

특정 성분을 주축으로 삼아 계열관계를 구성하는 어휘 간 관련성, 재분석, 그에 따른 유추의 틀 형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은 (29)와 같이 [살이], [잡이]의 새로운 단위를 형성한다. (29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잡이’가 의사 접사가 된다고 보았는데, (10나)에 제시한 의사 접사 ‘벼락-, 소나기-, 실-’과 평행한 설명을 시도한 것이다.

이렇듯 [N+V+suf]의 단어 형성을 논의하면서 독립된 단위로서 [V+-이] 구성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었는데, 한때 『조선어』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던 구성 일부가 현재 『표준』에 등재된 경우를 보게 된다. 동사 ‘살-, 맞-, 잡-, 닦-, 꽃-’과 접미사 ‘-이’가 결합한 아래의 구성이 그에 해당한다.

(30) 『표준』(2025)의 [V+-이] 사전 등재

		표제어	뜻풀이
가.	-살이	[접사] ‘어떤 일에 종사하거나 어디에 기거하여 사는 생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감옥살이, 셋방살이, 종살이	
	-맞이 ²	[접사] 어떠한 날이나 일, 사람, 사물 따위를 맞는다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달맞이, 손님맞이, 추석맞이	
	-잡이 ²	[접사] ‘무엇을 잡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고기잡이, 오징어잡이, 꿩잡이	

나.	답이	[명사] 물건을 닦는 일. 또는 그 사람. 예 이런 일은 전문적인 답이를 불러다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꽃이 ¹	[명사] 어떤 사물을 세우거나 꽃아 둘 수 있게 만든 물건. 예 우산꽃이, 칫솔꽃이, 명함꽃이

(30가)와 (30나)는 각각 『표준』(2025)에 접사와 명사로 달리 올라 있다. 그중 (30가)의 [살+-이]와 [맞+-이]는 『큰사전』에 접사(-살이)와 명사(맞이)로 다르게 기술되었지만(23) 참고), 현재 『표준』에서는 접사로 그 범주가 일치된다.

[잡+-이], [답+-이], [꽃+-이]는 ‘고기잡이, 구두답이, 편지꽃이’의 용례로 선행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어 온 대상이다. 계열 관계에 있는 어휘가 다수라는 점에서 대개 [N+잡이], [N+답이], [N+꽃이]로 분석되어 왔는데, 이들 단위가 현재 『표준』에 접사나 명사로 올라 있다는 것은 선행 연구의 성과와 평행한 기술로 여겨진다.³³⁾

『표준』(2025)을 기준으로 한 공시적 결과뿐만 아니라 다섯 구성의 사전 등재 양상을 통시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31) [V+-이]의 사전 등재

	사전	[살+이]	[맞+이]	[잡+이]	[답+이]	[꽃+이]
가.	『조선어』(1938)	-	-	-	-	-
나.	『큰사전』(1947~)	-살이	맞이	-	-	-
다.	『대사전』(1961)	-살이	맞이	-	-	-
	『대사전』(1982)	-살이	맞이 ³⁴⁾	-	-	-꽃이
라.	『금성판』(1991)	-살이	-맞이	-	-	-
마.	『표준』(1999)	-살이	-맞이 ²⁾	-잡이 ³⁾	답이	-
	『표준』(2025)	-살이	-맞이 ²⁾	-잡이 ²⁾	답이	꽃이 ¹⁾
바.	『고려대』(2025)	-	-	- ³⁵⁾	답이	-

(31)에 제시된 다섯 구성 가운데 ‘-살이’는 일찍이 『큰사전』에 접미사로 등재 되었으며(23) 참고), 이후 ‘-살이’는 (31다)~(31마)처럼 일관성 있게 여러 사전에서 접미사로 처리되었다. ‘-살이’와 함께 ‘-맞이, -잡이’도 『표준』에 접미사로 등재되었는데, 『큰사전』과 『대사전』(1961)에서 명사로, 『대사전』(1982)에서 형식명사로 올랐던 ‘맞이’가 『금성판』(1991)부터는 접미사 ‘-맞이’로 달리 분류되었다. 이와 비교할 때 ‘-잡이’는 뒤늦게 『표준』(1999)에 이르러 비로소 접미

33) 이익섭(1965 : 123)는 ‘시집살-, 고기잡-’보다 ‘살이, 잡이’의 독립성이 훨씬 크다고 보고 ‘시집-살이, 고기-잡이’로 직접 구성 성분을 분석하였는데, 현재 『표준』(2025)의 사전 처리는 이러한 분석 방식과 일치한다.

34) 『대사전』(1961)에 ‘명사’로 등재된 ‘맞이’가 『대사전』(1982)에서는 ‘형식명사’로 달리 등재된 차이가 있다.

35) 다른 의미를 지닌 자립명사로서의 ‘잡이’는 다음과 등재되어 있다.
“①어떤 물건에 덧붙여서 손으로 쥐게 된 부분. 예 손잡이”

사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현재 『표준』에 명사로 올라 있는 ‘닭이, 꽃이’도 주목된다. ‘닭이’는 사전에 한 번도 등재된 적이 없다가 『표준』(1999)에 이르러 명사로서 처음 사전에 올랐다. 그리고 『고려대』(2025)에도 명사로 등재되어 있다. ‘꽃이’는 『표준』(1999)에 수록되지 않았던 것이 누리집 사전인 『표준』(2025)에 올라 있다. 『대사전』(1982)에 ‘꽃이’가 접미사로 올랐던 적이 있기는 하나 현재는 ‘꽃이’가 명사로서 자립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류된다.

5. 맺음말

(생략)

<참고 문헌>

[사전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5.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누리집(<https://ko.dict.naver.com> 참고).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국립국어원. 2025. 『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https://stdict.korean.go.kr>).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 1991.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문세영. 1938. 『조선어사전』. 박문서관.

문세영.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영창서관.

이희승. 1961.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이희승. 1982. 『국어대사전』. 수정증보판. 민중서림.

한글학회. 1947~1957. 『큰사전』. 을유문화사.

[논저류]

고영근. 1972ㄱ.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I): 확립기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논문집 18. 서울대학교. 71-101쪽. [고영근(1989/1999)에 재수록]

고영근. 1972ㄴ.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II): 통합관계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8.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55-80쪽. [고영근(1989/1999)에 재수록]

고영근. 1973ㄱ.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3): 접미적 파생법의 기술 방법을 중심으로」, 어학연구 9-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64-74쪽. [고영근(1989/1999)에 재수록]

고영근. 1973ㄴ.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4): 동요상황을 중심으로」,

학술원논문집 12. [고영근(1989/1999)에 재수록]

- 고영근. 1989/1999. 『국어형태론연구』. 증보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재설. 1992. 「'구두답이'형 합성명사에 대하여」, 서강어문 8-1. 서강어문학회. 17-46쪽.
- 고재설. 1993. 「국어 단어 형성에서의 형태·통사 원리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본관. 1992. 「생성문법과 국어 조어법 연구 방법론」, 주시경학보 9. 탑출판사. 50-77쪽.
- 구본관. 1996/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 구본관. 1999. 「파생접미사의 범위」, 형태론 1-1. 형태론. 1-23쪽.
- 구본관. 2002. 「형태론의 연구사」, 한국어학 16. 한국어학회. 1-48쪽.
- 권재일. 1981. 「현대국어의 '기' 명사화 내포문 연구」, 한글 171. 한글학회. 45-63쪽.
- 권재일. 1982. 「현대국어의 '음' 명사화 내포문 연구」, 한국어문논집 2. 한사대 한국어문연구소. 33-47쪽.
- 김계근. 1968ㄱ. 「현대 국어의 「앞가지」(접두사, prefix) 처리에 대한 관견(管見): 두 가지 국어사전(한글 학회 : 한글소사전과 이 희승 : 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문창어문논집 8. 문창어문학회. 1-31쪽.
- 김계근. 1968ㄴ. 「현대 국어의 조어법(word formation) 연구: 앞가지(Prefix)에 의한 파생법」, 논문집 3. 인천교육대학교. 57-89쪽.
- 김계근. 1969ㄱ. 「현대 국어의 「뒷가지」(접미사, Suffix) 처리에 대한 관견(管見): 두 가지 국어 사전(한글학회 : 한글 소사전, 이 희승 : 국어 대사전)을 중심으로」, 한글 144. 한글학회. 95-139쪽.
- 김계근. 1969ㄴ. 「현대 국어의 조어법(word formation) 연구: 뒷가지(suffix)에 의한 파생법」, 논문집 4. 인천교육대학교. 23-85쪽.
- 김명광. 2004. 「국어 접사 '-음', '-기'에 의한 단어 형성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국. 2008. 「접미사에 의한 공시적 단어형성 연구: 통사적 구성과 형태적 구성의 경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균. 1995. 「국어 파생어에 대한 형태·통사론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균. 2002/2005. 『국어의 명사 문법 I』. 역락.
- 김창섭. 1983. 「'줄넘기'와 '갈림길'형 합성명사에 대하여」, 국어학 12. 국어학회. 73-99쪽.
- 김창섭. 1984.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답-, -스럽-, -롭-, 하-'와 '-적'의 경우」, 진단학보 58. 진단학회. 145-161쪽.
- 김창섭. 1994/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김희상. 1911. 『조선어전』. 보급서관. (역대한국문법대계 119)
- 박승빈. 1935. 『조선어학』. 조선어학연구회. (역대한국문법대계 150)
- 송원용. 1998. 「활용형의 단어 형성 참여 방식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원용. 1999. 「시정근(1998)의 단어 개념을 다시 생각함」, 형태론 1-1. 형태론. 143-151쪽.
- 송원용. 2002/2005. 『국어 어휘부와 단어형성』. 태학사.
- 송철의. 1977. 「파생어형성과 음운현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철의. 1985. 「파생어형성에 있어서 어기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93-211쪽.
- 송철의. 1988. 「파생어형성에 있어서의 제약현상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9. 국어국문학회. 309-333쪽.
- 송철의. 1989/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시정근. 1993/1998.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수정판. 한국문화사.
- 시정근. 1999ㄱ. 「‘X+음’의 정체는 무엇인가」, 형태론 1-1. 형태론. 133-141쪽.
- 시정근. 1999ㄴ. 「규칙은 과연 필요 없는가」, 형태론 1-2. 형태론. 261-283쪽.
- 시정근. 2008. 「국어 형태론에서 단어형성 전용요소의 설정에 대한 타당성 연구」, 한국어학 38. 한국어학회. 83-107쪽.
- 심재기. 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 안확. 1923. 『수정 조선문법』. 회동서관. (역대한국문법대계 126)
- 양정호. 2010. 「‘-음’과 ‘-기’의 문법 범주에 대한 일고찰」, 어문연구 65. 어문연구학회. 57-75쪽.
- 연재훈. 1986. 「한국어 ‘동사성명사 합성어(verb-noun compound)’의 조어법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연재훈. 2001. 「이른바 ‘고기잡이’류 통합합성어의 단어형성에 대한 문제」, 형태론 3-2. 형태론. 333-343쪽.
- 연재훈. 2003. 「통합합성어에서 접미사 처리 문제와 논항 분석 문제 재론」, 형태론 5-1. 형태론. 123-131쪽.
- 이상욱. 2004. 「‘-음’, ‘-기’ 명사형의 단어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욱. 2007. 「임시어의 위상 정립을 위한 소고」, 형태론 9-1. 형태론. 47-67쪽.
- 이익섭. 1965. 「국어 복합명사의 IC 분석」, 국어국문학 30. 국어국문학회. 121-129쪽.
- 이재인. 1989. 「‘-이’ 명사의 형태론」, 『이정 정연찬선생 회갑기념논총』. 탑출판사. 820-835쪽.
- 이재인. 1994. 「국어 파생접미사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희승. 1955.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 정한데로. 2015. 『한국어 등재소의 형성과 변화』. 태학사.
- 정한데로. 2016. 「규칙과 유추, 다시 생각하기」, 어문연구 44-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99-126쪽. [정한데로(2019)에 재수록]
- 정한데로. 2019. 『발견을 위한 한국어 단어형성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 정한데로. 2020ㄱ. 「주시경의 ‘기’와 ‘기똥박굴’에 관한 고찰」, 국어학 93. 국어학회. 89-122쪽.
- 정한데로. 2020ㄴ. 「단어 형성으로 바라본 안확의 『조선문법』(1917, 1923)」, 어문연구

- 48-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17-349쪽.
- 정한데로. 2021. 「어휘부 연구와 단어형성론」, 형태론 23-1. 형태론. 1-35쪽.
- 정한데로. 2022. 「최현배의 ‘바꿈’, 계승과 변화」, 형태론 24-1. 형태론. 82-112쪽.
- 정한데로. 2024. 「‘-답-, -스럽-, -롭-’이 접사가 되기까지: 20세기 초의 문법서 검토」, 한말연구 65-26. 한말연구학회. 1-23쪽.
- 주시경. 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역대한국문법대계 111)
- 채현식. 1994. 「국어 어휘부의 등재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현식. 1999. 「조어론의 규칙과 표시」, 형태론 1-1. 형태론. 25-42쪽.
- 채현식. 2000/2003.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태학사.
- 채현식. 2002. 「‘고기잡이’류 복합명사의 형성 문제에 대하여」, 형태론 4-1. 형태론. 143-152쪽.
- 최현배. 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출판부. (역대한국문법대계 147)
- 최현배. 1937/1961. 『우리말본』. 세 번째 고침. 정음사.
- 최현배. 1937/1977. 『우리말본』. 여섯 번째 고침. 정음사.
- 최형용. 1997. 「형식명사·보조사·접미사의 상관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형용. 2000. 「단어 형성과 직접 성분 분석」, 국어학 36. 국어학회. 161-190쪽.
- 최형용. 2002/2003.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통사적 결합어를 중심으로』. 태학사.
- 최형용. 2003. 「‘X(으)ㄴ이’형 단어에 대하여」, 형태론 5-2. 327-350쪽.
- 최형용. 2016. 『한국어 형태론』. 역락.
- 하치근. 1987. 「국어 파생접미사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치근. 1989/1993. 『국어파생형태론』. 개정증보판. 남명문화사.
- 하치근. 1996. 「국어 통사적 접사의 수용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한글 231. 한글학회. 43-105쪽.
- 하치근. 1999. 「‘-음’ 접사의 본질을 찾아서」, 형태론 1-2. 형태론. 359-369쪽.
- 한글학회. 2009.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 허용. 1966. 「서기 15세기 국어를 대상으로 한 조어법의 서술방법과 몇가지 문젠점」, 동아문화 6.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53쪽.
- 허용. 1975.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 문화사.
- 허철구. 2015. 「단어 형성 단위로서의 어미」, 배달말 56. 배달말학회. 105-140쪽.
- 황화상. 2001. 『국어 형태 단위의 의미와 단어형성』. 월인.
- Aronoff, M.. 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The MIT Press.
- Bauer, L.. 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oij, G. E.. 2010. *Construction Morp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Bybee, J. L.. 1995. 「Regular morphology and the lexicon」,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10. pp. 425-455.
- Halle, M.. 1973. 「Prolegomena to a theory of word-formation」, *Linguistic Inquiry* 4-1. pp. 3-16.

628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광복 80년, 우리말 문법 연구의 성과와 과제
2025년 5월 16일(금) 10:00~15:40 / 한글학회 강당

□ 제1부/ 주제 발표

한국어 통사현상의 통사이론적 함의 —다중 분열문과 괴팍한 접속의 경우—

이정훈

서강대학교 교수
leejh@sogang.ac.kr

1. 서론

한국어에는 (1)에 예시한 다중 분열문과 (2)에 예시한 괴팍한 접속 구성이 존재함.

(1) 그가 작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

가. 그가 작년에 죽은 것은 미국에서 교통사고로이다.

나. 그가 미국에서 죽은 것은 작년에 교통사고로이다.

다. 그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은 작년에 미국에서이다.

라. 그가 죽은 것은 작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이다.

(김영희 2000: 87 참고)

(2) 괴팍한 접속

가. 영이에게 책이랑 순이에게 논문은 철수가 주었다.

나.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읽는가?

(이정훈 2014가: 56, 2014나: 207 참고)

(1)은 성분(constituent)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작년에 교통사고로’ 등이 분열 대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줌(cf. 철수가 만난 것은 학교에서 영이었다). 성분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문법 작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2)에서 보듯이 접속에서도 나타남(cf. 학교에서 철수랑 도서관에서 민수는 영이가 만났다).

(1), (2)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문법 작용은 성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가설을 지키면서 (1), (2)를 설명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방금의 가설을 폐기하는 길임. 이 두 가지 길 중에 여기서는 앞의 것을 택함.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한두 가지 현상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두 번째 길은 비제약적인 문법, 다시 말해 습득(acquisition)에 부담을 주는 문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임.

한편, (1)과 (2)로 예시한 현상들에 대한 통사적 이해는 ‘통사구조에 대한 설명’과 ‘직관차에 대한 설명’, 이 두 가지 설명을 필요로 함. 이 중 여기서는 ‘통사구조에 대한 설명’에 논의의 초점을 맞춤.

관련하여, (1)과 (2)의 통사구조에 대한 이해는 한국어 통사현상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 통사론을 심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다중 분열문과 괴팍한 접속 구성의 통사구조와 일반 통사론적 함의를 밝히고자 함.

2. 괴팍한 접속: 동적 통사구조 형성과 무표찰 구성의 가능성

(2가)에서 ‘-이랑’은 접속조사이며, ‘-이랑’ 이외의 접속조사가 나타날 수도 있음.

- (3) 가. 영이에게 책-이랑 순이에게 논문은 철수가 주었다. (= 2가)
- 나. 영이에게 책-인가 순이에게 논문은 철수가 주었다.
- 다. 영이에게 책-이며 순이에게 논문은 철수가 주었다.

그런데 통사구조를 (4)로 보는 한, 간접 목적어 ‘영이에게’와 직접 목적어 ‘책’은 성분을 이루지 않음.¹⁾

- (4) [CP [TP [VP 철수가 [V^o 영이에게 [V 책을 주-]]]-었-]-다]

1) 통사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는 이정훈(2023) 등 참고.

그렇다고 (4)의 통사구조를 무시할 수 없음. (4)의 타당성은 생략, 대용, 이동, 접속 등을 통해 꽤 확고히 검증되기 때문임.

따라서 (4)의 통사구조를 인정하면서, (3)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됨. 이에 동적 통사구조 형성을 제안함. 동적 통사구조 형성은 언어수행 차원의 구문분석(parsing)을 위해 필요하기도 한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음.

(5) $[\alpha \beta] \rightarrow [[\alpha \beta] \gamma]$ 또는 $[\alpha [\beta \gamma]]$

동적 통사구조 형성은 위에서 보듯이 통사구조 형성 과정에서 앞서 형성된 구조를 유지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음.

(5)에 따라, 특히 통사구조가 변경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괴팍한 접속 구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이면 아래와 같음.

(6) 영이에게 책-이랑 순이에게 논문은 철수가 주었다. (= 2가)

가. [영이에게 책], [순이에게 논문] 형성

나. [영이에게 책]-이랑 [순이에게 논문] 형성²⁾

다. V ‘주-’ 병합 및 구조 변경³⁾

[_v [_v 영이에게 책 주-]-이랑 [_v 순이에게 논문 주-]]

라. 보조사 ‘-은/는’ 병합⁴⁾

[_v [_v [_v 영이에게 책 주-]-이랑 [_v 순이에게 논문 주-]] -은/는]

마. ‘철수가’ 병합 및 VP 형성

[_{VP} 철수가 [_v [_v [_v 영이에게 책 주-]-이랑 [_v 순이에게 논문 주-]]-은/는]]

바. 어미 병합 및 핵 이동⁵⁾

[_{CP} [_{TP} [_{VP} [_{VP} 철수가 [_v [_v [_v 영이에게 책 t₂]-이랑 [_v 순이에게 논문 t₂]]-은/는]] t₃ 주₂-었₃-다]

사. 주제화 이동

[_{CP} [_v 영이에게 책 t₂-이랑 순이에게 논문 t₂-은/는]₄ [_{CP} [_{TP} [_{VP} [_{VP} 철수가 t₄] t₃] 주₂-었₃-다]]

2) 접속의 통사구조에 대해서는 이정훈(2023, 2024) 참고. (6)에서는 접속조사와 접속어미 중 접속항이 명사류이므로 접속조사가 선택된다. 또한 대격조사와 접속조사는 어울릴 수 없으므로 ‘책’과 ‘논문’은 대격조사를 취하지 않는다.

3) (6다)에는 V ‘주-’가 두 번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6나)와 V ‘주-’가 병합하면 적격한 VP를 형성하기 위해 V ‘주-’가 복사(copy)되어 하나는 접속항 ‘[영이에게 책]’과 병합하고, 또 하나는 접속항 ‘[순이에게 책]’과 병합하기 때문이다(이정훈 2014가: 72 참고).

4) 보조사는 N 범주나 Adv 범주 뿐만 아니라 V, V', V'', VP 등 V 범주와도 병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정훈(2014나) 참고.

5) 어미 병합 및 핵 이동에 대해서는 이정훈(2023) 참고.

이러한 통사구조 형성 과정은 다음의 두 가지 일반 통사론적 함의를 가짐. 첫째, 동적 통사구조 형성. 이는 언어능력과 언어수행 간의 간격을 좁히는 효과도 지님. 둘째, (6가), (6나)와 관련된 것으로 소위 무표찰 구성(unlabeled construction)의 가능성.

둘째 사항과 관련하여, NP, VP, TP, CP 등의 표찰(label)은 해석(interpretation)을 위해 필요함.⁶⁾ 예를 들어 ‘어제 비가 왔다’, ‘거기 앉아라’ 등은, ‘어제’, ‘거기’의 표찰이 NP와 AdvP 중 AdvP로 정해져야, 적절히 해석될 수 있음. 그런데 (6가), (6나)의 ‘[영이에게 책]’, ‘[순이에게 논문]’은 해석 단위가 아님. 따라서 표찰을 가지지 않음.⁷⁾

참고로, 전통적으로 통사구조는 성분성(constituency), 표찰(label), 어순(word order),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옴. 이 셋에 대한 애초의 이론화는 구 구조 규칙(phrase structure rule)이었으며, 구 구조 규칙은 성분성, 표찰, 어순을 구 구조 규칙 자체에 포함시킴. 이어서 등장한 핵 계층 이론(X-bar theory)은 성분성과 표찰을 책임지고, 어순은 매개변인(parameter)이나 선형화 작용(linearization)으로 포착함. 어순이 통사구조 형성 규칙과 분리된 셈인데, 여기에 더해 표찰도 통사구조 형성 규칙과 분리되고 통사구조 형성 규칙은 성분성만을 책임지게 됨(Chomsky 2013, 이정훈 2020나 등 참고). 무표찰 구성은 ‘성분성’만 책임지게 된 통사구조 형성 규칙, 즉 병합(merge)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보여줌.

3. 다중 분열문: 무표찰 구성 재확인

단일 분열문의 통사구조를 살피고, 이를 확대/심화하여 다중 분열문의 통사구조를 밝힘. 이를 통해 앞서 확인한 일반 통사론적 함의 중 무표찰 구성의 가능성을 재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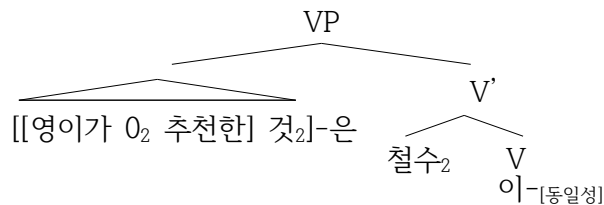
6) 아울러 표찰은 통사구조 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열심히, 책을, 읽-’이 병합하여 통사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을 고려하면, NP ‘책을’과 V ‘읽-’이 병합하여 그 표찰이 V’로 정해져야([_V 책을 읽-]), AdvP ‘열심히’가 병합하여 ‘[_V 열심히 [_V 책을 읽-]]’이 형성될 수 있다. 만약 ‘[책을 읽-]’의 표찰이 V’로 정해지지 않으면 ‘[책을 읽-]’에는 NP도 포함되어 있고 V도 포함되어 있으며 NP는 AdvP와의 병합을 거부하는바, AdvP ‘열심히’와 ‘책을 읽-’의 병합이 보장되지 않는다.

7) 해석 단위로 기능하지 않는 성분이 형성된다는 것은 통사구조 형성 규칙인 병합이 자유롭게 적용된다는 것, 다시 말해 해석 등이 동기가 되어 병합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사구조 형성은 통사구조 형성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결과가 해석 단위로 기능하느냐의 여부는 다른 차원에서 따져져야 하는 것이다.

3.1. 단일 분열문의 통사구조

단일 분열문의 통사구조는 아래와 같음(박철우 2008, 이정훈 2020 등 참고).

(7) 영이가 추천한 것은 철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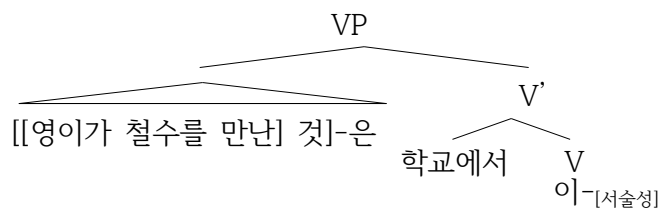


위에서 ‘것’은 허사(pleonastic)로서 ‘눈이 온 것이다’와 같은 예에서도 볼 수 있음. V ‘이-’에는 서술성의 V ‘이-’와 V 동일성의 V ‘이-’가 있는데(그는 국 어학자이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다), (3)의 V ‘이-’는 동일성의 V ‘이-’임.

허사 ‘것’의 내용은 관형절 내 공범주 ‘0’과 동지표(coindex)되고, ‘철수’를 성분지휘(c-command)함으로써 채워짐. (7)과 달리 ‘*철수가₂ [영이가 0₂ 추천한 것₂]이다’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것’이 ‘철수’를 성분지휘하지 못하기 때문 임.

(7)은 동일성 V ‘이-’와 허사 ‘것’이 나타난 경우인데, 아래에서 보듯이 서 술성 V ‘이-’와 사건의 ‘것’이 분열문을 형성할 수도 있음.

(8) 영이가 철수는 만난 것은 학교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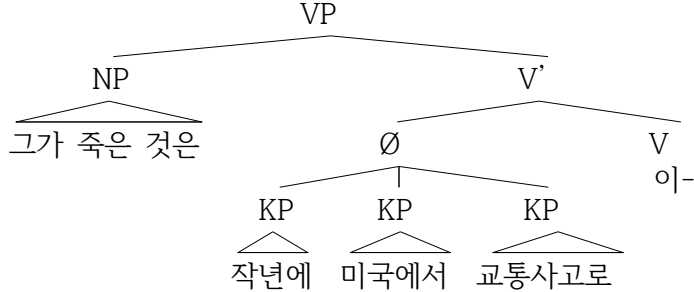
사건의 ‘것’은 ‘나는 철수가 사과를 먹는 것을 보았다, 나는 철수가 도착한 것을 안다’와 같은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이정훈 2020가: 72 참고).

3.2. 다중 분열문의 통사구조

다중 분열문의 통사구조는 단일 분열문의 통사구조와 다르지 않음. 다만, 분 열성분이 둘 이상 나타나는 차이를 지님. 아래 통사구조에서 ‘∅’는 무표찰을

나타냄.

(9) 그가 죽은 것은 작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이다. (= 1라)



위에서 분열성분 ‘작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는 하나의 성분을 이루되, 표찰은 지니지 않음. 이들 셋이 모여서 하나의 해석 단위로 기능하지 않는바, 표찰이 나타나지 않는 것임.

분열성분 ‘작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는 각각이 따로따로 해석에 참여함. 그래서 (9)는 ‘그가 죽은 것은 작년이다’와 ‘그가 죽은 것은 미국에서이다’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은 교통사고로이다’가 병렬/접속된 것과 의미가 통하며, ‘그리고’와 같은 접속 표현이 개재해도 무방함.

(10) 그가 죽은 것은 [[작년에] [미국에서] 그리고 [교통사고로]]이다.

다중 분열문의 분열성분은 논항들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부가어들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아래에서 보듯이 논항과 부가어가 섞여서 이루어질 수도 있음.

(11) 영이가 만난 것은 학교에서 철수였다.

(11)의 통사구조도 (9)와 마찬가지로. 다만, ‘것’과 V ‘이-’의 성격이 이중적이라는 특징을 지님. ‘것’과 V ‘이-’의 정체는, ‘학교에서’를 고려하면 사건의 ‘것’과 서술성 V ‘이-’인데, ‘철수’를 고려하면 허사 ‘것’과 동일성 V ‘이-’이기 때문임. 이에 여기서는 ‘것’과 V ‘이-’를 다음과 같이 파악함. 먼저, 분열문의 ‘것’은 허사 ‘것’이며, 사건의 ‘것’은 허사 ‘것’의 내용이 사건 논항(event argument. Davidson 1967/2001 참고)에 의해 채워진 것으로 봄. (8)에서처럼 관형절 내에 공범주가 부재하면 허사 ‘것’이 사건 논항에 의해 그 내용이 채워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다음으로, V ‘이-’는 ‘이-[서술성]’과 ‘이-[동일성]’을 아우르는 포괄적 ‘이-[포괄적 동일성]’이 있고(양정석 1986 참고), ‘이-[포괄적 동일성]’과 함

께 등장하는 성분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포괄적 ‘이_{-[포괄적 동일성]}’이 ‘이_{-[서술성]}’이나 ‘이_{-[동일성]}’으로 구체화 또는 분화되는 것으로 봄.⁸⁾

4. 무표찰 구성의 일반성

무표찰 구성은 일견 낯선 듯하지만 ‘괴팍한 접속 구성’과 ‘다중 분열문’ 이외의 경우에서도 관찰되는바, ‘감탄 표현’도 무표찰 구성의 사례로 파악됨.

(12) 가. 오매, 단풍 들것네.

나. 누이는 (*오매) 단풍 들것다고 말했다.

위에서 보듯이 ‘오매’와 같은 감탄 표현은 내포를 거부함. 이는 감탄 표현 ExclIP ‘오매’와 CP ‘단풍 들것네’가 병합하면 무표찰 구성 ‘[\emptyset [ExclIP 오매] [CP 단풍 들것네]]’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모문 V ‘말하-’는 CP를 보충어 내포절로 취하는데 ‘[\emptyset [ExclIP 오매] [CP 단풍 들것네]]’의 표찰은 CP가 아니므로 내포될 수 없는 것임.

물론 무표찰 구성의 해석은 무표찰 구성에 포함된 각각의 성분에 의해 결정되므로(3절 참고), 무표찰 구성 자체가 불허되지는 않음. 하지만 ‘[\emptyset [ExclIP 오매] [CP 단풍 들것네]]’처럼 감탄 표현이 무표찰 구성의 성분으로 등장하면 모문 V ‘말하-’가 CP ‘단풍 들것네’ 뿐만 아니라 ExclIP ‘오매’와도 관계를 맺게 되는데서 문제가 발생함. V ‘말하-’와 ExclIP ‘오매’는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임.

5. 결론

개별언어로서 한국어는 풍부한 통사현상을 지니며, 통사현상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설명은 한국어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 통사론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함. 이러한 인식 하에 한국어의 ‘괴팍한 접속 구성’과 ‘다중 분열문’에 대한 통사적 이해를 도모하였고, 그 일반 통사론적 함의로 ‘동적 통사구조 형성’과 ‘무표찰 구성’을 제시함.

8) 참고로 대격조사가 나타난 ‘*영이가 만난 것은 학교에서 철수들이었다’나 ‘*영이가 만난 것은 철수를 학교에서였다’는 성립하지 않는데 이는 계사 구문이 대격조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김영희. 2000. 「쪼갠문의 기능과 통사」, 어문학 69. 한국어문학회. 65~90쪽.
- 박철우. 2008. 「국어 분열문의 통사구조」, 한말연구 22. 한말연구학회. 77~96쪽.
- 양정석. 1986. 「'이다'의 의미와 통사」, 연세어문학 19.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29쪽.
- 이정훈. 2014가. 『한국어 구문의 문법』. 태학사.
- 이정훈. 2014나. 「동사구 주제화 구문의 통사론」, 국어학 72. 국어학회. 205~233쪽.
- 이정훈. 2020가. 「내핵 관계절 구성과 분열문의 '것'의 통사론」, 한글 81-1. 한글학회. 45~81쪽.
- 이정훈. 2020나. 「표찰화 기제와 한국어의 표찰화」, 언어 45-2. 한국언어학회. 287~330쪽.
- 이정훈. 2023. 『한국어 기술 생성 통사론』. 역락.
- 이정훈. 2024. 「접속의 최소주의 문법」, 현대문법연구 121. 현대문법학회. 1~24쪽.
- Chomsky, N. 2013. Problems of Projection, *Lingua* 130, pp. 33~49.
- Davidson, D. 1967/2001. The Logical Form of Action Sentences. In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2nd edition, Clarendon Press, pp. 105~148.
- [배식한 옮김. 2012. 『행위와 사건』. 한길사.]

628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광복 80년, 우리말 문법 연구의 성과와 과제
2025년 5월 16일(금) 10:00~15:40 / 한글학회 강당

□ 제1부/ 주제 발표

우리말 형태론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구본관

서울대학교 교수
bonmorph@snu.ac.kr

1. 머리말

이 발표문은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한글학회 차원에서 우리말 문법 연구의 성과를 조명하고 새로운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우리말 연구 분야별로 기획한 글을 하나로 특별히 형태론 분야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글이다. 현대적인 의미의 우리말 연구가 본격화된 20세기 전반기는 일제강점기에 해당하므로 우리말 연구가 자유롭지 못했는데, 광복은 우리말을 되찾아 새롭게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광복 80년은 우리말 연구, 특히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서도 의미 있는 80년이라고 생각된다.

근대적인 방법으로서의 우리말 연구 내지 형태론 연구는 주시경의 『국어문법』(1910)을 기점으로 보아도 한 세기가 넘는다. 개화기 우리말 형태론 연구는 서양인 선교사들의 저술에서 본격화되고,¹⁾ 정렬모나 최현배 등은 서양인 연구자와 일본의 전통 문법 연구자의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도²⁾ 우리말의 형태적 특

1) 구본관(2002나) 등에서 언급했듯이 개화기 선교사들의 한국어 연구 내지 형태론 연구는 Ridell(1981), Underwood(1890) 등이 있는데, 이들의 연구가 유길준(1909), 김규식(1908~1909?), 김희상(1909, 1911) 등에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성에 맞는 연구를 더해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본 발표에서 대상으로 삼은 광복 이후의 우리말 형태론 연구 역시 전통 문법, 구조주의 문법, 생성 문법, 생성 문법 이후의 인지 문법이나 사회언어학 등의 언어학의 흐름과 발맞추면서도 우리만의 독자적인 성과를 이루어 왔다. 본 발표에서는 이처럼 외래의 언어 이론의 흐름에 주목하면서 우리말의 특성에 맞는 형태론 연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주목하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광복 후의 형태론 연구 성과를 살피기 위해 먼저 제2장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형태론 연구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언어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 연구 대상 자료의 변화, 연구 영역의 변화, 연구 방법의 변화 등으로 나누어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제3장에서는 형태론의 단위, 품사론, 굴절론, 조어론 등 형태론의 주요 부문별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게 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3장까지의 우리말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형태론 연구의 과제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등 사회적인 변화와 인터넷의 사용과 인공지능의 보편화 등 기술적인 변화에 따라 우리말을 포함한 언어 환경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언어 환경의 변화는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이런 우리말의 변화와 우리말 연구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포함하여 미래를 전망하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우리말 형태론 분야의 연구 성과에 대한 정리는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³⁾ 본 발표는 기존의 우리말 형태론 연구 성과와 비교할 때, 언어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뿐 아니라 연구 자료의 변화, 연구 영역의 변화, 연구 방법의 변화에 더 깊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광복 80년 동안 우리말 형태론 연구는 형태론 전문 학술지 『형태론』을 비롯하여 『한글』, 『국어학』 등 주요한 학술지에 적지 않은 형태론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연구자의 수도 증가하는 등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큰 성장을 보여 왔다. 논문 하나하나가 소중한 성과를 담고 있다고 할 때, 모두를 언급하는 것에 마땅하지만, 지면의 제한과 필자의 부족함으로 본 발표의 관점에서 주목이 되는 일부 논문만 언급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논문의 필자들과 본 발표를 읽는 독자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2) 고영근(1994), 서민정(2024) 등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렬모는 일본의 마쓰시다(松下大三郎) 문법의 영향을, 최현배는 야마다(山田孝雄)의 문법에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3) 우리말 형태론 연구 성과를 살핀 논의에는 홍중선(1989), 구분관(2002), 장윤희(2010), 구분관(2020) 등이 있다.

2. 시대 변화와 형태론 연구의 변화

2.1. 연구의 관점으로서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형태론 연구

이 절에서는 언어학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서양의 언어학 연구 패러다임은 전통 문법, 구조주의 문법, 생성 문법, 생성 문법 이후의 사회언어학과 인지 문법 등으로 이어져 왔고, 이런 언어학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통 문법과 형태론 연구]

주지하듯이 서양에서의 본격적인 언어 연구는 중세의 수도원을 중심으로 라틴어를 비롯한 성서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실용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언어학 연구 경향은 학교 문법 등 규범 문법으로 이어져 언어 연구의 중요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통 문법이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 미친 영향은 이론 언어학에서는 품사론 중심의 연구 경향으로 나타났고, 언어학의 응용 분야에서는 맞춤법을 비롯한 규범 문법 연구와 학교에서의 문법 교육을 위한 문법서의 기술로 나타났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우리말 형태론 연구는 먼저 Ridet(1981), Underwood(1890) 등 서양인 선교사의 연구였으며, 이 연구들은 유길준(1909), 김규식(1908~1909?), 김희상(1909, 1911) 등의 형태론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전통 문법 시대의 형태론 연구는 주시경의 『국어문법』에서 잘 드러나는 바와 같이 형태론의 분야는 음성학, 품사론, 구문론(문장론)으로 나뉘었으며, 형태론의 주요 영역인 조어론이나 굴절론은 품사론 안에서 다루어졌다. 20세기 전반 우리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법서들인 최광옥(1908), 유길준(1909), 김규식(1908~1909?) 등에서 서양의 품사 분류 체계나 일본의 품사 분류 체계의 영향 아래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후사, 접속사, 감탄사’ 등의 품사들이 세워졌다(구분관, 2002). 뒤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것인바, 전통 문법 관점에서의 품사 논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체언 중 명사 외에 대명사와 수사를 따로 두느냐의 문제,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보아 품사로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 ‘이다’를 별도의 품사로 분류할 것인지의 문제 등이었다. 품사 분류 논의는 본 발표에서 관심을 갖는 광복 이후에까지 이어지지만 현재는 최현배의 『우리말본』의 체계에서 지정사(잡음씨)를 제외한 9품사가 학교 문법을 비롯한 규범 문법에 받아들여져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전통 문법 시대의 형태론 연구의 다른 특징은 한글 맞춤법을 비롯한 규범 문

법 연구와 학교 문법 연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었다. 1920년대에서 1945년까지의 우리말 형태론 연구는 1933년 한글 맞춤법 제정을 전후하여 이희승(1933)의 「「ㅎ」 바침 문제」는 최현배(1933가, 나)의 「풀이씨의 끝바꿈에 관한 논」(1)~(2)에서 볼 수 있듯이 한글 맞춤법에서 문제가 되는 받침의 표기나 불규칙 활용에 대한 논의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광복 이후 맞춤법에 대한 논의는 크게 줄었으나 새롭게 시작된 우리말을 다듬기와 이를 학교 현장에서 교육하기 위한 형태론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장지영(1946, 1947)의 「나랏말을 깨끗이 하자」(1)~(2)가 실려 있는데, 국어순화의 원칙과 구체적 사례가 담겨 있으며, 이정학(1947)의 「국어교육의 당면 문제」에는 한자 표기 문제와 철자법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이런 경향을 보여 준다.

1945년에서 1970년까지는 1955년 제1차 교육과정이 공포되어 중학교용과 고등학교용 검인정 교과서가 편찬되던 시기였는데,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문법서는 집필자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학설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문교부는 1961년 제2차 교육과정 심의가 끝난 후 통일 문법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따라 1962년 9월에 ‘학교 문법 지도 지침’이 나오고, 10여 차례 토론을 거친 뒤에 1963년 ‘학교문법통일안’이 문교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이 당시의 학교 문법서에는 한자어 문법 용어 사용, 9품사 체계, 252개의 문법 용어의 사용 등이 담겨 있었다.⁴⁾

[구조주의 문법과 형태론 연구]

한편, 19세기의 역사비교언어학 시대를 거쳐 언어의 규칙성에 대한 논의가 축적되었으며, 이런 바탕에서 소쉬르(F. de Saussure)의 등장은 언어학 연구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소쉬르는 역사비교언어학의 전통과 이른바 소장 문법학파(Junggrammatiker)들이 확립한 언어의 규칙성에 주목하면서도 사회의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언어의 기능에 주목하게 된다. 언어의 기호적 성격에 대한 관점, 랑그와 파롤의 구분, 공시태와 통시태의 구분은 언어학을 본격적인 과학으로 올려 놓았으며, 언어학은 다른 학문을 주도하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구조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기술언어학으로 이어져 오늘날의 언어 연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조주의 문법이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에 의한 언어 분석을 통해 형태소, 이형태, 단어 등의 형태론의 단위가 분석되었다는 점과 객관적인 분석 방법에 의해 파생 접사나 의존 명사 등의 목록이 확립되어 조어론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있다.

구조주의 문법은 1930년대 이후 부분적으로 우리말 연구에 영향을 주었지만

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구분관(2024)를 참조할 수 있다.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은 1945년 광복 이후의 일이었다. 이희승의 『국어학개설』(1955)에서는 전통 문법의 관점에서는 품사론에서 다루어졌던 파생법이나 합성법을 어휘론 내지 조어론의 영역으로 가져와 단일어와 합성어(complex word), 합성어는 다시 복합어(compound word)와 파생어(derived word)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이익섭(1965), 김석득(1968) 등의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를 거쳐 김계곤(1968)의 「현대국어 조어법(word-formation) 연구 -앞가지에 의한 파생법」, 김계곤(1969)의 「현대국어 조어법 연구 -뒷가지에 의한 파생법」, 고영근(1972/1974), 「현대국어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1) - 확립기준을 중심으로」, 고영근(1974),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등으로 이어져 파생 접사, 어미, 조사, 의존 명사 등의 목록이 확립되게 되었다.

[생성 문법과 형태론 연구]

구조주의는 체계성과 규칙성의 추구를 통해 언어에 대한 정교한 기술을 축적해 두었는데, 이는 1950년대 이후 해리스(Z. Harris)와 촘스키(N. Chomsky), 할레(M. Halle) 등에 의한 생성 문법으로 이어졌다. 50년대 후반 이후 음운론과 통사론 영역에서 시작된 생성 문법은 서양에서는 Aronoff(1976), Lieber(1981), Scalise(1984) 등에서 생성 형태론으로 본격화되어 형태론 연구로도 확장되었다. 생성 형태론의 도입 배경에는 통사론 중심의 생성 문법에서 규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특히 조어법에 대한 논의를 어휘부로 끌어들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내에서도 송경안(1980)의 「어휘부에 기초한 조어법 기술」에서 생성 형태론의 어휘부를 상정한 조어법 기술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이래, 송철의(1983)의 「파생어 형성과 통시성의 문제」, 김창섭(1983), 「‘줄넘기’와 ‘갈림길’형 합성 명사에 대하여」 등에서 파생어나 합성어 형성 규칙의 제약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 넓게 보면 생성 형태론의 관점으로 조어법을 논의하고 있다. 굳이 생성 형태론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시정근(1994)처럼 생성 문법적인 관점의 조어론 연구가 적지 않다. 이처럼 생성 문법은 형태론 연구, 특히 조어론 연구에서의 규칙과 제약에 대한 엄밀한 기술, 파생 접사의 생산성 문제, 파생어 형성 이후의 단일어화 문제 등을 통해 우리말 형태론 연구의 수준을 높이는 한편, 조어론과 음운론, 조어론과 통사론의 접면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더 깊게 탐구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생성 문법 이후의 언어학 흐름과 형태론 연구]

이상적 화자의 언어 능력에 관심을 집중한 생성 문법에 대한 반작용으로 언

어의 변이형의 가치에 주목한 언어학의 흐름에는 의미 기능을 중시하는 기능 문법,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 의한 변이형에 주목한 사회언어학, 언어를 신체적인 체험이나 문화와 관련하여 파악한 인지 언어학 등이 있었다. 이들 흐름 중에서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은 인지 언어학이었다. 사실 생성 문법 자체는 인간의 인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지 문법은 생성 문법과 거리가 넓지 않았다.

구본관(2002나)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성 문법에서 제안한 어휘부 이론에 의한 조어법 연구는 인지 언어학으로 이어지게 된다. Aitchison(1987)의 어휘부 이론이나 Bybee(1988, 1994) 등의 용례 기반 이론(usage-based model)에 근거한 심리 어휘부에 대한 논의들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어휘부에 대한 관심은 어휘부 연구를 형태론 연구 내지 조어론 연구의 중심부로 가져오게 하였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인바, 채현식(1994)의 「국어 어휘부의 등재소에 관한 연구」, 채현식(2003)의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송원용(2005)의 『국어 어휘부와 단어 형성』 등은 조어론의 상당 부분 혹은 전체를 어휘부에서의 연결망에 의한 유추로 설명하는 자생적인 형태론 이론을 세우게 하였다.⁵⁾

생성 문법에 의한 조어론이 단어의 분석보다 생성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단어 형성에 있어서의 의미의 우위성이 주목되게 되었다. 구본관(2020)에서 논의한 것처럼 이런 경향을 잘 보여 주는 논의는 Štekauer의 표현론적 단어 형성법 논의이다.⁶⁾ 이 논의들에서는 불규칙적인 어근이 참여하는 조어 방식이나 영형태가 참여하는 조어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의미와 형태를 갖추고 실제 어느 정도 생산적으로 단어를 만드는 공시적인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한대로(2013), 「명명 과제를 기반으로 한 임시어의 형태론」 박혜진(2019), 「표현론적 관점의 단어 형성 교육 연구」에 잘 드러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지금까지 언어학 연구 흐름이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언어학의 패러다임에 따라 형태론 연구가 변화하면서 형태론 연구의 중심이 품사론에서 점차 조어론으로 이동해 갔으며, 이에 따라 우리말 형태론 연구가 더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언어학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우리말의 형태론 연구는 외국의 이론 변화에 발맞추기도 하고, 자생적인 연구로 나아가기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5) 구조주의나 생성 형태론에서 조어론은 흔히 규칙으로 설명되지만 유추적 단어 형성론에서는 유추 원리로 설명한다. 규칙과 유추의 차이에 대해서는 학술지 『형태론』에서 여러 차례 지상 토론 형식의 논쟁이 이루어진 바 있다.

6) 표현론적 단어 형성법 논의는 의미에서 형식으로 나아가는 점에서 형식에서 의미로 나아가는 해석론적 관점과 대비된다.

2.2. 연구 대상 자료의 변화

연구 대상 자료의 변화는 몇 가지 기준에서 다시 나눌 수 있다. 우선 자료의 물리적 성격에 따라 나눌 수 있고, 자료의 시대적 특성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자료의 공간적/위상적 성격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자료의 장르적 성격에 따라 나눌 수도 있다.

첫째, 자료의 물리적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보기로 하자. 연구 자료의 물리적 성격에 따라 직관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 문헌 자료, 디지털 자료 등이 있다.

먼저 연구자가 직관으로 만들어 낸 언어 표현이 자료가 될 수 있다. 현대 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흔히 직관에 의해 만들어 낸 자료가 활용되며, 생성 문법처럼 이상적인 화자를 상정하는 경우도 해당 화자의 직관에 의한 자료가 문법 연구의 자료가 된다. 언어 사용자의 구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이를 문헌으로 기록하지 않으면 직관에 의한 자료로 볼 수 있다. 1945년 까지의 한글 맞춤법 논의의 상당수는 직관에 의한 자료를 연구 대상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문헌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 이전 시기의 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본질적으로 문헌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현대 국어 연구의 경우에도 사전류 등 문헌 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 방언 연구도 연구자가 해당 방언의 화자인 경우가 아니라면 채록한 다음 기록하거나 자료집으로 만든 문헌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광복 이전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서는 권덕규(1939)의 「버리다 만 산고」에서 볼 수 있듯이 어원 연구가 많았는데,⁷⁾ 이 경우 문헌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말 형태론 연구는 광복 이전부터 실증적인 연구의 전통이 굳건하게 이어져 오고 있었으며, 이승욱(1977)의 「문법사 연구의 몇 문제」, 이현희(1982), 「종결어미의 발달에 개한 관견」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문헌 자료가 연구 대상 자료가 된다. 학술지 『한글』 2권 3호, 2권 9호 등에서 나타나듯이, 사전 편찬 등의 이유로 표준어(대중말)와 방언(사투리/시골말)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방언에 대한 수집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1970년대 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루어진 방언 자료는 방언 연구의 주요한 자료가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말뭉치 언어학의 발달에 따라 대규모 말뭉치가 구축되어 형태론 연구에 있어서도 디지털 자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김진규(1996)의 「자연 언

7) 본 발표에서 어원론을 언급하면서 권덕규를 거론하는 것은 권덕규의 「버리다 만 산고」(1)~(2) 등이 후대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이들 논의에는 ‘가시내, 기와, 실[谷], 아이, 마리, 약대’ 등의 어원론이 실려 있는데, 특히 지명에 나타나는 ‘실’에 대한 논의를 비롯한 몇 가지 어원에 대한 논의는 이기문(1991 : 108)에서 권덕규를 “국어 어원론의 진정한 선구자”로 평가하게 하였다.

어 처리를 위한 품사 태그의 몇 가지 문제», 이광호(2007), 「상대 빈도를 이용한 생산성 측정에 대한 연구」 등 형태론 연구에도 디지털 자료의 비중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둘째, 자료의 시대성에 따라 현대 국어와 현대 이전 국어로 나눌 수 있다. 광복 이전에는 한글 맞춤법 제정이나 학교에서의 우리말 교육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현대 국어가 연구 대상 자료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말 형태론 연구는 문헌에 기반을 둔 실증적인 연구의 전통이 있어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를 거쳐 고대 국어에까지 확장되어 갔다. 오구라(小倉進平)의 연구에 이어 양주동(1942), 『조선고가연구』나 김완진(1980)의 『향가해독법연구』와 같은 향찰 연구나 이두 연구, 그리고 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석독 구결과 석독 점토 구결 자료 등 차자 표기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현대 이전 국어에 대한 연구는 최근으로 올수록 깊이를 더해 가고 있다.

셋째, 자료의 공간적/위상적 차이에 따라 표준어와 방언으로 연구 대상 자료를 나눌 수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광복 이전의 1930년대를 전후하여 우리말 형태론 연구의 주요 대상 자료는 표준어였으나 사전 편찬 등의 목적과 구조주의 문법의 기술적인 언어관에 따라 방언 역시 형태론 연구의 주요한 대상 자료가 되고 있다. 19세기 이후 서양에서는 지역에 따른 방언의 차이를 등어선 등으로 표시하는 방언 지도를 만드는 등의 언어지리학이 발달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방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의 지역 방언 연구가 주요한 흐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라보프(W. D. Labov) 등의 연구에 이어지는 사회 방언의 연구가 주요한 흐름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서는 세대 차이에 따른 조어 방식의 차이, 다문화 사회에서의 우리말 형태론 연구 등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넷째, 연구 대상 자료를 장르적 성격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미 언급한 석독 구결 자료나 15세기 국어 자료의 상당수는 불교 관련 자료 혹은 불경 관련 자료의 번역문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길남(1999), 「신소설의 격조사 연구」처럼 특정 문학 장르가 형태론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만 만들어지고 있어, 서승아(2005), 「신문 광고에 사용된 표제와 본문의 유형」처럼 신문이나 방송의 광고 언어, 텔레비전 방송의 프로그램 이름 등 다양한 장르에서의 형태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형태론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외국인 학습자의 자료 등도 우리말 형태론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우리말 형태론 연구의 연구 대상 자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자료의 물리적 성격에 따라서는 직관에 의해

생산해 낸 자료에서 문헌 자료를 거쳐 말뭉치 등 디지털 자료로의 변화가 눈에 띄었고, 자료의 시대성은 여전히 현대 국어 자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대 이전의 자료도 한글 자료뿐 아니라 향찰이나 석독 구결 자료를 포함한 차자 표기 자료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었다. 자료의 공간적/위상적 차이에 따라서는 20세기 전반기에 표준어 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되었으나 현대로 오면서 지역 방언 자료를 거쳐 사회 방언 자료가 중요하게 연구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언어 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장르가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매체 자료 등이 활용되는 현상도 목격할 수 있었다.

2.3. 연구 영역의 변화

형태론의 영역은 품사론, 굴절론, 조어론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원론에는 조어론의 등 형태론적인 논의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태론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어원론을 형태론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형태소, 이형태, 단어 등 형태론의 단위에 대한 논의나 형태소를 이루는 음절 구조 제약이나 음소 연결 제약에 대한 논의도 형태론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미 언급한 권덕규의 논의처럼 20세기 전반기에 학술지 『한글』에 실린 논문의 상당수는 어원론이었고, 광복 후에는 어원론 논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품사론, 굴절론, 조어론을 중심으로 광복 이후 우리말 형태론의 연구 영역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20세기 광복 이전 전반기의 우리말 형태론 연구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시기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공표를 전후하여 맞춤법을 통일하고 표준어를 제정하는 등 규범 문법적인 연구가 주요한 과제였으므로 형태론 연구의 범위에 있어서 순수 언어학적인 연구보다는 규범적인 응용 언어학적 연구가 주도적인 흐름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어원에 대한 연구, 고유어와 외래어의 구별, 표준어의 제정 등 넓은 의미에서의 형태론 연구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았다.

한편, 이 시기에는 언어학의 주요 부문이 음성학, 품사론, 통사론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전통 문법적인 관점의 연구가 활발한 시기이기도 하므로 형태론 연구 범위 중 조어론의 경우 별도로 연구되지 못하고, 품사론 안에서 각 품사의 형태적 특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관점에서 품사 분류의 기준이 논의되었고, 토씨(조사)를 품사로 둘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 용언의 활용에서의 어간과 어미의 분석, 불규칙을 포함한 용언의 활용상의 특징 등 각 품사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광복 이후 1960년대에 이르면 전통 문법과 함께 구조주의 문법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전통 문법적인 형태론 연구 외에 구조주의 문법의 관점을 도입한 연구가 등장하였다. 1960년대까지 형태론은 여전히 품사론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품사 분류의 기준 문제, 조사를 품사에 포함할지의 여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으며, 특별히 품사론의 관점에서 ‘이다’를 어떤 범주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형태론의 영역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20년대 전반기에는 전통 문법의 관점에서는 주시경(1910)에서 ‘기뻐박굴’과 ‘기뻐박굴’에서 파생법을, ‘기뻐함’에서 합성법을 다룬 것이나 김두봉(1916, 1922)나 최현배(1937/1971)에서 파생을 품사론 안에서 다룬 것에서 알 수 있듯이 20세기 전반만 하더라도 파생법과 합성법을 묶은 조어론이 하나의 영역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광복 이후가 되어서야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희승(1955)에서 조어론을 합성법과 파생법으로 나누었음은 물론 안병희(1965), 「문법론」에서는 파생의 유형을 하위 분류하여 접조사 파생이 없다는 점, ‘남- : 념-’과 같은 내적 파생과 ‘되(升)- : 되-’와 같은 영 변화를 파생의 종류로 보아 파생법을 체계화하여 조어론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⁸⁾

이 시기에는 구조주의 문법 연구의 영향으로 언어 단위를 확립해 가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형태론의 중요한 단위인 형태소, 이형태, 단어 등 언어 단위를 확립하고 접미사, 조사, 어미 등의 목록을 확정하는 한편, 조어론이 품사론에서 독립되어 별도의 부문으로 연구되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시기 『한글』 등의 학술지에는 김계곤(1969) 등 뒷가지(파생접미사)에 대한 논의가 이 시기의 끝자락에 이루어지는 등 구조주의에 의한 조어법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셋째, 1970년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말 형태론 연구는 전통 문법, 구조주의 문법과 함께 생성 문법적인 관점의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 시기에도 여전히 전통 문법에 의한 품사론 논의가 나타나기도 하였고, 불완전 용언의 처리 등 굴절론에 해당하는 논의도 없지 않았지만, 이 시기는 1960년대에 이어 국어 형태론의 주요한 기초적 연구가 이루어진 가장 활발한 시기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196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구조주의 문법적인 관점의 연구는 이 시기에 심화되어 공형태소나 영형태소의 문제, 문법화의 문제, 현대 국어의 접미사, 접두사, 어미 등의 목록이 제안되었고, 이들의 개별 문법 형태소의 조어법적인 특성이 자세하게 언급되었다. 또한 파생법 외에 합성법이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조어법 논의가 심화되면서 중앙어 내지 표준어뿐 아니라 방언의 접미사 목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현대 국어를 넘어 고대

8) 송철의(1989/1992)에서는 안병희(1965)를 이어받아 파생법을 접사 파생과 비접사 파생으로 나누고, 접사 파생에는 접두 파생과 접미 파생을 두고 비접사 파생에는 내적 변화(자음 교체, 모음 교체)와 영 변화 파생을 들었다.

국어와 중세 국어에 대한 형태론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넷째, 1980년대는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 생성 형태론이 도입된 시기였다. 이미 언급한 송경안(1980), 송철의(1983), 김창섭(1983) 등에서 어휘부에 기초한 조어법 기술이 이루어지면서 형태론의 연구 영역은 조어론에 집중되었다.

다섯째, 1990년대 이후 우리말 형태론 연구는 인지 언어학적 관점이 도입되면서 논의의 중심에 어휘부가 들어오게 된다. 어휘부에 대한 연구가 조어론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어론이 형태론 연구의 중심에 있음은 물론이다. 이 시기는 인지 문법의 관점에서 국어의 도상성 문제나 합성어 형성에 나타나는 동기화 현상이 논의되는 등 새로운 관점의 국어 형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중세 국어의 파생 접사의 성조 문제, 특정 방언 어간의 성조 등 지금까지 잘 다루어지지 않던 세밀한 분야의 연구가 나타나기도 하고, 기계 번역에서의 다의어 정보 처리, 일본어와 한국어의 연결 어미 대조 연구, 외국인 학습자 언어에 나타나는 형태적 오류 등이 새롭게 형태론 연구의 범위로 들어오기도 했다.

여섯째, 최근의 형태론 연구 영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대체로 품사론, 굴절론, 조어론이 포함되지만 품사론은 통사론이나 어휘론과 겹치는 면이 있고, 굴절론은 굴절어가 아닌 한국어의 특성상 중요한 연구 영역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조어론이 가장 중요한 형태론의 연구 영역이다. 조어론의 하위 영역과 관련된 논의로는 구본관(1996/1998), 최형용(2003나) 등이 있다. 이들 논의에서는 단어 형성 방법으로 합성과 파생 이외에도 통사 구성의 어휘화, 중첩, 혼성, 내적 변화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어론을 다루는 자리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말 형태론 연구의 연구 범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형태론 연구 범위는 20세기 전반에는 어원론 등 형태론의 주변 영역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전통 문법에 따라 품사론이 주요한 연구 영역이었고, 조어론이나 굴절론은 품사론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 후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구조주의 문법은 형태론의 연구 영역으로 형태론의 단위나 형태론을 이루는 음절이나 음소의 연결 규칙 등과 함께 조어론이 중요한 연구 영역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생성 형태론의 대두로 형태론 논의가 어휘부에 집중되었고, 이는 1990년대 이후 인지 언어학에 의한 형태론 연구에서도 여전히 어휘부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고 있지만 형태와 의미의 도상성 문제 등 새로운 분야가 형태론 연구로 들어오기도 했고, 한국어 교육 등에서의 형태적 오류 등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형태론의 연구 영역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2.4. 연구 방법의 변화

연구 방법은 연구 대상을 다루는 방법에 따라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등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 넓은 의미에서 연구 방법은 연구를 계획하고, 연구 대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논문 작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광복 이전 우리말 형태론의 주요 주제는 한글 맞춤법 등 규범에 관련된 논의가 대부분이었으므로 대체로는 연구자의 직관에 의해 자료를 산출하고, 이 자료를 직관에 의존해서 분석하고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 시기에도 어원론 등은 문헌을 조사하여 연구 대상 자료를 수집하여 결론으로 이르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현대 이전의 우리말을 연구함에 있어서 자료에 충실한 실증적인 연구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 문헌을 활용하는 연구는 광복 이전이나 이후 구별 없이 우리말 형태론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였다. 또한 방언 연구의 경우 질문지를 활용한 조사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고, 민족지학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방언의 자료 조사에는 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방언 자료집에서 알 수 있듯이 질문지와 그림 자료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직접 방문 조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의 연구 상황에 따라서는 통신 조사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광복 이후 1960년대의 구조주의 문법적인 관점에서의 우리말 형태론 연구는 국어사전 등의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을 널리 활용하였다. 이 시기의 특징적인 연구 방법은 자료의 분석 방법에 있어서 이른바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허웅(1966)의 「서기 15세기 국어를 대상으로 한 조어법의 서술 방법의 몇 문제점」이나 고영근(1978)의 「형태소의 분석 한계」 등은 구조주의적인 자료 분석 방법을 잘 보여 준다.

1990년대를 전후로 하여 말뭉치 언어학의 발달은 우리말 형태론 연구 방법에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다양한 연구 기관에서 대규모 말뭉치가 구축되기 시작하였고, 연구자는 이 말뭉치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여 계량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양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미 언급한 이광호(2007)의 논의나 남윤진(1997)의 「현대국어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에서는 이런 경향을 잘 보여 준다. 방언 조사에 민족지학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 질적인 조사 방법을 도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최근에는 이주민 여성의 언어 사용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한 연구 등에서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연구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2000년에서 현재(2024)까지는 직관에 의한 연구, 조사 연구, 실증적 연구가

활용되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한글』에 실린 논문에도 대규모 말뭉치를 활용하여 파생 접사의 생산성을 측정하거나 사전을 편찬하는 데에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는 등 양적 연구(계량적 연구) 방법도 드물지 않게 활용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말 형태론 연구의 연구 방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언어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하는 연구나 문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문헌 중심 연구가 많았지만, 연구 대상 자료의 분석에서 구조주의 문법의 계열 관계나 통합 관계에 의한 분석 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말 형태론 연구의 연구 방법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대규모 말뭉치를 활용한 양적 연구나 일부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을 도입하기도 하는 등 연구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3. 영역별 형태론 연구의 성과

3.1. 형태 영역과 형태론의 단위

3.1.1. 형태론의 영역과 다른 부문의 관계

조어론의 영역으로는 일반적으로 품사론, 굴절론, 조어론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통 문법적인 관점의 문법 연구에서는 조어론은 품사론 안에서 다루었고, 굴절론과 조어론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았다. 형태론의 본령이 단어의 형태에 대한 탐구라고 할 때, 품사론은 형태론으로 보아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품사론은 어휘론과 겹치는 면이 많고, 조어론에는 음운론적 제약이 있어 음운론과 겹치는 면이 많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는 형태론이 문법론의 다른 영역과 겹치는 접면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000년에 발행된 『국어학』 35집은 형태론과 다른 영역의 접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남순(2000)의 「국어 연구에서의 형태론의 위치」에서는 형태론 연구사를 통해 형태론이 차지하는 영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송철의(2000)의 「형태론과 음운론」에서는 형태론과 음운론의 접면을 형태소 연결의 제약이나 조어론에서의 형태적 제약 등을 통해 언급하고 있으며, 서태룡(2000)의 「국어 형태론에 기초한 통사론을 위하여」에서는 형태 구성의 통사적 기능을 형태 구성에서 근거를 찾고 있으며, 최호철(2000)의 「형태론과 어휘론」은 형태론과 어휘론의 경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형태소의 결합에 대한 논의나 조어 규칙에 대한 논의는 형태 결합에 소리가

작용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형태론과 음운론의 경계나 접면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뒤에서 언급할 형태소의 결합 논의, 조어 규칙 논의 등은 모두 이 자리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따로 언급하기 어려운 논의들 중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논의를 모아서 간략하게 정리해 두고자 한다.

형태론과 음운론의 접면에 주목한 논의는 형태음소론에 관한 논의와 음운 변동 규칙에서의 형태론적 제약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⁹⁾ 먼저 형태음소론과 관련이 있는 논의를 살펴보자. 일찍이 이극로(1933)의 「소리들이 만나면 어찌 되나」는 음운 변동의 논의이지만 체언과 조사의 연결, 용언 어간과 어미의 연결, 합성어에서의 어근과 어근의 연결 등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어 음운론과 형태론이 만나는 지점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로 생각된다. 그 후 김석득(1962가, 나)의 「형태소(形態素, Morpheme)의 변이 형태소(Allomorph)로의 분석 - 범주와 테마의 연구-」, 「형태음소론 소고」에서는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형태소 분석의 원리에 따라 형태소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로 음소론적인 변이 형태와 형태론적인 변이 형태, 자유변이 형태, 제로 형태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형태론의 분석 방법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된다. 이 과정에서 형태론과 음운론이 만나는 지점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완진(1975)의 「음운론적 유인에 의한 형태소 증가에 대하여」는 형태소의 형성 과정에 음운론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음을 논의함으로써 형태론과 음운론의 접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이강로(1963)의 「형태어소 “어”의 연구」는 공시적인 실제 자료의 분석을 통해 변이형 ‘-어, -아, -러, -여(-야), -y, -ㄹ, -거-, -너-, -세-’의 기본형으로 ‘-어’를 잡고, 다양한 용언 활용에 나타나는 이들 어소의 실현 환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형태음소론 논의는 2000년대 후반까지 이어져 음운론과 형태론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일례로 김현(2003)의 「음운 규칙과 형태 음운 규칙의 구분에 대하여」에서는 모음탈락과 활음화 등을 통해 교체 환경이 순수하게 음운적인 것을 음운 규칙과 형태론적인 범주를 요구하는 형태 음운 규칙을 구분해 보고자 하고 있다. 특히 형태 음운 규칙은 형태 층위와 음운 층위 사이에서 적용되는 층위 간 규칙으로 두 규칙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음운 변동 규칙에서의 형태론적 제약에 대해 살펴보자. 이병근(1975)의 「음운 규칙과 비음운론」과 이병근(1981), 「유음 탈락의 음운론과 형태론」에서는 ‘들- + -은 →든’과 같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탈락, ‘들- + 니 → 드니’와 같은 음성적 제약에 의한 탈락, ‘-오마, -오오, -오’ 등에서 나타나는 형태론적 조건에서의 탈락, 합성어와 파생어에서의 수의적 탈락 등에 대한 논

9) 이형태 문제는 음운론과 형태론이 만나는 지점이어서 구분관 외(2015)에서는 음운론에서, 고영근·구분관(2018)에서는 형태론에서 다루는 등 문법서에 따라 달리 처리하기도 한다.

의를 통해 음운 규칙에서의 형태론적 제약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 주었다. 유필재(2000)의 「서울방언 용언 자음어간의 형태음운론」, 유필재(2004)의 「‘말다(勿)’ 동사의 음운론과 형태론」 등도 이런 관점의 논의로 주목할 만하다. 이현규(1985)의 「국어 형태 변화에 대한 표기의 간섭」에서는 ‘꽃, 빛, 빗, 젖’ 등이 모음과 결합 할 때 비표준 발음에서 흔히 ‘꽃, 빛, 빗, 젖’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근대 국어에서 실제 발음과 달리 종성 ‘ㅅ’으로 표기해 온 전통과 관련하여 해석함으로써 음운 부문 내지 형태 부문과 표기 부문의 접면 현상으로 다루고 있다.

형태론은 과거의 통사론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형태론과 통사론의 접면 역시 광범위하여 조사나 어미의 통사적 기능을 다루는 논의나 통사 규칙이 조어 규칙과 무관하지 않은 통사적 합성어 논의 등을 포함하면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직접적으로 통사론과 형태론의 두 측면을 고려한 논의로 한정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먼저 통사론적 구성에서의 형태론의 문제를 주목한 몇 편의 논의가 있다. 권재일(1986)의 「형태론적 구성으로 인식되는 복합문 구성에 대하여」와 서정목(1988)의 「한국어 청자 대우 등급의 형태론적 해석」, 시정곤(1997)의 「‘밖에’의 형태-통사론」 등 형태론과 통사론의 접면을 직접적으로 내세운 논의들이 있다. ‘이병기(2008)의 「중세 국어 ‘강세접미사’와 ‘보조 용언의 상관성」도 이런 관점의 논의라고 볼 수 있다.

흔히 통사적 합성어라는 명칭이 말해 주는 것처럼 조어론이 통사론과 만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적지 않다. 김창섭(1994)에서 ‘-답-’이 구를 어기로 하는 경우가 있음을 밝힌 이래, 고창수(1992)의 「통사적 어형성」, 임홍빈(1989)의 「통사적 파생에 대하여」 등에서 어미와 파생 접미사의 경계가 모호한 통사적 접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런 논의는 기본적으로 조어론과 통사론의 경계가 그리 명확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시정곤(1994)의 「국어의 단어 형성 원리」처럼 비교적 초기의 생성 문법적인 관점에서 통사적인 규칙으로 단어 형성을 설명하는 논의들은 결국 조어론과 통사론이 만나는 부분을 다루게 된다. 최근의 단어 형성 규칙의 하나로 통사 구성의 어휘화를 제안하는 최형용(2003)의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통사적 결합어를 중심으로』, 이금희(2011), 「통사적 구성에서 어휘화한 부사에 대하여」, 정한데로(2011)의 「임시어의 형성과 등재: ‘통사론적 구성의 단어화’를 중심으로」 등의 논의들도 결국 통사론이 형태론적인 과정으로 굳어지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조어론과 통사론의 접면을 다룬 논의로 볼 수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희승(1955)에서 형태론, 특히 조어론을 어휘론의 일부로 다룬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학의 영역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형태론은

어휘론과의 구별이 쉽지 않게 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어원론이나 어휘사 연구는 대체로 형태론과 어휘론의 경계가 모호함을 보여 준다. 형태론과 어휘론의 접면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비교적 최근의 논의로는 신중진(2004)의 「[-리]Noun+ㅅ+Noun' 합성어의 통시 어휘론」이 있다.

3.1.2. 형태론의 분석 방법

언어 연구가 본질적으로 언어 자료의 분석에서 시작한다고 할 때,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는 언어 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다.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 있어서도 분석 방법은 중요한 논의 주제의 하나였다.

김민수(1961), 이기문(1976), 이병근(1979)에서 논의한 것처럼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서 형태 단위를 분석한 최초의 논의는 주시경(1914)에서 ‘늦씨’를 분석해 낸 것이었다. 이병근(1979)의 「주시경의 언어 이론과 늦씨」에서는 ‘해^ㅅ바라^ㅅ기’처럼 분석 가능한 극한까지 분석한 것이었다.

구조주의의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를 받아들여 우리말 형태를 분석한 앞선 논의로는 김석득(1962), 허웅(1966), 김계근(1968, 1969), 고영근(1965, 1972/1974, 1978) 등이 있다. 특히 허웅(1966)에서는 연구자의 직관이 미치기 어려운 중세 국어를 자료로 하는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였으므로 계열 관계나 통합 관계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가상적 형태소’, ‘구조적 동형성’의 기준을 도입하여 공시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좌시-’의 ‘-시-’나 ‘늦갑다’의 ‘늦-’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고영근(1978)에서는 이에 더하여 ‘음운론적인 현현방식의 공통점’을 추가하여 ‘-오디, -옴’ 등에 나타나는 ‘오’를 분석하는 등 분석의 철저함을 더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허웅이나 고영근의 논의를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분석의 결과로 나온 단위는 더 이상 ‘최소의 의미 요소’는 아닌 셈이 된다(구분관 2004).

계열 관계나 통합 관계를 고려하는 분석 방법은 분석의 객관성을 부여해 주었지만 어원론에서처럼 분석의 극한까지에 이를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임흥빈(1982, 1985), 서태룡(1985, 1988)처럼 공시적인 계열 관계나 통합 관계에 의한 분석을 넘어 극한까지 분석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런 분석 방법은 연구자에 따라 분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인 분석을 어렵게 하지만, 어원이나 통시적인 변화를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명옥(1985)에서처럼 공시적인 분석 결과로 나오는 단위와 별도로 어휘부에 존재하는 결합단위를 상정하기도 하고, 고영근(1992)에서처럼 형태소 개념을 해체하여 공시적인 결합 단위인 형성소와 공시적인 결합은 어렵지만 분석은 가능한 구성소로 구별하기도 한다.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언급해야 할 논의로는 직접 구성 성분에 관한 것이다. 직접 구성 성분은 둘보다 더 많은 구성 요소로 분석될 수 있는 언어 단위를 층위를 두고 분석함으로써 통사론에서 문장을 여러 층위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해당 언어 단위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익섭(1965), 김석득(1968), 성기철(1969) 등에서는 조어론에 이를 도입하여 대상 단어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¹⁰⁾

형태론의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고영근(2005)의 「형태소의 교체와 형태론의 범위」에서는 중세 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형태소의 교체는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이른바 ‘문법적 교체’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박재연(2010)의 「이형태 교체와 관련한 몇 문제」나 이홍식·이은경(2017)의 「교체의 분류에 대하여」 등은 교체에서 나온 이형태의 특징을 분류한 것이지만 결국 분석 방법에 닿아 있다.

학술지 『국어학』은 두 번에 걸쳐 형태 분석을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다. 먼저 1996년 27집에서는 왕문용(1996), 「국어의 통시적 연구에서의 형태 분석」, 고창수(1996)의 「형태 이론의 점검」, 한영균(1996)의 「전산기에 의한 형태분석과 사전정보」를 싣고 있어, 통시적인 연구에서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형태 분석 문제를 다루고 있다. 2017년 81집에서는 김양진(2017)의 「한국어의 형태와 형태소」, 이선웅·오규환(2017)의 「형태소의 식별과 분류」, 배주채(2017)의 「교체의 개념과 조건」, 김유범(2017), 「이형태의 성격과 이형태교체의 유형」, 최형용(2017)의 「단어 형성과 형태소」 등에서는 형태소의 개념, 형태소의 유형, 형태 분석의 방법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공동 토론이 가능하고 필요한 것은 최근까지도 여전히 형태론의 분석 방법이 문제적임을 잘 보여 준다.

3.1.3. 형태론의 단위

어떤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든 해당 연구 분야의 기본적인 단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형태론 연구에서도 형태소, 단어, 어간, 어근, 어기 등의 단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형태소나 단어 등의 하위 부류의 명칭과 정의 역시 필요하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주시경(1914)에서는 ‘늦씨’라는 단위를 제외하고도 주시경(1910), 『국어문법』 등의 저술에는 ‘기난갈(품사론)’, ‘기(품사)’, ‘씨(품사)’, ‘임

10) 주지하듯이 유사한 구조로 보이는 ‘비웃음’과 ‘코웃음’은 직접 구성 성분으로 분석하면 ‘비웃- + -음’과 ‘코 + 웃음’이 되어 각각 파생어와 합성어로 구별된다.

(체언), ‘엇(형용사), ‘움(동사), ‘껏(대부분의 조사), ‘잇(접속 조사, 연결 어미 등), ‘언(관형사와 관형사형), ‘억(부사와 부사형), ‘놀(감탄사), ‘끗(종결 어미) 등을 나타내는 형태론의 단위였다. 전통 문법에서 흔히 사용되는 형태론의 단위는 최현배(1937)에서 볼 수 있듯이 ‘씨(품사), ‘임자씨(체언), ‘으뜸씨, ‘생각씨, ‘풀이씨, ‘꾸밈씨(수식언), ‘걸림씨(토씨), ‘이름씨(명사), ‘대이름씨(대명사), ‘셈씨(수사), ‘그림씨(형용사), ‘매김씨(관형사), ‘어찌씨(부사), ‘느낌씨(관형사), ‘뿌리(어근), ‘줄기(어간), ‘씨가지(접사), ‘머리가지(접두사), ‘발가지(접미사), ‘허리가지(접요소)’ 등이다. 최현배의 문법 용어는 주로 고유어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50년대와 60년대의 학교 문법의 용어 통일 과정과 80년대의 학교 문법 통일 과정을 거치면서 한자어 용어와 같이 쓰이거나 한자어 용어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지만 용어의 개념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다.

형태론의 기본 용어 중에서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어 문제가 된 용어에는 어간(stem), 어근(root), 어기(base) 등이 있다. 현재의 학교 문법에서는 활용론의 단위로 어미에 대응되는 용어로는 어간을 조어론의 용어로 파생 접사에 대응하는 용어로는 ‘어근’을 사용한다. 한편, 이익섭(1975), 이익섭·채완(1999)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어간과 어근을 묶는 상위 개념으로 ‘어기’를 상정하기도 한다. 어기를 어간과 어근의 상위 개념으로 보는 관점은 Katamba(1993) 등의 외국의 저술에서도 발견된다. 어기는 생성 형태론 등에서 어근 대신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요소로 널리 사용되었다. 안상철(1998 : 25-27)에서는 어근을 ‘어휘의 형성에서 세분할 수 없는 중심적인 요소’로, 어기를 ‘새로운 파생이나 굴절 등 어휘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중심적인 요소’로, 어간을 ‘굴절 접사가 붙을 수 있는 중심 요소’로 구분한다. 최형용(2002)에도 이와 유사하게 어간은 활용의 요소로 두고, 어근은 통시적인 단어 형성에서 접사가 아닌 실질 의미를 가지는 요소로, 어기는 공시적인 단어 형성에서의 접사를 제외한 실질 의미를 가지는 요소로 개념화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근이 기원적으로 ‘뿌리’를 뜻하는 ‘root’에서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시적인 단어 형성이라기보다는 어원론적 분석의 단위로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어기의 구별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문제가 남는다. 최형강(2009)의 「‘형성소’와 ‘어근’ 개념의 재고를 통한 ‘어근 분리 현상’의 해석」에서는 어근의 개념을 조어 과정에서 새로 결합하는 파생 접사를 제외한 부분으로 재정의하기도 하였다. 조어론의 용어로는 어근을, 굴절론의 용어로는 어간을 사용하면 비교적 명확하지만 셋 이상의 형태소가 참여하는 조어론에서 복합 어근을 지칭할 명칭이 없다는 것과 어원론에서 ‘어근’에 해당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문제 등이 남는다. 고영근·구본관(2018 : 242)에서는 ‘어근’은 어원론의 개념으로, 어기를 조어론의 개념으로, 어간을 굴절론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어간, 어근, 어기

의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최형용(2003)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형태론의 단위 중 형태소의 정의는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로 비교적 분명하다. 다만 형태소의 하위 부류로서 공형태나 영형태 등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이는 형태소가 소리로서의 형태와 의미가 직접 연결되어야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형태소가 형태와 의미를 필수적으로 가지는 요소가 아님은 Aronoff(1976)에서 언급되었고, 우리말 연구에서는 이미 언급한바, 고영근(1978) 등에서 언급되었다. 형태와 의미의 도상적인 연결을 부정하는 논의는 김영옥(1990, 1995, 1997)에서 Brown & Miller(1980)을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중세 국어의 제2설명법 어미 ‘-니라’의 ‘니’, ‘-옴, -오디’의 ‘오’ 등을 분석하여 이들이 형태는 가지지만 의미는 자지지 않는 공형태(empty morpheme)로 불렸다. 공형태 논의는 조어론으로도 확산되어 이현희(1987)이나 구분관(1997) 등에서 ‘거릿-/거리치-’와의 공존에서 분석 가능한 ‘-이-’를 ‘의미와 통사 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로 명명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들 접사들은 대부분은 통시적인 변화의 결과가 공시적으로 구형과 신형이 존재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공형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장윤희(1997)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공형태와 달리 형태는 없고 의미만 존재하는 형태소인 영형태(zero morpheme)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일찍이 정렬모(1946)에서 격표지가 실현되지 않는 현상을 ‘두루빔’으로 설명했다. 안병희(1966)에서 영형태의 개념으로 조사가 실현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했고, 이남순(1988, 1998)에서도 격 조사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부정격으로 보고, 우리말의 격 실현은 부정격이 무표적인 것이고 격 조사가 결합하면 해당 조사가 가지는 의미가 더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영근(1981) 등 일련의 논의에서는 중세 국어의 동사나 현대 국어의 형용사 등에 시제가 무표적으로 실현되는 경우를 부정법이라는 서법을 설정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들도 기본적으로는 영형태를 인정하는 태도이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나타나는 ‘신 - 신다’, ‘품 - 품다’ 등에서의 명사와 동사 어간이 동일한 현상이나 중세 국어에서 나타나는 ‘바르다 - 바르’, ‘그르다 - 그르’, ‘비브르다 - 비브르’ 등에서 나타나는 형용사(동사) 어간과 부사가 동일한 현상에 대해 영 파생으로 보는 입장 등은 모두 영접사를 상정한 논의이다.¹¹⁾앞에서 분석 방법 논의와 관련하여 언급한 김양진(2017), 이선웅·오규환(2017), 배주채(2017), 김유범(2017), 최형용(2017) 등의 논의에서도 공형태와 영형태를 포함한 형태론의 단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11) 주지하듯이 이런 현상은 영형태인 영 접사를 상정하지 않고 영 변화, 품사 전성 등으로 포착하기도 한다.

형태소의 하위 부류에 대한 언급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서 고영근(1991)에서 언급한 불연속 형태소에 대한 논의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고영근(1991)에서는 중세 국어에서 ‘니...가’, ‘거...늘’처럼 단일 형태소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있는 형태소를 불연속 형태소로 불렀다. 불연속 형태소는 국어의 선어말 어미가 사슬 연쇄를 이루며 결합하고 있다가 통시적인 변화로 연쇄적으로 결합한 형태소의 하나가 의미 기능을 상실한 것을 공식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구본관, 2004).

형태소의 하위 유형을 나누는 일과 더불어 형태소의 이형태를 교체 조건에 따라 분류하는 일도 중요하다.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서는 Hockett(1958), Nida(1949) 등의 이론을 받아들여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이형태, 형태-어휘론적 조건에 의한 이형태 등으로 분류해 왔다. 이혁화(2002)에서는 교체에서 논의하는 조건이 엄격하게 음운론적 혹은 형태론적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이형태, 형태적 조건에 의한 이형태 등의 용어가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익섭·채완(1999 : 24)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와 ‘에게’의 조건은 유정물인지 무정물인지의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문법(론)적 조건의 이형태’로 부르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유현경(2003, 2007)에서는 ‘에’와 ‘에게’는 별개의 조사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유현경(2003, 2007)의 논의는 앞에서 언급한바, 고영근(2005)에서 ‘문법적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통한다.

형태론과 더불어 중요한 문법적인 단위는 단어이다. 단어는 형태소와 달리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단어에 대한 Bloomfield(1933 : 61)의 정의는 단어가 최소 자립 형식(minimal free form)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Hockett(1958 : 168-169)에서 비판받기도 했다.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서도 이익섭·채완(1999 : 56)에서 볼 수 있듯이 최소 자립 형식은 단어 정의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허용(1963 : 172)에서는 어느 한쪽이나 두 쪽 모두 구속 형식인 요소를 최소 자립 형식으로 정의하여 단어의 정의에 활용하고 있다. 최소 자립 형식으로 단어를 정의하는 것은 국어에서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는 규범 문법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안병희(1965 : 112-113)에서는 자립성과 분리성을 기준으로 단어를 정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영근·구본관(2018 : 32-33)에서 논의하고 있듯이 단어 정의에 ‘궁극적으로 독립된 의미 단위(an ultimate independent sense-unit)’라는 의미적인 기준을 사용하거나 ‘자리 이동(transposition)’이나 ‘휴지(pause)’, ‘분리 가능성(isolability)’ 등을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이들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기도 한다.

단어의 정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와 어미의 처리였다. 이극로(1936)의 「조선어 단어 성립의 분계선」에서 논의되고 있듯이 20세기 전반기의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서도 단어의 정의는 문제적이었다. 이에 따라 뒤에서 언급할 것인바, 김민수(1954/1960 : 229-232)에서 정리된 것처럼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른 단어관을 가진 것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주시경의 논의처럼 조사나 어미 일부를 단어로 인정하는 분석적 체계, 최현배의 논의처럼 조사만 단어로 인정하는 절충적 체계, 정렬모나 이승녕의 논의처럼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종합적 체계로 나누기도 한다.

단어의 정의가 어려운 것은 단어가 형태론적인 단위이면서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사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단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박진호(1994)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어를 독립된 음운 구조를 가진 단위인 음운론적 단어(phonological word)와 통사론의 기본 단위인 통사원자(syntactic atom)로 나누기도 한다. 이와 유사하게 시정곤(2002/2006나 : 11-29)에서는 추상적인 의미 단위인 어소(lexeme), 문법적인 기능을 포함한 문법론적인 단어(grammatical word), 문법적인 기능이 음성 형태로 표시된 변이어(word-form)로 나누고 있다. 한편 김성규(1987)처럼 생성 형태론적 입장에서 어휘소(lexeme)를 설정하거나 인지 언어학적 입장에서 등재소(listeme)를 설정하여 단어와 관련짓기도 한다. 구분관(1990, 2002가), 채현식(1994) 등에서는 어휘부의 등재 단위로 등재소(listeme) 등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심리 어휘부의 등재 단위라는 점에서 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위이다. 등재소란 화자의 기억 단위로 속어나 속담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럴 경우 형태론의 범위를 관용 구나 관용 절, 속담 등의 관용 표현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단어, 특히 우리말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포착하기 위한 시도로 생각된다(고영근·구분관 2018 : 39-41).¹²⁾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든 단어는 언어 습득 과정에서 가장 원초적인 단위이며, 화자의 심리 어휘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기억의 단위이며, 언어 교육 등에 필요한 단위이기도 하다.

3.1.4. 형태소 결합

우리말은 교착어로서 조사나 어미의 결합이 빈번하고, 하나의 체언어 여러 개의 조사가 결합하거나 하나의 어간에 여러 개의 어미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절에서는 형태소의 결합 양상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이어서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의 일부 형태소가 탈락하는 현상과 형태소의 일부가 의미 기능에서 달라지는 문법화 현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국어 조사의 연속적인 결합에는 일정한 규칙이 작용한다. 한재영(1996), 이남

12) 고영근·구분관(2018 : 40)에서는 단어를 소리의 측면에 주목한 ‘음성적 단어, 음운적 단어, 정서법적 단어’, 의미의 측면에 주목한 ‘의미적 단어, 어휘적/사전적 단어’, 구조의 측면에 주목한 ‘형태적 단어, 통사적 단어’로 나누었다.

순(1996)에서는 조사를 격 조사, 보조사 등으로 나누어 결합 순서가 정해지는 원리를 찾고자 하였다. 김진형(2000)에서는 공식적으로 조사가 연결된 ‘조사 연속 구성’과 하나의 조사로 굳어진 ‘합성 조사’를 구분하려는 시도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 임동훈(2004)의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에서는 조사를 문법격 조사, 의미격 조사, 후치사, 첨사로 나누고 각각의 하위 부류 조사가 결합하는 양상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황화상(2003)의 「조사의 작용역과 조사 중첩」에서는 조사의 작용역의 크기가 결합 순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유하라(2005, 2006)에서는 문어 말뭉치에 나타나는 예를 중심으로 구조격 조사, 어휘격 조사, 특수 조사로 나누어 조사의 결합 순서를 논의하고 있다. 고영근·구본관(2018 : 163-164)에서는 조사를 의미격 조사, 구조격 조사, 보조사로 나누고, 각각의 조사의 특성상 의미격 조사가 체언에 가깝게 결합하고 구조격 조사는 의미격 조사의 뒤에 결합하며, 보조사는 구조격 조사의 앞이나 뒤에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 ‘의미격 조사 + 보조사 + 구조격 조사’ 혹은 ‘보조사 + 의미격 조사 + 구조격 조사’의 순서가 가능한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

어미의 결합 양상을 조금 더 복잡하다. 20세기 전반기에 박승빈(1931)이나 최현배(1937/1971)에서 이미 선어말 어미의 결합에 대해 논의된 바 있고, 광복 후에는 고영근(1967)에서 종합적으로 고찰된 바 있다. 유동석(1991, 1993)에서는 현대 국어를 대상으로 선어말 어미의 결합 순서를 통사 원리와 관련시켜 논의되었고, 이병기(2006)의 「‘-겠-’과 ‘-었-’의 통합에 대하여」 《국어학》 47은 ‘-겠-’과 ‘-었-’의 통합의 양상과 의미 기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선어말 어미의 결합 순서도 다루고 있다. 중세 국어의 선어말 어미의 결합 순서는 이기문(1961/1972)에서 논의된 후, 허웅(1975), 권용경(1990)에서도 자세하게 논의되었다. 박부자(2005)의 「선어말어미 ‘-습-’의 통합순서의 변화에 대하여」에서도 어간에 어미가 여럿이 결합할 때의 순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영근·구본관(2018 : 177)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어말 어미는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통사적 관계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먼저 나오고, 화자나 청자처럼 담화 구성에 관계되는 선어말 어미가 뒤에 이어진다. 주어 관련 선어말 어미보다는 목적어 관련 선어말 어미가 앞서는데, 이는 목적어가 동사구를 이룬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화자 관련 선어말 어미와 청자 관련 선어말 어미 중에는 화자 관련 선어말 어미가 먼저 나오고 청자 관련 선어말 어미 내지 어말 어미가 나중에 나온다. 한편, 임흥빈(1997/2005 : 47)에서는 중세 국어의 ‘시 + 더’와 ‘더 + 시’가 공존한다는 점과 마찬가지로 현대 국어의 ‘있 + 겠’과 ‘겠 + 었’이 가능함을 들며 선어말 어미의 순서가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현희(2002)에서는 선어말 어미의 결합 순서가 단순하

게 사슬연쇄식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일부 선어말 어미가 먼저 결합된 후 다른 선어말 어미가 그 연쇄에 결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선어말 어미는 대체로 고정적인 순서를 지니지만 통시적으로 순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원리에 어긋나는 결합이 공존하여 공시적인 순서 규칙의 예외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형태소의 결합에서 결합에 참여하는 형태소 전체나 일부가 탈락(혹은 생략)하거나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¹³⁾ 이지양(1993/1998)에서는 형태소 일부가 탈락하거나 줄어드는 현상을 융합으로 정의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인용 구문의 융합을 다룬 안명철(1990), 융합형의 형태 분석을 시도한 이승재(1983, 1992), 방언의 융합 현상을 논의한 김주원(1984), 이승재(1990) 등도 있다. 준말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논의한 이승명(1987), 준말의 음운론적 현상을 다룬 김동연(1986), 국어의 생략과 축약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는 이석주(1988), 남길임·송재영(2007) 등도 주목된다.

형태소의 결합 과정에서 형태소 일부 혹은 전부가 의미 기능의 변화를 경험하는 문법화(grammaticalization)은 우리말 형태론 연구의 오랜 주제이면서 최근에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유창돈(1964), 안병희(1967) 등에서 용언, 체언 등이 허사로 변화하는 현상을 문법화로 포착하여 다룬 이래, 이승욱(1981), 홍운표(1984), 이태영(1988), 이현희(1991), 정재영(1996), 김유범(2003) 등에서 다양한 현상들이 문법화의 이름 아래 다루어졌다.

유창돈(1964), 안병희(1967), 이승욱(1981), 홍운표(1984) 등 이른 시기의 문법화 논의는 주로 동사 어간이나 동사 어간과 어미의 결합형이 조사나 후치사 등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다룬 것이었다. 정재영(1996)에서는 중세 국어의 의존 명사 ‘ㄷ’가 포함된 구성의 문법화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이태영(1988)에서는 동사의 문법화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강정희(1982)에서는 제주 방언의 문법화를 다루고 있다. 이승욱(2001)에서는 문법화의 단계에 따라 형태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논의하고 있다.

안주호(1996)에서는 어휘소에서 문법소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덜 문법적인 것에서 더 문법적인 것으로의 변화까지 문법화로 다루어 문법화를 결과의 산물이 아니라 통시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구본관(2022)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수사가 수 관형사로 바뀌는 현상 등을 문법화의 관점에서 포착하고 있다. 이지양(1998)에서도 단일 형태소뿐만 아니라 형태적인 구성이나 통사적인 구성이 처음과 다른 기능을 하게 되면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요소로 발달하는 것을 문법화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최근에는 노명희(2013), 양영희(2016)에서처럼 문법화의 반대 방향으로의 진

13) 축약에 대한 논의는 구본관(2004)를 수정·보안하여 기술하였다.

행 즉, 더 문법적인 형태소가 덜 문법적인 형태로 발달하는 탈문법화 내지 역문법화 현상을 다루고 있다. 김주식 역(2006)처럼 문법화에 관한 서양의 이론이 소개되기도 하고, 이성하(2016)와 같은 단행본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문법화에 대한 쟁점들은 고영진(1997), 허재영(1997), 이정애(1998), 이성하(2007), 고경재(2017) 등에서 정리된 바 있다.¹⁴⁾

3.2. 품사론

서양의 언어 연구에서도 품사 분류가 그 출발점에 있었다. 플라톤에서 명사와 동사를 구분한 바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접속사가 추가되었으며, 스토아 학파에 의해 관사를 추가하였고,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의해 부사, 분사, 대명사, 전치사 등이 더해졌다고 한다. 이후 분사가 빠지고 형용사와 감탄사가 더해져 영어의 전통 문법에서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의 8개의 품사가 확립되었다고 한다(김영석, 1998; 고영근·구본관, 2018 : 55).

우리나라에서도 향찰, 이두, 구결 등의 차자 표기에서 ‘花吟(현대어 ‘꽃을’), ‘聞古(현대어 ‘듣고’)’처럼 대체로 실질 형태소인 명사와 동사는 훈(訓)을 이용하고, 형식 형태소인 조사나 어미는 음(音)을 이용하여 두 부류를 구별했음을 알 수 있다(고영근·구본관, 2018 : 55). 15세기 한글 문헌에서는 협주에서 어려운 어휘를 풀이할 때, 체언류는 ‘~ 이라’, 용언류는 ‘~ 르 씨라’, 부사류는 ‘~ 니 마리라/ ~ 뿌디라’, 허사류는 ‘~ 입겨지라/겨치라’ 등으로 풀이하여 최소한 이들 4개의 품사 부류가 구별되었음을 알 수 있다(안병희 1977 : 17; 김민수, 1980 : 126-126).

현대 언어학의 관점에서 우리말의 품사를 분류한 최초의 논의는 Ridel(1881), Underwood(1890) 등이었으며 이들 외에 前間恭作(1909), 高橋亨(1909) 등 일본인 학자들에 의한 우리말 품사를 분류하기도 했다. 뒤에서 언급할 것인바, 20세기 전반기의 우리말 품사 분류는 외국인에 의한 우리말 품사 분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서양인이나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서양어나 일본어의 편견을 극복하고, 우리말의 특성에 맞는 품사 분류를 찾아갔다.

품사론은 전통 문법적인 관점의 형태론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20세기 전반기의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서도 품사 분류의 기준, 기준 적용의 결과로서의 품사의 종류, 품사의 통용 등과 구체적 품사 부류의 특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절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해 영구의 쟁점을 중심

14) Claremont McKenna College의 김민주 교수는 최근 해외의 여러 학술지에 한국어 문법화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으로 간략하게 논의할 것이다.

3.2.1. 품사 분류의 기준과 품사의 종류

[품사 분류 기준]

품사는 단어를 문법적인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이라고 할 때 형태가 기능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대개 여기에 의미를 더하여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형태, 기능, 의미를 드는데, 우리말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대체로 형태(form), 기능(function), 의미(meaning)가 제시되어 왔다. 이때 형태란 단어의 형태적인 성질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말 품사 분류에 적용하면 조사나 어미와 결합하는지의 여부를 의미하고,¹⁵⁾ 기능은 주로 통사적인 성질을 의미하고, 의미는 개별 단어의 의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품사 부류 전체의 의미(예를 들어,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를 지칭한다.

분포를 품사 분류로 제시한 Tallerman(2005)에서는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의미를 제외하고, 형태와 기능에 분포를 더해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최형용(2012)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품사 분류의 기준의 하나로 ‘분포(distribution)’를 들기도 하였다. 이때 분포란 체언 앞에 쓰이는지, 조사가 뒤에 올 수 있는지와 같이 분류 대상 단어가 문장에서 어디에 쓰이는지를 말한다. 이럴 경우 앞에서 언급한 조사와의 결합은 ‘형태’가 아닌 ‘분포’의 기준으로 포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품사 분류의 기준에 대한 논의는 이 밖에도 다양하다.¹⁶⁾

북한의 문법 연구에서는 품사 분류 기준의 하나로 과학원(1960)의 『조선어문법 1』에서 언급한 『단어 조성 유형의 동일성』을 들기도 한다(구분관, 2010 : 185).

(1) 북한 문법서들에서의 품사 분류 기준

가. 『조선어문법』(1947): 형식, 기능

나. 『조선어문법 1』(1960): 어휘적 의미의 성격의 동일성,
문법적 범주의 구성의 동일성, 문장에서의 문장론적
기능의 동일성, 단어 조성 유형의 동일성

다. 『조선문화어문법』(1979): 단어들의 일반적인 뜻의 특성,
단어들의 문법적 형태상의 특성, 단어들의 문장론적

15) 주지하듯이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서 형태는 굴절어의 품사 분류에 적합한 기준이다. 우리말의 경우 굴절어의 굴절에 해당하는 현상이 없으므로 형태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굴절과 유사한 현상으로 조사나 어미가 결합하는 양상의 차이를 형태를 기준으로 포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도 조사를 단어로 보아 품사의 하나로 설정하는 현행 규범 문법의 품사 체계에서는 조사와의 결합은 기능(분포)에 의한 차이로 볼 수 있으므로 형태 기준으로 조사와의 결합을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16) 문용(1998: 36-40)에 따르면 Jespersen의 경우 ‘형태’만을 기준으로 영어의 품사를 분류하였고, Fries의 경우 문장 내에서의 위치(position)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하였다고 한다.

기능상의 특성, 단어들의 이루어짐 새의 특성
라. 『조선어문법편람』(2001): 어휘적 의미의 공통성,
문법적 범주와 문법적 형태의 공통성

(1가)와 (1나)에서는 품사 분류의 기준의 하나로 ‘단어 조성상의 특성’을 들고 있는데,¹⁷⁾ 이런 기준에 따라 북한의 품사 분류에서는 럽종률(1980)에서 볼 수 있듯이, 의성의태어를 ‘상징사’로 보아 품사의 하나로 설정하기도 한다.

품사 분류의 기준이 정해지더라도 각각의 기준의 중요도나 적용 순서에서 연구들의 일치율을 보이지 않는다. 구본관(2012)에서는 문법서에 따라 ‘형태, 기능, 의미’의 품사 분류 기준 3가지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남기심·고영근(1993)의 『개정판 표준 국어 문법론』에서는 의미, 기능, 형태(형식)의 3가지를 들되, 실제 분류에서는 기능을 중시하고 있고, 이익섭·채완(1999)의 『국어문법론강의』와 고영근·구본관(2018)의 『개정판 우리말 문법론』에서는 형태(형식), 기능, 의미의 3가지를 들되, 의미는 보조적 기준으로 언급하고 있고, 임흥빈·장소원(1995)의 『국어문법론 I』에서는 형태, 기능, 의미의 3가지 기준을 들되, 의미가 제1기준임을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

품사 분류 기준을 적용하는 순서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학교 문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논의들에서는 형태의 기준에 따라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누고,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불변어는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으로 하고 가변어인 용언을 더하여 5개로 나누고, 의미에 따라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로, 수식언의 관형사와 부사로,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로 나누고 독립언은 감탄사, 관계언은 조사로 하여 9품사로 분류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임흥빈·장소원(1995)은 다른 문법서에서는 ‘의미’를 보조적 기준으로 보거나 문법적 성질이라는 품사 분류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아예 배제하기도 하는데, 이를 제1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의미’가 품사들의 이름 자체와 관련이 있고 이때의 의미가 단어 개별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어류의 의미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구본관, 2012). 다만 이렇게 할 경우 품사 분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따른다. 학교 문법을 포함한 규범 문법에서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수사와 수 관형사의 구분 문제 등이 남는다. 결국 품사 분류는 어느 한 가지 기준만으로 분류하기 어려우며, ‘형태, 기능, 의미’ 등은 각각 다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말 품사 분류에서 ‘형태’는 조사나 어미 등이 결합하는지에 따른 형태적인 특성을 알게 하며, ‘기능’은 문장에서의 역할과 분포를 알게 하는 데

17) (2가), (2나) 외에도 고신숙(1987) 등 다수의 북한어 문법서에서 품사 분류의 기준의 하나로 ‘단어 조성상의 특성’을 들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소련의 영향으로 보인다고(고영근, 1993 : 89-90) 한다.

에 기여하며, ‘의미’는 부류 전체의 의미로서 품사의 명칭을 정하고 대략적인 의미 특성을 아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구본관, 2012).

[품사의 종류]¹⁸⁾

서양인과 일본인에 의한 우리말 품사 분류에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된 우리말 품사 분류는 최광옥(1908), 유길준(1909), 김규식(1908~1909?) 등에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후사, 접속사, 감탄사’ 등의 부류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어서 김희상(1910) 등에서는 우리말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를 하나의 품사로 세우기도 하였다. 이 시기 주시경은 3.1.3.에서 자세하게 언급한 것처럼 ‘임, 엇, 움, 겹, 잇, 언, 억, 놀, 꾀’의 9품사를 세웠다.

품사 분류의 기준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품사를 분류한 논의가 홍기문(1927)과 최현배(1930)이다. 홍기문에서는 품사를 토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토, 토의 보좌를 받지 못하는 것(형용사, 동사), 토의 보좌를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는 것(명사와 부사), 토와는 아조 무관한 것(감탄사)의 4부류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실제 품사는 현실을 존중하여 서양의 품사 분류법을 원용하여 9품사를 사용하고 있다. 최현배(1930)은 본격적인 품사 분류론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직능(기능)을 위주로 하되, 형식(형태)와 의미를 보완하여 기준으로 삼고, 이 기준에 따라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움즈씨, 어떨씨, 잡음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의 10품사로 이어졌다. 최현배(1930)의 논의는 고유어 품사 이름이 주로 한자어 품사 이름으로 바뀌고 잡음씨가 제외된 9품사가 되어 학교 문법을 포함한 규범 문법으로 이어졌다.

이 밖에 품사의 종류를 제시한 몇몇 학자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정렬모(1946)에서는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5품사를 제안했다. 가장 많은 품사의 종류를 제안한 논의는 김근수(1947)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지정사, 조사, 조용사, 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의 13품사이다. 이희승(1949)에서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접속사, 조사’의 10품사가 제안되었다. 최현배의 품사 분류와 비교하면 뒤에서 언급할 것인바 체언서 수사를 제외했고 지정사 대신 존재사와 접속사를 포함하였다.¹⁹⁾

현행 학교 문법 내지 규범 문법의 품사 유형은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의 9품사이다. 이는 이미 언급한바, 최현배의 품사 분류에서 ‘잡음씨(지정사)’를 제외한 것이다. 광복 이후 1955년 제1차 교육과정이 공포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용 검인정 문법 교과서가 여러 권 편찬되

18) 품사의 종류에 대한 논의는 구본관(2004), 고영근·구본관(2018)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19) 여러 연구자의 품사 종류에 대한 논의는 이광정(1997/2005 : 115-151)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었는데, 품사의 종류는 집필자에 따라 편차가 심했다. 이에 따라 1961년 제2차 교육과정 심의가 끝난 후, 통일 문법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문교부에서는 1962년 ‘학교 문법 지도 지침’에 이어, 1963년 품사 분류를 포함한 ‘한자어 문법 용어 사용, 252개의 용어 사용, 9품사 체계 사용 같은 문법의 체제와 용어 등을 통일한 ‘학교문법통일안’을 안을 만들어 중등학교용 문법 교과서의 집필의 지침으로 삼았다. 이때 제안된 품사는 논란이 되었던 ‘관형사, 접속사, 지정사, 존재사’ 중에서 관형사만 받아들인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의 9품사로 지금의 규범 문법과 다르지 않았다. 이런 체제는 1980년대 본격적인 학교 문법의 통일 과정이나 이를 담은 남기심·고영근(1985)의 『표준국어문법론』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구조주의 문법이나 생성 문법에서는 품사론이 더 이상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다. 구조주의 문법이나 생성 문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단어 분류로는 단어류를 ‘명사류 또는 제1류’, ‘동사류 또는 제2류’, ‘관형사류 또는 제3류’, ‘부사류 또는 제4류’로 분류한 박창해(1964)가 있는데, 이는 생성 문법의 대어휘 범주(major category)를 연상하게 한다. 형태론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던 품사 분류 문제를 다시 전면으로 가져온 비교적 최근의 논의로는 남기심 외(2006)이 있다. 이 논의에서는 명시적으로 품사의 종류를 단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지정사, 조사, 어미, 감탄사’로 나누어 품사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다'의 범주]

이미 앞에서 언급한 조사를 단어로 보아 품사의 하나로 제시하는지 여부를 제외하면 품사론에서 가장 오랫동안 논쟁이 된 것은 ‘이다’의 처리 문제이다. 20세기 중반까지의 ‘이다’의 범주에 대한 대표적인 주장으로는 최현배(1929)와 박승빈(1935)의 지정사설, 정인승(1949)의 서술격 조사설, 강복수(1964)의 의존형용사설 등이 있었다.

‘이다’의 범주에 대한 논의는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서 가장 많은 쟁점이 되었던 문제였다. 먼저, 광복 이후 앞에서 언급한 1960년대의 학교 문법 체계와 용어 통일을 전후한 논쟁이다.²⁰⁾ 『한글』 120호에는 최현배(1956)의 「잡음씨의 세움」과 강길운(1956)의 「지정사는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가 실려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의 지상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현배는 ‘이다’ 즉 잡음씨는 ‘풀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끝바꿈을 한다는 점, 때 매김의 표현을 한다는 점’을 들어 잡음씨를 세우고, 이 주장에 대한 반박에 대해 자기의 비평을 밝히고 비

20) 이 시기의 ‘이다’에 대한 논쟁은 주로 학술지 『한글』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문교부 안이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보는 입장에 대한 반박이 많았으며, 일부는 이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교언어학적 교찰 등을 더하여 지정사 설정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강길운은 강길운(1956)과 강길운(1958)에 실린 「지정사는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II)를 통해 최현배의 『우리말본』에 실린 지정사 설정의 이유를 반박하고, ‘이다’를 ‘이’는 접미사, ‘다’는 활용 어미로 보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석린(1960)의 「잡음씨 “이다”에 대하여」와 이석린(1965)의 「“-이다”가 “임자씨의 풀이자리 줄기”가 아니다」를 통해 문교부의 ‘이다’를 ‘다’를 이음씨의 씨끝으로 보고 받침 뒤에 나타나는 ‘이’를 고름소리(조음소)로 보는 견해를 비판한다.²¹⁾ 이석린(1966)의 「“이다”와 “아니다”는 “잡음씨”에 틀림없다」에서 최현배의 학설에 따라 잡음씨로 주장하였으며, 이석린(1969)의 「“-이다”에 대한 판 주장을 검토한다」를 통해서 ‘이’가 고름소리라는 주장, ‘이’가 풀이자리 토씨라는 주장, ‘이’가 끝가지(접미사)라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잡음씨라는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한편, 신익성(1967)의 「“-이다”에 대하여」에서도 ‘이다’를 용언의 일종으로 품사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다’의 범주에 대한 논쟁은 남한과 비슷한 시기인 1965년 학술지 『조선어학』을 통해 북한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영향·권승모 편(1996)의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에서는 북한 문법 학계에서는 품사 분류와 관련된 여러 차례의 토론이 있었고, 이를 『조선어학』 1964년 2호부터 1965년 4호까지에 나누어 실었다고 한다. 이 중 ‘이다’ 문제는 1965년 1호에 실렸다고 한다(구본관, 2005). ‘이다’는 60년대 논쟁 이후 대체로 북학에서 편찬되는 논저에서는 ‘이다’를 체언을 용언으로 바꾸는 바꿈토로 보는 견해가 주도적이다.

2000년대 이후 ‘이다’의 범주에 대한 논쟁은 더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학술지 『국어학』에서는 안명철(1995)의 「‘이’의 문법적 성격 재고찰」이 실린 이래, 『국어학』 37집을 통해 ‘이다’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김성규(2001)의 「‘이’의 음운론적 특성」에서는 음운론적 특성을, 김정아(2001)의 「‘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통시적 고찰」에서는 문법적 특성을, 양정석의 「‘이다’의 문법범주와 의미」에서는 범주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다.

학술지 『형태론』에서는 지상토론의 형식으로 여러 권에 걸쳐 주장과 반박이 이루어졌다. 우순조(2000), 엄정호(2000), 최기용(2001), 시정곤(2000/2006 : 11-29), 양정석(2003) 등의 논쟁을 통해 조사로 보는 견해(주격 조사설, 서술격 조사설), 용언으로 보는 견해(지정사설, 의존 형용사설), 접사로 보는 견해(통사적 접사설) 등 여러 주장들이 논쟁적으로 검토되었다. 한편, 『형태론』에 실린 남길임(2004)에서는 말뭉치를 활용하여 ‘이다’ 구문의 통사 및 의미적 특성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21) 이석린(1969)의 「“-이다”에 대한 판 주장을 검토한다」에서 1963년의 문교부의 학교 문법 통일 심의회에서는 ‘이다’를 임자씨의 씨끝이라는 이희승 박사의 학설을 채택하여 중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 쓰기로 하였다가 학계의 반대로 ‘풀이자리토씨(서술격 조사)’라는 학설을 채택하였다고 하며 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런 여러 차례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다’의 범주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고영근(2018)에서는 ‘이다’의 통사적 특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새로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말의 표준 문법을 지향하는 유현경 외(2018)에서는 ‘이다’를 서술격 조사가 아닌 의존 형용사설로 보고 있다.

[체언의 하위 분류]

우리말 규범 문법에서는 체언의 하위 부류에 명사, 대명사, 수사를 두지만, 모두 명사로 다루고, 명사의 하위 부류로 본명사, 대명사, 수사로 분류하기로 하고, 앞에서 언급한 정렬모(1946)에서처럼 아예 명사만 인정하기도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이희승(1949)처럼 명사와 대명사만 인정하고 수사는 따로 품사로 세우지 않기도 한다.

이희승(1949)처럼 수사를 따로 두지 않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전통 문법적 관점의 영어의 품사에서 명사와 대명사를 따로 인정하고,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떠올리게 한다. 영어에서 대명사는 주지하듯이 주격, 목적격, 소유격, 소유 대명사가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형태’의 기준에서 명사와 다른 특성을 보이지만, 수사의 경우 이런 특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대명사만 따로 품사로 세우는 처리가 수공이 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말의 경우 대명사나 수사를 명사와 구별할 뚜렷한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 물론 대명사와 수사는 명사에 비해 선행하는 수식어의 제약이 심하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듯하다. 문제는 이 차이가 품사를 별도로 세울 정도로 큰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국어에서 수사를 따로 세운 것은 일본 문법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서민정(2024)에서 자세하게 비교한 것처럼 최현배의 품사 분류는 야마다(山田孝雄)의 품사 분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山田孝雄(1922)에서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로 분류되고 있다.²²⁾

체언의 분류와 관련하여 부수적인 문제는 지시 대명사와 지시 관형사, 수사와 수 관형사의 구분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명사의 경우 관형격 조사의 도움 없이 뒤에 오는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과 명사 뒤의 격 조사와 결합하는 두 가지 용법이 있지만, 모두 명사로 분류한다. 그런데 대명사의 경우 ‘그는(그 + 조사 ‘는’)'의 경우는 지시 대명사로, ‘그 사람’의 ‘그’는 지시 관형사로 구분한다.

수사의 경우 ‘하나, 둘, 셋, 넷’ 등은 수사로 ‘한, 두, 세/서/석, 네/너/넉, 다섯, 여섯’ 등은 수 관형사로 구분한다. 그런데 ‘다섯, 여섯, 일곱...’ 등은 ‘다섯이(다섯 + 조사 ‘이’)'의 경우는 수사로, ‘다섯 사람이’의 경우는 수 관형사로 구분

22) 최근의 일본 문법서에서는 수사를 따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다. 명사에 대해 관형사를 따로 두지 않는 태도를 일관되게 가진다면 ‘그’나 ‘다섯’은 각각 대명사와 수사로만 처리해도 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우리말 품사 분류가 ‘기능’을 중시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영근·구본관 2018 : 56, 59) 허웅(1975, 1995) 등에서는 ‘다섯, 여섯, 일곱...’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포함하는데, 이는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서 ‘의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용언의 하위 분류와 관형사]

용언은 앞에서 언급한 ‘이다’를 지정사로 따로 설정하는지의 문제와 ‘있다, 없다, 계시다’ 등을 묶어 존재사로 설정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²³⁾ 이 문제를 제외하면 용언의 하위 분류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우리말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유형론적으로 볼 때 동사형 형용사로서 영어와는 달리 동사의 도움 없이도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일 수 있으므로 기능 면에서는 동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언어 유형론(linguistic typology)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는 형용사가 수적으로 많은 언어는 아니다. 또한 형용사를 동사형, 명사형, 동사-명사형, 비동사-비명사형 등으로 나눌 때, 한국어의 형용사는 동사형에 가깝다. 그리하여 동사와 유사하게 활용을 하고 문장의 서술어로 쓰이는 것이다.

언더우드(Underwood)의 고아원에서 자라 그의 비서를 지내기도 하는 등 Underwood(1881)의 문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규식(1908~1909)에서는 한국어의 품사로 ‘명사, 대명사, 동사, 형동사(形動詞), 형용사, 부사, 후사, 접속사, 감탄사’를 설정하였는데, 이때 형용사는 ‘새 책’에서의 ‘새’와 같은 관형사를 주로 포함하였고, 형동사는 현행 규범 문법의 형용사를 포함하였다. 김규식은 한국어의 형용사가 영어와 달리 서술어로서의 설명적인 용법이 있다는 점을 고민하여 설명적인 용법의 형용사를 ‘형용사+이다’의 합성으로 보아 형동사라고 불렀다.

우리말 품사 중 관형사는 영어의 관사와 형용사를 떠올리게 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나 다른 언어의 품사 분류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품사이다. 우리말의 관형사 부류는 수적으로도 많지 않고 많은 경우 명사가 통시적으로 분포가 축소되었거나,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사형이 굳어진 것에서 기원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말 품사의 하나로 관형사를 설정한 것은 우리말의 특성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23) 본 발표에서는 존재사에 대해 따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있다’ 동사적인 용법과 형용사적인 용법을 가지는데, 유현경(1998 : 200)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용사 중에서 빈도수 1위를 차지할 만큼 자주 사용된다. ‘있다’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신선경(2002)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품사 통용의 문제]

형태가 같은 단어가 두 개 이상의 품사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학교 문법에서는 품사 통용으로 불러 왔다. 품사 통용은 뒤에서 조어론을 다루는 자리에서 언급할 것인바, 영 변화 혹은 영 파생과도 관련이 있고 전통 문법에서 말하는 품사의 전성과도 관련이 있다.

최현배(1937/1971 : 719-725)에서는 하나의 형태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현상을 '그대로의 씨 몸바꿈'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품사 전성 내지 전환과 가까운 개념인데, 조성식 외 편(1990 : 288-290)의 『영어학사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환(conversion)'은 형태의 변화가 없는 것뿐 아니라 접사가 첨가되는 파생법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는데, 최현배의 논의에서는 접사가 결합하는 것을 제외한 전환에 대해 '그대로의 씨 몸바꿈'으로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 문법에서 조어론이 품사론 안에서 다루어졌으므로 이런 현상 역시 품사론 안에서 다루어졌지만, '씨 몸바꿈'의 의미를 고려하면 품사론에 가까운 논의로 보인다. 이런 현상을 영 변화(zero-modification)이나 영접사 파생(zero-derivation)으로 보는 관점은 이를 파생의 일종 즉, 조어론에 포함되는 것으로 다루고 있는 셈이다.

품사 통용이라는 용어는 안확(1917)이나 홍기문(1927, 1947)에 등장하는데, 남기심·고영근(1985)의 『표준국어문법론』에 이 용어가 도입되면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학교 문법의 품사 통용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는 서태룡(2006)의 「품사 통용은 이제 그만」에서 드러난다. 다소 파격적인 제목의 이 논의에서 저자는 국어 사전에서 품사 통용으로 기술된 대부분의 예들은 품사 분류를 달리하면 해소된다는 점, 동일한 낱말에 여러 품사를 인정하면 사전 기술에 복잡해진다는 점, 이로 인해 문법 교육에 혼란이 온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용어를 더 이상 쓰지 말자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강한 주장과 달리 '비교적'이 부사와 명사로 쓰이는 예, '천만'이 수사와 명사와 부사로 쓰이는 예, '마저'가 부사와 조사로 쓰이는 예에 대해서는 품사 통용을 인정하고 있다. 서태룡이 품사 통용을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부분적으로는 품사 통용 현상을 인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품사 분류에서 통용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 Tallerman(2005 : 30)에서 영어를 대상으로 '하나의 단어가 하나 이상의 품사에 속한다.'고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언어에서도 당연히 품사 통용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김류철(2002)에서 볼 수 있듯이 북에서의 문법 연구에서도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품사 통용으로 묶이는 현상을 모두 동일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뒤에서 언급할 것인바, '신-신다', '띠-띠다', '품-품다'와 같이 명사와 동사 어간

이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경우는 우리말의 동사가 어미 없이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품사 통용에 포함하기보다는 조어론에서 영 변화나 영 파생으로 다루는 것이 좋을 듯하다.²⁴⁾ 구본관(2012), 고영근·구본관(2018 : 53-54, 60-61)에서는 다른 예들에 대해서도 품사 통용의 원인별로 구별해서 다루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2) 품사 통용 현상의 원인²⁵⁾

- 가. ‘분포’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했기 때문
예) 백(수사/관형사), 이지적(명사/관형사), 밝다(동사/형용사)
- 나. 의미 특성이 다양한 품사 분류에 영향을 미친 경우
예) 아니(부사/감탄사), 오늘(명사/부사)
- 다. 통시적인 변화를 공시적으로 분류했기 때문
예) 만큼(명사/조사), 보다(조사/부사)

품사 통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홍기문(1927)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품사 분류를 4품사로도, 9품사로도 분류하고 있다. 4품사로 나누게 되면 품사 통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결국 품사 통용이 품사 분류의 따라 달라지는 임의적인 것임을 잘 보여 준다.

3.2.2. 개별 품사론

개별 품사나 개별 품사의 하위 부류의 특성에 대한 논의는 일정 부분 품사 분류의 문제나 해당 부류의 형태적인 특성을 다루고 있어 형태론 논의에 포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논의들은 형태론 외에 통사론이나 의미론적인 논의를 포괄하고 있기도 하고 지면의 제약도 있어 본 발표에서는 이런 논의를 일일이 다루지 않고 몇몇 특징적인 논의만 언급하기로 한다.

20세기 전반기의 학술지에 발표된 품사 관련 논의에는 『한글』에 실린 최현배의 논문들이 있다. 1권 4호와 1권 5호에는 최현배의 「이름씨의 세설」이(상)~(하)로 실려 있는데, 이 논의들에는 명사의 문법적 특징과 하위 분류 등이 자세하게 논의되어 있다. 4권 3호와 4권 4호에는 최현배의 「토씨(조사)의 품사적 단위성에 대하여」가 실려 있는데, 이 논의들에서는 조사가 어미와 마찬가지로 의존적인 속성이 있어 접사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지만, 토씨에 선행하는 체

24) 중세 이전의 우리말은 용언 어간이 어미와 유리(遊離)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이기문, 1998 : 148). 따라서 이들 단어가 처음 사용되던 시기로 올라가면 ‘신-신다’ 유형도 품사 통용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5) (2)는 구본관(2010)의 내용을 수정해서 제시한 것이다.

언이 자립적이라는 점, 토씨의 종류가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어미와 달리 품사의 자격을 주는 이른바, 절충적 처리의 이유가 잘 나타나 있다. 물론 이 논의들은 『우리말본』(1937/1971) 등 외솔의 저술에 이어진다.

이극로(1936)의 「조선어 단어 성립의 분계선」은 관형사 결합형과 접두사 결합형, 합성어 결합형의 어근의 명사와 불완전 명사의 문제, ‘하다’가 결합한 동사와 형용사의 문제, ‘되다’를 결합한 동사의 문제 등 지금도 논의되는 형태론, 특히 품사론의 중요 주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정렬모(1935)의 「「아니」의 격위는 무엇?」에서는 ‘아니’가 ‘않+이’의 파생 형태가 아니라는 점, 부사에 가깝다는 점, ‘아니다’는 ‘아니’와 지정사 ‘이다’와 결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 흥미로운 논의를 보여 준다.

광복 이후에는 품사론 논의가 많지 않았으나 다음 몇 편이 눈에 띈다. 김윤경(1959)의 「말의 발달의 방향과 씨가름」에는 여러 학자들의 저술에서의 품사 분류를 분석적 체계, 절충적 체계, 종합적 체계로 나누어 개괄하고, 실사인 ‘이름씨, 그림씨, 움직임씨, 매김씨, 어찌씨, 느낌씨’와 허사인 ‘겉씨(대체로 조사), 이음씨(조사 ‘와/과’와 연결 어미), 맺음씨(대체로 종결 어미)’의 9품사를 주장한다. 대명사와 수사를 따로 두지 않는다는 점, 어미를 둘로 나누어 각각을 품사로 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정인승(1959)의 「우리말의 씨가름에 대하여」에서는 품사를 ‘이름씨(명사), 움직임씨(동사), 그림씨(형용사), 토씨(조사), 매김씨(관형사), 어찌씨(부사), 느낌씨(관형사)’로 나눈다. ‘대명사, 수사’를 따로 세우지 않았고, 형용사를 동사와 합치지 않았으며, 존재사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이다’를 따로 품사로 세우지 않는다. 박지홍(1961)의 「국문법의 품사 분류론 - 품사론과 구문론의 논리적 연결-」이 실렸다. 박지홍은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형태와 기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과 품사론과 구문론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후, 활용어를 ‘용언(설명사), 체언(주사)’로 나누고, 비활용어로 ‘관형사, 부사, 접속사, 독립사’로 나누고 부속어 조사를 따로 두고 있다. 유창돈(1966)의 「어찌씨의 역사적 고찰」은 부사의 통시적인 형태 변화 등을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품사 관련 논의가 많지 않지만 앞에서 언급한바, 남기심 외(2006)처럼 품사에 대해 더 심화된 논의를 하기도 한다. 먼저 개별 품사의 특징을 다룬 배주채(2003)의 「‘물론’의 품사와 구문」, 유현경(2008)의 「관형사 ‘한’에 대한 연구」, 황병순(2002)의 「「있(다)」의 품사론」처럼 개별 단어의 품사를 다룬 논문들이 있다. 또한 박진호(2007)의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처럼 한국어의 품사를 유형론적 관점에서 고찰하기도 하고, 노명희(2012)의 「외래와 수용과 품사적 변용」처럼 외래어가 국어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명사 등으로 변용되는 과정을 다루기도 한다. 최근에는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연구

와 기계 번역 등 언어 연구의 방법이나 목적의 변화에 따라 김진규(1996)의 「자연 언어 처리를 위한 한국어 품사 태그의 몇 가지 문제」 등이 품사론의 연구 주제는 새로운 변모를 보이기도 한다.

3.3. 굴절론

형태론의 영역으로서의 굴절론은 특히 굴절어에서 단어가 문법적인 기능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는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말은 굴절어가 아니므로 굴절론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서는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는 현상이나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현상을 넓은 의미에서 굴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굴절론에서 다루기도 하였다. 조사의 결합과 어미의 결합에 대한 태도도 연구자마다 달라서 어미 결합은 굴절론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조사를 단어로 보는 연구자가 많았으므로 조사 결합은 굴절론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서태룡(2006)의 「국어 조사와 어미의 상관성」에서처럼 조사와 어미의 공통점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교착 어미’로 다루거나 북한의 문법서들에서 조사와 어미를 묶어 토로 다루기도 하므로 본 발표에서도 어미의 결합을 중심으로 하되, 조사의 결합 역시 부분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3.3.1. 기본형 설정과 활용

우리말 굴절론 논의에서 주요한 쟁점은 용언의 활용에서의 기본형 설정의 문제와 불규칙 활용, 일부 용언의 불안정한 활용 등이었다. 먼저, 기본형 설정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20세기 전반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제정과 문법 교 육을 위해 우리말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35년에 간행된 『한글』 3권 5호와 3권 6호에는 최현배의 「풀이씨의 줄기 잡기에 관한 문제」와 「풀이씨의 으뜸꼴에 대하여」가 실렸는데, 이들 논의에서는 형태론의 중요한 주제인 어간과 어미의 구별 문제, 기본형 설정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이 당시 기본형 설정에 대해 조선어학회와 박승빈의 논쟁이 있기도 했는데, 이는 『한글』 5권 5호에 실린 최영기(1937)의 「용언의 원형과 어간 어미에 대하여 - 박승빈씨의 강연을 듣고-」에 잘 드러나 있다.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완성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는 활용을 할 때, 어간이 불규칙한 것, 어미가 불규칙한 것, 어미가 불규칙한 것 등으로 나누어 기술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기본형이나 개별 불규칙 활용에 대한 논의가 더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 김민수(1955)의 「용언의 기본형」에서는 『계림유사』 이후 여러 문헌

과 문법서를 통시적으로 검토하고, 영어 등 외국어를 고려하여 어미를 미래형 ‘ㄹ’로 잡는 방안, ‘-다’로 잡는 방안, 형용사까지 고려하여 현재형 ‘-다’와 ‘-(는)다’를 잡는 방안 등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유창돈(1959)의 「러 변칙 용언의 검토」는 한글 맞춤법 등의 설명이 어미 ‘-어’ 대신 ‘ㄹ’이 추가되어 ‘-러’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이르다’의 15세기 형태가 ‘니를다’임을 고려하면 적절한 설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차균(1971)의 「변칙 용언 연구」에서는 ‘ㅂ’변칙 용언과 ‘ㅅ’ 변칙 용언 등에 대해 ‘빙’, ‘△’ 등을 기저형을 활용하여 생성 문법의 기저형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박홍길(1992)의 「‘-르다’ 풀이씨 연구」(1~2)에서는 ‘으’탈락, ‘러’ 불규칙, ‘르’ 불규칙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르’용언의 형태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최근 민현식(1999 : 116)에서는 ‘-거라’와 ‘-너라’를 ‘-(아/어)라’와 구별되는 보수적 명령형 어미로 보아 ‘거라’ 불규칙과 ‘너라’ 불규칙을 제외하기도 한다. 이런 입장은 2002년 판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 반영되었고, 최근에는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반영되어 불규칙 활용에서 제외되었다.

불규칙 활용과 관련하여 보충법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주지하듯이 보충법은 활용의 패러다임에서 어원적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현상으로 우리말에는 굴절어의 보충법과 같은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활용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함께 언급해 두기로 한다. 신창순(1966)의 「15세기 국어의 보충법의 존대말」에서는 ‘자-’에 대한 ‘주무시-’, ‘말하-’에 대한 ‘말씀하시-’, ‘야단치-’에 대한 ‘꾸짚으시-’, ‘먹-’에 대한 ‘자시-’ 등의 보충법적인 예에 대해 15세기 이후 문헌 검토를 통해 실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남기심(1986)의 「‘이형태’의 상보적 분포와 통사적 기능」에서는 ‘주-’와 ‘달-’, ‘(-지) 앉-’, ‘(-지) 말-’을 상보적 분포를 가진 이형태라는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고영근(1987/1999 : 35-60)에서는 ‘다오/달라’의 경우 ‘타인이 자기에게 주다’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법으로 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용언은 거의 모든 어미와의 결합이 가능하지만 ‘데리다’처럼 일부 어미와만 결합하는 불완전 용언들이 있다. 최현배(1956)의 「안갯은 움직씨 “닥다”에 대하여 “닥아”와 “다가”의 변」에서는 ‘다그다’가 기본형이라는 견해에 대해 ‘닥으오, 닥아라, 닥아, 닥으니’ 등의 활용을 제시하면서 ‘닥다’를 으뜸꼴(기본형)으로 잡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인승(1956)의 「“다그다”와 “다가”가 큰 사전에 어찌 실렸나?」에서 ‘다그다’를 기본형으로 삼은 것이 이 동사가 불완전 활용을 하는 동사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다그다’의 강조형이 ‘다그치다’라는 점 등을 들어 사전에 기본형을 ‘다그다’로 잡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최현배(1960)의 「다시 “닥다, 닥아, 닥이다”에 대하여」에

서는 ‘닥다, 닥치다’가 실제 사용되는 형태라는 점 등을 들어 다시 정인승의 논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다그다’가 실려 있다. 이은정(1974)의 「안용근풀이씨(불완전용언) 처리에 대한 고찰」에서는 안용근풀이씨를 정의하고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 실제 사용 양상을 기준으로 유형을 살피고 있다. 김영옥(1994)의 「불완전계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에서는 ‘끼해야’, ‘대하여’처럼 어미 결합에 제한이 있는 구성을 다루고 있다.

3.3.2. 어미의 형태와 기능

굴절어의 경우 어미는 단어에 결합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형태론의 중요한 부문이 되지만, 교착어인 우리말의 어미는 형태론과 통사론에 걸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철수가 영희를 보았다.’와 같은 문장에서 어미 ‘-았-’이 어간이 양성 모음을 가진다는 특성에 따라 선택된다는 점에서는 단어에 결합하는 형태론적 현상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과거 시제를 표시하는 ‘-었-’의 의미 기능이 문장 전체에 미친다는 점에서는 통사론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하나의 어간 뒤에 어미가 여러 개가 이어지며 그 수도 굴절어에 비해 많다. 임홍빈(1977/2005 : 17-98)에서는 우리말에서 굴절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굴절법 대신 교착법을 인정하고, 어미 대신 교착소를 쓸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미를 형태론, 특히 굴절론으로 다루어 온 기존 논의에 따라 본 발표에서는 이 자리에서 어미의 분류, 어미의 통시적 발달 등으로 나누어 이 자리에서 다루기로 한다.

[어미의 분류]

람스테트(G. J. Ramstedt)를 비롯한 알타이어 연구자들은 우리말의 어미를 정동사 어미, 부동사 어미, 동명사 어미 등으로 나누었고, 이기문(1972)의 『국어사개설』에서 볼 수 있듯이 알타이어학 내지 국어사 연구자들의 저술에서 받아들여졌으며, 그 후에도 마틴(S. Martin) 등 서양의 언어학자들에 의한 우리말 연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어미의 체계적인 분류는 최현배(1937/1971)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외솔은 동사의 활용을 마침법(종지법), 감목법(자격법), 이음법(접속법)으로 나누어 어말 어미를 분류하였다. 최현배의 어미 분류법은 학교 문법을 비롯한 규범 문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최현배는 도움 줄기(보조 어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일부의 파생 접사와 선어말 어미를 여기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파생과 굴절의 구분이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최현배가 보조 어간에 포함시킨 피동과 사동의 보조 어간, 강제의 보조 어간 등은 어

간이나 어미보다는 파생 접사에 가까우므로 조어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최현배의 어미 분류 체계는 안병희(1959, 1967), 고영근(1965, 1967, 1974, 1975) 등 구조주의 문법가들에 의해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를 통해 분석되고 체계적으로 분류되었다. 중세 국어, 특히 15세기 국어의 어말 어미는 안병희(1959, 1967)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런 논의는 유창돈(1963, 1964) 등으로 이어졌고, 허용(1975)에서 종합되었다. 근대 국어는 장경희(1977), 이영경(1992) 등에서 이루어졌다. 현대 국어 어미는 고영근(1965, 1967, 1974, 1975) 등에서 분류되고 목록이 작성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분류되고, 어말 어미는 다시 종결 어미와 비종결 어미로, 비종결 어미는 다시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의 목록이 작성되었다.

어미의 분류는 문법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서 시제, 서법, 상 등의 체계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따라 어미 분류가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문장 종결법(문체법)의 분류에 따라 종결 어미의 분류 역시 달라진다. 문장 종결법은 작게는 4개에서 많게는 10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남기심·고영근(1985/1993 : 343)처럼 평서법, 감탄법, 의문법, 명령법, 창유법의 5개로 문장 종결법을 나누면 종결 어미 분류도 그에 따라 5종류가 되고, 고영근·구본관(2018 : 169)처럼 5개 외에 약속법, 허락법, 경계법을 더 인정하게 되면 종결 어미의 분류도 8개가 되는 것이다.

비교적 최근의 어미 분류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는 종속적 연결 어미와 부사형 전성 어미에 대한 것이다. 남기심(2001), 이익섭(2003)에서는 문장의 확대와 관련하여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런 견해를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속적 연결 어미를 따로 분류하지 않게 된다. 한편 이익섭·임홍빈(1983)에서는 대등적 연결 어미와 종속적 연결 어미조차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이들 모두를 부사형 어미로 처리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김정대(1990)에서는 이들 모두를 명사구 보문자로 본다. 고영근(2013/2018가, 나)에서는 최근 논의이지만 알타이어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비종결 어미 전부를 부동사 및 동명사 어미로 분류하고 있다.

[어미의 통시적 발달]

어미의 통시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는 안병희(1967) 등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이기갑(1978), 김정수(1984), 이현규(1978), 이기백(1981), 이현희(1982가, 나), 장윤희(1998), 이용(2000) 등으로 이어졌다. 이 중 이현희의 논의는 의문법 어미에 한정하여 형태 및 통사·의미적인 관점에서 통시적인 변화를

정밀하게 고찰하였다. 이현희(1982나)와 장윤희(1998)에서는 종결 어미의 통시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고, 이용(2000)에서는 연결 어미의 형성 과정을 정밀하게 고찰하고 있다.

개별 어미의 통시적 발달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다. 개별 어미의 통시적 발달에 있어서 가장 흥미를 끈 주제는 현대 국어의 시제 형태소들인 ‘-었-’과 ‘-겠-’의 발달에 대한 것이다. 한동완(1986)의 「과거시제 ‘었’의 통시론적 고찰」, 임동훈(2001)의 「‘-겠-’의 용법과 그 역사적 해석」 등이 이들 어미의 통시적 발달을 다룬 논의들이다. 그 밖에도 장윤희(1997)의 「중세국어 종결어미 ‘-(으)이’의 분석과 그 문법사적 의의」, 이승희(2004)의 「명령형 종결어미 ‘-게’의 형성에 대한 관견」, 등이 더 있다.

[개별 어미의 형태와 기능]

종결 어미와 비종결 어미,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 등의 분류는 해당 어미류의 기능에 대한 분류로 이어진다. 어미류가 아닌 개별 어미의 기능에 대한 논의도 다수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개별 어미의 기능에 대한 논의 중 눈에 띄는 몇몇 논의를 언급해 두기로 한다. 우선 현대 이전의 어미의 기능에 대한 몇 편의 논의가 있다. 임동훈(1994)의 「중세 국어 선어말 어미 {-시-}의 형태론」은 ‘-시-’와 ‘-샤-’ 등의 이형태 논의 등 ‘-시-’ 관련 형태론적인 문제를 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황선엽(2002)의 「향가에 나타나는 ‘遣’과 ‘古’에 대하여」는 고대 국어 특정 어미의 용법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현대 국어의 어미의 기능을 다룬 논의는 적지 않다. 이 중 한두 편만 언급하고 논의를 마치기로 한다. 윤평현(2005)의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에서는 연결 어미들의 형태와 의미 차이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김동식(1988)의 「선어말어미 /느/에 대하여」에서는 ‘-느-’ 관련 형태소를 분석해 내고 그 기능에 탐색하고 있다.

3.3.3. 조사의 형태와 기능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어는 굴절어가 아니므로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결합은 굴절론에서 다루기 어렵다. 특히 조사는 선행하는 체언류가 자립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어미보다도 굴절론의 대상이 되기 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태룡(2006)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사를 어미와 묶어서 교착 어미로 묶을 수 있다는 점, 서양어의 편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람스테트(G. J. Ramstedt) 등의 국어사 논의에서 곡용으로 보기도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자리에서 다루기로 한다. 다만, 조사의 구체적인 용법은 통사론으로 미루고 조사의 범주적 성격, 형태와 관련된 조사의 분류, 조사 형태의 통시적 발달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조사의 범주적 성격]

람스테트(G. J. Ramstedt) 등에서 조사를 곡용 어미로 본 것처럼 국어사 연구자들은 이송녕(1959), 「나의 문법 연구와 태도」나 이송녕(1961)의 『중세국어문법』 등에서는 조사가 아닌 격어미로 보았다. 이에 따라 50년대나 60년대 중등학교 교과서류의 상당수에서도 격어미설을 따르고 있다. 장하일의 「임자 자리말끝(Nominative Case Ending) “-이”」에서는 심악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현행 학교 문법의 격 조사를 말끝(어미)으로 보는 입장을 보인다.

이에 대해 김형규(1960)의 「경양사와 주격토의 문제」에서처럼 어미로 명시하지 않고 격토(조사)로 보는 입장이 있었다. 격어미설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은 이석린(1963)의 「우리말의 명사에 격어미설이 적용되지 않는다」와 이석린(1967)의 「Case ending 설과 Postposition 설의 모순에 대하여」에서 논쟁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석린은 어간에 결합하는 어미와 달리 체언에 결합하는 요소들은 체언뿐 아니라 용언의 활용형, 부사 등에도 결합하는 등 어미로 보기 어려우므로 토(조사)로 보고 더 나아가 이들을 품사의 하나로 보는 최현배 등의 절충적 입장을 지지한다.²⁶⁾ 신익성(1968)의 「격에 대하여」에서도 우리말 조사를 단어로 보아 조사설을 따르고 있다. 그리하여 1980년대 규범 문법 내지 학교 문법에서 조사설이 받아들여지면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조사의 하위 범주]

우리말의 격 조사는 상대적으로 굴절 어미에 가깝고, 보조사는 단어에 더 가깝다. 유시욱(1947)의 『조선문전』에서 격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보조사는 단어의 자격을 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Ramstedt(1939)에서는 격을 나타내는 곡용 어미 외에 인도유럽어의 전치사에 대응하는 후치사를 설정하여 조사를 구분하였지만, 조사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논의는 최현배(1937/1971)이다. 외솔은 토씨(조사)를 격을 표시해 주는 자리토씨, 씨나 월조각에 어떤 뜻을 더해 주는 도움토씨, 씨나 월조각을 연결해 주는 이음토씨, 느낌을 더해 주는 느낌토씨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희승(1949)에서는 특정한 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와 때에 따라 다른 격을 나타내는 조사(특수조사)로 나누었다. 이런 분류는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로 나누는 현행 규범 문법에 영향을 주었다.

생성 문법의 도입에 따라 양인석(1973), 김영희(1974) 등에서는 격 조사 외에 따로 한정사(delimiter)을 도입한 바 있었다. 한편, 유동석(1984), 장석진(1996)

26) 주지하듯이 용언의 활용형이나 부사에 결합하는 조사는 격 조사라기보다 보조사에 해당하므로 격어미설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등에서는 특수 조사를 담화기능 조사나 양태 조사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세분하기도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고석주(2004 : 123-133)에서는 결합 순서나 의미적 기능을 고려하여 ‘기능 조사, 한정 조사, 양태 조사’로 나누기도 하였다. 한편, 목정수(2003 : 137-192)에서는 범언어적인 격 분류 체계를 원용하여 ‘가, 를, 도, 는’ 등을 한정 조사로 따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최근 고영근(2018가, 나)에서는 알타이어 문법 및 유형론 연구의 성과를 받아들여 규범 문법의 격 조사는 격어미로, 보조사는 첨사로, 의존 명사와 자립성이 약한 동사 일부를 합쳐 후치사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결합 순서와 관련하여 조사의 종류를 구체화한 논의도 있다. 임동훈(2004)의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에서는 조사를 문법격 조사, 의미격 조사, 후치사, 첨사로 나누었으며, 유하라(2005, 2006)에서는 구조격 조사, 어휘격 조사, 특수 조사로 나누었으며, 고영근·구본관(2018 : 163-164)에서는 조사를 의미격 조사, 구조격 조사, 보조사 등으로 나누었다.

학교 문법에서처럼 조사를 격 조사와 보조사 접속 조사 등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화되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임홍빈(1972), 목정수(1998), 고석주(2001/2004)에서는 규범 문법의 격 조사가 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담배 태우세요?’와 ‘담배를 태우세요?’에서 전자가 무표적인 표현이고, 후자처럼 ‘를’을 결합하면 그것이 목적격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더해 준다는 것이다.

격 조사를 다시 하위 부류로 나누는 문제도 쟁점이 되었다. 격 조사의 분류는 조사의 형태와 의미 기능에 근거한 것이어서 형태와 기능이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 이상 문법가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20세기 초기 문법서들인 김규식(1908~1909?)에서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지명격, 원인격의 5격을, 안확(1917)에서는 주격, 객격, 목적격, 변격, 여격, 종격, 연격, 호격의 8격을 제시하였다. 최현배(1937/1971)에서는 임자 자리토, 매김 자리토, 어찌 자리토, 곳 자리토, 연장 자리토, 감목 자리토, 견썸 자리토, 함께 자리토, 바꾸힘 자리토, 따옴 자리토, 부림 자리토, 부름 자리토, 기움 자리토의 13격을 제시하였다. 최현배의 논의 이후에도 문법가들은 격의 종류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보여 주었고, 생성 문법이나 격문법의 관점에서 심층격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구조격이나 의미격 등도 격 조사를 분류하는 논의와 관련된다.

현행 학교 문법을 포함한 규범 문법은 주격 조사, 보격 조사, 목적격 조사, 서술격 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호격 조사의 7격으로 나눈다. 그런 다음 부사격 조사의 경우 의미에 따라 ‘시간’의 부사격 조사, ‘원인’의 부사격 조사, ‘동반’의 부사격 조사 등으로 의미 기능에 따라 하위분류한다. 7격으로의 분류는 격 조사를 통사 기능에 일대일로 대응시켜 문장 성분을 설명하기 좋은

체계를 만든 결과이다.

[조사의 생략과 결합의 제약]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자에 따라서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것이 무표적이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격 조사의 생략은 흔하게 나타난다. 주시경(1910)에서는 ‘속뜻’이라는 표현으로 격 조사의 생략을 다루었고, 이규방(1922), 홍기문(1927), 박승빈(1931) 등에서도 조사 생략이 다루어졌다. 홍기문(1927)에서는 여격 표지의 비실현을 생략이 아닌 제로 이형태로 파악하였으며, 박승빈(1931)에서는 보조사 앞에서의 격 표지의 생략을 다루고 있다.

앞에서 영형태를 논의하면서 제시한 것처럼 정렬모(1946)에서는 격표지가 실현되지 않는 ‘두루빔’을 설정하여 조사 생략 현상을 다룬 바 있다. 안병희(1966)에서는 주격, 속격, 대격의 격표지 비 실현형을 부정격으로 보아 격표지가 없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격표지가 실현되는 것은 격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았다. 부정격에 대한 논의는 김광해(1981), 민현식(1982), 유동석(1984), 이남순(1988)에 이어지며, 이남순(1998)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되었다.

조사의 생략은 언어의 양식(mode)에 따라 문어보다 구어에서 흔히 일어나는데, 이는 구어가 문어에 비해 맥락이 충분히 주어져서 생략된 조사의 복원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의 종류에 따라 의미를 가지는 보조사는 생략이 사실상 어렵지만 격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고영근·구본관(2018 : 181)에서 정리되었듯이 구조격 조사(혹은 문법격 조사)는 생략이 쉬우며, 의미격 조사(혹은 사격, 어휘격, 내재격, 고유격 조사)는 상대적으로 생략이 어렵다. 이에 따라 구조격 조사로 분류되는 주격 조사, 관형격 조사, 목적격 조사는 생략이 쉽고 부사격 조사는 생략이 어렵다. 물론 부사격 조사의 경우도 맥락이 충분히 제공되면 생략이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미 결합의 제약이 있는 것처럼 조사 결합에도 제약이 있다. 김영옥(1994)의 「불완전계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에서는 어미 결합 제안과 함께 ‘소기의 (목적)’, ‘억장이 (무너지다)’처럼 일부 명사는 특정 명사와 결합이 제약되기도 한다. 이런 예에는 ‘불굴의’, ‘미증유의’ 등이 더 있다. 고영근·구본관(2018 : 162)에서는 ‘감언이설로’, ‘적자생존의’와 같은 사자성어와 조사의 결합, ‘우물가에서 송늬를 찾는 격이라더니’와 같은 속담과 조사의 결합 등에서도 특정 조사만 결합하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또한, 고영근·구본관(2018 : 110)에서 정리되었듯이 ‘~에 대한’, ‘~에 관한’, ‘~을 비롯한’, ‘~와 더불어’처럼 불완전 활용을 보이는 용언들이 선행 명사와 조사 결합에서도 제약을 가지기도 한다. 조사 결합의 예로 잘 알려진 다른 예에는 의존 명사들이 가지는 조사 제약이다. 남기심·고영근(1985 : 73)을 비롯한 많은 문법서들에서는 ‘지’와 같은 주

여성 의존 명사, ‘줄’과 같은 목적어성 의존 명사, ‘채’와 같은 부사어성 의존 명사, ‘뿐’과 같은 서술어성 의존 명사로 지칭하여 조사 결합의 제약을 다루고 있다.

[조사의 통시적 발달]

이기문(1961/1998 : 181-184)에는 ‘브터’, ‘두고’, ‘드려’, ‘조차’, ‘조초’, ‘조쳐’, ‘셔’ 등 용언의 부동사형이 굳어져 동사가 된 예, ‘다비’처럼 파생 부사가 굳어서 조사가 된 예 등 중세 국어에 나타난 상당수의 조사가 통시적인 발달의 결과임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 국어의 ‘에게’, ‘께’, ‘께서’ 등의 조사가 평칭의 속격의 ‘이/의’와 존칭의 속격 ‘스’이 ‘게, 그에, 거기’ 등과 결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도 논의하고 있다. 구본관(1998 : 37), 구본관(2023 : 49)에서는 중세 국어의 ‘더브러’, ‘마초아’, ‘비르서’ 등의 부사뿐 아니라 조사 ‘브터’ 등도 조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른바 ‘통사 구성의 어휘화’에 의한 예들임을 논의하고 있다.

이현희(1995)에서는 현대 국어의 조사 ‘(이)야’가 ‘이(다)’에 보조사 ‘사’가 결합한 것으로 중세 국어에서 ‘(이)사’로 쓰이다가 ‘△’의 탈락 등으로 ‘이야’로 변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고광모(2000)에서는 상대 높임의 조사 ‘-요’와 ‘-(이)요’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개별 조사의 형태와 기능]

이 자리에서는 개별 조사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논의 중에서 특히 형태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던 몇 가지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이서’ 내지 ‘서’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혼자서, 둘이서, 셋이서’ 등에 나타나는 ‘이’ 내지 ‘이서’의 범주와 형태 분석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주격 조사로 올라 있지만, ‘이서’ 내지 ‘서’를 박지홍(1981 : 97), 안명철(1985), 이태영(1991), 김석득(1992), 황화상(2009) 등이 있었고, 김영희(1984 : 138)에서는 의존사(clitic)로, 사정목(1984)에서는 후치사로 보기도 하였다.

‘서’ 혹은 ‘이서’의 분석에 대해서도 연구자에 따라 이견이 존재하였다. 고영근(1968/1999 : 112-125)에서는 ‘둘이서’를 ‘둘’에 명칭의 인명에 결합하는 ‘이’가 결합한 ‘둘이’가 만들어지고 다시 주격 조사 ‘서’가 결합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김창섭(1992)에서는 ‘네 분이서’처럼 평칭이 아닌 존칭에서도 ‘이서’로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이서’를 주격 조사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서’를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한용운(2003), 임동훈(2004), 김백련(2005), 김민국(2009), 김창섭(2010)처럼 ‘이서’를 단일 형태소로 보아 분석하지 않는 입장도 있고, 고영근(1968/2008), 황화상(2009), 이현희

(2005)처럼 분석하는 입장도 있었다. 이현희(2005)에서는 통시적으로 고찰하면 ‘돌이서’의 ‘이서’는 ‘이(다)’의 ‘이-’에 ‘시-’(‘이시-’의 이형태)가 결합한 부사형 ‘셔’가 결합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혼자서’의 경우 ‘셔’만 붙은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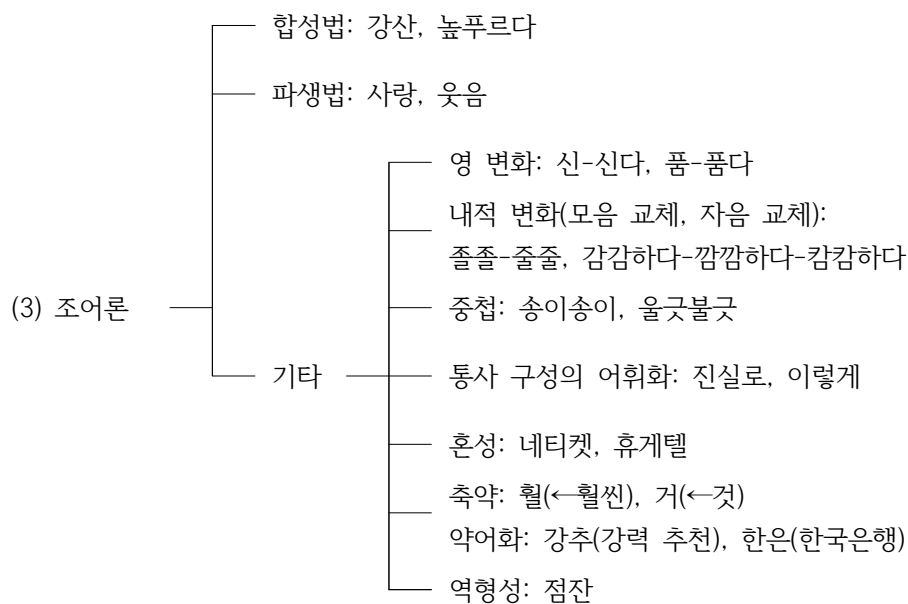
다음으로 이른바 인용의 부사격 조사에 대해 살펴보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인용격의 부사격 조사로 직접 인용의 ‘(이)라고’와 간접 인용의 ‘고’가 올라 있고, 학교 문법에서도 이를 조사로 기술하고 있다. 다. 하지만 ‘(이)라고’와 ‘고’를 조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아직도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느냐?’와 같은 문장에서 ‘고’를 분리해서 조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구본관 외(2015 : 275)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라고’와 ‘고’를 모두 부사형 어미로 처리하거나 ‘(이)라고’는 조사 ‘고’는 ‘-가고, -냐고, -(으)라고’등 부사형 어미의 일부로 처리한다.

3.4. 조어론

굴절어를 기준으로 보면 형태론에서 가장 주요한 영역은 굴절론이겠지만, 교착어인 우리말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품사론 역시 형태론이라기보다 어휘론이나 통사론에 걸치는 영역이다. 조어론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통 문법적 관점에서는 품사론의 하위 영역이었지만, 구조주의 문법과 생성 문법을 거쳐 어휘부학에 이르면서 조어론은 형태론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조어론은 흔히 합성법과 파생법 등으로 나누어 논의된다. 이 발표에서는 조어론의 영역, 합성법, 파생법, 한자어 조어론, 기타 조어론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3.4.1. 조어론의 영역

어떤 언어든지 가장 일반적인 조어 방법은 합성과 파생이다. 여기에다 언어에 따라 영 변화, 이른바, 내적 파생이라는 자음 교체와 모음 교체, 중첩, 통사 구성의 어휘화 등이 더해질 수 있다. 조어 방법에는 이 밖에도 영어 등에 흔히 나타나는 혼성과 한자어에 많은 약어화, 구어에서 많이 나타나는 축약, 드물게 나타나는 역형성 등이 더 있다. 조어론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구본관(1998), 최형용(2003) 등을 참조하여 조어론의 영역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표에서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합성법, 파생법, 한자어 조어론, 기타 조어론으로 항목을 나누어 논의하게 될 것이다. 논의에 앞서 다음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조어론은 분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합 내지 생산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조어론의 대상이 되는 단어는 앞으로 만들어질 단어도 포함되지만 많은 경우 이미 만들어진 단어이다. 이미 만들어진 단어는 그 단어가 만들어질 때의 결합 방식과 공시적인 분석이 다를 수 있다.²⁷⁾

(4) 가. 계시다, 주무시다.

나. 해롭다, 새롭다, 외롭다

다. 암놈, 암컷, 암퇘아리

(4가)의 ‘계시다’와 ‘주무시다’는 ‘*계-’나 ‘*주무-’가 공시적으로 쓰이지 않으므로 ‘시’가 공시적으로는 분석되기 어려워 단일어로 해석된다. 하지만 어원적으로 결합 당시를 고려하면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 (4나)의 경우 ‘-롭-’이 공시적인 어느 정도 생산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 + -롭-’, ‘새 + -롭-’, ‘외 + -롭-’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롭-’이 명사를 어근으로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라는 점에서 공시적으로 관형사인 ‘새’나 접두사인 ‘외’와의 결합이 문제가 된다. 중세 국어에 ‘새’가 명사로도 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합 당시는 명사를 어근으로 하는 조어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4다)는 ‘암 + 놈’,

27) 조어론 논의에서의 분석과 결합의 문제는 구분관 외(2015 : 111-112), 교영근구분관(2018 : 27-28, 241) 등을 참조한 것이다.

‘않 + 것’, ‘않 + 병이리’로 분석되는데, 현대 국어에서 ‘암/않-’을 접두사로 처리하므로 이들은 파생어가 된다. 하지만 ‘암컷’, ‘암퐁아리’는 중세 국어 당시 명사였던 ‘않’을 고려하면 합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논의는 조어론이 분석과 결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본 발표에서는 공시적인 분석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공시적인 결합 가능성을 더 고려하게 될 것이다.

둘째, 조어론과 통사론의 경계를 구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합성어와 구의 구별, 파생 접미사와 어미의 구별, 통사적 파생으로 언급한 통사 과정에 참여하는 요소와 파생 접사의 구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통사 구성이 어휘화되어 공시적으로는 파생어 등으로 분석되는 예들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 합성법과 파생법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셋째, (4다)의 경우에서 언급한 것처럼 합성과 파생의 구별이 필요하다. 합성과 파생의 구별은 사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연구자마다 다르기도 하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도 최초로 편찬된 종이 사전에서는 ‘작은집’, ‘큰집’에 나타나는 ‘작은’, ‘큰’ 등이 접두사로 올라 있었으나 최근의 인터넷판에서는 삭제되어 어근으로 처리된다. 이처럼 합성과 파생은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최윤지(2013)의 「합성과 파생 다시 생각하기」에서는 어기(어근)와 접사의 중간적 범주들을 살펴보고 이들 개념이 그리 분명하게 나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합성과 파생으로 양분할 수 없는 많은 단어 형성 방법이 논의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고, 이선영(2003)의 「용언 어간의 어휘형성론적 고찰」에서도 합성과 파생을 넘나드는 현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창섭(1992/1996)에서 ‘노래방’, ‘빨래방’ 등의 ‘방’에 대해 단어와 접사의 중간적 성격으로 보아 이를 단어 형성 전용 요소로 처리하고자 제안한 것도 파생과 합성의 구별이 쉽지 않음을 알게 해 준다.

넷째, 기타 조어론으로 든 영 변화, 내적 파생(자음 교체, 모음 교체), 중첩, 통사 구성의 어휘화, 혼성, 약어화, 축약, 역형성 등을 우리말 조어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들 조어 방식은 생산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서 논의의 대상으로 넣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다.

3.4.2. 합성법

[합성법의 범위와 유형]

합성법은 기존의 단어(어근)와 단어(어근)를 합하여 새로운 단어인 합성어(compound word)²⁸⁾를 만드는 규칙으로 대부분의 언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

28) 본 발표에서는 ‘compound word’와 ‘complex word’의 번역어로 전자는 합성어로, 후자는 복

는 조어 방식이다. 최현배(1937/1971)에서는 어미나 접미사를 제외한 어근이 하나인지 둘인지에 따라 단어를 분류하였다. 그리하여 단일어와 파생어를 묶어 홑씨로 보고, 합성어를 겹씨로 보아 둘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파생과 굴절을 구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허웅(1966)에서는 단어를 단(單)형태소 단어와 다(多)형태소 단어로 나누어 동사나 형용사는 필연적으로 다형태소에 속하게 되었다. 이희승(1955)에서는 단어를 단일어와 합성어(complex word, 본 발표의 복합어)로 나누고, 합성어는 다시 복합어(compound word, 본 발표의 합성어), 접어, 파생어를 두면서 현재와 유사한 조어론의 체계가 확립되었다.

합성어의 구성 방식은 통사 구성과 유사한 경우가 많으므로 합성법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조어 구성인 합성어와 통사 구성인 구를 구분하는 문제였다. 서양의 언어학 연구에서도 합성어와 구의 구별이 문제가 되어 Bloomfield(1933)에서 합성어와 구의 구별 기준이 제시된 이래 Nida(1949), Hockett(1958) 등의 문법서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도 이익섭(1967), 김규선(1970), 이주행(1981) 등에서 합성어와 구를 구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이 제시되었다.²⁹⁾ 합성어와 구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표기법이나 사전류에서도 합성어와 구의 구별이 어려운 것들에 대한 특별한 규약을 만들기도 한다.³⁰⁾ 잘 알려진 합성어와 구의 구별 기준으로 김영석(1998 : 239-246)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어처럼 강세가 있는 언어의 경우 강세가 중요하지만, 국어의 경우 강세가 변별적이지 않다. 최현배(1937/1971 : 307-309)에서는 ‘아/어’의 용법을 접속법과 자격법으로 나누고, 자격법을 다시 합동적 용법과 완성적 용법으로 나누었는데, 합성적 용법의 ‘아/어’ 뒤에는 ‘서’와 같은 다른 말을 끼워 넣을 수 없다고 하였다. Shon(1976), 김기혁(1981), 김창섭(1981), 서정수(1981) 등에서는 ‘서’의 계입 가능 여부를 합성 동사 판별의 기준으로 삼았다. 김창섭(1996 : 76-82)에서는 ‘철수는 사과를 깎아서 먹고 나도 그렇게 한다.’의 예에서처럼 구일 경우 구성 요소의 일부를 대동사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동사로 받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든다. 또한 ‘소나무, 바느질’처럼 공시적이지 않은 규칙이 적용되면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고영근·구분관(2018 : 221-223) 등의 문법서에 흔히 언급하는 것처럼 ‘고립성’을 기준으로 하여 내부에 다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단일한 의미를 가졌는지 여부와 같은 의미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구분

합어를 선택하였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전자를 복합어로, 후자를 합성어로 번역하기도 한다.

29) 그 밖에도 박홍근(1981), 서정수(1981), 성광수(1988), 이석주(1989), 김광해(1994), 김기혁(1994) 등에서 합성어와 구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30)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회현상’처럼 합성어와 구의 경계에 있는 어휘 요소를 구분하는 방식이 있다. 영어에서도 명사와 명사의 결합을 ‘N N’처럼 띄어 쓰거나, ‘N-N’처럼 붙여 쓰거나, ‘NN’처럼 붙여 쓰는 방식의 차이를 통해 합성어가 구와 가까운지 정도를 구별해서 표기하고 있다.

관 외(2015 : 119-120)에서는 ‘깨물다, 건너뛰다’처럼 소리와 의미의 연결이 선조적이지 않은 경우 합성어라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합성어와 구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합성어, 특히 통사적 합성어 형성이 통사 구성과 동일한 기제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합성어의 상당수는 남기심(1970), 김주미(1988), 이선영(1992)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사 구성이 통사적으로 어휘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초기의 생성 문법에서 합성어의 형성도 통사적인 변형 규칙으로 설명하는데, 이 역시 합성어가 통사적인 원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이다. 이에 대해 김광해(1982), 김창섭(1992/1996) 등에서는 비록 합성어 중에서 일부는 통사 구성이 어휘화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없는 합성어라 존재한다고 보고 합성어를 조어 규칙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합성어의 유형으로 잘 알려진 것은 최현배(1937/1971)에서 합성어를 ‘녹은 겹씨[融合 複詞]’, ‘가진 겹씨[有屬 複詞]’, ‘벌린 겹씨[竝列 複詞]’로 나누는 것이다. 이는 ‘융합 합성어’, ‘종속 합성어’, ‘대등 합성어’의 구분으로 다른 논저들로 이어졌다. 하지만 구분관(2002)에서 언급한 것처럼 융합 합성어는 종속 합성어나 대등 합성어가 만들어진 후, 단일어화(lexicalization)가 일어난 정도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므로 세 가지 합성어를 동일하게 놓고 논의하기는 어렵다. 시정곤(1988, 1993)에서는 Nida(1975 : 15-20)의 의미 상관 관계의 개념을 받아들여 합성어의 의미 관계를 ‘포섭 관계’, ‘상보 관계’, ‘근접 관계’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합성어를 통사 구성 방식과의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누기도 한다. 이석주(1989 : 26-31), 김동식(1994) 등에서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구별이 어려운 예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김동식(1994)에서는 합성 명사의 음운 현상이나 내적 구조, 성분의 성격 등으로 보아 명사구와 구별이 되지 않는 것만을 통사적 합성 명사로 보고자 하였다.

[명사 합성]

명사 합성에서 가장 쟁점이 된 논의는 이른바, 사이시옷(혹은 사잇소리)가 결합한 ‘명사+ㅅ+명사’ 구성의 합성어에 대한 논의이다. 중세 국어에서 ‘ㅅ’이 속격 표지의 하나였고, 이 ‘ㅅ’이 차츰 통사적인 기능을 잃고 합성 명사의 표지로 쓰이게 되었다는 인식(이기문, 1972/1998)이 확립되면서 현대 국어의 합성 명사의 사이시옷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미 최광옥(1908)에서 수사에 사이시옷이 붙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최현배(1937/1971), 김윤경(1946), 방종현(1947), 이희승(1955), 이송녕(1991) 등으로 논의가 이어지면서 합성 명사의 사이시옷의 기능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³¹⁾

첫째, 사이시옷의 기능을 음운론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이런 논의에는 허웅(1968)의 된소리화, 김윤경(1946 : 19)과 최현배(1976 : 384)의 유성음화 방지, 유창돈(1980 : 120)의 가중조음(加重調音) 현상, 전철웅(1976)과 왕문용(1982)의 동화 표지나 강세로 보는 논의가 있었다. 둘째, 사이시옷의 기능을 형태론이나 통사의미론적인 기능을 하는 요소로 보기도 하였다. 이런 논의에는 이기문(1972/1998)과 박병채(1974)의 합성어의 표지로 보는 견해, 허웅(1975)과 심재기(1979)의 관형격으로 보는 견해, 임홍빈(1981)의 통사적 파격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었다.

김창섭(1992 : 42-73)은 합성어의 사이시옷 문제에 대한 가장 정밀한 관찰이다. 그에 따르면 합성 명사는 병렬 구성과 관형 구성으로 나누어지고, 관형 구성은 다시 비속격 구성과 속격 구성으로 나누어진다. 이때 속격 구성 중 중세 국어에서 ‘이/의’를 가지던 구성을 제외하고 ‘스’를 가지던 구성이 현대 국어에도 합성 명사에서 사이시옷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렇게 보아도 사이시옷의 결합 여부에는 예외가 많은데, 이런 예외는 임홍빈(1981)의 ‘스’ 전치 명사와 ‘스’ 후치 명사 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밖의 명사 합성에 대한 논의로는 합성 명사의 의미론적인 구조를 격문법에 의해 분류한 정정덕(1982), 신조어 합성 명사를 대상으로 명사와 명사의 결합에는 제약이 없고 의미 내용이 고착되면서 내포적인 의미가 되어 합성 명사로 굳어진다는 김광해(1982) 등의 논의가 있다. 또한 이현희(1991), 구본관(2000)처럼 합성 명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에 대한 논의가 있기도 하다. ‘줄넘기’, ‘갈림길’ 등 특정 형식의 합성 명사에 주목한 김창섭(1983), 합성 명사 전반에 대해 논의한 김동식(1984), 합성의의 의미 대립 관계를 논의한 고재설(1996) 등도 눈에 띈다.

[형용사 합성]

형용사 합성어를 구성 성분에 따라 나누면 핵이 뒤에 존재하는 우리말의 구조상 ‘주어 + 서술어(형용사)’, ‘부사어 + 서술어(형용사)’, ‘형용사 어간 + 형용사 어간’의 비통사적 합성어, ‘형용사 어간 + 디 + 형용사 어간’, ‘형용사 어간 + 나 + 형용사 어간’ 등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디’나 ‘나’ 결합 합성 형용사는 ‘반복’의 의미를 더해 주어서 일찍부터 주목되었었다. 최현배(1937/1971 : 512)에서는 ‘-디’를 반복의 힘줄(연결) 어미로 처리하여 합성어가 아니라 통사 구성으로 파악하였다. 김창섭(1981)에서는 ‘-디’를 가진 구성을 통사 구성이 아니라 합성어, 특히 미각, 시각, 촉각 등 감각 경험을 표현하는 형용사 합성어로 보았다. 이익섭(1982)에서는 이런

31) 사이시옷이 결합한 합성 명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구본관(2002)의 정리를 참조하였다.

합성 형용사들이 엄격한 제약을 가지는 것이라기보다 관용적인 성격이 강하며, 반복 형용사는 평서형보다는 관형사형으로 자연스럽게 쓰인다고 하였다.

[동사 합성]

동사 합성어 역시 형용사 합성어와 유사하게 ‘주어 + 서술어(동사)’, ‘부사어 + 서술어(동사)’, ‘동사 어간 + 동사 어간’의 비통사적 합성어, ‘동사 어간 + 아/어 + 동사 어간’, ‘동사 어간 + 고 + 동사 어간’ 등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생산적인 합성 방식이면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동사 어간 + 아/어 + 동사 어간’ 구성의 합성어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구성은 ‘아/어’ 뒤에 ‘서’ 등이 결합 가능 여부나 소리와 의미의 선조성 여부를 통해 합성어의 판별 기준을 정하는 데에도 많이 논의되었다. 또한 이 구성의 형성 기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적지 않았다. 남기심(1970), 김기혁(1981), 황병순(1986), 김주미(1988), 이석주(1989), 이선영(1992) 등에서는 통사 구성이 자주 쓰이게 되어 합성 동사로 발달했다고 논의했다. 이들 논의에서는 통사 구성 중에서도 특히 접속 구성이 합성 동사가 된다고 보고 있으며, 김기혁(1994)에서는 더 나아가 합성 동사의 일부가 다시 보조 동사 구성으로 발달한다고 보았다. 또한 통사 구성으로 보기 어려운 합성 동사는 유추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구분관(2002)에서는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의미 관계에 따라 합성 동사로의 발달 여부에서 차이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창섭(1992/1996)에서는 접속 구성에 연원을 주지 않는 합성 동사들에 주목함으로써 합성 동사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형태 구성, 즉, 조어 규칙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밖에도 Shon(1976)에서는 ‘동사 어간 + 아/어 + 동사 어간’에서의 동사의 배열이 논의되었고, 박양규(1987)에서는 ‘보내오다’류와 같은 특정 유형에 대한 제약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심재기(1982 : 411-415)에서는 이때 ‘아/어’가 특별한 의미 없이 형태론적인 배려에 의해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

허웅(1966)에서 자세하게 언급한 것처럼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에 비해 ‘동사 어간 + 동사 어간’ 구성의 비통사적 합성어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런 구성은 ‘검기울다’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앞뒤의 구성 요소가 대등적인 경우가 많았다. 한재영(1999)에서는 다소 극단적으로 이런 구성이 합성 동사가 아니라 통사 구성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선영(2006)에서는 중세 국어의 비통사적 합성 동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송창선(2000)에서는 비통사적 합성 용언에서 다시 피동사와 사동사가 파생되는 양상을 논의하고 있다.

[부사 합성]

부사 합성은 명사의 반복이나 부사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명

사의 반복이 합성 부사가 된다는 것은 후행하는 요소가 핵이 되는 우리말의 특성을 고려하면 특이한 일이다. 채완(1986 : 54-67)에서는 ‘내일’이 명사이면서 부사로 쓰이는 것처럼 명사의 반복에 의해 합성 명사가 만들어지고, 다시 이 합성 명사가 부사로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고영근·남기심(1985 : 213)에서는 반복 합성 부사 중에는 명사의 반복뿐 아니라 ‘하나하나’처럼 수사의 반복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반복 합성 부사 중에는 의성어나 의태어의 반복에 의한 것이 상당히 많다. 이익섭(1982), 채완(1986), 이건설(1988), 노대규(1982), 김홍범(1995) 등에서는 이들 반복 합성어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종 제약과 어순 문제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시정곤(1993)에서는 의성어나 의태어의 반복을 자립 분절 음운론이나 운율 음운론의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고, 신중진(1998, 1999)에서는 반복 의성어와 의태어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3.4.3. 파생법

[파생법의 범위와 유형]

파생법은 어근과 파생 접사의 결합에 의해 파생어를 만드는 과정이다. 앞에서 조어론의 영역을 논의하면서 안병희(1965)처럼 파생법을 접사 파생과 비접사 파생 등으로 나눈 논의가 있음에도, 본 발표의 입장은 비접사 파생을 파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조어법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본 발표에서의 파생의 범위는 접두사가 어근과 결합하는 접두 파생과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하는 접미 파생으로 한정된다. 접두 파생을 구별해 내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어근과 접두사의 구별이 문제가 되고, 접미 파생을 구별해 내기 위해서는 어근과 접미사의 구별 뿐 아니라 어미와 접미사의 구별도 문제가 된다.

파생 접사는 조어론적인 요소로서 단독으로 통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음 몇 가지 요소들은 파생 접사와 구별이 된다.

- (5) 가. 아버님, 어머님; 사장님, 달님; 주시경 님, 최현배 님
 나. 학생들, 제비들; 어서들 오너라, 기다리고들 있다.
 다. 정답다, 참답다; 어른답다, 우리 엄마답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어머님, 아버님’은 구체적인 예시가 없지만 ‘사장님, 달님’의 ‘님’은 접미사의 예로, ‘주시경 님, 최현배 님’은 의존 명사의 예로 제시되어 있다. 최현배(1937/1971), 김계곤(1969/1996 : 59)에서는 ‘님’이 형식 명사적인 속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영근(1972/1974/1989 : 516)

에서는 ‘님’이 ‘아버님, 어머님’처럼 불규칙적인 어근과도 결합한다는 점을 들러 파생 접사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아버님, 어머님’의 ‘님’은 파생 접사, ‘주시경 님, 최현배 님’의 ‘님’은 의존 명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장님, 달님’의 예는 명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특히 ‘달님’의 경우 대부분의 사물을 의인화하면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파생 접사라기보다는 통사 구성 요소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들’이나 ‘님’과 유사하게 ‘복동이, 영숙이’처럼 평칭의 인명에 결합하는 ‘이’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광호(1986), 구본관(2001)에서는 조어 구성 요소가 아닌 통사 구성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학생들, 제비들’의 ‘들’은 접미사, ‘어서들, 기다리고 들’의 ‘들’에 대해서는 보조사로 처리하고 있다. 김계곤(1969/1996 : 76)에서는 두 종류의 ‘들’에 대해 모두 특수조사(보조사)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영근(1972/1974/1989 : 513-514)에서는 접사에 포함시키고 있다. 후자의 ‘들’을 보조사로 보더라도 전자는 의존 명사나 접미사로 보기 어렵다.³²⁾ 만일 이를 접사로 본다면 파생 접사인 셈인데, ‘학생들, 제비들’이 파생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존 명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사 구성 요소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정답다, 참답다’의 ‘답’은 명사 어근과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하는 파생 접사로 잘 알려져 있다. 이와 달리 ‘어른답다, 우리 엄마답다’의 ‘답’은 이들 결합 형이 파생어로 사전에 올라 있지 않다는 점, ‘우리 엄마’처럼 구에 결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생 접사로 보기 어렵다. 김창섭(1984)에서는 ‘답’을 ‘답₁’, ‘답₂’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어 파생 접사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고창수(1986), 임홍빈(1987) 등에서는 구와 결합하는 ‘답’과 같은 유형을 통사적 접사로 지칭하고 조어 요소가 아닌 통사 요소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파생 접사, 특히 파생 접미사와 어미의 구별 역시 파생어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논의 주제였다. 파생 접사와 어미의 차이점은 Scalise(1984)/전상범 역(1987 : 134-148), 전상범(1995 : 38-48), 구본관(1998 : 45) 등에서 논의되었다. 생성 형태론자들 중에는 단계 유순 가설(level ordering hypothesis)에 따라 결합 순서나 음운 현상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 있지만, 김성규(1987), 구본관(1993)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고영근·구본관(2018 : 207-210)에서는 파생 접미사는 어미와 달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낸다는 점, 파생 접미사는 어근과 결합하고 어미는 어간과 결합한다는 점, 파생 접미사는 의미가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이지만 어미는 대체로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예측된다는 점, 파생 접미사는 단어 이하의 단위와 결합하고 어미

32) 주지하듯이 둘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사용하는 ‘들’은 의존 명사로 등재되어 있다.

는 단어보다 큰 절 단위에 결합한다는 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파생 접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본관(1999)에서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 조어론의 기준을 들어 범위를 제한 한 바 있다. 또한 최형용(1997)에서는 형식 명사와 보조사와 파생 접사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논의하였고, 송원용(2000)에서는 구를 어기로 하는 파생 접사와 단어를 어기로 하는 파생 접사의 차이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파생법은 접사의 위치에 따라 접두 파생과 접미 파생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말의 핵이 오른쪽에 있으므로 접두사의 경우 파생어의 품사를 결정하는 일이 없지만³³⁾, 접미사의 경우 품사를 결정하게 된다. 구조주의 문법의 관점에서 파생 접사, 특히 파생 접미사를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로 나눈 것은 파생 접미사가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황화상(2018) 등에서는 파생 접미사가 어근의 품사를 바꾼다기보다 파생 접미사가 파생어의 품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접두 파생의 경우 명사 파생, 형용사 파생, 동사 파생 등으로 나누지만, 파생 접미사가 품사를 결정하므로 접미 파생은 먼저 명사 파생, 형용사 파생, 동사 파생 등으로 나눈 다음 어근의 품사에 따라 하위 분류하게 된다.

[파생어 형성에서의 제약]

구조주의 문법의 관점에서의 파생에 대한 논의는 엄격한 분석 방법에 의해 파생어를 변별해 내고 파생 접사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에 초점이 주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생성 형태론에서는 파생어 형성을 규칙으로 기술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규칙이 그러하듯 파생 규칙도 일정한 제약을 가지게 된다. 우리말 파생어 형성 규칙의 제약이 체계적으로 논의된 것은 송철의(1977, 1989/1992)에 의해서였다. 제약은 어기(어근)에 대한 제약과 파생어의 대한 제약으로 나누어졌다.

어근의 제약으로는 음운론적 제약이 있다. 고영근·구본관(2018 : 201-202)에서 언급한 것처럼 ‘놀이, 먹이’ 등의 ‘-이’가 결합하는 파생 규칙의 어근은 종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제약은 음운론적 제약의 예이다. 형태론 내지 통사론적 제약으로는 구본관(1998)에서 논의한 어근의 통사 범주(품사)에 대한 제약이 있다. 이 논의에서는 파생 규칙의 어근은 단일한 품사여야 한다는 이른바, 단일 어기 가설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생산성이 높은 규칙의 경우 의미만 주어지면 규칙이 적용되므로 예외를 가지기도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어근의 형태론 내지 어휘론적 제약은 어근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형태 자질이나

33) 예외적으로 ‘메파르다’의 경우 어근인 ‘파르다’는 동사이지만 ‘메-’가 결합하면 형용사가 되어 접두사가 파생어의 품사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특정 형태소가 파생 규칙의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송철의(1989/1992)에서는 접두사 ‘시/새-’ 등이 결합할 때 어근은 ‘-알/영-’을 가진 ‘파랗다, 빨갱다’ 등이어야 한다는 제약에 대한 논의하고 있다. 김창섭(1985)에서는 접미사 ‘-다랗-’이 결합하는 규칙의 어근은 [+공간, 양]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론적 제약을 논의하였다. 송철의(1989/1992)의 척도 명사 파생의 어근이 정도성이 큰 것이어야 한다는 논의 역시 의미론적인 제약에 관한 것이다.

파생어에 대한 제약, 즉 출력부 제약으로는 저지(blocking)가 있다. 김창섭(1984)에서는 ‘-적(的)’에 의한 파생어와 ‘-답-, -롭-, -스럽-, -하-’에 의한 파생어가 서로 저지 관계에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송철의(1989/1992)에서는 ‘되, 띠, 빛, 신’의 존재가 ‘*되개, *띠개, *빛개, *신개’ 등의 파생어 형성을 저지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 고영근·구본관(2018 : 203)에서 ‘길이, 높이, 깊이’의 존재가 ‘*길기, *높기, *깊기’의 파생어 형성을 막는 것도 저지의 전형적인 예로 언급되고 있다.

[파생어의 통시적 변화와 단일어화]

파생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구본관(2023 : 54-63)에서는 파생법 유형의 통시적 변화와 개별 파생법의 통시적 변화를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파생법 유형 중 자음 교체의 경우 경음이나 유기음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미미하게 존재했던 고대 국어에는 단어 형성 규칙으로 기능하지 않아도 중세 국어 이후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모음 교체는 모음 조화 현상을 근거로 보면 고대 국어에 이미 나타났을 수 있는데, 중세 국어 이후 ‘·’의 소실 등으로 약화하다가 근대 국어나 개화기 국어에서는 다시 활발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개별 파생법도 통시적으로 변화한다. 구본관(2023 : 26)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 국어의 파생법 중 ‘-(으)ㄴ’에 의한 파생법은 중세 국어에서 동사를 어근으로 하다가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형용사 어근으로 확장되어 현대에 이르게 되었다. 송철의(1983), 송철의(1997), 구본관(2023) 등에서는 이 밖에도 개별 접두사와 접미사가 참여하는 다양한 파생 규칙의 통시적 변화를 다루고 있다.

파생 규칙의 적용 결과 파생어가 만들어지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점차 파생어라는 인식이 희미해져 단일어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를 어휘화 또는 단일어화라 부른다.³⁴⁾ 단일어화는 ‘않- + -브-’가 결합한 ‘아프다’가 ‘ㄹ’ 탈락 등 음운 규칙이 공시적으로 인식되기 어려워 단일어로 인식되는 음운론적 단일어

34) 어휘화나 단일어화는 ‘lexicalization’의 번역어인데,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된다는 의미를 고려하면 단일어화가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화, ‘붓그리- + -업-’이 결합한 ‘부끄럽다’가 ‘붓그리-’의 존재가 공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단일어로 인식되는 형태론적 단일어화, ‘놀- + -음’이 결합한 ‘노름’의 의미가 어근의 의미와 떨어져 단일어로 인식되는 의미론적 단일어화로 나눌 수 있다. 음운론적 단일어화나 형태론적 단일어화도 많건 적건 의미론적 단일어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일어화가 일어나면 ‘놀음’이 아닌 ‘노름’으로 표기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표기상으로도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단일어화에 대한 논의는 송철의(1989/1992 : 32-49), 구본관 외(2015 : 133-135) 등에 정리되어 있다.

[파생어 형성의 생산성과 결합 가능성]

생산성(productivity)은 통사 규칙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조어론에서 사용할 때는 흔히 파생 규칙이나 파생 접사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한다. 파생 접사에 사용하면 특정 파생 접사가 ‘생산적이다’, ‘생산성이 높다’ 등으로 언급한다. 생산성에 대한 초기의 측정 방법은 해당 파생 접사가 사용된 파생어의 수를 세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제약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생산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리하여 Aronoff(1976)에서는 파생 규칙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한 출력형에 실제 출력형을 비교하여 측정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파생 규칙의 공시적인 생산성이라기보다 누적된 생산성을 측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Baayen(1989)에서는 대규모 말뭉치에서 특정 파생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파생어 총수에 단발어(한 번만 나타나는 단어)를 대비하여 생산성을 측정하였다.

국내에서도 전상범(1995 : 27-38) 등에서 생산성의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구본관(1998)처럼 중세 국어 등 현대 이전 자료의 생산성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후 시정곤(2006)을 거쳐 이광호(2007)에서는 Baayen(1989)의 측정 방법과 유사하게 대규모 말뭉치를 통한 양적 측정으로 생산성을 논의하였다. 이처럼 생산성의 측정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이고, 측정이 용이하지 않지만 고영근·구본관(2018 : 244)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산성이 높은 파생어는 ‘길이, 높이’처럼 어근과 접사를 밝혀 적고, 생산성이 낮은 파생어는 ‘마감, 무덤’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등 차이를 보여 준다. 생산성에 대한 관심으로 조남호(1988)처럼 생산성이 높은 파생 접사를 따로 다룬 논의들도 많다.

[파생법 전체를 다룬 논의]

국어사학회에서 중세 국어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파생법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한 양정호(2015), 석주연(2015), 장윤희(2015), 이동석(2015)에서 알 수 있듯이 파생법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 시기의 파생법

을 전체적으로 다룬 논의에는 고대 국어를 다룬 최남희(1996), 장윤희(2007) 등이 있고, 중세 국어를 다룬 허웅(1975), 접미사를 중심으로 중세 국어를 다룬 양정호(1991), 구본관(1998) 등이 있다. 근대 국어 파생접을 전체적으로 다룬 논의도 기주연(1991, 1994), 홍종선 편(1998) 등이 있다. 파생법의 통시적 변화를 다룬 논의도 송철의(1997), 구본관(2023) 등이 있다.³⁵⁾

[접두 파생]

우리말에서 파생 접미사에 비해 파생 접두사의 수가 적고, 접두 파생법에 대한 논의도 적은 편이다. 접두사에 대한 논의는 안확(1917)이나, 최현배(1937/1971)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안확(1917)에서는 ‘애-, 맨-, 새-’ 등을 접두사로 다루었는데, 현재의 관점으로 보면 관형사로 볼 수 있는 예들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조어 구성과 통사 구성이 잘 분리되지 않았다. 최현배(1937/1971)에서는 파생 접사를 ‘머리가지(접두사)’, ‘발가지(접미사)’, ‘허리가지(접요소)’로 나누어 접두사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외솔은 접두사를 분류할 때, 어근의 품사를 고려하여 이 름씨에 붙는 것, 풀이씨에 붙는 것, 어찌씨에 붙는 것 등으로 나누었다.

접두사 중 특히 한자어 접두사는 통사 구성인 관형사와의 구별이 어려웠다. 또한 접두사도 어느 정도 어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어근과의 구별도 쉽지 않았다. 이런 사정으로 접두 파생에 관한 논의의 주요 쟁점의 하나는 접두사의 확립 기준에 관한 것이었다. 성환갑(1972)에서는 비자립성, 단음절어성, 어형 또는 의미변화성, 기어의 독립성 등 접두사 확립 기준을 논의하였다. 또한 서병국(1975)에서는 ‘구속형태소이되, 단일 용언이나 비통사적 복합어에서 동일한 분포인 어기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했고, 김규선(1971)에서는 한자어 접두사와 관형어의 구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밖에도 김홍범(1985), 이재성(1990), 이재홍(1992), 안효경(1994) 등 접두 파생을 전반적으로 다룬 많은 논의들에서 접두사 확립 기준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졌다.

구조주의 문법의 관점에서의 접두 파생 논의는 분석 기준에 따라 접두사의 목록을 만들고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런 관점의 대표적인 논의가 김계곤(1968)이다. 김순임(1987), 안효경(1994) 역시 접두사 확립 기준을 정해 우리말 접두사 목록을 만들고 유형을 분류한 논의이다. 옥익환(1984)는 고유어 접두사로 범위를 제한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김정식(1986)에서는 특정 접두사와 결합하는 어근의 수를 세어 접두사의 생산성을 논의하였고, 안정애(1983), 정동환(1984)에서는 접두사의 의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말에서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박용규(1990), 김창섭(1992/1996)에서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두사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본관(2008)에서는 색

35) 파생법에 대한 선행 연구는 구본관(2023)에 비교적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채어 접두사를 다루었다.

앞에서 언급한 현대 국어 접두 파생 논의 이외 이전 시기의 접두 파생을 다룬 논의들도 있었다. 최남희(1996 : 116-120)에서는 ‘아촌-’과 같은 고대 국어 접두사를 소개하고 있다. 중세 국어 접두사에 대한 종합적 논의는 허웅(1975 : 136-149)에서 이루어졌다. 이 논의에서는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두 파생, 명사를 만드는 접두 파생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용례와 함께 제시되었다. 양정호(2015)에서는 허웅(1975)의 접두 파생 중 명사 접두 파생을 따로 정리해서 제시하였다. 근대 국어 접두 파생은 기주연(1994 : 29-137)에서 자세하게 논의되었다. 특히 이 논의에서는 한자어 접두 파생법을 따로 모아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자어 접두 파생 연구에 중요한 참고가 된다. 이동석(2000)도 근대 국어 접두 파생법을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국어원의 기획에 의해 국어의 시대별 변천을 연구한 논의로 중세 국어를 연구한 구본관(1996), 근대 국어를 연구한 류성기(1997), 개화기 국어를 연구한 김동연(1999)에도 해당 시기의 접두 파생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정영혜(1997), 김덕신(1998)처럼 명사나 동사 어간 등 실질 형태소가 통시적으로 접두사로 발달하는 과정을 다룬 몇 편의 논의들이 있다. 구본관(2007)에서는 ‘휘-’, ‘민-/맨-’, ‘새-/셋-/시-/잇-’ 등 특정 접두사의 통시적인 발달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시대별 접두 파생법의 변화를 다룬 구본관(2023), 파생법의 변화를 다루면서 접두 파생을 논의한 송철의(1997) 있다. 그 밖에도 파생법 전반을 다루면서 접두 파생을 논의한 송철의(1989/1992), 현대 국어 접두 파생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허웅(1995) 등도 이 분야 연구에 참고가 된다.

[접미 파생에 대한 논의들]

우리말은 파생 접두사에 비해 파생 접미사가 많고, 접미 파생법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많다. 우선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접미사의 확립 기준을 정하고 목록을 제시한 김계곤(1969), 고영근(1972/1974, 1973) 등이 중요하게 참조된다. 현대 이전의 접미 파생법에 대한 논의도 적지 않다. 고대 국어의 접미 파생법은 자료의 한계 등으로 논의가 쉽지 않지만, 최남희(1996), 장윤희(2007) 등이 있다. 특히 장윤희(2007)은 차자 표기 자료를 통해 전기 중세 국어 내지 고대 국어의 접미 파생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세 국어 접미 파생에 대한 논의는 많은 편인데, 허웅(1975), 양정호(1991), 구본관(1998)이 중요하게 참조된다. 근대 국어를 종합적으로 다룬 홍종선 편(1998)에는 근대 국어 파생법 전반을 다룬 이동석(1998), 피동법을 다룬 박진완·전성희(1998), 사동법을 다룬 김미령(1998) 등이 있어 접미 파생 논의에 참고된다. 전광현(1988)은 17세기 국어의 접미 파생을 고찰하고 있다.

접미 파생의 통시적인 변화를 다룬 논의들도 상당수 있다. 이미 언급한 구본관(2023)이나 송철의(1997)은 파생법 전반의 통시적 변화를 정리한 논의이며, 강은국(1993)은 파생 접미사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조일규(1993)은 명사 파생 접미사의 통시적 변화를, 조일규(2014)는 부사 파생 접미사의 통시적 변화를 다루고 있다.

[명사 파생]

이미 앞에서 언급한 조일규(1993)처럼 명사 파생만을 다룬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중세 국어를 대상으로 한 허웅(1975), 구본관(1996/1998), 현대 국어를 대상으로 한 김계곤(1969), 고영근(1973), 송철의(1989/1992)처럼 파생법 전반을 다룬 논의에 명사 파생을 포함해서 다루는 많다. 이 자리에서는 명사 파생 논의 중에서 쟁점이 되었거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관심이 집중되었던 논의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논의할 것이다.

명사 파생 접사 중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이 ‘-이’이다. ‘-이’는 다양한 동음이의 접사로 나타나는데,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보아도 5개의 동음이의 접사가 존재한다. 동음이의 접사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중세 국어의 명사를 만드는 ‘-이/의’와 부사를 만드는 ‘-이’가 구별되었는데, ‘-이/의’ 단모음화를 겪어서 두 파생 접사의 형태가 같아져서 현대 국어에 나타나는 ‘높이, 길이’ 등이 파생 명사이자 파생 부사로 나타난다. 구본관(2002)에서는 명사 파생 접미사 ‘-이’를 동음이의 접사적인 것과 다의 접사적인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명사 파생 접사 ‘-이’ 중에서 논란이 된 것의 하나는 자음으로 끝나는 인명에 붙는 ‘-이’이다. 최현배(1937 : 629-630), 허웅(1975 : 138-140)에서는 ‘-이’를 ‘소리 고르는 가지’로 보아 특정한 의미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았지만, 고영근(1968), 송철의(1977), 최전승(1982) 등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만드는 파생 접사로 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광호(1986)에서는 ‘-이’가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어 규칙이 아닌 통사 규칙에 의해 결합하는 접미사로 보았다. 이런 논의는 구본관(1997, 1999, 2002) 등에서도 이어져 ‘-이’를 파생 접사에서 제외하고 이른바, ‘-답-’ 등과 같이 통사적 파생 접사에 소속시키려는 논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돌이서’, ‘셋이서’에 나타나는 ‘-이서’에 대해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서’를 주격 조사로 보고 있어 ‘돌이’, ‘셋이’ 등의 ‘이’가 문제가 된다. 고영근(1968) ‘돌이’, ‘셋이’의 ‘이’ 역시 ‘영속이’와 같이 임명에 결합하는 ‘-이’와 동일한 접사로 파악한다. 이에 대해 김창섭(1992/1996) 등에서는 이때의 ‘이’가 구를 여기로 가질 수 있고, 목적격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름 뒤에 결합하는 ‘-이’와 다른 것으로 파악한다. 이현희(1994 : 61)에서는 수사 다름에 결합하는 ‘-이’를 ‘NP(이) 이셔’의 재분석 결과인 것으로 보아 이름 뒤에 결합하는 ‘-이’와 다르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명사 파생 접미사 ‘-이’와 관련하여 조어론의 논란거리의 하나는 ‘해돋이’, ‘고기잡이’ 등의 ‘-이’의 분석에 관한 것이다. 이런 예들은 영어의 종합적 합성어(syntactic compound)와 비슷한 구성의 통사적 합성어의 일종으로 보기도 한다. 이익섭(1965)에서 이런 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래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합성어라는 주장과 파생어라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이익섭(1965), 유목상(1974), 성지철(1969), 연재훈(1986), 김인균(1994) 등에서는 [[해]+돋이]]의 구성을 가진 합성 명사로 보았다. 이와 달리 김계곤(1969), 김창섭(1983), 이재인(1989), 송철익(1989/1992), 시정곤(1994/1998 : 340-365)에서는 [[해+돋] + [이]]의 구성을 가진 파생 명사로 보았다.³⁶⁾ 이는 분석에 있어서 ‘해’라는 뚜렷이 분리되는 형태를 중시할 것인지, ‘해가 돋는 현상’이라는 의미를 중시할 것인지의 문제이다.³⁷⁾ 고영근(1973)에서는 ‘살이’, ‘얹이’처럼 한 단어로 인식되는 경우를 따로 떼어내어 준접미사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채현식(2000), 송원용(2002) 등 인지 언어학 기반의 유추에 의한 조어론 논의에서는 이들 어휘들이 유추의 기반이 되는 전형적인 사례로 언급되었다. 즉, ‘고기잡이’라는 유추의 기반이 되는 단어에 의해 ‘새우잡이’, ‘콩치잡이’ 등 다른 유사한 구조의 신어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현대 국어의 ‘-음’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세 국어 단계에서 동사 어간을 어근으로 하여 명사를 만드는 파생 접미사에서 출발하여 근대 국어에 이르러 형용사 어간을 어근으로 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음’은 동일한 형태의 명사형 전성 어미도 존재하는데, 이 둘을 구별하는지의 여부는 조어 규칙과 통사 규칙을 구별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논쟁거리가 된다. 안병희(1976 : 239-240)에서 중세 국어에서 파생 접미사는 ‘-(으/으)ㅁ’, 명사형 어미(동명사형 어미)는 ‘-오/우)ㅁ’으로 구별된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현대 국어에서도 김완진(1972 : 127)나 이병근(1975 : 25-26)에서처럼 명사형 어미는 ‘ㄹ’, 명사 파생 접미사는 ‘ㄹ음’으로 나타나 어간 말음 ‘ㄹ’ 뒤에서 ‘으’ 탈락의 차이를 보이므로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고창수(1986), 시정곤(1993, 1999)처럼 통사적 파생 논의의 관점에서 둘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으’의 탈락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삶’, ‘얹’처럼 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으’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³⁸⁾ 하치근(1996, 1999) 등에서도 언급하듯이 최근에는 파

36) 학교 문법에서는 합성어의 파생으로 보아 궁극적으로는 파생으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 학술지 『형태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학자들의 견해가 여러 차례 소개되기도 했다.

37) 영어 조어론 논의에서는 이를 괄호 매김 역설(bracketing-paradox)으로 부른다.

38) 이에 대해서 ‘ㄹ음’ 등의 명사는 파생에 의한 것으로 ‘삶’, ‘얹’ 등의 명사는 통사 구성의 어휘

생 접사로서의 ‘-음’과 명사형 어미로서의 ‘-음’을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밖에 명사 파생에 관해 주목되는 논의에는 다음 몇 편을 언급할 만하다. 김완진(1976 : 123-130), 구본관(1996/1998 : 135-138)에서는 현대 국어의 ‘-이’가 자음으로 끝나는 어근과만 결합하는 이유를 ‘-기’와의 통시적인 발달 과정과 관련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다. 송철의(1977, 1989/1992)에서는 ‘-이’, ‘-음’, ‘-기’가 상보적인 분포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창섭(1983)에서는 ‘털이개’처럼 ‘-개’가 ‘-이’를 매개로 하여 형성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구본관(1999)에서는 ‘-아지, -아기, -아리, -앙이’ 등 이른바 축소 접미사의 형태 분화에 대해 공시적인 방언 분포와 통시적인 문헌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형용사 파생]

석주연(1995)를 제외하면 형용사 파생을 전반적으로 다룬 논의는 많지 않다. 김창섭(1984), 권숙렬(1984), 김수호(1986), 운동원(1986)처럼 생산적인 파생 접미사 몇 개를 묶어서 다룬 논의가 있고, 신석환(1981), 이강로(1981), 이현규(1982), 민현식(1984), 이지양(1988) 등에서는 개별 파생 접미사에 의한 형용사 파생을 논의하고 있다. 명사 파생과 마찬가지로 형용사 파생도 쟁점이 되었거나 여러 연구자들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문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언급하려 한다.

형용사 파생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문제는 명사에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하는 ‘-답-’에 대한 것이다. 김창섭(1984)에서 ‘-답-’에는 단어를 어기로 하는 것과 구를 어기로 하는 것이 있으며 양자는 의미 기능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된 이래 앞에서 언급한바, 통사적 파생의 문제로 이어졌다. ‘-답-’과 관련해서는 구본관(2007)에서처럼 통시적인 고찰에 의해 ‘-롭-’, ‘-되-’와 이형태 관계를 가지는지 여부가 논의되었고, 김창섭(1984)에서처럼 ‘-스럽-’, ‘-롭-’, ‘-하-’, ‘-적(이)-’와의 상보적 분포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구본관(2003 : 277-281)에서는 현대 국어의 단어와 결합하는 ‘-답-’과 ‘-롭-’, ‘-되-’ 등이 하나의 형태소의 이형태에서 출발하여 통시적으로 각각 개별 파생 접미사로 발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답-’의 기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승녕(1961)에서는 현대 국어의 ‘-답-’을 중세 국어의 ‘-답-’과 관련되며, 이는 알타이어의 지정사 ‘-다’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유창돈(1971), 허웅(1975)에서는 ‘-답-’의 기원을 동사 ‘드외-’에서 찾고 있으며, 구본관(1996/1998 : 179-187), 구본관(2007)에서는 현대 국어의 구를 어근으로 하는 ‘-답-’과 단어를 어근으로 하는 ‘-답-’의 기원을 다른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송철의(1977), 노대규(1981), 심재기(1982)

화로 보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등에서는 ‘-답-’의 의미가 논의되었다.

‘-답-’과 기원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파생 접미사가 ‘-롭-’이다.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에 이르는 ‘-롭-’의 통시적인 변화는 석주연(1995), 구본관(2027, 2023) 등에서 논의되었다. ‘-롭-’에 선행하는 어근에 대해 최현배(1937/1971), 김계곤(1969) 등에서는 명사 외에도 ‘새롭다’, ‘외롭다’ 등 관형사가 가능하다고 논의되었지만, 송철의(1983), 구본관(1992) 등에서는 ‘새, 외’가 명사이던 시기에 결합한 것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

현대 국어에서 명사에 결합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파생 접미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적인 높은 것으로 논의된 것이 ‘-스럽-’이다. ‘스럽-’은 기주연(1994 : 233-234), 석주연(1995 : 62-67) 등에 언급된 것처럼 근대 국어에서 처음 문증된다. 김창섭(1984), 조남호(1988), 이광호(2007) 등에 따르면 ‘-스럽-’이 ‘-답-’, ‘-롭-’, ‘-되-’ 등에 비해 생산성이 높으며 현대 국어에도 여전히 신조어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심재기(1982 : 381), 윤동원(1986), 김창섭(1992/1996) 등에서는 ‘-스럽-’의 의미 특성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김창섭(1984), 민현식(1984), 윤동원(1986) 등에서는 기원적으로 관련이 있는 ‘-답-’, ‘-롭-’과 근대 국어에 처음 등장하는 ‘-스럽-’이 관련성이 검토되었다. 구본관(2007, 2023)에서는 ‘-답-’, ‘-롭-’에 ‘-되-’를 더하여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이 이형태에서 현대 국어로 오면서 각각 개별 접미사로 발달해 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평화롭다-평화스럽다’처럼 ‘-롭-’과 ‘-스럽-’은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창섭(1984)에서는 ‘-롭-’의 의미를 ‘어기의 속성이 풍부히 있음’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윤동원(1986) 등에 따르면 ‘-스럽-’은 ‘어근의 속성에 근접함’ 정도의 의미로 미묘한 구분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형용사 파생 접미사 중에는 이경우(1981), 이강로(1981) 등에서 ‘-다랗-’, ‘-지-’, ‘-되-’ 등이 논의된 바 있고, 이송녕(1955), 권경안(1977), 이지양(1988), 황선엽(1998) 등에서는 ‘-업-’, ‘-ㅂ-’ 등 이른바, ‘ㅂ’ 계 형용사의 형태와 의미가 논의되었다.

[동사 파생]

동사 파생만을 다룬 논의는 거의 없고, 대체로는 파생법 전반을 다루는 자리에서 동사 파생을 언급하거나 피동사나 사동사 등 특정 부류의 파생을 다룬 논의들은 적지 않다. 이 자리에서는 피동 파생, 사동 파생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Ridel(1981) 등 개화기의 외국인 학자들의 논저에서 한국어에도 피동이 있음이 주목된 이래 피동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잡히다’와 같은 피동사에 대해서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피동사에 대한 관심은 김규식(1908~1909?), 유길준(1909), 주시경(1910)에도 이어진다. 최현배(1937/1971)에서는 피동 접미사를 보조 어간의 일종으로 보아 조어 과정보다 굴절 과정과 관련하여 파악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안병희(1959/1978), 허웅(1964) 등에서는 피동 파생이 가지는 불규칙성 등을 근거로 파생 접사로 보았다. 한편, 김석득(1971 : 13-20), 하치근(1989/1993), 시정근(1993 : 249), 고창수(1986) 등에서는 각기 다른 이유로 피동 접사를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어미)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피동 접사의 이형태에 대해서는 안병희(1959/1978), 남광우(1962), 허웅(1975)에서 중세 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세밀하게 논의되었고, 각각의 이형태를 가진 파생어 목록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고영근(1973)에서는 현대 국어를 대상으로 이형태와 파생어 목록에 제시되기도 하였다. 김주필(1988), 구본관(1996/1998), 구본관(2023) 등에서는 피동 접사의 이형태가 통시적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피동 접사의 기능이나 피동 파생의 결과로서의 피동사의 범주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주시경(1910 : 113-114)에서 피동사는 자동사에 가까운 것으로 논의되었고, 안확(1917 : 61)에서는 피동 파생이 타동사를 자동사로 만드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날리다’와 같은 자동사를 어근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동사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이익섭·임흥빈(1983) 등 문법서들이나 송복승(1994)에서는 자동사를 어근으로 사동사가 만들어지고 다시 타동사인 ‘날리다’에서 피동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파악했고, 김창섭(1990)에서는 ‘날리다, 울리다’류가 자동사·타동사 미분화 동사로서 은유적인 쓰임에서 자동사적 쓰임이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상억(1972), 고영근(1986), 연재훈(1989) 등에서는 피동사와 무관하지 않은 ‘움직이다, 멈추다, 깜박이다, 날리다’처럼 자동사와 타동사가 동형인 유형에 대해 능격 동사, 중립 동사, 중간 동사 등의 개념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상억(1970), 한재영(1985), 구본관(1990)에서는 방언에 나타나는 피동의 성조가 다루어지기도 했다.

사동사에도 제법 많은 관심이 주어졌다. 최현배(1937/1971)에서는 사동 접사도 피동 접사와 더불어 보조 어간으로 보아 굴절 과정으로 파악했다. 피동 접사에서 그러했듯이 안병희(1959/1978), 허웅(1964) 등에서 사동 파생도 파생 접사로 보았다. 고영근(1973)에서는 현대 국어를 대상으로 이형태와 파생어 목록에 제시되기도 하였다. 구본관(1996/1998), 구본관(2023) 등에서는 사동 접사의 이형태가 통시적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논의하고 있다. 사동 파생 접사는 중세 국어를 기준으로 보면 ‘{-이-}’ 계열 외에 ‘{-오-}’ 계열과 ‘-으/으-’가 존재하는데, 이기문(1972/1998 : 152)에서는 ‘일우다-이르다’의 대비를 통해 의미 차이

가 언급되기도 하였다. ‘재우다’, ‘세우다’와 같은 ‘{-이-}’, ‘{-오-}’ 계열의 중첩형에 대해서는 박승빈(1970 : 307)에서는 ‘사역형의 어음을 더욱 명확히 하라는 현상’으로 언급한 바 있고, 이상억(1970 : 189-190)에서는 ‘씩우다’처럼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예 외에도 ‘알리우다, 먹이우다’처럼 미등재된 예도 포함하여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허웅(1975 : 158)에서는 사동사가 다시 사동 파생의 어근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구본관(1996/1998 : 275, 290)에서는 ‘세다’가 ‘세우다, 세오다’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점을 언급하고, 상대적으로 뒤에 나타나는 중첩형이 어근과 접사를 분리하려는 의식이 표기법에 반영된 것이거나 강세를 표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피동사나 사동사 파생 외에도 ‘-거리-’나 ‘-대-’ 파생 동사 등 몇몇 동사 파생 논의가 있었다. 조남호(1988)에서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접사인 ‘-거리-’와 ‘-대-’가 가진 음절상의 제약이 지적되었고, 김지홍(1986)과 이건식(1988)에서는 미세한 의미 차이가 지적되기도 하였고, 이병근(1986)에서는 이들이 ‘-하-’를 갖는 단어들과 마찬가지로 어근 분리 현상을 갖는다는 특징을 지적했다.

[부사 파생]

부사 파생법 논의를 연구사적으로 검토한 이동석(2015)가 있기는 하지만, 부사 파생만을 다룬 논의는 거의 없고 대체로는 파생법 전반을 다루는 자리에서 부사 파생을 언급하거나 ‘-이’ 파생 등 특정 부류의 부사 파생을 다루고 있다. ‘-이’는 송철의(1989/1992 : 240)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형용사 어간, 불규칙 어근, 반복 명사, 부사 등을 어근으로 하여 부사를 만든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부사, 형용사 어간, 반복 명사 어근과 결합하는 ‘-이’를 다의 접사로 처리하고 있는데, 동음의어 접사일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 채완(1986 : 54-60)에서는 반복 명사와 결합하는 ‘-이’가 어간의 음절 수에 따른 제약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창섭(1985)에서는 시각 형용사를 빛 형용사와 공간 형용사로 나누어 ‘-이’의 결합 양상을 자세하게 살피고 있고, 송철의(1989/238-262)에서는 ‘-이’에 대한 제약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임흥빈(1976), 심재기(1982) 등에서는 부사 파생 접사 ‘-이’와 부사형 어미 ‘-게’의 차이를 검토하여 ‘-이’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도 하였다. 박성현(1989)와 김종록(1989)에서는 통시적 고찰을 통해 ‘-이’와 ‘-게’의 차이를 검토하고, ‘-이’에서 ‘-게’로 교체되는 양상을 기술하기도 하였다.

부사 파생 접사 ‘-이’에 관한 논의는 허웅(1975), 이승욱(1984), 박희식(1984) 등 현대 국어보다 중세 국어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승욱(1984)에서는 부사 파생 접사 ‘-이’가 형용사뿐 아니라 동사를 어근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양정호(1991) 등에서는 중세 국어의 ‘-이’가 파생 접사뿐

아니라 어미로도 쓰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재영(1998), 장윤희(2007) 등에서는 구결 자료 등을 통해 15세기 국어 이전의 ‘-이’의 결합 양상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구본관(2023 : 270-275)에서는 ‘-이’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어미에서 점차 파생 접사로 변화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구본관(2004)에서는 중세 국어의 ‘Xㅎ- + -이’ 부사 형성을 다루면서 ‘-이’와 ‘-히’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문규(2009)에서는 ‘-이’ 결합형의 성조 문제를 다루고 있고, 유필재(2007)에서는 성조 문제를 포함하여 중세 국어의 ‘-이’의 형태음운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를 제외한 논의 중에는 ‘-오/우’를 다룬 이현희(1996), ‘-더/려/다/러’를 다룬 박진호(2003) 등이 주목할 만하다.

3.4.4. 한자어 조어론

국어 어휘는 어종(語種)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눈다. 이 중에서 한자어의 비중은 절반을 넘어 거의 60%에 가깝다.³⁹⁾ 한자어는 그 수가 많을 뿐 아니라 고유어와 조어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므로 이익섭·채완(1999), 구본관 외(2015), 고영근·구본관(2018) 등 조어론을 다룬 많은 문법서들에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다루기도 한다. 학술지 『국어학』 29집에서는 한자어 특집으로 김규철(1997)의 「한자어 단어 형성에 대하여」, 노명희(1997), 「한자어 형태론」 등이 다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국어학 연구사를 다루는 자리에서 김규철(1990), 노명희(1998나)처럼 한자어 연구사가 따로 정리되기도 했다. 안소진(2014)의 경우 인지 언어학적 관점에서 심리 어휘부에서 한자어가 자리하는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어 본 발표의 관점에서도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는 한자어의 정의와 한자어의 조어론적 특성, 한자어 합성, 한자어 파생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다루기로 한다.

[한자어의 정의와 한자어의 조어론적 특성]

한자어는 한자를 기반으로 하는 낱말이다. 한자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심재기(1987)에서는 우리말 가운데 ‘한자어로 적을 수 있는 낱말’로 정의하여 우리나라 한자음으로 읽히는 단어로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노명희(1990)에서는 이에 더하여 ‘그 기원이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관계없이 국어 어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자로 표기될 수 있으며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는 것’으로 정의하여 한자어에서 음이 변한 귀화어나 중국어 구어에서 들어온 중국어 기원

39) 『표준국어대사전』(1999년판)에 수록된 어휘 중에서 고유어는 25.9%, 한자어는 58.5%, 외래어는 4.7%, 혼합 형태는 10.9%이다.

외래어와 구별하고자 하였다.⁴⁰⁾ 이런 관점에서 송기중(1992 : 4)에서는 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자어는 ‘어휘항을 구성하는 개별 음절이 어떤 한자의 국어 독음과 일치하는 어휘’로 조금 더 구체화하여 정의하였다. 이현주(1995 : 2-3)에서는 한자어를 후행하는 접사와의 결합 가능성과 관련해서 정의한 바 있다.

한자어의 조어론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자어를 구성하는 복합 구성의 분석이 필요하다. 한문 내지 중국어에서 일 음절 한자의 상당수는 소리와 의미를 갖춘 단어로 취급된다. 한자어를 다룬 비교적 초기 논의인 최현배(1937/1971 : 942), 김석득(1966) 등에서는 한자어를 이루는 음절 각각을 단어로 보았다. 이에 대해 안병희(1965 : 139)에서는 한자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음절이 형태소라고 보았고, 이익섭(1968)에서도 우리말에 쓰이는 한자어의 상당수는 이 음절 이상인데, 이들 복합어 한자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어근이라고 하여 단어로 보지 않았다. 그러다가 점차 ‘창(窓), 문(門)처럼 일 음절의 한자가 우리말 단어로 쓰이는 경우와 어근으로 쓰이는 한자를 구별하기 시작했다. 이익섭(1969)에서는 ‘矛盾, 珊瑚, 葡萄’ 등은 구성 요소를 분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단일어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한자어 구성 요소의 분류와 관련하여 송기중(1992)에서는 어근을 제외한 자립적인 일 음절 한자어를 자립성의 정도에 따라서 완전, 제한적, 의사 자립 형태소로 구분하였고, 김규철(1997)에서는 불완전한 일 음절 자립어를 명사 의존 자립어, 관형 의존 자립어 등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노명희(1998)에 이르러서는 한자어나 한자어 구성 요소를 한문이나 중국어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말 조어 방식에 따라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양상에 따라 단어나 불규칙적인 어근 등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이런 논의들을 거쳐 한자어 내지 한자어 구성 요소들은 고영근·구분관(2018 : 223)에서 언급하듯이 단어 이외에도 ‘분명(分明), 신선(新鮮)’과 같이 어근으로만 쓰이는 것들, ‘불(不)-, 비(非)-, 생(生)-’처럼 접두사로 쓰이는 것들, ‘-적(的), -성(性), -화(化)’처럼 접미사에 속하는 것 등으로 분류되게 되었다. 단어 형성과 관련하여 한자어와 우리말의 관계는 김창섭(2001)에서 한자어 형성 과정에서 고유어 문법이 제약되는 양상이 논의되었고, 노명희(2008)에서 한자어 구성 성분의 의미 투명도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주지연(2015)의 한자어 형태소 분포 조사 역시 한자어의 분석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논의이다.

한자어는 우리말에 동화된 면이 있는가 하면 한문 내지 중국어적인 속성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심재기(1987)에서는 ‘宿命, 宿泊’ 등과 ‘舍宿, 下宿’ 등에 나타나는 ‘宿’을 예로 들어 한자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 각각의 의미를 가지

40) 한자어와 구별되는 중국어 차용어에 대한 논의는 방중현(1963 : 259-262)에서 ‘빈대떡’, 이기문(1965)에서 ‘보빅, 비가’ 등 여러 논저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므로 앞이나 뒤에서 자유롭게 단어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기중(1992 : 78)에서는 한자어 형태소가 단어 형성에 참여하기 쉬운 이유를 ‘단음절성’, ‘문법 기능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노명희(1990, 1997, 1998)에서는 한자어가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양상에 따라 구성 요소를 분류하고, 한자어의 분석이나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양상을 한문 내지 중국어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말의 논리로 설명하여 우리말 체계 내에서 기능하는 양상에 따라 한자어 내지 한자어 구성 요소를 단어, 어근, 접사 등으로 재분류하기도 하였다.

이익섭·채완(1999 : 80-86), 고영근·구본관(2018 : 223, 251-252) 등의 문법서들에서는 한자어가 우리말에 동화된 특성과 한문 내지 중국어의 특성을 함께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즉, 두음 법칙을 따른다는 점이나 한문 내지 중국어에서 단어이던 것이 우리말에서 불규칙 어근의 자격만 가지거나 접두사나 접미사로 발달하기도 한다는 점은 우리말에 동화된 속성이고, ‘부모(父母), 남녀(男女)’ 등의 구성 요소가 어근으로 쓰이다가도 가족 관계 서류에서 단독으로 단어처럼 쓰이기도 한다는 점과 ‘하산(下山), 독서(讀書)’처럼 구성 요소의 어순이 우리말과 다르다는 점은 한문이나 중국어의 속성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한자어는 ‘한국은행(韓國銀行) → 한은(韓銀)’과 같은 약어가 쉽게 만들어지고, 반복 합성어를 만들 때, ‘시비(是非) → 시시비비(是是非非)’처럼 고유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한자어 합성]

이익섭(1968)에서는 한자어 합성어를 구성 요소가 우리말에서 어떤 자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의 ‘冊床, 窓門’ 같은 어간 합성어, ‘老人, 眼鏡’과 같은 어근 합성어, ‘友情, 賞狀’과 같은 어근-어간 합성어로 나누었다. 이대 어간 합성어는 구성 요소가 모두 단어인 합성어이고, 어근 합성어는 불규칙 어근인 합성어이고, 어간-어근 합성어는 단어와 불규칙 어근인 합성어이다. 김규철(1980)에서는 이익섭(1968)의 ‘어근’을 ‘준단어’로 바꾸어 완전합성어와 준합성어로 분류하였다.

한자어 합성어의 구성 요소를 통사 구성의 원리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심재기(1987 : 32-35)에서는 구성 요소의 통사적인 관계에 따라 ‘주술 구성, 수식 구성, 병렬 구성, 한정 구성’ 등으로 나누었다. 정원수(1991 : 90-95), 정민영(1994 : 48-72)에서는 한자어 어근을 명사적 어근, 동사적 어근, 관형사적 어근, 부사적 어근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한자어 합성어 분류에 적용하여 한자어 합성어를 ‘병렬 구성, 관형 구성, 서술 구성’ 등으로 나누었다. 노명희(1998가)에서는 한자어 합성어를 구별하고, ‘이다. 하다’와의 결합 양상을 검토하여 한자어 합성어의 의미 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김광해(1994)는 한자어 합성어인지 판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리하여 새로 등장하는 신형 합성어나 임시적 합성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자료에 나타나는 한자어들을 명백한 구는 합성어에서 제외하고, 불투명한 성분을 가진 것과 명칭은 합성어에 포함하는 등 몇 가지 기준에 의해 구와 합성어를 구분하고 있다.

[한자어 파생]

먼저 접두 파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최현배(1937 : 665-667)에서는 ‘未, 無, 沒’ 등을 앞가지(접두사)로 분류하였다. 이익섭(1968)에서는 최현배의 논의에서 접두사로 언급된 예들을 계열 관계나 통합 관계 등의 구조주의적인 분석 기준으로 다시 분석하여 접두사로 보아야 할 것과 어근으로 보아야 할 것을 구분하였다. 김규철(1980 : 82)에서는 이익섭의 논의에서 접두사로 분류한 것들을 다시 살펴서 일부에 대해서는 어근에서 접두사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아 준접두사를 따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노명희(1998가)에서는 현대 국어의 공식적 쓰임을 고려하여 한자어 접사와 어기를 구별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영근·구분관(2018 : 235)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접두사는 어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어근과의 구별이 어렵고, 실제 사용에서도 생산성이 높아서 관형사 등 단어와의 구별도 쉽지 않아 사전마다 다른 처리를 보이기도 한다. 그리하여 서병국(1975), 최규일(1989), 정민영(1994) 등에서는 한자어 접두사는 수가 많고,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모두 어기(어근)으로 보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자어 접두사들은 기원적으로 한자와의 유연성을 잃어 고유어와 구별이 어렵게 되기도 한다. 안효경(1994 : 49)에서는 고유어 접두사 중에서 한자어와 형태가 같은 ‘강-, 대-, 용-, 헛-, 매-’ 등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들 중에서 일부는 한자어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구분관(2007)에서도 접두사 ‘휘-’가 한자(어) ‘回’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안소진(2004)에서는 한자어 접두사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한자어 접두사 목록을 확정하고, 의미론적 제약, 파생어 형성 시에 나타나는 음운론적 제약 등을 검토하였다. 조현숙(1989)에서는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無-, 不-, 未-, 非-’의 의미적, 형태통사적 특성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접미 파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최현배(1937/1971)에서는 ‘-人, -家, -者, -化’ 등을 한자어 뒷가지(접미사)로 분류하였다. 이어서 이익섭(1968), 정민영(1994), 노명희(1998가)에서도 한자어 접미사를 설정하고, 접미 파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약에 대해 기술하였다. 김규철(1980)에서는 생산적인 한자어 접미사 ‘-的’이 자지는 제약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김창섭

(1984, 1994/1996)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的)이-’가 결합하는 어기(어근)은 ‘-되/롭-’, ‘-스럽-’, ‘-하-’ 등의 파생 접미사와의 결합을 피하는 이른바 저지 현상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청룡(2013)에서는 한자어의 인칭 접미사 ‘-家, -工, -士, -者’ 등의 의미 특성을 중국어와 대조하여 분석하는 논의처럼 한자어 개별 접미사의 특성이 세밀하게 논의되기도 하였다.

3.4.5. 기타 조어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발표에서는 조어 방법으로 합성법, 파생법 외에 영 변화, 자음 교체, 모음 교체, 중첩, 통사 구성의 어휘화, 약어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합성법과 파생법 외에 비교적 논의가 활발한 영 변화, 자음 교체, 모음 교체, 약어화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영 변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태가 같은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분류되는 현상을 품사론의 관점에서 품사 통용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를 조어론의 관점에서 영접사 파생 혹은 영 변화로 보기도 한다. 본 발표에서는 품사 통용을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다음의 예들에 대해서는 품사 통용이 아닌 영 변화로 보아 조어 방식의 하나로 다루고자 한다.

- (6) 가. 너출-너출다, 7물-가물다, 신-신다, 품-품다
 나. 바르-바르다, 그르-그르다, 비브르-비브르다,
 빗-빗다, 스몯-스몯다, 늑외-늑외다, 곧-곧다

(6)은 중세 국어 자료들인데, (6가)는 명사와 용언(동사, 형용사) 어간이 형태가 같은 것이고, (6나)는 부사와 용언(동사, 형용사) 어간이 형태가 같은 것이다. 용언 어간이 반드시 어미를 가져야 한다는 우리말의 특성상 이들을 품사 통용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예들에 대해 안병희(1965, 1967), 이기문(1972/1998), 심재기(1982), 송철의(1977, 1992) 등에서는 영형태소를 설정하여 영 접사 파생으로 다루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구분관(1996/1998 : 60-68)에서는 영접사 파생은 영 형태소를 남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영 변화에 의한 조어법으로 다루자고 제안하면서 영 변화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명사와 용언 어간, 부사와 용언 어간이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이런 현상이 가능한 것은 이기문(1972/1998 : 148)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말 용언 어간이

중세 국어 이전에는 어미와 유리될 수 있었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어간이 유리될 수 있다면 용언 어간이 명사나 부사로 쓰이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장윤희(2007), 구본관(2023 : 306-312)에서는 차자 표기 자료를 들어 영 변화가 이미 고대 국어에서 어느 정도 생산적인 조어 방식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문증되는 자료로는 부사와 용언 어간이 동일한 형태만 나타나고 명사와 용언 어간이 동일한 형태는 나타나지 않지만 위에서 제시한 중세 국어의 사례를 보면 ‘명사-용언 어간’의 짝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주연(1994 : 313-369)에 따르면 ‘명사-용언 어간’, ‘부사-용언 어간’의 짝은 근대 국어에서도 나타난다. 그렇지만 우리말 용언 어간이 어미와의 결합이 공고해지면서 이런 짝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기문(1972/1998 : 202), 구본관(2023 : 311)에서 언급한 것처럼 ‘곧-곧다’의 짝을 이루던 ‘곧’의 경우 근대 국어로 오면서 부사로 인식되지 않는 현상을 보인다. 현대 국어에서는 ‘신-신다’, ‘띠-디다’, ‘품-품다’와 같은 ‘명사-용언 어간’의 짝만 남아 있게 되어 생산성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자음 교체]

자음 교체는 자음의 차이를 통해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조어 방법이다. 자음 교체는 ‘감감하다-깜깜하다-깜깜하다’에서 볼 수 있듯이 자음의 차이가 미묘한 의미 차이를 가져온다. 그리하여 정인승(1938), 이송녕(1954, 1955, 1958, 1978), Martin(1962), 남풍현(1965, 1969), 채완(1987) 등에서는 뒤에서 언급할 모음 교체와 더불어 자음 교체를 음성 상징의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이에 대해 이견식(1988), 송철익(1989/1992)에서는 내적 파생 중 자음 교체로 보아 조어 방식의 하나로 다루었다. 구본관(1996/1998 : 68-75)에서는 자음 교체의 방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구본관(2023 : 294)에서는 고대 국어에는 경음이 발달하지 않았고 유기음도 발달이 미미해서 자음 교체가 고대 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세기만 하더라도 이기문(1998 : 132)에서 제시한바, 자음 교체의 짝으로 볼 수 있는 예는 ‘기다-씨다’, ‘그스다-쓰스다’, ‘두드리다-뜨드리다’, ‘덜다-썰다’ 정도로 많지 않고 ‘평음-경음’의 짝만 나타난다. 그리하여 구본관(2023 : 294)에서는 이 시기는 자음 교체의 초기의 모습을 보인다고 보았다. 그러다가 자음 교체의 짝은 점차 증가하고 근대 국어에 이르면 ‘불무-풀무’, ‘고끼리-코끼리’처럼 ‘평음-유기음’의 짝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구본관(2023 : 297)에서는 근대 국어 후기에 이르면 채완(2003 : 169-224)에서 볼 수 있듯이 ‘평음-경음’, ‘평음-유기음’, ‘경음-유기음’ 등으로 유형이 다양할 뿐 아니라 예도 상당할 정

도로 나타나 생산적인 조어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모음 교체]

모음 교체도 자음 교체와 마찬가지로 음성 상징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다가 송철의(1989/1992) 등에서 조어 방식의 하나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채완(1987 : 287)에서는 모음 교체의 짝 중에서 양성 모음이 유표적일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무표적인 음성 모음 어휘에서 양성 모음 어휘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구본관(1996/1998 : 68-75)에서는 모음 교체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시정곤(1993)에서는 자음 교체를 자립 분절 음운론의 관점에서 총괄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음 교체의 짝에 대한 관심은 채완(2003 : 92-98)에서 언급한 것처럼 Jespersen(1922) 이후 자음이나 모음이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인구어나 일본어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영어의 모음을 대상으로 한 논의에서 개구도의 크기나 공명도의 크기가 해당 모음을 가지는 단어쌍의 의미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는 우리말 연구에도 이어져 채완(2003 : 101-109)에서는 정인승(1938), 이희승(1955), 남풍현(1965) 등을 참조하여 인구어와 달리 우리말의 경우 양성과 음성 모음의 차이가 '작음'과 '큼'의 의미 대립을 가진다고 보았다.

모음 조화가 고대 국어에서 잘 지켜졌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모음 교체의 짝은 이미 고대 국어에서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구본관(1996/1998 : 71-75)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세 국어의 모음 교체 짝은 다 단어 사이에 의미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 어감의 차이를 가지는 경우, 의미 차이가 뚜렷한 경우가 있다. 조어 방식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모음 교체의 짝은 '붉다-붉다', '노라하다-누러하다' 등 색채어에서 주로 나타나는 어감의 차이를 가지는 짝이다. 이들 짝들은 무표적인 형식에서 유표적인 형식으로의 단어 형성을 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주연(1994 : 382-399)에서 제시한 것처럼 근대 국어에서도 모음 교체의 단어 쌍은 상당한 정도로 많이 나타난다. 채완(2003 : 187-190)에서는 근대 국어 후기 훨씬 더 많은 모음 교체 짝들이 문증된다. 교체되는 모음의 대립도 채완(2003), 김정남(2003)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세 국어의 구개적인 대립의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대립 이외에도 '·'의 소실 등 모음 체계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근대 국어나 현대 국어에서는 '고모음-저모음', '후설 저모음-전설 고모음'의 대립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약어화]

약어화는 혼성과 더불어 최근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어 형성의 중요한 조어 방법의 하나이다. 기존의 단어에서 음절을 선택하여 약어를 만드는 과정은 ‘한국은행’을 ‘한은’으로 줄이는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한자어 조어론을 다루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래된 조어 방식의 하나였다. 그러나 현재의 약어화에 의한 조어는 한자어가 아닌 고유어의 경우나 외래어의 경우에서도 나타나고 이영제(2015)에서 논의한 것처럼 단어가 아닌 구와 같은 통사 구성에서 음절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약어가 만들어지는 기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약어의 조어 방식은 원래 표현을 생략하는 동시에 선택하는 행위이다. 이재현(2010)에서는 약어화의 중요 기제를 선택으로 보고 약어를 선택에 의한 결합의 관점으로 기술한다. 이호승(2011)에서는 약어는 원형식이 이미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원형식이 절단되고 선택되면 남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음절어(약어)가 되므로 따로 결합의 기제를 두지 않는다. 오규환(2016 : 84-89)에서는 약어가 결합 후 전달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고 단일어로 다룬다. 이에 대해 김상민(2021)에서는 결합은 원 형식이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것이므로 약어화는 절단의 과정만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이에 대해 조교현(2024)에서는 약어화는 원형식에서 핵심적인 구성 요소를 뽑는 ‘선택’과 의미 변화 없이 연결하는 ‘결합’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한편, 노명희(2019)에서는 약어 중에는 약어화가 되면서 품사가 달라지는 예를 소개하기도 한다. 이영제(2015)에서는 ‘즈기(즐감)’처럼 자음자만 선택하는 경우를 ‘두자음어’로 일반적인 약어화를 두음절어로 하여 양자를 구분하기도 한다.

4. 형태론 연구의 과제

4.1. 사회 및 기술의 변화와 우리말의 변화

최근 급격한 사회와 기술의 변화는 우리말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우리말 형태론의 연구도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절에서는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의 사회적인 변화와 기술의 진보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고 이에 따른 우리말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려 한다.

구분관(2023, 2024)에서는 현대 사회를 위기 사회 내지 뉴노멀 사회로 규정하고, 기존의 미래 사회 담론에다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더하여 다음 몇 가지로 현대 내지 가까운 미래의 우리 사회의 특징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⁴¹⁾

(7) 현대 우리 사회의 특징

- 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가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
- 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달로 가상공간, 인공지능을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
- 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령화 사회
- 라. 세계화의 진전과 인구 이동에 따른 다문화 사회
- 마. 개인주의와 가족의 해체로 개인화 사회

현대 사회는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연결이 다소 지체되기는 했지만, 과거에 비하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발달은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 공간, 챗-GPT 등으로 대변되는 AI의 보편적 활용으로 디지털 혁명이 일상화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우리 사회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은 취업, 결혼 등으로 많은 이주민이 유입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하며 우리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해 있다. 출산율의 증가와 디지털 기기에 매몰된 우리의 삶은 가족의 해체와 1인 가족의 증가 등으로 타인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가는 개인주의 사회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변화는 우리말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기도 하다. 구본관(2024)에서 인터넷 통신 언어의 사례를 가져와 보기로 하자.

(8) 인터넷 통신 언어의 사례⁴²⁾

- 가. 갠찬다. 아직 시간 만차나_ 내가 기를 불어너어쥬께-_-ㅋ
 담문보내지말고 계속공부해^_^;
- 나. 그래 니가 빙신임에 틀림없다.
- 다. 존나 짱난다.
- 라. 튀튀~~ 후다다다닥~~휘리릭/
 그럼 난 이만 사라진다>~호이호이
- 마. 일요일 아침 초아침에 초 잘생김
- 바. 짜증짜증왕짜증
- 사. 솔로이즘, 귀차니즘, 귀차니스트

(8)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말은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구어와 문어의 경

41) 아래의 우리 사회의 특징은 구본관(2023, 2024)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42) 제시된 사례는 이정복(2006)에서 선별하여 구본관(2024)에 제시한 것이다.

계가 흐려지고, 이모지 텍스트의 등장으로 언어 양식과 시각 양식 등이 결합하는 복합 양식 텍스트가 많아지고 있다. 구어와 문어를 결합한 양식(Mode)을 가진 새로운 장르의 출현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의 복합 양식 텍스트는 시각 양식 외에도 시각과 청각을 합친 동영상 자료를 문자 자료와 통합하기도 하는 등 점차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표준화와 규범화의 해체로 세대간의 의사소통의 단절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8사)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말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영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와 통합되어 새로운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의 우리말은 더 이상 민족어가 아니며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수단의 지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경향은 점차 여러 언어들과 통합되어 피진어(Pidgin)화, 크레올어(Creole Language)화 혹은 일부에서는 통용어(Lingua Franca)화로 진전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인공지능의 일상적 사용은 우리말의 모습을 또 한 번 진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언어는 더 이상 인간끼리의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기계, 더 나아가서는 기계와 기계의 소통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챗-GPT에게 질문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 열기는 인간이 기계와의 의사소통이 절실하다는 하나의 예이다.

4.2. 우리말의 변화와 형태론의 과제

이제 우리말 형태론 연구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전통적인 형태론 연구 영역에 있어서는 굴절론이나 품사론 연구는 축소되고 조어론 연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술이나 사회의 변화에 따른 우리말 변화와 무관하게 우리말 품사 연구가 더 이상의 연구 문제가 많지 않다는 점과 한국어가 굴절어가 아니라는 점 등이 작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언어 변화가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의 형태론 연구의 주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 신어에 대한 연구이다.⁴³⁾ 신어의 조어 방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혼성’, ‘약어화’, ‘축약’ 등이다. 주지하듯이 ‘네티켓, 휴게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혼성은 주로 영어에서 흔한 조어 방식이었다. (8사)의 ‘솔로이즘, 귀차니즘, 귀차니스트’ 등에 나타나는 이런 조어 방식이 고유어나 한자어 등 우리말 신어의 조어 방식으로 확장되는 것에는 다른 언어와의 접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43) 한국어학회에서는 2024년 제85회 학술대회의 주제로 '신어 연구, 그 성과와 전망'으로 정하여 여러 편의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다. 이는 최근 신어 연구가 우리말 형태론 연구의 주요 관심사를 잘 보여 준다.

약어화에 의한 신어 형성의 폭발적 증가도 주목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약어화는 우리말의 경우 한자어에 많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고유어에도 증가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약어화는 ‘ㄱ(즐감)’, ‘ㅇ(인정)’과 같은 두 자음화도 나타나는데, 이는 영어의 약어화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말의 경우 음절 단위 표기법을 채택함에 따라 약어화는 음절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영어의 경우 자음자나 모음자를 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말에 나타나는 두자음화는 영어의 영향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언어의 변화에 따른 우리말 형태론 연구의 새로운 주제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모지 또는 이모티콘과 결합한 복합 양식 텍스트가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모티콘은 문자나 기호, 숫자 등을 이용해서 만든 것에서부터 캐릭터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움직임이 없는 것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이런 이모티콘의 품사론이나 이모티콘의 결합에 의한 조어론 등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인공 지능 언어는 인간의 언어를 반영한 것이기는 해도 차이 나는 지점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생성 형태론이나 인지 언어학에서 주목받은 어휘부학은 점차 인공지능 어휘부학으로 확장될 수 있다.

사회와 기술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맞춤법이나 표준어 등 규범을 새롭게 정비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말 형태론 연구가 새로운 규범에 맞추어 변화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의 규범 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형태론 연구 역시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광복 80년을 동안의 우리말 형태론 연구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형태론 연구는 전통 문법에서 구조주의 문법을 거쳐 생성 문법과 그 이후에까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해 왔으며, 연구 대상이나 연구 자료, 연구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형태론의 단위, 품사론, 굴절론, 조어론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광복 후 80년 동안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말 형태론 연구도 질적, 양적인 성장을 보였다. 20세기 전반기의 거의 유일한 학술지였던 『한글』에 이어서 많은 학술지들이 나타났고, 20세 말에는 형태론 분야 전문 학술지인 『형태

론』이 창간되기도 하였으며, 형태론 연구자의 수도 늘었다. 이에 따라 우리말 형태론 연구가 심화되고, 유추에 의한 조어 이론 등 자생적인 이론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는 형태론 연구에 새로운 도전의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우리말은 다른 언어들과 혼용되기도 하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복합 양식 장르의 출현으로 언어는 다른 이모지나 이모티콘 시각 자료, 청각 자료 등과의 결합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새로운 규범의 정비, 학교 교육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형태론 연구는 지금까지 시대 흐름에 대응해서 발전해 왔던 것처럼 이런 도전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학술지였던 『한글』 역시 이런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⁴⁴⁾

- 강정희. 1982. 「제주 방언의 문법화 과정에 대하여」, 국어학 11, 71~87쪽.
- 고석주. 2001/2004. 『현대 한국어 조사 연구 1 -격 개념과 조사 ‘-가’와 ‘-를’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 고영근. 1972/1974. 『현대국어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 백합출판사.
- 고영근. 1974.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어학연구 10-1. 118~157쪽.
- 고영근. 1978/1989. 「형태소의 분석 한계」,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영근. 1994. 「최현배의 초기 품사/형태이론에 대한 연구」, 민족문화연구논총 1.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21~146쪽.
- 고영근-구본관. 2018. 『개정판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고창수. 1992. 「통사적 어형성」, 국어학 22. 259~270쪽.
- 구본관. 1997. 「의미와 통사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류에 대하여」, 국어학 29. 113~140쪽.
- 구본관. 1996/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 구본관. 1999. 「축소 접미사에 대한 연구」, 국어학 34. 109~142쪽.
- 구본관. 2002가. 「파생어 형성과 의미」, 국어학 39. 105~136쪽.
- 구본관. 2002나. 「형태 연구 50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 『국어학 연구 50년』. 혜안.
- 구본관. 2009. 「패러다임의 변화와 문법 교육의 방향」, 어문학 103. 1~40쪽.
- 구본관. 2020. 「국어학회 60년과 한국어 형태론」, 국어학 93. 391~426쪽.
- 구본관. 2022. 「국어의 수 관련어와 문법화」, 우리말연구 70. 5~34쪽.
- 구본관. 2023. 『국어 파생법의 역사』. 태학사.

44) 발표문 완성 시간 부족으로 일부 문헌만 제시하였음.

-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 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권덕규. 1939가. 「버리다 만 산고」, 한글 63. 526~531쪽.
- 권덕규. 1939나. 「버리다 만 산고」, 한글 64. 554~557쪽.
- 권재일. 1986. 「형태론적 구성으로 인식되는 복합문 구성에 대하여」, 국어학 15. 195~216쪽.
- 권재일. 2016. 『언어학사상의』. 박이정.
- 김계근. 1968. 「현대국어 조어법(word-formation) 연구 -앞가지에 의한 파생법-」, 논문집 3. 인천교육대학.
- 김건희. 2014. 「이형태 설정의 문제」, 어문학 123. 1~37쪽.
- 김계근. 1969. 「현대국어 조어법 연구 -뒷가지에 의한 파생법-」, 논문집 4. 인천교육대학.
- 김광해. 1994. 「한자 합성어」, 국어학 24. 467~484쪽.
- 김규식. 1908~9?. 『大韓文法』. 油印本(프린트판).
- 김규철. 1997. 「한자어 단어형성에 대하여」, 국어학 29. 261~308쪽.
- 김기혁. 1994. 「문장 접속의 통어적 구성과 합성동사의 생성」, 국어학 24. 403~466쪽.
- 김두봉. 1916. 『조선말본』. 신문관.
- 김두봉. 1922. 『김두봉조선말본』. 새글집.
- 김석득. 1968. 「직접구성요소(IC)의 기능적 관계」, 『이승녕박사송수기념논총』. 을유문화사.
- 김양진. 2017. 「한국어의 형태와 형태소」, 국어학 81. 53~66쪽.
- 김완진. 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유범. 2017. 「이형태의 성격과 이형태 교체의 유형」, 국어학 81. 325~350쪽.
- 김진규. 1996. 「자연 언어 처리를 위한 품사 태그의 몇 가지 문제」, 한글 233. 187~208쪽.
- 김창섭. 1983. 「‘줄넘기’와 ‘갈림길’형 합성 명사에 대하여」, 국어학 12. 73~99쪽.
- 김홍범. 1995. 한국어의 상징어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홍범. 2004.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문법의 어말어미 체계 재고찰」, 한말연구 15. 한말연구회. 149-166쪽.
- 김현. 1998. 이형태 빈도의 역사적 변화. 관악어문연구 2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59~279쪽.
- 김현. 2003. 「음운 규칙과 형태 음운 규칙의 구분에 대하여」, 국어교육 112. 225~246쪽.
- 김희상. 1909. 『초등국어어전』. 유일서관.
- 김희상. 1911. 『조선어전』. 보급서관.
- 남길임·송재영. 2007. 「‘(X)+하다’ 활용 형태의 축약 현상 연구」, 한글 278. 5~30쪽.
- 남윤진. 1997. 『현대국어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명희. 2008. 「한자어의 구성성분과 의미 투명도」, 국어학 51. 89~114쪽.
- 노명희. 2010. 「혼성어 형성 방식에 대한 고찰」, 국어학 58. 255~281쪽.
- 노명희. 2012. 「외래어의 수용과 품사적 변용」, 국어학 63. 73~104쪽.

- 노명희. 2013. 「국어의 탈문법화 현상과 단어화」, 국어학 67. 107~144쪽.
- 노명희. 2018. 「임시어의 특성과 유형」, 국어학 85. 45~82쪽.
- 목정수. 1998. 「한국어 조사 {가}, {를}, {도}, {는}의 의미 체계: 붙어 관사와의 대응성과 관련하여」, 언어연구 18. 서울대학교 언어연구회.
- 목정수. 2002. 「한국어 관형사와 형용사 범주에 대한 연구 -체계적 품사론」, 언어학 31. 71~99쪽.
- 문금현. 1999. 「현대국어 신어의 유형 분류 및 생성 원리」, 국어학 33. 295~326쪽.
- 문병열. 2014. 「어휘부 등재소와 복합 구성」, 국어학 69. 135~166쪽.
- 민현식. 1984. 「'-스럽다, -롭다' 접미사에 대하여」, 국어학 13. 95~118쪽.
- 박부자. 2005. 「선어말어미 '-습-'의 통합순서의 변화에 대하여」, 국어학 46. 227~254쪽.
- 박재연. 2010. 「이형태 교체와 관련한 몇 문제」, 국어학 58. 129~155쪽.
- 박진호. 1994. 「통사적 결합관계와 논항구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호. 2007.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 국어학 50. 115~148쪽.
- 박혜진. 2019. 『표현론적 관점의 단어 형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민정. 2024. 「광복 이전 『한글』지에 실린 문법 연구에 대한 고찰」, 한글 85-4. 814~847쪽.
- 서승아. 2005. 「신문 광고에 사용된 표제와 본문의 유형」, 한글 268. 189~210쪽.
- 서정목. 1988. 「한국어 청자 대우 등급의 형태론적 해석」, 국어학 17. 97~151쪽.
- 서태룡. 2000. 「국어 형태론에 기초한 통사론을 위하여」, 국어학 35. 251~286쪽.
- 송경안. 1980. 「어휘부에 기초한 조어법 기술」, 한글 170. 651~670쪽.
- 송원용. 2005. 『국어 어휘부와 단어 형성』(국어학총서 50). 태학사.
- 송철의. 1983. 「파생어 형성과 통시성의 문제」, 국어학 12. 47~72쪽.
- 송철의. 1989/1992.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태학사.
- 송철의. 2000. 「형태론과 음운론」, 국어학 35. 287~312쪽.
- 시정근. 1994.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한글 223. 49~80쪽.
- 시정근. 2010. 「공형태소와 형태 분석에 대하여」, 국어학 57. 3~30쪽.
- 안병희. 1965. 「문법론」, 『국어학개론』. 수도출판사.
- 양영희. 2016. 「현대 국어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비교 고찰」, 국어문학 62. 국어문학회. 5-28쪽.
- 양주동. 1942. 『조선고가연구』. 박문서관.
- 연재훈. 1986. 「한국어 '동사성명사 합성어'의 조어법과 의미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연재훈. 1989. 「국어 중립 동사 구문에 대한 연구」, 한글 203. 165~188쪽.
- 유길준. 1909. 『대한문전』. 동문관.
- 유현경. 2003. 「“주다” 구문에 나타나는 조사 “에게”와 “에”」, 한국어학 20. 333~352쪽.
- 유현경. 2007. 「‘에게’와 유정성」, 형태론 9-2. 257~275쪽.

- 유현경·한재영·김홍범·이정택·김성규·강현화·구본관·이병규·황화상·이진호. 2018.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 이광호. 2007. 「상대 빈도를 이용한 생산성 측정에 대한 연구」, 국어학 50. 57~76쪽.
- 이관규. 2016.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역락.
- 이기문. 1972/1998.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기문. 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 이남순. 2000. 「국어 연구에서의 형태론의 위치」, 국어학 35. 223~250쪽.
- 이문규. 2022. 『국어 운소의 역사』, 태학사.
- 이병근. 1979.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늦씨」, 국어학 8. 29~49쪽.
- 이승욱. 1977. 「문법사 연구의 몇 문제」, 국어학 5. 1~13쪽.
- 이영제. 2015. 「한국어의 두음어화 연구: 통사적 구성의 두음어화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69. 165~198쪽.
- 이익섭. 1965. 「국어 복합명사의 IC 분석」, 국어국문학 30. 121~129쪽.
- 이익섭·채완. 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이정택. 2001. 「피동성 표현에 관한 연구 -'되다, 받다, 당하다'를 대상으로-」, 한글 251. 143~166쪽.
- 이정택. 2013. 「형태소 복합 '-았었-'에 대한 연구」, 겨레어문학 51. 499~519쪽.
- 이정학. 1947. 「국어교육의 당면 문제」, 한글 102. 26~32쪽.
- 이정훈. 2008. 『조사와 어미 그리고 통사 구조』, 태학사.
- 이현희. 1982. 「국어 종결어미의 발달에 대한 관견」, 국어학 11. 143~163쪽.
- 이희승. 1933. 「「ㅎ」 바침 문제」, 한글 8. 493~500쪽.
- 이희승. 1955.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 임동훈. 2001. 「'-겠-'의 용법과 그 역사적 해석」, 국어학 37. 115~148쪽.
- 임동훈. 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43. 119~154쪽.
- 임흥빈. 1972. 「국어의 주제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흥빈. 1997/2005. 『우리말에 대한 성찰 1』, 태학사.
- 장윤희. 2006. 「고대 국어 파생 접미사 연구」, 국어학 47. 91~144쪽.
- 장윤희. 2010. 『『국어학 50년』 형태 연구의 성과와 전망』, 국어학 57. 335~372쪽.
- 장지영. 1946. 「나랏말을 깨끗이 하자(一)」, 한글 98. 323~333쪽.
- 장지영. 1947. 「나랏말을 깨끗이 하자(二)」, 한글 100. 507~514쪽.
- 정길남. 1999. 「신소설의 격조사 연구」, 한글 245. 139~160쪽.
- 정한데로. 2013. 「명명 과제를 기반으로 한 임시어의 형태론」, 국어학 68. 367~404쪽.
- 정한데로. 2017. 「'신어의 삶'에 대한 탐색 -2002년~2004년 신어를 중심으로-」, 국어학 83. 119~152쪽.
- 조교현. 2024. 「음절어 형성 과정의 재검토 -ACE형을 중심으로」, 형태론 26-2. 174~197쪽.
- 조진수. 2025. 「인간 언어 개념의 확장과 문법 인식의 다층적 재구조화」, 국어교육 188. 71~100쪽.

- 조현숙. 1989. 「부정접두어 ‘無-, 不-, 未-, 非-’의 성격과 용법」, 관악어문연구 1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31-252쪽.
- 주시경. 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 채현식. 1994. 국어어휘부 등재소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120.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 채현식. 2003.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응환. 2008. 「형태소의 유형 분류」, 문학과 언어 30. 1~26쪽.
- 최윤지. 2013. 「합성과 파생 다시 생각하기」, 국어학 66. 265~306쪽.
- 최현배. 1933가. 「풀이씨의 끝바꿈에 관한 논 -용언의 활용론-」, 한글 7. 265~274쪽.
- 최현배. 1933나. 「풀이씨의 끝바꿈에 관한 논(承前) -용언의 활용론-」, 한글 8. 522~536쪽.
- 최현배. 1937/1971. 『우리말본』. 정음사.
- 최형용. 2003가. 「어근과 어기에 대하여」, 형태론 4-2, 301~318쪽.
- 최형용. 2003나.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태학사.
- 최호철. 2000. 「국어 형태론과 어휘론」, 국어학 35. 313~366쪽.
- 허웅. 1966. 「서기 15세기 국어를 대상으로 한 조어법의 서술 방법의 몇 문제점」, 동아문화 6.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53쪽.
- 허웅. 1975. 『우리 옛말본 -형태론』, 샘문화사.
- 허웅. 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홍종선. 1989. 「국어 형태론 연구의 흐름」, 국어학 19. 353~374쪽.
- Aitchison, J. 1987. *Words in the Mind*, Oxford: Blackwell.
- Aronoff, M. 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IT Press.
- Bybee, J. 1988. 「Morphology as Lexical Organization」, In Hammond M. and Noonan M. ed., *Theoretical Morphology*, Orlando: Academic Press. pp. 119~141.
- Bybee, J. 1994. 「A View of Phonology from a Cognitive and Function Perspective」, *Cognitive Linguistics* 5-4, pp. 285~305.
- Lieber, R. 1981. *On the Organization of the Lexic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Riedel, F. 1881. *Grammaire Coréene*, Yokohama/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 『한국역대문법대계』에 실림.
- Scalise, S. 1984. *Generative Morphology*. Dordrech: Foris Publication.
- Underwood, H. G. 1890. *A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Yokohama/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 『한국역대문법대계』에 실림.

제2부/ 주제 발표

한국어 통사론의 본령 찾기 / 목정수

우리말 문장 구성과 결합의 몇 양상 / 최웅환

한국어 실험통사론의 현황과 과제—수용성판단을 중심으로— / 조용준

북한 문법론 연구의 성과와 과제 / 김건희

628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광복 80년, 우리말 문법 연구의 성과와 과제
2025년 5월 16일(금) 10:00~15:40 / 한글학회 강당

□ 제2부/ 주제 발표

한국어 통사론의 본령 찾기

목정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mjsmok@uos.ac.kr

1. 서론

1.1. 한국어 통사론의 전개 방향

본고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국어학에서 특히 통사론 분야에서의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 통사론의 본령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학문 분야에서의 광복은 그동안 해당 학문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다른 외세의 논리에 종속되어 있(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광복이란 이러한 종속 구조에서 탈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 통사론이라는 분야도 마찬가지로 외래 이론에 종속되어 있음은 한국어 통사론 연구에서 통사론의 기본 단위인 단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보면 금방 드러난다. 한국어 자체의 고유성을 찾고 그 기반 위에서 한국어 통사론의 이론 정립이 필수적인데 그 뜻대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음으로써 갈팡질팡해 온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하겠다. 아직도 학교문법을 비롯하여 많은 문법서에서 취하고 있는 단어

에 대한 정의가 서구의 블룸필드(Bloomfield)식 정의, 즉 ‘최소 자립 형식(minimum free form)’에 묶여 있다. 한국어 통사론이 정합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기본 단위인 단어의 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데, 보통 굴절어의 양상을 가장 많이 보이는 라틴어, 희랍어 등의 고전 서구어를 중심으로 한 블룸필드식의 단어 정의에 입각하여 한국어의 단어를 정의하고자 했기 때문에 한국어 단어관이 정확히 설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단어의 부차적인 특성인 ‘자립성’의 특성이 지나치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한국어의 이른바 조사와 어미는 때로는 단어로서 품사 단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가 거기서 배제되기도 했다가 오락가락한 바가 많았다. 특히, 어미를 용언의 내부 구조 요소로 삼으로써 어미를 독자적인 통사 단위로 설정하지 못하고 용언의 활용형으로서 용언이라는 통사 단위의 구성요소가 되게 함으로써 한국어 통사론은 [NP + VP] 형식의, 문장이 아닌 명제 단위를 그 대상으로 삼게 되는 이상한 관점이 생겨났다.¹⁾ 비유적으로 말해서, ‘철수는 영희를 사랑하나 봐’라는 문장을 대상으로 통사론을 펼치면서도 실제로는 ‘철수(가) 영희(를) 사랑하(다)’라는 [L(x, y): L=사랑하-, x=철수, y=영희]의 명제 구조로 환원된 것을 연구하게 되는 꼴이 되어 버렸다. ‘-나 보-’나 ‘-어’는 제외된 채 통사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통사론의 대상은 주로, 어미의 역동적 역할이 그리 부각되지 못한 채, 문어체 낭독체의 ‘한다’체 형식에 치중되어 왔다. ‘먹어’, ‘먹지’, ‘먹나요?’, ‘먹을래?’, ‘먹을게’, ‘먹는데’, ‘먹는데들’, ‘먹자십니다’ 등처럼 종결어미가 문장 전체의 의미에 아주 관여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미들이 문장 밖의 요소로 취급되었다. 마치 문장 유형, 주체존대법, 상대존대법 등의 어미들이 통사론 너머의 담화화용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문법 현상으로 기술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시각이 고정되게 된 이유는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사와 논항의 결합으로 기본 문장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²⁾

이러한 점은 목정수(1998)부터 일련의 논의를 통해 지적되기 시작했고, 한국어 통사론의 전개 현황에 대한 사적 고찰을 한 목정수(2019)에서 분명히 비판한 바 있다. 목정수(2019)는 한글학회 573돌을 맞이하여 ‘우리말 연구의 나아

1) 명제의 단위를 논항구조를 넘어서 시제구를 포함하는 영역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김태인 2019, 2025), 명제 중심의 통사론은 어말어미/종결어미를 통사론의 영역에서 제외시키는 관점을 유지한다. 2장의 ‘화행 통사론’의 출현도 이러한 명제를 통사론의 대상으로 하고 어미를 통사론 연구에서 배제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이런 점을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평범한 통사 현상들도 근본적으로 다시 되묻고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유명 인사’는 명사구인가 복합명사인가, ‘공원에서’는 몇 개의 통사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의 표상 방법은 어떠한가 하는가, ‘연구하(다)’와 ‘깨끗하(다)’는 형태론적 구성인가 통사적 구성인가 등등의 문제는 전부 통사 단위, 즉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다.

갈 방향'을 주제로 열린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바탕으로 한 글이다. 거기에서는 지난 10여 년간의 국어학 통사론 분야의 현황을 정리하고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궁극적으로 주장한 바의 핵심은 논항 구조를 넘어서 인칭 구조로 통사론의 방향을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기존의 한국어 통사론이 서구 통사론 이론 중의 하나인 서술어의 논항 구조(argument structure) 이론에 휩쓸림에 따라 실제로는 문장 분석이 아니라 명제 분석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한국어 통사론, 즉 문장 구조의 정확한 접근을 위해서는 종결어미를 통사 단위로 분명히 하고 거기서 파악되는 문장 구성의 핵심 정보, 우리의 용어로는 인칭 구조(person structure)로 시각이 확대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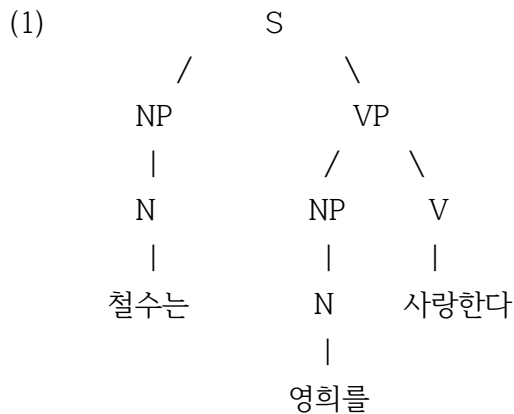
한편, 유현경(2020)은 다른 차원에서 한국어 통사론의 흐름을 짚는 사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난 60년간 『국어학』 1집에서 92집까지 실린 통사론 관련 논문들을 살펴 그 성과를 고찰하고 한국어 통사론 연구를 전망해 보는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로 제시한 것 중에서 본고와 제일 관계가 깊은 것 두세 가지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³⁾ 첫째는 담화·화용론적 연구를 통사론에 접목시킨다는 것이고 둘째는 코퍼스에 기반한 구어 문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어 연구에 대한 경향에 주목하였다.

1.2. 논의 목적

본고는 위의 목정수(2019)와 유현경(2020)에서 정리된 바를 토대로 최근 한국어 통사론 논의에서 새롭게 나오고 있는 두 가지의 흐름에 주목하여 그에 대해 비판하고 한국어 통사론의 본령을 찾아 나서는 데 목표를 둔다.

우리가 주목하는 그 첫 번째 흐름은 생성문법 학계의 이른바 '화행 통사론'의 출현이다. 본고는 인칭 구조의 시각에서 화행 통사론이 나온 연원과 동기를 이해해 보고, 화행, 즉 화용론과 통사론의 모순적 개념이 합해져 마치 새로운 유형의 통사론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유를 밝혀 보고자 한다. 우선 먼저 '화행 통사론'은 영어 중심의 통사론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힐 것이고 둘째로는 한국어 통사 단위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토대를 두면 한국어 통사론은 이미 그 내부에 화용론적 요소를 포함하고

3)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둘째, 2000년대 이후 연구 자료로 말뭉치 용례를 사용하는 연구가 등장하면서 한국어 통사론 연구에서도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문어 말뭉치뿐 아니라 구어 말뭉치 구축으로 문어와 구어 자료에 대한 연구가 증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문법 요소의 담화·화용론적 기능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기존의 논의에서 가설로 존재했던 것을 검증하거나 특정한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계량적인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연구가 늘어났다. 셋째, 최근의 한국어 통사론 연구는 학제적인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어 통사론 연구에 담화·화용론적 관점이 도입되면서 맥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조사를 포함한 성분이 조사가 없는 성분과 마찬가지로 N, NP로 분석된다든지, 어미를 포함한 단위가 그냥 V나 VP로 분석되었다는 것은 한국어 문장 구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사나 어미를 분석 대상에서 빼고 서술어인 동사나 그의 논항으로 주어진 명사만을 또는 그들의 관계만을 통사론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때의 통사론은 3인칭 주어 중심의 낭독체 문장, 즉 훈잣말을 주 대상으로 했기에 화자와 청자가 직접 관여하는 대화체 문장은 통사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2. 화행 통사론의 등장

생성문법의 틀에서도 이러한 어색함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박소영(2024)에서는 ‘화행 통사론’이라는 비교적 최근의 생성문법 계열에서의 새로운 논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전 시기의 통사론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과 공백으로 남겨져 있던 부분을 역으로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⁴⁾ 생성문법의 발전 단계에서 추상적인 기능 단위를 중심으로 시제구, 상구, 양태구 등을 도입하더니, 최근에는 드디어 이른바 ‘화행 통사론’ 더 나아가 ‘화용 통사론’이란 표찰로 통사론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화행’, ‘화용’과 ‘통사’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다. ‘화행 통사론’을 통사론과 화용론의 계면(interface)을 살핀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화행 통사론’이란 용어는 뒤집어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동사를 중심으로 한 어휘요소들이 문장의 핵심을 차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논하는 통사론의 중심은 논항 구조로 쏠리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 문장의 필수요소인 문장 종결어미나 정보 구조나 담화의 흐름을 조정하

4) “이전 시기 통사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담화 문맥상의 여러 화용론적 요소들이 통사구조 내에 적극적으로 편입됨으로써 담화 관련 다양한 통사 현상들을 보편적인 통사 원리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른바 화행통사론적(discourse syntax)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는 문법요소인 조사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을 받게 되어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앞서 <그림 1>에서 보았듯이, 한국어의 기본 문장에서 화청자 인칭 표현을 담당하는 종결어미들은 필수적인 요소들로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대경어법, 문장 유형, 더 나아가 행위자 인칭까지 암시하는 다기능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필수 논항이라고 하는 주어, 목적어 등의 성분도 얼마든지 생략이 가능하고, 생략되더라도 어미와 맥락에 의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어 문장 구성에서 가장 풍부하고 핵심적인 정보는 종결어미로부터 나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 통사론의 핵심도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관점을 주체적으로 세우고 분석 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화행 통사론은 Speas & Tenny(2003)이 제안한 화행 분석의 방법론으로서, Ross(1970) 또는 Austin(1962)과 Searle(1969)의 수행문 분석이나 화행 이론을 통사론 안으로 끌어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영어에서 수행문 분석이나 화행 이론은 기본 문장을 넘어선 상위문의 수행동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사론을 넘어선 화용론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다.⁵⁾ 서구어에서는 기본 문장이 명제 차원과 일치하기 때문에 기본 문장에 대한 통사론 연구는 서술어 중심의 논항 구조를 논하는 차원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강했다. 가령, 'I love you'라는 기본 문장은 [L(x, y) x=I, y=you]라는 논항 구조가 충족되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문장 내부에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라든가 화자의 화행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다. 따라서 영어의 통사론은 논항 구조 연구와 일치될 수 있다.

화행 통사론은 논항 구조를 다루는 vP 범주, 시제소를 다루는 IP 범주 밖의 상위 층위에 놓이는 CP 범주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CP 범주를 보편적인 통사 원리로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더 세분화된 구조로는 언표내적 효력의 ForceP, 화제어의 TopP, 초점어의 FocP가 있다. 더 나아가, CP 위에 화자와 청자를 도입하는 화행구(SAP, Speech Act Phrase) 및 관점의 주체 혹은 인식자를 도입하는 인식구(SenP, Sentience Phrase)의 설정을 제안한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담화 요소에 의해 야기된 다양한 통사 현상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어는 '나(는) 너(를) 사랑하-'라는 단계로는 문장을 구성하지 못하고, 종결어미가 붙어야 문장이 성립한다. 이 종결어미는 문장 유형을 정하는

5) 김용하(2022)에서는 Speas & Tenny(2003)의 화행 통사론 분석을 원용하여 생성문법의 틀 안에서 화행 분석을 행할 수 있는 이론적 방안을 시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행문 분석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어 통사론 연구에서 수행문 분석을 통해 상대높임법과 같은 근문 현상들을 설명하려 했던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한국어에 대한 여러 화행 통사론 연구 업적들에 대해서도 비판적 논의를 하고 있다.

동시에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다기능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국어 문장은 그 자체로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형태·통사적으로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문장에 대한 연구인 통사론의 핵심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영어에서 화행이라든지 수행문 분석 등의 화용론 층위에서 다루어지던 현상이 한국어에서는 통사론의 핵심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한국어 문장 자체에 대한 분석은 화청자 관계를 필수적으로 논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영어의 통사론을 바탕으로 형성된 통사론 시각에서는 화용론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게 되어 있는 화청자 관계를 다루려면 ‘화행’이란 수식어를 피수식어 ‘통사론’에 붙여 통사론의 영역을 확장해야만 했던 것이다.

3. 통사적 주제어는 과연 필요한가?

3.1. 통사적 주제어의 도입 배경

최근 한국어 통사론 연구의 흐름에서 목도할 수 있는 주요 경향으로 임흥빈(1972)를 필두로 이선웅·박형진(2019)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유현경(2021b), 함병호(2022, 2025)가 이어서 주장한, 이른바 ‘통사적 주제어’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들의 논의에 따르면, 통사적 주제어란 문장에서 통사적 기능과 연관되어 있는 ‘주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 ‘독립어’의 성분 이외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제8의 성분이다. 통사적 주제어설의 핵심은 서술어의 논항 구조에서 벗어나지만, 문장 내에 존재하는 성분을 따로 통사적 주제어로 삼자는 것이다. 가령, ‘커피는 잠이 안 온다’라는 문장을 분석할 때, ‘잠이 오다’라는 주술 관계에서 벗어나는 ‘커피는’ 성분을 통사적 주제어로 도입해야 통사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잉여 부분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도 서술어 ‘길다’의 주어 논항은 ‘코가’ 성분이므로, 남는 ‘코끼리는’ 성분은 통사적 주제어가 된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관점은 결국, 통사적 주제어 ‘커피는’과 ‘코끼리는’이 같은 자리에 놓이는 계열 관계를 이루고, ‘코가’와 ‘잠이’가 주어 자리에 놓이는 동일 계열체의 성원으로 분석하는 셈이다.

이런 분석법에 대하여 본고는 이른바 이중 주어문을 특수한 현상으로 보고 ‘통사적 주제어’를 도입하려는 데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주제어’는 순수하게 정보 구조 차원에서의 분석틀로 보고 모든 주제어는 통사적 기능을 유지하는 통사적 성분으로 환원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독자적인 통사적 주제어는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핵심 주장이다. 이러한 우리의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사적 주제어와 더불어 기존의 ‘서술절’ 개념을 전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목정수 2014b, 2018, 유현경 2021a).⁶⁾

앞서 언급했듯이, ‘통사적 주제어’는 임흥빈(1972), 이선웅·박형진(2019), 유현경(2021b)를 통하여 발전되어 온 새로운 개념이다.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기존의 ‘주제어’는 통사론 영역을 넘어선 담화론, 정보 구조론의 차원에서 제시된 것인 데 비해 여기서의 주제어는 통사적 차원의 주제어라고 해서 기존의 주제어와는 다른 개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간단히 풀어 말하자면, 통사적 주제어는 통사론 영역 밖의 것을 통사론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 제8의 문장성분으로 설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들이 전제하는 바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발화된 문장성분은 남김없이 분석되어야 한다. (소진성)

둘째, 이중 주어문의 NP1은 서술어의 논항이 아니다.

따라서 주어가 될 수 없다.

셋째, 주제어는 부사어나 독립어와 기능이 매우 이질적이다.

본고는 이 새로운 ‘통사적 주제어’라는 개념에서 몇 가지 모순점을 발견한다. 먼저, 이들 주장이 전제하는 바의 핵심은 위의 둘째의 것으로서 서술어의 논항으로 볼 수 없는 성분이 문장에 버젓이 있으므로 그것을 (통사적) 주제어라는 것으로 보자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통사적 주제어 성분을 제외하면 서술어를 중심으로 그것이 요구하는 논항이 온전한 문장을 구성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나 앞에 제시한 두 유형의 이중 주어문은 동일한 구조의 이중 주어문으로 볼 수 없다. 먼저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를 살펴보자.

(2) 가. 코가 길다. cf. 한강이 제일 길다.

나. 코끼리는 코가 길다.

(3) 가. 코를 골았다.

나. 철수는 코를 골았다.

(2)와 (3)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코끼리는 코가 길다’에서 이른바 주제어 ‘코끼리는’을 제외한 ‘코가 길다’는 온전한 명제를 구성하지 못한다. 이

6) 김민국(2025)는 소위 이중 주어문을 두 유형으로 나누고, NP1 성분을 서술절설에 입각하여 주어로 보는 ‘코끼리는 코가 길다’ 유형과 주제어설을 옹호하여 NP1을 (통사적) 주제어로 보는 ‘커피는 잠이 안 온다’유형으로 대별하여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는 (3)의 ‘코를 골았다’가 온전한 명제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두 문장은 공히 ‘코끼리’와 ‘철수’의 속성이나 행태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2)와 (3)은 NP1 자리에 존대 자질을 갖는 성분이 올 경우, 평행하게 ‘-시-’의 호응이 일어난다(목정수 2013, 2017).

- (4) 가. 코끼리는 코가 길다.
나. 할아버지는 코가 크시다.

- (5) 가. 철수는 코를 골았다.
나. 할아버지께서는 코를 많이 고셨다.

‘-시-’와의 호응 현상은 성분이 도치되어도 그대로 유지된다. 성분 도치는 정보 구조의 차이만 발생시키지 통사적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 (6) 가. 코끼리는 코가 길다. => 코는 코끼리가 제일 길다.
나. 할아버지는 코가 크시다. => 코는 할아버지가 제일 크시다.

- (7) 가. 철수는 코를 골았다. => 코는 철수가 많이 골았다.
나. 할아버지께서는 코를 많이 고셨다. => 코는 할아버지가 많이 고셨다.

반면에, ‘코끼리는 코가 길다’와 외형상 동일 구조처럼 보이는 다음 문장들은 (2)와 동일한 통사적 행태를 보이지 않는다.

- (8) 가. 커피는 잠이 안 온다.
나. 치킨은 살 안 찐다.
다. 생선은 도미가 맛있다.

‘커피는’을 ‘코끼리는’처럼 서술어 ‘오다’와 논항 관계에 놓이지 않으므로 주 제어로 보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커피는’을 제외한 나머지 ‘잠이 안 온다’는 온전한 문장으로 해석된다. 또한 ‘잠이 온다’는 주어 논항이 생략된, ‘나는 잠이 안 온다’의 당연값으로 해석된다. 이것이 첫째로 (2)와 다른 점이다. 실제로 다음 문장도 성립한다.

- (9) 가. 커피는 나 잠이 안 와. 그래서 커피 대신 오미자차를 마셔.
나. 커피는 잠이 안 오신대 할아버지께서.⁷⁾

그러나 (2)의 문장에서는 통사적 주제어라 한 성분 이외에 다른 논항을 삽입하면 비문이 된다.

- (10) 가. 코끼리는 코가 길다.
- 나. *코끼리는 나 코가 길어.
- 다. *코끼리는 코가 기시대 할아버지가.

논항의 도치 현상과 관련해서도 차이가 난다.

- (11) 가. 코는 코끼리가 제일 길어.
- 나. *잠은 커피가 안 와.

주요 논항으로 구성된 ‘나는 잠이 안 와’도 성분의 도치가 가능하다.

- (12) 가. 잠은 내가 안 온다니까.
- 나. 잠은 철수도 잘 안 온대.

따라서 ‘코끼리는 코가 길다’와 ‘커피는 잠이 안 온다’에서 ‘코끼리는’과 ‘커피는’은 계열 관계에 놓이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코가 길다’와 ‘잠이 오다’도 평행한 구조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는 달리 ‘코끼리는 코가 길다’의 ‘코끼리는’은 ‘할아버지는 잠이 안 오신단다’의 ‘할아버지는’과 그리고 ‘할아버지는 코를 많이 고신다’의 ‘할아버지는’과 같은 계열의 성분으로 볼 수 있다.

3.2. 통사적 주제어의 불필요성

통사적 주제어는 주로 이른바 이중 주어문에 적용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를 출발로 동일한 방식으로 ‘생선은 도미가 맛있다’, ‘사과는 홍옥이 맛있다’, ‘비행기는 747이 빠르다’ 등의 이른바 이중 주어문을 설명

7) 신서인(2025)에서는 ‘커피는 잠이 안 온다’의 구조를 주제부와 언급부의 분절을 이용하여 다음 (1)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잠이 오다’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가 당연값이며 3인칭 주어가 올 경우는 어미가 달라진다. (2가)와 (2나)를 ‘(나) 잠이 안 와’와 비교해 보라.

(1) 커피는 | [(사람들이 e_i 마시면) (사람들이) 잠이 안 온다].

(2) 가. 커피는 할아버지도 잠이 안 오시는 모양이야.
 나. 커피는 잠이 안 오신대 할아버지께서는.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3.1 절에서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코끼리는’ 성분은 단순히 통사적 주제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통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코가 길다’라는 서술어의 주어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보아야 한다(목정수·조서희 2021). 즉, 주어 성분이 주제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서술어 ‘길다’는 한 자리 서술어로서 주어 논항 ‘코가’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코가 길다’는 완전한 문장이 되므로, ‘코끼리는’은 잉여 성분이 되고 ‘코’와 의미적으로 소유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잉여 성분으로서 조사 ‘는’에 의해 주제화된 통사적 주제어라는 논의와 두 가지 점에서 상반된다. 첫째, ‘코가’를 주어로 본 것에 대해 본고는 비주어 성분으로 본다. 둘째, ‘코가’를 주어로 보는 시각에서는 서술절과 통사적 주제어를 양립시키기 어려운 데 비해 본고의 시각은 ‘코가 길다’를 온전한 ‘서술절’이 아닌 서술구로 보므로 ‘주어’ 성분 ‘코끼리는’과 ‘서술구’ ‘코가 길다’의 단문으로 모순점 없이 통사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듯, 통사적 주제어설이 야기하는 몇 가지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존대 선어말어미 ‘-시-’의 기술의 통일성을 어렵게 한다(목정수 2013, 2017).

- (13) 가. 할아버지는 코가 크시다.
- 나. 할아버지는 코를 고신다.

먼저 (13나)에서 ‘골다’의 주어 또는 주제어화된 주어 성분 ‘할아버지는’과의 호응으로 ‘-시-’가 설명되는 반면에, (13가)에서는 표면적으로 동일한 호응 현상이 일어남에도 이 ‘할아버지는’ 성분을 주어가 아닌 통사적 주제어라 보면 ‘-시-’의 호응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없다.

둘째, 성분의 도치가 평행하게 일어나는데 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 (14) 가. 코는 할아버지가 제일 크시다.
- 나. 코는 할아버지가 제일 많이 고신다.

(14나)에서 ‘코는’ ‘골다’의 목적어가 주제화되어 문두로 이동한 것으로서 목적어 기능을 유지한다고 보면 자연스럽게 ‘-시-’는 평언부 내의 초점 자리로 밀린 ‘할아버지가’ 성분이 그대로 주어의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호응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14가)에서의 현상도 평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코는’을 ‘크다’의 주어 성분이 주제화되어 문두로 나간 것이라고 보면 다음에 오

는 ‘할아버지가’ 성분은 통사적 주제가 어떤 기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까? ‘-시-’와의 호응을 설명하기 위해 ‘통사적 주제어’와 다른 별도의 ‘통사적 초점어’를 설정해야 할까?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다.

주제어는 ‘초점’ 등과 더불어 정보구조의 개념으로 구정보나 언급대상성 (aboutness)의 개념과 연관된 개념으로 쓰고 통사적 분석의 기본 단위로 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문장 성분의 통사적 기능은 서술어를 제외하면, ‘주어’, ‘목적어’(가형 목적어와 를형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로 한정된다. 따라서 주제화(topicalization) 기제로 문두로 나가는 성분은 기본이 다 원래의 통사적 기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15) 가. 주어 -> 주제어

할아버지는 코를 많이 고신다. <- [할아버지, 코, 골다]

할아버지는 코가 크시다. <- [할아버지, 코, 크다]

나. 를형 목적어 -> 주제어

코는 할아버지가 제일 많이 고셔. <- [할아버지, 코, 골다]

다. 가형 목적어 -> 주제어

코는 할아버지가 제일 크시다. <- [할아버지, 코, 크다]

라. 보어 -> 주제어

대통령은 우리 할아버지가 되실 거야. <- [할아버지, 대통령, 되다]

범인은 할아버지가 아니시라니까. <- [할아버지, 범인, 아니다]

마. 부사어 -> 주제어

a. 생선은 도미가 맛있다.

b. 커피는 잠이 안 온다.

c. 치킨은 살이 안 찌요.

d. 국어학은 취직이 어렵다.

e. 토요일은 비가 온다.

먼저 부사어의 주제화 구문에 대해서 살펴 보자. (15마a)의 문장에서 ‘생선 가운데’, ‘생선 중에 고르면’ 등의 부사어구로 해석되는 것이 주제화된 것이 ‘생선은’으로 보면, 발화된 문장성분은 남김없이 분석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전제를 충족시킬 수 있다. ‘생선은’은 ‘맛있다’의 논항이 아니므로 ‘도미가 제일 맛있다’는 기술동사 ‘맛있다’로 해석되면 온전한 문장을 이룰 수 있다. ‘it is

the snapper that is most delicious’로 해석된다. ‘도미가 제일 맛있다’가 ‘나는 도미가 제일 맛있다/ 철수는 도미를 제일 맛있어 한다’로 해석되는 경우는 경험주 논항이 생략된 온전한 주관동사 구문으로 해석된다. ‘I like the snapper most’

- (16) 가. 생선은 난 도미가 제일 맛있어.
- 나. 생선 중에 난 도미가 제일 싫어.
- 과일 중에는 사과가 제일 싫고.

부사어, 부사절 성분이 주제화된 구문은 ‘주제어’를 뺀 나머지가 온전한 구성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중 주어 구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기본 문형을 이루고 있는 ‘코끼리는 코가 길다’와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류와는 관계없다(목정수·조서희 2021).

한편, ‘생선은 도미가 맛있다’류의 구조를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와 같은 것으로 보려는 시도도 있는데(김민국 2025), 우리는 앞에 든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 ‘생선은’은 부사어가 주제어화된 것으로 본다. 즉 우리는 주제어를 정보 구조 차원에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모두 원래의 통사적 기능을 유지하는 성분으로 본다는 것이다.

(15마b, 15마c)의 ‘커피는 잠이 안 온다’류도 외관상 이중 주어문의 형식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음으로도 증명된다. ‘커피는’이 ‘커피로는’, ‘커피를 마시면’의 의미 해석을 받는, 즉 부사어의 주제화 구문은 그 나머지가 [잠이 오다]의 형식으로 제약되지 않는다. 주술 관계를 충족시키는 문장 단위가 자유롭게 올 수 있다.

- (17) 가. 커피는 (나) 잠을 잘 수가 없어.
- 나. 커피는 우리 오래 책을 볼 수 있을 거야.
- 다. 커피는 그녀가 생각이 나는 거 있지 난.

그리고 ‘커피는’이 ‘할아버지는’으로 바뀌어도 주체존대선어말어미 ‘-시-’와 호응될 수 없다는 것도 ‘커피는’이 주어 성분과 무관함을 말해 준다.

- (18) 가. 할아버지는 (나) 잠이 안 와. <- 할아버지를 뵈면 (나)
 잠이 안 와.
- 나. *할아버지는 (나) 잠이 안 오셔. <- *할아버지를 뵈면 (나)
 잠이 안 오셔.

(19) 가. 할아버지는 나 잠을 못 자겠어. <- 할아버지를 뵈면 나
잠을 못 자겠어.

나. *할아버지는 나 잠을 못 주무시겠어. <- *할아버지를 뵈면
나 잠을 못 주무시겠어.

(15마d)의 ‘국어학은 취직이 어렵다’도 ‘국어학을 해서는 우리 취직하기 어렵다’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국어학을 해서는’이라는 부사어가 주제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15마e)의 ‘토요일은 비가 온다’류도 ‘코끼리는 코가 길다’나 ‘나는 호랑이가 싫다’와 같은 패턴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목정수·조서희 2021). ‘토요일은’ 성분은 ‘토요일’, ‘오늘밤’, ‘오늘’, ‘어제’ 등처럼 후치사의 도움 없이도 부사어로 사용될 수 있는 성분이 주제화된 것이다. 따라서 다음 문장들에서 ‘토요일(은)’ 부사어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와 무관하게 온전한 문장을 구성한다. ‘토요일은’ 성분은 서술어뿐만 아니라 나머지 논항들과 논항 관계를 맺지 않는다.

(20) 가. 토요일은 학생들이 테니스를 친다.

나. 토요일은 우리 소풍 간다.

다. 토요일은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다.

마지막으로 이중 주어문의 한 유형으로 제시된 ‘내일 날씨는 비가 온다’류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이 유형의 구문에서 ‘내일 날씨는’을 틀 주제어로 보는 논의가 있다(함병호 2022, 2025).⁸⁾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구문이 기본 문형으로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내일 날씨는’에 대해 ‘비가 온다’가 서술하는 분절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구문이 성립하는 환경을 인정한다면 ‘내일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과 같은 부사어구나 부사절로 해석이 되는 부사어의 주제화 구문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⁹⁾

8) 함병호(2022)는 한국어 주제어의 개념과 주제어 구문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정상형용사의 이중 주어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완전문에 선행하는 ‘은/는’ 결합 성분들의 통사적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통사적 주제어의 개념이 필요하다. 주제어는 용언의 논항구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주제의 의미 특성을 지닌 문장 성분이다. 이러한 한국어의 주제어 구문은 ‘1단계 정보구조 반영 → 2단계 논항구조 반영’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다. 정보구조에 의해서 주제가 형성되면 후행 성분은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주제 성분이 논항구조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 주제 성분은 통사적 주제어로 분석된다. 이중 주어문의 주제어는 NP2의 요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논의되기도 하지만 주제어의 성립에 이러한 관련성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심리형용사 구문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심리 형용사의 문두 성분은 주제어보다는 주어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9) 코퍼스 자료에서 찾은 예문도 ‘오늘은/(?오늘 날씨는) 전국적으로 흐리겠고 오후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정도로 나타나지 ‘오늘 날씨는 비가 온다’ 형식은 찾아지지 않는다.

3.3. 주제어와 조사 ‘은/는’

통사적 주제어뿐만 아니라 주제어, 즉 신서인(2025)에 따르면 주제부의 요소는 조사 ‘은/는’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를 증명하기 위해, 내세우는 예들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21) 코끼리는 코가 길다.

(22) 가. 철수는 동생이 대학에 다닌다.

나. 철수는 동생이 코가 크다.

다. 철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23) 김선생님은 김선생님이 직접 운전을 하신다.

(24) 가. 나는 이 시합에서 동생이 이긴다.

나. 나는 아기가 잔다.

(21)의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에 대해서는 이미 ‘코끼리가 코가 길다구’에서 처럼 주제어가 ‘이/가’로 실현된 예가 많이 찾아지므로 주제어가 ‘은/는’으로 실현된다는 것의 반례가 될 수 있다.

(22)에 대해서는 이런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 소위 통사적 주제어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술어의 ‘-시-’가 호응하는 요소가 코멘트 내의 성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주제어를 제외한 나머지가 온전한 문장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25) 가. 내 동생은 대학에 다닌다.

나. 철수 동생은 코가 크다.

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24)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소위 통사적 주제어라고 하는 성분을 뺀 나머지도 온전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26) 가. 내 동생은 이 시합에서 이겼다.

나. 아기가 자고 있다.

본고는 우선 이런 문장에 대해서는 주제어가 복문의 주절의 주어로 쓰이는

구조가 매우 일반적이라고 본다. 단문으로서 ‘나는 남편이 살림을 한다’, ‘나는 아기가 잔다’ 등은 매우 어색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코끼리는 코가 길다’ 나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류는 단문으로서 기본문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목정수·조서희 2021).

- (27) 가.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대학을 그만두었다.
- 나. 철수는 친구가 대학에 다닌다고 자랑한다.
- 다. 나는 동생이 이긴다고 생각한다.
- 라. 나는 (내가 돌보는) 아기가 자서 다행이다.

그리고 (22)와 같은 종류의 이중 주어문은 사실 모든 문장 유형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만큼 단문 밖의 요소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게다가 이런 종류의 이중 주어문은 무한히 소유 관계의 구조로 반복되는 다중 주어문을 생성할 수 있다.

- (28) 가. 철수는 친구가 사업을 맡아먹었다.
- 나. 철수는 동생이 사업가를 꿈꾼다.
- 다. 철수는 할머니가 돈을 많이 버신다.

- (29) 가. 철수는 친구가 동생이 잘 생겼다.
- 나. 철수는 동생이 친구가 오빠가 마누라가 돈을 잘 번다.

그리고 주제어는 반드시 ‘은/는’으로 표시되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신서인 (2025)에 따라 주제부와 언급부로 나누어 문장을 분석할 때 주제부의 성분은 ‘은/는’으로 실현되고 대조의 의미가 약해진다고 했으나, 주제부의 성분은 정보구조에 따라 신정보로 재언급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이/가’도 나타날 수 있다.

- (30) 가. 커피는 잠이 안 온다. cf. *?커피가 잠이 안 온다.
- 나. 무슨 소리야? 커피가 잠이 안 온다고?
커피가 잠이 왜 안 와? 잠만 잘 오던데.

- (31) 가. 철수는 동생이 머리가 좋다.
- cf. *?철수가 동생이 머리가 좋다.
- 나. 철수가 동생이 머리가 좋다고 했어?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제부]를 [언급부]와 다른 층위에 놓더라도 [언급부]의 논항 구조에서 조사 ‘이/가’와 ‘은/는’은 표시하지 않는다.

- (32) 가. [철수는] <e 사과를 잘 먹는다>. [철수, 사과, 먹-]
나. [철수가] <e 사과를 잘 먹는다>. [철수, 사과, 먹-]
다. [사과는] <철수가 e 잘 먹는다>. [철수, 사과, 먹-]
라. [사과를] <철수가 e 잘 먹는다>. [철수, 사과, 먹-]

- (33) 가. [코끼리는] <e 코가 길다>. [코끼리, 코, 길-]
나. [코끼리가] <e 코가 길다>. [코끼리, 코, 길-]
다. [코는] <코끼리가 e 길다>. [코끼리, 코, 길-]
라. [코가] <코끼리가 e 길다>. [코끼리, 코, 길-]

- (34) 가. [커피는] <e (나) 잠이 안 온다.>
[커피로/커피를 마시면, 나, <잠, 오->]
나. [커피가] <e (나) 잠이 안 온다.>
[커피로/커피를 마시면, 나, <잠, 오->]

다만, 주제부에 놓이는 성분이 ‘은/는’으로 실현되면 종결어미의 서술어와 호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가’로 실현되면 내포절 안에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다.¹⁰⁾

- (35) 가. 코끼리는 코가 길다.
나. 코끼리가 코가 긴 이유는?
다. 코끼리가 코가 길다고?

- (36) 가. 철수는 사과를 잘 먹는다.
나. 철수가 사과를 뭘 잘 먹는다고 그래?
다. 철수가 사과를 잘 먹는다고?

- (37) 가. 커피는 잠이 안 온다.
나. 커피는 (나) 잠이 안 와.
다. 커피가 (내가) 잠이 오겠냐?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 봐라.

다음으로 (23)의 ‘김선생님은 김선생님이 직접 운전을 한다’류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 유형도 이중 주어문의 한 유형으로 제시되거나, 주제부와 언급부를

10) 일본어학의 ‘係り結び’와 비견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나누는 데 근거가 되기도 했다. 신서인(2025)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분석하였다.

- (38) 가. 김 선생님_i은 | [김 선생님_i이 직접 차를 운전하_i신다].
나. 김 선생님_i은 | [_{ei} 직접 차를 운전하_i신다].

신서인(2025)에서는 주제부에 실현된 그 요소는 서술어와 직접적인 통사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소위 ‘주어이자 주제’인 성분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달리, ‘김선생님은’은 주어가 주제화된 성분으로 분석하고, [김선생님이 직접]을 부사절의 소절이 내포된 구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문장에 이러한 부사절 혹은 부사어구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9) 가. 철수는 철수(가) 홀로 성을 지켰다.
나. 나는 나(만) 혼자 얼굴이 예뻐다.

4. 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통사론의 핵심은 어미라는 통사 단위의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소위 ‘화행 통사론’은 이미 한국어 통사론 영역 내부에 존재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통사론의 본령은 논항 구조를 넘어서서 서구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화용론, 담화론까지 확대된다. 본고의 시각으로 표현하면, 한국어 통사론은 화청자 인칭을 결정하는 인칭 구조 연구에서 시작해서 행위자 인칭을 담당하는 논항 구조 연구로 끝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문장의 잉여 성분으로 보이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통사적 주제어’란 개념은 한국어 통사론 논의에서 불필요하다. 다만, 주제어란 정보 구조 차원에서 분절되는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주제어는 원래의 통사적 기능을 유지한다. 주어의 주제어화, 목적어의 주제어화, 보어의 주제어화, 부사어의 주제어화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한국어의 주된 주제어는 주어의 주제어화에서 유도된 것이다. 그만큼 주제어(topic)는 주어(subject)와 가장 가까운 유사 개념이라 할 수 있다(목정수 2016, 2023). 이와 관련된 조사 ‘은/는’과 ‘이/가’의 관계도 이에 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조사 ‘은/는’과 격조사

‘이/가’로 분리된 것이 아닌 동일 계열의 관계로서 한정조사(determiner)로 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 문헌>

- 김건희. 2017. 「주격중출 구문에 대한 일고찰: 정보구조와 문장 확대 구성 관점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76. 1~33쪽.
- 김민국. 2021. 「이중주어문의 유형과 ‘진짜’ 주어의 판별 문제: 이중주어문의 합리적 설명을 위하여」, 유현경 편 『한국어 통사론의 과제와 도전』. 집문당. 63-104쪽.
- 김민국. 2025. 「이중주어문의 NP1 성분에 대한 고찰: 주제어와 서술절의 제자리 찾기」, *형태론집담회 발표문*.
- 김용하. 2022. 「화행 통사론의 전개와 한국어의 근문 현상」, *인문학연구* 51. 113-138쪽.
- 김태인. 2019. 「한국어 문장의 의미 층위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김태인. 2025. 「문장 의미 연구의 궤적과 최근 동향」, 제56차 한국어의미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주제: 의미론 연구의 현황1 -단어와 의미, 문장과 의미, 의미 변화와 의미). 135-156쪽.
- 남기심. 1985. 「주어와 주제어」, *국어생활* 3. 92-103쪽.
- 목정수. 1998. 「한국어 격조사와 특수조사의 지위와 그 의미: 유형론적 접근」, *언어학* 23. 47-78쪽.
- 목정수. 2003. 『한국어 문법론』. 월인.
- 목정수. 2004. 「기술동사와 주관동사 앞의 ‘가형 성분’의 통사적 기능: 단일주어설 정립을 위하여」, *어문연구* 124. 37-62쪽.
- 목정수. 2005. 「국어 이중 주어 구문의 새로운 해석」, *언어학* 41. 75-99쪽.
- 목정수. 2011. 「한국어 구어 문법의 정립: 구어와 문어의 통합 문법을 지향하며」, *우리말글* 28. 57-98쪽.
- 목정수. 2013. 「선어말어미 ‘-시-’의 기능과 주어 존대」, *국어학* 67. 63-105쪽.
- 목정수. 2014a. 『한국어, 그 인칭의 비밀』. 태학사.
- 목정수. 2014b. 「한국어 서술절 비판: 통사 단위 설정을 중심으로」, *현대문법연구* 76. 101-124쪽.
- 목정수. 2016. 「한국어의 진성 주어를 찾아서」, *어문연구* 44(3) 171호. 7-46쪽.
- 목정수. 2017. 「높임말을 다시 생각한다: 이른바 ‘사물 존대’ 현상에 대한 상념」, *새국어생활* 27(1). 31-50쪽.
- 목정수. 2018. 「서술절 설정에 대한 재론: ‘서술절 개념 비판에서’ ‘쪼개진 목적어’ 유형 정립까지」, *국어학* 87. 39-83쪽.
- 목정수. 2019. 「한국어 통사론의 나아갈 방향: 논항 구조에서 인칭 구조로의 전환」, *한글* 80(4). 891-940쪽.
- 목정수. 2020. 『언어유형론, 정신역학론 그리고 한국어 문법』. 한국문화사.

- 목정수. 2022. 「국어학 문법 용어에 대한 지식고고학적 탐사: 국어학과 일반언어학의 대화」, 어문연구 193. 5-48쪽.
- 목정수. 2023. 『한국어 구문 연구: 유형론적 접근』. 박이정.
- 목정수·이상희. 2016. 「문두 여격어 구문의 정체: 여격주어 설정은 타당한가?」, 형태론 18(2). 217-241쪽.
- 목정수·조서희. 2021. 「이중 주어 구문 새로 보기: 기본문형 설정과 관련하여」, 국어국문학 196. 5-48쪽.
- 박소영. 2019. 「한국어 독립성분과 화용 정보의 통사 구조」, 국어학 89. 25-62쪽.
- 박소영. 2024. 「통사론: 다층 이론」,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대한민국학술원. 811-834쪽.
- 박철우. 2003.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역락.
- 신서인. 2025. 「주제부와 언급부의 설정을 통한 한국어 문장 구조의 분석」, 국어학 113. 87-120쪽.
- 안명철. 2001. 「이중주어 구문과 구-동사」, 국어학 38. 181-207쪽.
- 유현경. 2020. 「국어학회 60년과 한국어 통사론」, 국어학 93. 427-467쪽.
- 유현경. 2021a. 「서술절 다시 보기」, 어문논집 88. 33-66쪽.
- 유현경. 2021b. 「주제어의 통사론적 해석」, 국어학 98. 3-30쪽.
- 이선웅·박형진. 2019. 「문장성분으로서의 주제어」, 언어 44-3. 633-655쪽.
- 이선웅·문병열·오규환. 2024. 『한국어 문법론의 점과 선』. 한국문화사.
- 이호승. 2019. 「문장의 잉여 성분과 제시어」, 언어와 정보 사회 38. 121-144쪽.
- 임동훈. 1997. 「이중 주어문의 통사 구조」, 한국문화 19. 31-66쪽.
- 임동훈. 2022. 「서술어에 절이 오는 이유」, 국어학 102. 37-60쪽.
- 임창국·김양진. 2022. 「한국어 호격어 연구사: 현황과 전망」, 인문학연구 51. 139-167쪽.
- 임흥빈. 1972. 「국어의 주제화 연구」, 국어연구 28.
- 임흥빈. 2007.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부.
- 임동훈. 1997. 「이중 주어문의 통사 구조」, 한국문화 19. 31-66쪽.
- 전영철. 2009. 「‘이/가’ 주제설에 대하여」, 담화와 인지 16-3. 217-238쪽.
- 최규수. 1999. 『한국어 주제어와 임자말 연구』. 부산대학교출판부.
- 최성호. 2024. 『한국어 문법론: 우리말의 본모습 찾기』. 한국문화사.
- 최윤지. 2019. 「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함병호. 2020. 「독립어로서의 주제어 설정에 대하여」, 한말연구 58. 325-352쪽.
- 함병호. 2022. 「통사적 주제어에 대한 고찰」, 돈암어문학 41. 199-227쪽.
- 함병호. 2025. 「통사적 주제어의 개념 정립을 위하여」, 형태론집담회 발표문.
- 허세문. 2022. 「지각자의 성격에 대한 소고: 화행구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1. 43-112쪽.

- Austin, J. R..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 Haegeman, L. and H. Virginia. 2013. The syntacticization of discourse, In Raffaella Folli (ed.), *Syntax and its limits*. Oxford University Press.
- Ross, J. R.. 1970. On Declarative Sentences, in: R.A. Jacobs and P.S. Rosenbaum, ed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Ginn: Waltham, Mass.
- Speas, P. and C. Tenny.. 2003. Configurational properties of point of view roles, In Anna Maria Di Sciullo (ed.), *Asymmetry in grammar* 1. John Benjamins.
- Searle, J..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628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광복 80년, 우리말 문법 연구의 성과와 과제
2025년 5월 16일(금) 10:00~15:40 / 한글학회 강당

□ 제2부/ 주제 발표

우리말 문장 구성과 결합의 몇 양상

최응환

국립경국대학교 교수
unchoi@gknu.ac.kr

1. 들머리

‘문법’은 “언어에 내재 되어 있는 원리 혹은 규칙이다”(고영근·구본관 2018 : 3). 이를 반영하면, ‘문법학’은 특정 언어 단위의 배열이나 통합(구성)에 내재하는 규칙이나 원리를 기술하는 언어학 분야이다. 문법학 내에서 형태론(形態論, morphology) 그리고 통사론(統辭論, syntax) 혹은 문장론(文章論)이 ‘단어(형태)’와 ‘문장’이라는 분립적 언어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국어의 교착성은 두 영역의 접면을 두게 한다.

본 발표는 우리말 문장의 구성 및 통합에서 관찰되는 몇 양상을 통해 문장론 연구 과제의 단초를 들추어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점에서 본 발표는 통사론(文章論)¹⁾에 더 근접해 있지만 특정 이론에 기댄 문장의 통사 현상 제시와 주장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 본 발표자는 통사론(文章論) 내에서도 문장 구조와 그 형성 기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생성문법적 관점이나 설명에 대한 식

1) 이렇게 표기 방식을 취하는 것은, 비록 주장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겠지만, 발표자는 문법론의 해당 분야에 대해 상위 개념으로 ‘문장론’을 두고 ‘문장 구성론(성분론)’과 ‘문장 구조론(통사)’라는 하위 영역 잡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견이 낮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부분적 인용이나 언급에 그치고 기술 문법적 관점이나 설명에 머물게 될 것이다.

현재 암묵적으로 보편화 된 것으로 보이는 용어 ‘통사론’ 및 연관 각 용어에 대한 재탐색을 시도해 볼 것이며, 우리말 문장 구성의 대등 방사적 대응 관계를 보여 그것이 우리말 통사론[文章論] 연구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수용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말의 교착성이 어떻게 검토될 필요가 있는지도 내용으로 삼을 것이다.

서구 문법학사를 다룬 여러 선행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옳고 그름의 법칙성 교육 및 실용에 초점을 둔 규범문법과 언어의 구조와 원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기술하거나 설명하려는 구조언어학 기반 기술문법에서 문장을 대상으로 하는 ‘syntax’는 그 문법 내에서 부분적 내용 또는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그 시기 ‘문법’은 단어 중심(품사, 형태론)의 기술 체계를 가지고 있어 ‘syntax’는 주목받지 못했다.²⁾ 그 이후 Chomsky(1957)에 의해 통사구조의 보편성에 기반한 문장 도출을 제안한 변형문법부터 최소주의로 이어지는 일련의 생성문법이 문장 구조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측면을 연구 대상으로 다루게 되면서 문장 구조 중심의 ‘syntax’는 문법학의 큰 영역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생성문법 외의 다양한 통사이론³⁾이 문법 연구의 장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물론 그 흐름 때문에 기술문법의 성과나 연구 방법론이 부정되거나 ‘형태론’ 연구의 위상이나 범위가 축소된 것은 아니다. 기술 문법적 관점의 연구가 더욱 정밀화되고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다.

위와 같은 서구 문법학의 대체적인 흐름과 상황은 국어 문법학계에도 활발히 수용되었다. 그러나 기원전 3~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서구 문법학의 그간 누적 성과를 우리 문법학계에서는 19세기 중후반에 가서야 그것도 다분히 타의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음은 아쉬운 일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말 중심의 전통문법을 세우려는 노력과 성과 그리고 승계를 통한 현대 문법 연구에서 이론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 기술문법의 정밀화에 이어 한국어 문법이나 학교문법을 포괄하는 한국어 표준문법⁴⁾이 나타나기도 하였고, 생성문법이나 최소주의 문법에 따른 문장 형성의 보편성 추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도 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를 거치는 동안 우리말 문법 연구는 순탄치만은 않았던 듯하다.⁵⁾ 발표자의 선행 연구 탐독이 광범위하지 않아 미처 확인하지 못했겠으나,

2) 이러한 상황은 유응호(1936)의 “원래 문장론은 형태론과 같이 문법의 일부분으로 학자에 따라서는 광의 형태론으로도 취급하는 만큼(하략)”이라는 언급에서도 확인된다.

3) ‘어휘기능 문법, 구구절 문법, 관계 문법’ 등의 통합기반 이론들이 그것인데 대체로 변형 생성문법의 근간이 되는, 문맥이나 의미가 배제된 ‘자율 통사론’에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통사이론이 나타났고 국어 문법 연구에서도 그 적용이 관찰된다. 이러한 상황은 문장론 연구 준거의 다양성을 마련하고 연구 활성화 계기를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유현경 외(2018), 한국어 표준문법, 집문당. 참조

현대 문법학으로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국어 통사론 연구가 서구 문법 이론이나 그 준거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본 발표 논제를 ‘우리말 문장’이라는 한 것은 국어 문장의 ‘개별언어적 특성’을 좀 더 조망하거나 관찰할 기회를 얻고자 함이다. 물론 언어 보편성이나 유형론적 비교를 무시한 국어의 개별언어적 특성만을 고집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지양해야 할 점이겠다. 그러나 그간의 우리 문법 연구 성과로 보면 자생적 국어 문법 이론 제안과 기술에 대한 시도를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없지 않다.⁶⁾

2. ‘syntax’⁷⁾의 번역어 사용과 인식

현재 국어 ‘문장’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의 한 분야를 이르는 여러 용어 중 ‘통사론(統辭論)’이 보편화 된 듯하다.⁸⁾ 그런데 그 용어의 사용 연원이나 의도 및 이유가 다소 불투명한 듯하다. 아마도 연구자 간의 암묵적 약속에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관련 용어를 재검토하여 연구자 간에 명시적 약속이 있는 용어 사용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설명되었듯이, ‘syntax’는 ‘바르게 말하고 쓰는 기술(技術)’로서의 라틴문법에서 있는 5분법 중 하나다⁹⁾. 그 ‘syntax’는 학문문법의 세분류 ‘phonology, accidence, syntax’ 중 하나이며¹⁰⁾ 기술문법의 2분류(형태론, 통사론)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¹¹⁾ 대표적인 국어 문법서인 최현배(1937)의 ‘월갈’ 설명에서 ‘syntax’라는 영문명이 인용되었

5) 서구의 문법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법학사의 길지 않은 국어 문법학의 입장에서 학교문법이 기술문법과 혼재되거나 거기서 도출되는 양상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학교문법의 정립과 관련된 사항은 최용환(2024) 참조.

6) 최근 국어 문장론 또는 통사론과 연계한 몇 논의에서 Goldberg, Adele E(2003)의 "Constructions: a new theoretical approach to language"이 언급되고 있다. 논제에서 확인하듯이, 기존 통사론에 대한 변형적 접근이기보다는 언어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확인 결과 Goldberg, A. E., & Suttle, L. (2010)의 "Construction Grammar"으로까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7) 영문 용어 ‘syntax’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한 저서 내에서나 연구자에게서 ‘syntax’를 대신하는 것으로 몇 개의 번역 용어가 사용되어 특정화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불어 본 발표에서 한 자어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용어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더 잘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8) “통사론이라는 술어는 그리스어 ‘syntassein’에 기원하는데 (중략) 한국어 문법학계에서 쓰는 여러 술어 가운데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이 그 용어이다” 권재일(1992 : 24).

9) 중세 라틴문법의 5분류는 ‘orthography(철자법), etymology(어원론, 어형론), syntax(구문론, 통사론), prosody(운율론), ‘punctuation(句讀法)’이다. 이후 최초 영문법서로 간주되는 William Bullokar의 <Bref Grammar for English(1586)>에서나 최초의 현대 영문법으로 취급하는 Lindley Murray의 <English Grammar(1975)>에서도 ‘syntax’ 관련 내용이나 용어가 유지되며 현재에 이른다. 이에 대해서는 조병태(1984 : 57), 황인태(2015 : 495), ‘https://archive.org/’를 참조.

10) H. Sweet(1891, 1898)의 <A New English Grammar logical and history v.1,2> 참조.

11) Otto Jespersen(1924)의 <The Philosophy of Grammar>에서의 문법 체계 참조

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그 이전 시기 국어학자의 각종 문법서나 연구서에서는 해당 용어의 인용이 확인되지 않는 듯하다.¹²⁾

‘syntax’는 국어 문법에서 ‘語法¹³⁾, 짬듬갈, 월갈, 문장론(文章論), 구문론(構文論), 통어론(統語論), 통사론(統辭論)’ 등 다양한 용어로 불려 왔다. 국어 전통 문법에서는 ‘짬듬갈, 월갈, 문장론’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고, 변형 생성 문법이 도입되는 60년대 ‘syntax’가 문법의 주요 부문으로 주목되는 과정에서 국어학계에서 ‘구문론, 통어론, 통사론’ 등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문(론)’은 학문 분야로서의 명명보다는 ‘문법 단위’로 인식될 여지가 크다. ‘통어’는 허웅 선생님의 의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으나 ‘command’로서의 ‘統御(통어)’와 혼동될 우려가 크다(권재일 1922 : 24). 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용어 중 ‘통사론’이 현재 보편화 되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을 확인해 보자.

첫째, ‘統辭’라는 용어의 사용 시기이다. ‘통사(론)’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국어 문법서나 문서를 찾지 못하였지만, 60년대 이전인 이송녕(1953), 이희승(1955) 등에서 확인된다. 이송녕(1953)에서 언급한 ‘통사(統辭)’는 고등학생용 문법 교과서에서의 한 부문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동일 연도 출간의 <중학 국어 문법>에서 ‘총론(소리 포함), 품사론, 문장론’으로 내용 구성한 것과 대비하여 <고등 국어 문법>은 ‘총론(문법학), 음운, 형태, 통사(統辭)’라는 이름으로 내용이 구성돼 있다. 이희승(1955, 197)에서는 “품사라는 것은 모든 단어 즉 어휘가 문법적 성질이나 기능에 의하여 어떻게 분류될 것인가 하는 統辭論(文章論, syntax)적 범주에 관한 술어다.”라는 언급이 보인다.

둘째, ‘통사’라는 용어의 사용 의도 및 용어 간의 의미 축자적 의미 대비이다. 서구 문법의 ‘syntax’는 주로 ‘sentence’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 내용임으로 국어 전통문법에서 ‘짬듬갈, 월갈, 문장론’ 등과 같은 용어가 수용된 의도나 의미는 충분히 이해된다. ‘통어’는 ‘통사’란 용어의 문제의식과 단어나 어절의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허웅(1968)에서

12) 이전 시기의 것으로 서양인에 의한 국어 문법서에서는 ‘syntax’ 또는 ‘syntaxe’ 등의 용어가 충분히 확인될 것으로 짐작된다.

13) 이희승(1939 : 9)에서의 ‘語法’은 ‘syntax’ 준하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 논의에서 언어학의 하위 분야로 ‘音聲의 연구(音聲學/論, (phonetics), 音韻學/論(phonology)), 語義의 연구(語義學(semantic), 語源學(etymology), 語辭學 혹은 語辭學), 語態의 연구(語態論, 형태론(morphology)), 語法의 연구’를 두었다. 여기서 ‘어법’ 연구에 대해 “보통 語法이라 하면 단어의 상호적 관계를 규정하는 法則을 의미한다. 그러나 범위를 확장하여 어떠한 언어 집단에서 행하여지는 언어 관습상에 발견되는 일체의 법칙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어법’이 언어학 하위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았다는 점과 그 설명에서 보면, 어느 정도 ‘syntax’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語法學’과 같은 학문 명칭과 영문명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내용을 소략히 다루었다는 점에서 당시 해당 분야의 인식은 깊지 않은 듯하다. 그리고 ‘語法’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통사론[文章論]이 아니라 ‘말의 원리나 규칙’으로서의 ‘문법’을 이르는 것으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본 용어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지 않는다.

‘통사’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허웅(1975 : 26)에서는 “(통)‘辭’가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어 문법에서 일정한 정의가 주어지지 쓰이는 일이 없으므로 (중략) ‘어(語)’는 낱말의 뜻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며 또 어절의 뜻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통어론’으로 바꾸어 쓰고 있으며¹⁴⁾ 허웅(1999)에서는 저서의 제목으로 ‘통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전후민(2024 : 79)에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이 보인다. “統辭論에서 ‘辭’는 ‘接辭’의 ‘辭’와 한자가 같고 ‘品詞’의 ‘詞’와는 다르다. 그런 점에서 ‘統辭論’보다는 ‘統詞論’이 낫고 ‘統語(論)’의 ‘語’를 ‘단어’로 해석한다면 ‘統語(論)’이 더욱 나은 용어일 수 있다.”라고 하여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용어 ‘통사(統辭)’에 대해 재고의 여지를 남겼다.

실제 ‘통사’라는 용어의 쓰임과 관련해 그 이유나 의도가 분명하지 않은 듯하다. 앞서 본 이희승(1955)에서의 언급을 다시 보면, ‘통사론’이라는 것이 품사 분류 대상, 즉 ‘문장에서의 쓰임을 고려한 단어 부류(part of sentence)’ 정도에 그치고 있어 통사론의 본령적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게다가 그 저서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없다. 다만 이송녕(1953)에서 용어의 사용 의도나 의미를 짚어내 볼 단서가 보인다. 문법 교과서 4편 ‘통사(統辭)’에서 ‘글의 성분, 글의 구조, 경어법, 글의 호응’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문장론의 내용에 해당한다.¹⁵⁾ 또한 이송녕(1953 : 7-8)에서 ‘통사론(統辭論, syntax)’에 대해 “이것도 문법 연구에 들어가는 것이다. 통사론은 여러 말들이 그 말의 종류에 의하여 글에서 어디에 놓여야 하는가, 또 어느 말은 글에서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글은 도대체, 어떻게 엮여야 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개념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통사’라는 용어 사용의 의도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면, ‘syntax’에 대응하는 용어 자체를 대상으로 좀 더 확인해 보자. 우선 사전에서의 뜻풀이¹⁶⁾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전	표제어	뜻 풀이
<표준>	①통사론 ②문장론	(①, ②, ③, ④) 문장을 기본 대상으로 하여 문장의 구조나 기능, 문장의 구성 요소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언어학의

14) 일본 문법서에는 ‘句論, 文章論, 構文論’ 등으로 쓰다가 현재는 대체로 ‘統語(論), 統語(的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15) 해당 부분에서 ‘문장’이라는 용어는 거의 쓰이지 않고 ‘글’이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장론보다는 담화 또는 텍스트(론)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여겼으나 실제 사용된 예문들은 거개 문장에 해당한다. 거기서 ‘글’은 문자로 쓰인 문장 정도로 이해돼 ‘문장론’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16) <표준>은 ‘표준국어대사전’, <고대>는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는 ‘우리말큰사전’이다.

	③통어론 ④구문론	한 분야이다.
	①통사 ②문장 ③월 ④구문	(①, ②, ③)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 이런 것이 생략될 수도 있다. 글의 경우, 문장의 끝에 ‘.’, ‘?’, ‘!’ 따위의 문장 부호를 찍는다. ‘철수는 몇 살이니?’, ‘세 살.’, ‘정말?’ 따위이다. (④) 글의 짜임
	①통사론 ②통어론 ③구문론 ④월갈 ⑤문장론	(①, ②, ③) 단어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문장(文章)의 구조나 구문(構文)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각 문장 성분이 구성되는 규칙을 연구하는 분야. (④) 단어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구(句), 절(節), 문장의 구조나 기능을 연구하는 문법 (⑤) 문장의 구조나 기능, 문장의 구성 요소, 문장 성분 사이의 관계 등을 다루는 문법의 한 갈래
<고대>	①통사 ②문장 ③월 ④구문	(①, ②) 일반적으로 어(語), 구(句), 절(節)과 함께 문법을 나타내는 언어 단위의 하나. 사고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이다. 하나 이상의 어절(語節)로 구성되며, 주부(主部)와 술부(述部)로 나뉜다. 현대 언어학에서는 문장의 내용에 해당하는 명제와 화자의 주관적 태도가 드러나는 서법으로 가르기도 한다. 내용적으로는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감탄문, 명령문 등으로 구분되며, 형식적으로는 단순문, 복합문(내포문, 접속문) 등으로 구분되는데, 한 단어로 된 일어문(一語文)도 있다. 보통 문장의 끝에 ‘.’, ‘?’, ‘!’ 등의 문장 부호를 사용한다. (③) 언어 단위의 하나. 사고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이다. (④) 글의 형식적 짜임새
<우리>	월갈	[월갈] 월에 관한 여러 가지의 말본을 연구하는 부문 [월] 한 가지의 짜인 생각을 나타내는 말 : 통사론, 문장론, 통어론, 구문론 = 월갈 : 통사, 문장 = 월 : 구문 = 월의 짜임

<표 1> 각 용어의 사전별 뜻풀이

‘언어학 분야’의 전문 용어로 ‘통사론’은 아래처럼 ‘문장론, 월갈, 통어론, 구문론’과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¹⁷⁾ ‘통사론’만을 두고 보면,

17) ‘통어(統語)’라는 용어는 <표준, 고대, 우리> 모두에서 비표제어이며, ‘월갈’은 <표준>에서 비

<표준>에서는 ‘문장론’과 정의가 같다. ‘문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분야로서 곧 ‘통사론=문장론’이 되는 셈이다. <고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통사론, 통어론, 구문론, 월갈’은 ‘단어 결합’을 드러낸 풀이이며, ‘문장론’은 대상으로서의 문장에 초점을 둔 풀이로 차이가 보인다. 문장 단위의 측면에서 보면 <표준>은 ‘통사=문장’으로 풀이되고 있다. <고대>에서는 <표준>과 동일한 풀이다. 다만 ‘월’에 대해, ‘sentence’의 기원적 의미인 ‘뜻을 드러낸 것, 의미 완결’에¹⁸⁾ 초점을 둔 풀이를 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상 여러 용어의 의미를 대략 살펴보았는데 거개가 품사적 단위로서의 ‘(단)語’와 상관성을 고려한 의도나 연구 대상으로서의 ‘문장’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yntax(=together+arrange)’가 갖는 기원적 의미를 고려하면 그 의미와 의도는 의심된다. 발표자는 이 점을 반영해, ‘syntax’의 번역어로 사용된 다양한 용어 자체가 갖는 축자적 의미를 가늠하여 아래와 같이 대비해 보았다.

syn + tax (together) (arrange)	[단위]	[대상] sentence	(특정 단위) 문장으로 통합하고 배열하는 문법 분야
짬, 듬	(기, 짬말)	(말)	
		문장/월	대상으로서의 ‘문장/월’에 대한 연구 분야
構		文	‘文의 짜임(결합/통합, 배열)’에 대한 분야
統	語		‘(단)어’를 결합/통합하고 배열하는 것에 대한 분야
統		辭	‘辭의 결합/통합, 배열 양상’에 대한 분야
	辭		‘辭’를 결합/통합하고 배열하는 것에 대한 분야

<표 2> 각 용어의 축자적 해석

‘짬듬갈’은 주시경(1910 : 36)에서의 용어이다. 이를 간략히 옮겨보면¹⁹⁾ “‘짬’은 동사 ‘짜-’에 ‘-口’을 더한 것이니 짜는 것이고 꾸밈(‘단위 간의 상관관계 또는 구성’ 즉 ‘서로 엮는다.’는 의미로 이해됨)과 같은 뜻이다. ‘듬’은 말이 꾸며지는 여러 가지 法을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짬듬갈’은 ‘다’ 즉 ‘짬말’이 꾸며지는 여러 가지 法을 배우는 것이다.”²⁰⁾와 같다. 그 풀이를 보면 용어 차원에서 ‘문장론’보다 좀 더 섬세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짬듬’은 다른 용어에서의 ‘構, 統’과 더 근접된 의미로 파악된다. 문장론/월갈은 해당 연구 분야의 대상을 학문 분야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다. 용어상에서 배열과 통합의 의

표제어이다. 그리고 ‘구문’ 자체는 언어학적 전문 용어로서가 아니라 일반명사로서의 뜻풀이가 되고 있다.

18) ‘sentence’는 라틴말의 sententia(=meaning)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김민수 1960 : 74).

19) 발표자가, 원 뜻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현대적 표현으로 옮긴 것이다.

20) 여기서 ‘말’은 ‘기(품사)’와 ‘다’로 구성되는데, ‘짬듬갈’은 ‘다’를 대상으로 한다 하였으므로, 품사론과 문장론의 구분을 짐작할 수 있다.

미를 읽어낼 수는 없지만, 연구 대상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자체적인 특성은 담아내는 것 같다.

‘構文論’은 용어상 ‘문’의 ‘짜임’이라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겠고, 서정수(1996) 및 여러 문법학자가 사용했던 용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句’와 ‘文’으로서의 ‘구문’과 혼동될 여지가 있고²¹⁾, ‘구, 절, 문장 등 문법의 여러 층위에서 추출되는 일정한 양식(pattern)’(이정훈 2014 : 24)라는 ‘구문’(construction)과도 혼란을 줄 수 있어 보인다. 사전에서도 ‘구문’을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문장의 구성 양상을 말하는 용어로는 타당해 보이나, 문장론이나 통어, 통사론에 대응할 만한 학문 명칭으로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이제 ‘통사’에 대한 것이다. 사전적 풀이로는 문장론과 다르지 않다. 다만 용어상의 의미에 좀 더 천착해 보자. 용어 ‘統辭’가 갖는 의미나 의도를 두 가지의 이해해 보았다. 하나는 ‘統辭’에서 ‘辭’는, 한자 사전의 의미를 고려할 때, ‘말’(확대해석하면, 완결된 의미와 내부 구성체를 갖는 ‘발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²⁾ 다른 하나는 ‘辭’를 문장 안에서 통합되는 단위로 보는 해석 방식이다. 국어의 경우 소위 조사나 어미를 이르는 ‘문법 접사’ 즉 굴절접사(屈折接辭, inflectional affix)가 문장 구성에 관여하는 최소 단위이며 통사론은 그것을 포함하는 단위 즉, ‘辭’와 ‘(單)語(절)’을 대상으로 그것들을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²³⁾ 관련하여 ‘통사’를 ‘규칙’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 예도 확인된다. 김민수(1960 : 71-72)에 ‘syntax의 개념’이라는 소절을 두고 있다. “syntax란 말은 흔히 ‘문장(文章)론’ 혹은 ‘구문(構文)론’이라고 번역한다. 혹 ‘sentence’를 고찰의 대상으로 한다는 뜻에서 ‘문(文)론, 글월갈, 월갈’이라고도 이른다. 한편으로는 그 규칙 자체를 지칭하여, ‘統辭法, 指辭法, 文章構成法, 文法的 語句排列, 構文的 規則’으로 옮겨 쓰기도 한다.”라고 하였다.²⁴⁾ 이러한 해석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統辭’는 연구 대상으로서의 ‘말’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형성되는 배열이나 통합을 의미하거나 문장 구성의 단위 ‘語辭(단어와 문법접사)’를 대상으로 한 배열 및 통합(統)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된다.

21) 고창운(2006 : 9)에서 통사론 개념을 설명하면서 구문론의 ‘구문’에 대해 “‘구’(주-술 관계가 없는 배열), ‘문’(주-술 관계가 있는 배열)으로 설명하는 오해를 낳았다.

22) “통사론(syntax)은 발화나 문장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는 일, 구체적으로는 단어들 어떻게 ‘조합되는지(put together)’를 분석하는 분야(Croft 2022 : 3)라고 할 수 있다”(전후민 2024 : 78 재인용)

23) 60년대 연구 중 지춘수(1961)이나 이승욱(1966)과 같은 경우 선어말어미나 조사에 대한 연구인데, ‘통사론적’이라는 용어를 논제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24) 그렇지만 실제 해당 저서에 나타나는 용어를 보면 ‘syntax’의 대응 용어로 ‘구문론, 문장론, 통사론’ 등이 혼재돼 있다. 해당 부분의 내용 제목도 ‘국어의 syntax’이어서 번역어를 직접 드러내지 않았다. ‘syntax’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는가에 따라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용어가 다 드러낸 셈이다.

다소 묵시적 약속으로 쓰여오고 있는 듯한 ‘통사론’에 대해 용어 사용의 의도나 용어 자체의 의미를 추정해 보는 것은 소위 통사론이라는 것의 문법론적 위상과 연구 내용 및 방법론에 대한 또 다른 각 연구자의 인식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겠기 때문이다. ‘syntax’에 대해 ‘통語론’, ‘통辭론’이라는 용어는 ‘문장 구성의 기본 단위’에 대한 품사론이나 형태론과의 경계와 분립화 문제에 유의를 요한다. 전자는 ‘단어’를 품사론과 통사론의 접면 단위로 보아야 함을 의미하며, 후자는 조사나 어미 등을 형태론과 통사론의 접면 단위로 보아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권재일(1992)에서 통사론의 연구 대상 중 하나로 ‘형태론적 구성이 통사론적 구성을 이루는 과정 즉 통합 과정에 나타나는 문법 현상’으로 본 것도 그러한 접면에 대한 이해 방식으로 판단된다. 한편, ‘통사=문장’이라는 관점은 ‘문장’을 이해하는 방식은 담화론과 통사론의 경계와 분립화 문제에 유의를 요한다. 전통적으로 문장은 ‘의미, 내용, 형식, 운율’ 준거를 통해 규정되곤 한다. 그러나 국어 문장에는 그러한 준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설명이 가능한 합리적 구성체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통사적 변이) 구성체도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표현들이 구어나 발화 단위에서 많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통사론의 대상인 문장에 대해 담화론과 통사론의 접면으로서의 특성 이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구성 요소의 품사적 특성을 규정하지 않거나 즉 품사 정보가 굳이 필요치 않거나 문장을 굳이 정의나 규정을 하지 않으려는 생성문법의 관점은 ‘통사=문장’이라는 이해 방식에 유의를 요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생성문법에서는 문장을 정의하기보다는 문장은 당연히 주어져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성해 내는 절차²⁵⁾를 발견하는 데 힘을 쏟기(김정대 2003: 72-73) 때문이다.

3. 통사론[文章論]과 타 부문의 경계 문제

앞서 발표자는 생성문법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통사론 중심의 논의를 하였다. 그런데 문장 구조 생성 즉 통사적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생성 통사론’이 더욱 부합하는 명명이다. ‘생성문법’은 ‘기술문법’ 등과 같은 층위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생성문법이 통사구조의 생성에 초점을 두는 것은 사실이나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음운부, 어휘 형태부를 통한 의미 해석 등의 접면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포괄적으로 보면 생성문법도 이미 다양한 언어학의 제 분야와

25) 변형문법에서 구조 도식의 최상위 단계는 S(sentence)를 취했지만, 이후 일련의 생성문법 구조 도식에서 각 절점은 XP, 즉 구절(phrase)로 이해된다. 최소주의에 이르러서는 통사 범주의 병합이 아니라 어휘 자체의 병합을 통해 최종 구조를 생성해 낸다. 이런 점에서 생성문법에서 ‘문장’에 대한 이해는 기술문법 등과는 확연히 다른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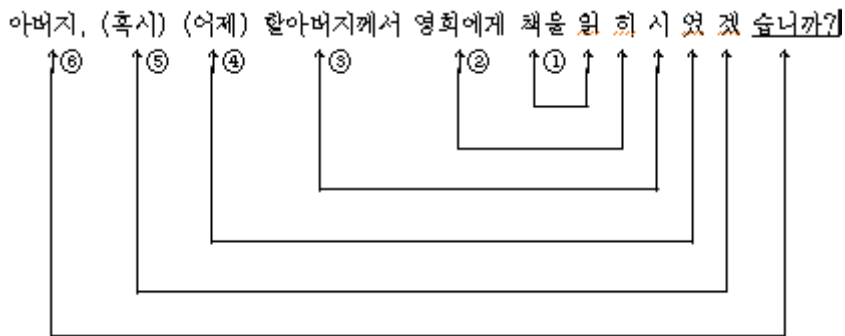
관련되며 근자 화용부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통사구조 기술이 모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서 소략히 언급한 Goldberg, Adele E(2003)의 논의가 문장 구조 형성에 새로운 접근법이 된다는 것은 순수한 통사적 구문(construction)만이 아니라 정보구조 구문, 화용적 구문 등 많은 언어 영역에서 산출될 수 있는 다양한 구문을 통합하여 문장을 생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어 문장의 분석이든 형성이든 아니면 생성이든 문장 구조는 단순한 구조적 제약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문의 언어적 정보가 개입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언어의 본질에서 볼 때, 언어 형식과 결합하는 내용(의미)은 구성이나 구조만으로는 예측하거나 예단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미역국을 먹다(낙방하다)’와 같은 의미는 ‘목적어-술어’ 성분 관계나 하나의 구절 범주를 이룬다는 사실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많은 통사적 변이를 갖는 구성체를 예측할 수 있고 문장론에서 그러한 구성체가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위 2, 3장에서 논의한 판단들이 반영되거나 관련되기를 기대하면서, 국어 문장 구성 및 통합과 관련된 몇 가지 모습을 아래에서 들추어 본다.

4. 국어 문장 구성 통합의 몇 양상

4.1 대등 방사적 구성



<그림 1> 문장 구성 요소 간의 통합관계 예시

위 문장은 최웅환(1996)에서 제시했던 것이다. 발표자가 의도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문장 구성 차원에서 관찰되는 통사적 현상들을 짚어 보기 위한 것이다. 해당 문장은 문법적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성분 단위와 그 유기적 짜임(어순 배열, 어미 구조체), 주-술 관계, 의미적 완결성, 문장으로서의 독립성 등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문장으로서의 구성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

고 있다고 판단된다.

문장의 구성을 관찰하면 몇 가지 양상이 확인된다. 어휘범주로서 문장 성분 간의 일정한 어순 배열은 일반적이다. 기능 범주(어미)가 고정된 분포에 따라 구조체를 이루고 있음도 확인된다. 그리고 각 기능 범주가 어휘범주와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장 구성 요소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특징적으로 포착되는 현상은 어휘범주 군과 기능 범주 군의 대응적 모습이다. ①은 ‘목적어-서술어’라는 성분 간의 관계를 보인다. 어휘, 의미적 관련성 즉 논항 관계에 따라 대응 모습으로 이해된다. ②은 피사동주와 ‘-히-’의 대응 관계를 보여준다. ③은 주어와 ‘-시-’의 대응을 보여준다. ④는 화자의 사태(명제)에 대한 과거 시간 인식 관계를 보여주는데 시간부사와 대응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⑤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자의 사태(명제)에 추측을 보여주는데 ‘혹시’와 같은 양태부사와 대응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⑥은 독립 성분 중의 하나인 부름말과 상대 높임 종결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위의 대응 관계를 국어 문장 구성에서 가능한 하나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면, 서술어 어간을 중심으로 어휘범주와 기능 범주가 정연한 대응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²⁶⁾ 판단할 수 있다. 구성의 확장이 번호순이라면, 이를 일러 ‘대등 방사적 구성’이라 불러 그것을 국어 문장 구성의 개별언어적 특성으로 볼 수도 있겠다. 물론 아래와 같은 질문과 그에 합리적 답이 필요할 것이다.

- 선행 구성 요소와 후행 구성 요소가 보이는 대응 양상은 통사적 의미는 무엇이며 합리적인가?
- 대등 방사적 구성(또는 확장)이 통사구조 구성이나 생성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
- 해당 양상이 다른 통사 구조체의 해석과 기술에도 설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가?

첫 질문은 국어 단위 문장 구성에서 어휘범주 군과 기능범주 군의 대응 양상이 통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위 ①~⑥의 각 대응 관계가 모두 보편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힘들 수 있다. 예를 들어, ②의 대응 관계는 ‘-히-’를 굴절접사로 이해하는 것과 유사한데, 파생어 ‘읽히-’가 ‘~에게, ~을’의 구문을 형성하는 서술어로 다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②의 관계가 전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다.²⁷⁾ 두 번째 질문은 문장 구성의 다양한 대응

26) 유동석(1955 : 194-195)에서는 중세국어에서 ‘호격어-주어-목적어-V-습-시-이-’와 같이 높임법 어미들의 통합순서가 관련 명사구의 통합순서와 동사를 축으로 완전히 대칭적인 거울 영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구조 차원에서 핵 계층 도식에서의 ‘명시어-핵’의 관계로 보았다.

양상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기술되거나 생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소위 생성문법 구조 생성 도식의 변용적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김의수(2007 : 129)에서, 아래 (2)처럼²⁸⁾, 비록 현행 생성문법의 문장 구조 도식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갖지만, 문장은 명제와 양태로 구성되며 구성 성분 간의 호응 관계에 따라 동일 층위에서 두 가지 요소들이 적절히 결합하는 것으로 기술하는 것이 최소한 한국어에서는 좀 더 바람직해 보인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발표자의 의도와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고 있으나 천착해 보아야 할 문제도 결코 적지 않다.

(1) 생성문법적 관점의 도식 적용

내부 구조: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영희에게 책을 읽히시]었]겠]습니까]

→ (의존성 해소를 위한 핵이동: 복사, 이동, 삭제의 연속)

도출 구조: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영희에게 책을]]] 읽히시었겠습니까]

(2) 구성 성분 간 호응 관계를 고려한 동일 층위 결합 방식 적용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영희에게 책을 읽히시]]었]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위 두 질문에 대해 합리적인 답을 얻어 낼 수 있다면, 그 구성 및 통합 기제가 다른 통사 구조체에도 설명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만약 그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위 대응 양상의 구조적 반영은 좀 더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국어의 어미 구조체와 교착소로서의 어미에 대한 이해

위 소절에서 제시한 국어 문장의 대등 방사적 구성에서 좀 더 특징적인 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어미 구조체의 문법적 위상과 관련된 것이다. 서술어 어간을 중심으로 하는 전후 두 구조체가 대응적 양상을 보이는데, 좌측은 구조체는 느슨한 구성을 이룬다. 국어 성분의 어순 배열 제약이 느슨하거나 생략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측의 구조체는 그 구성이 제약적이며 엄밀하게 짜여 있다. 이 사실을 달리 보면, 우측의 구조체가 갖는 제약과 엄밀성을 통해 좌측 구조

27) 양정석(2010 : 101-102)에서는 피사동 접사가 통사구조 형성의 요소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28) 괄호매김을 통해 통합 관계만 소략히 보인 것이다. 거기에는 다양한 통사적 정보가 누락돼 있다.

체가 갖는 성분 관계의 느슨함은 충분히 보완되거나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면, 국어의 문장 구성은 기능 범주 간의 상관관계가 중심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이 문장 형성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이론화의 가능성을 가져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천착하기 위해서는 국어 어미의 교착성에 대한 개별언어학적 특성 추출이 필요하다.

통사론[文章論] 연구에서 국어의 조사나 어미는 빠지지 않는 중요한 문법 단위이다. 이 단위는 전통문법 시기 많은 경우 형태론적 요소로 다루어져 왔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통사 분야의 심화 과정에서 이들을 통사적 요소로 보려는 입장이 거셌다. 초기 변형문법에서 조사나 어미도 도식 절점의 범주 내부 요소였으나 DP, IP, CP와 같은 구절 기능 범주 설정 과정에서 통사적 핵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이 범주는 보충어나 명시어와의 일치 관계, 격 허가나 통사 자질 해석 및 그것을 위한 논항의 이동 등 다양한 통사적 기제를 유발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보게 된다. 한편 서술어가 이루는 어휘범주 구성체는 기능 범주 구성체의 보충어적 지위를 갖는다.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 등은 통사 구성에서 일정한 계층성을 갖는 구조 생성 기제이면서 그 구현은 선형적인 층위를 갖는다. 그리고 많은 통사적 기제가 그 층위 형성 과정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범박하게 괄호 매김으로 보면, “[[[[그가 밥을 먹]VP → 었]IP → 겠]MP → 다]CP”와 같은, 하위 층위에서 단계별로 상위 층위로 도식화 되고 각 층위에서 필요한 통사 기제나 규칙을 통해 논항의 이동을 유발한다. 그러한 연구 방법론 속에서도 조사나 어미가 갖는 형태론적 구성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는 난점이 있었는데, 이를 의존성 해소를 위한 핵 이동, 음운부 접면 해석을 통한 음운론적 단어 형성, 재구조화 등의 개념을 통해 해소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통사론[文章論] 연구에서 그것은 일반적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그러나 발표자는 국어 어미 구조체에 대한 이해에 부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짐작하고 있다. 그 근거는 어미의 교착성에 대한 개별언어적 특성(또는 교착성을 갖는 언어 유형에서의 특징)을 재검토 또는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국어의 어미는 크게 ‘의존적이며, 후접되며, 외현적 형태를 보유’한다. ‘의존성’은 그것의 해소가 필요한데, 그 방법은 선행 요소의 핵이동과 달리, 속주적 선행 단위로의 첨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첨가는 교착소의 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후접성’은 선행 단위와의 통합 과정에서 그 구조체의 통사적 범주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선행 구조체와는 독자적인 구조 형성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한다. 이는 교착소의 ‘첨가’와도 무관하지 않다. ‘외형성(外形性)’은 고유하게 가지는 통사적 기능의 첨가가 선택적이고 개별적일 수 있다

는 해석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 IP나 CP 등과 같은 표찰이 있는 통사 범주에서 몇 기능 범주는 비외형적 또는 추상적 통사 자질로 대신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어의 어미는 거개 외형을 갖는 형태 범주 모습을 갖는다. 이 또한 특정 단위의 교착적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어미 간의 구조 형성과 관련된 사실이다. 선어(/문)말 어미와 어(/문)말어미 실현의 필수성을 굳이 따진다면 ‘어간+어말어미’이다. 어간은 논항구조의 핵심 요소이며, 어말어미는 문장이라는 완결된 단위 생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능 요소이다. 그 사이에 오는 선어말어미의 구조적 자리는 선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분명치 않다.

이상 발표자가 소략히 언급해 본 국어 교착소로서의 어미가 갖는 특성과 구조 형성에서의 역할은 분명 더 천착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단초를 제공할 만한 다음 소절의 통사 현상을 살펴보자.

4.3 화자 층위 및 어미의 삽입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문장 또는 발화 단위는 화자에 의해 생산된다. 이때 화자는 문장 생산자로서 역할도 하지만 발화된 명제 내의 참여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3) ㄱ. (화자) 철수가 간다.
- ㄴ. (화자) 내가 간다.

(3ㄱ)에서 화자는 발화의 생산자로 역할만을 하지만 (3ㄴ)에서는 그 화자가 명제 내의 1인칭 주어 역할을 한다. 즉 화자는 명제 내용이나 명제를 구성하는 개체적 단위에 개입할 수도 있으며, 조건에 따라 개입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화자의 개입에 일정한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 (4) ㄱ. *영희 아프다. (5) 영희는 아프다. (6) 영희는 아프냐?
- ㄴ. 나는 아프다.

- (7) 영희는 아팠다. (8) 영희는 아프겠다. (9) 영희는 아프더라.

(4)는 소위 주관 동사라고 불려온 심리 형용사 구문이며, 화자-주어 동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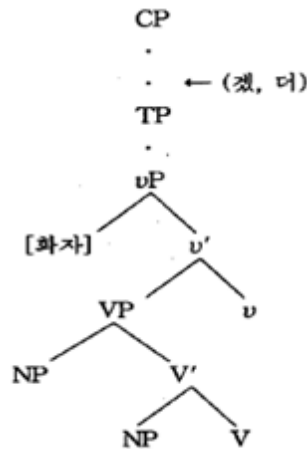
제약이 있다. 3인칭 주어가 올 수 없으며, 화자와 동일한 1인칭 주어가 와야 한다. 화자가 명제 내용 중 주어 개체로 꼭 개입해야 한다. 그런데, (4)의 제약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될 수 있다. (5)는 화용적 요인으로 제약을 해소하는 경우이다. 화자가 삼인칭 개체 ‘영희’에 대해 감정이입(Empathy)²⁹⁾을 한다면, 즉 화자가 ‘철수’의 심리를 자신의 심리와 동일시한다는 화용적 가정을 한다면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수용 가능한 문장이 될 수 있다. (6)은 종결어미를 의문형으로 하여 제약을 해소하는 경우이다. 이에는 화자가 명제 내용과는 무관함을 보이는 개입이 있다. 명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청자에게로 떠넘긴 경우이다. 이를 통해 제약이 해소되었다. (7)은 과거시제 어미 ‘-었-’을 통해 제약을 해소한 경우이다. (6)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명제 내용과 관련된 개입이다. 명제 내용을 과거 사실로 둬으로써 명제 내용 단정에 책임을 회피한다. 이를 통해 인칭 제약을 벗어날 수 있다. (8)은 추측 양태의 ‘-겠-’를 통해 제약을 해소한 경우이다. 화자가 명제 내의 개체 주어에 개입함으로써 제약을 벗어날 수 있다. 즉 영희가 아프다는 단정의 개체가 아니다. 통사적 기제를 사용하였는지 그렇지 않는지 차이가 있을 뿐 (5)의 해소 방법과 유사하다. (9)는 회상의 ‘-더-’를 통해 제약을 해소한 경우이다. 이는 (8)과 유사한데, ‘-겠-’이나 ‘-더-’는 화자와 밀접히 관련되는 문법 요소이다.

이상의 인칭 제약 해소 과정은 몇 가지 사실을 함축한다. 첫째, 위 과정은 화용적 요소인 화자가 발화된 명제에 관여하여 문장 구조의 문법성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둘째, (5)는 화용적 요인이 관여하지만 (6-9)는 일정한 기능 범주 실현이 관여한다는 점이다. 통사적 해석에서는 (4)와 (6-9)의 관계만을 고려하면 된다. 둘째, 제약 해소이다. (4)과 같은 기본 구조에서 일정한 통사적 절차를 통해 (6-9)가 제약을 해소하는 방향성을 갖게 했다. 셋째, (6, 7)은 화자가 명제 내용 전체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8, 9)는 명제 내의 개체에 개입함으로써 제약을 해소한다는 점이다.

이상의 현상을 문장 구조에 반영할 수 있는가? 반영한다면 어떤 방법이 합리적일까. 발표자는 일정한 어미 구성체 속에 선어말어미 ‘-겠-’, ‘-더-’가 삽입되는 것으로 보는 아래와 같은 가능성을 탐색해 본다.

29) Kuno, S(1976) 참고.

(10) 화자 층위와 어미 삽입 구조³⁰⁾



1인칭 주어 동일성 제약은 심리 형용사의 의미와 명제 내 개체에 대한 화자의 개입, 현재 시제, 평서의 '-다'가 갖는 총체적 구성에 비롯된다. 이는 위 (4) 구성에서 확인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현재 상황에서 특정 정보를 화자의 관점에서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기본 조건 속에서 제약이 발생한 것인데, 문법적 문장 구조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통사적 운용 기제가 필요하다.

화용적 요소인 화자의 명제 내 개입을 통사적으로 확보해 줄 수 있는 구조 층위 설정과 기본 핵심 구조에서 필요에 따라(여기서는 제약성 해소를 위해) 특정 선어말 어미의 삽입이라는 통사적 기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곧 국어의 어미들은 선형적 층위를 갖는 배열이 아니라 '삽입'을 통해 문장 구조 확장이나 형성에 기여하는 통사적 절차를 갖는 것이 된다.

인칭 제약은 '싶다' 구문에도 관찰된다. 그리고 핵심 구조로서 '-더-'를 갖는, 1인칭 비동일성 제약 구문도 관찰된다. 이러한 구문에도 과연 적용될 수 있는지를 좀 더 섬세하게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마무리

(앞선 내용의 요약으로 대신함)

30) 해당 도식은 최근 생성문법의 도식과는 다소 다르다. 다만 [화자]라는 발화자가 통사구조로 개입하는 것과 어미의 구현 방법만 관찰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고창운. 2006. 『국어 통사론 입문』. 경진문화사.
- 권재선. 1988. 『국어학 발전사』. 우골탑.
- 권재일. 1992. 『국어통사론』. 민음사.
- 김민수. 1960. 『국어 문법론 연구』. 통문관.
- 김민수. 1971. 『국어문법론』. 일조각.
- 김정대. 2003. 『시학과 언어학 6』. 시학과 언어학회. 63-113쪽.
- 목정수. 2003. 『한국어 문법론』. 월인.
- 서정수. 1996. 『국어문법(수정증보판)』. 한양대학교 출판원. 62-63쪽.
- 양정석. 2010. 『(개정판) 한국어 통사구조론』. 한국문화사.
- 유동석. 1995. 『국어의 매개변인 문법』. 신구문화사.
- 유응호. 1936. 「言語의 形態」, 정음 14. 반도문화사.
- 유현경 외. 2018. 『한국어 표준문법』. 집문당.
- 이정훈. 2008. 『조사와 어미 그리고 통사구조』. 태학사.
- 이정훈. 2014. 「통사적 변이와 구문 형성」, 현대문법연구 76. 현대문법학회. 23-41쪽.
- 이승녕. 1953. 『고등국어 말본』. 을유문화사.
- 이승욱. 1966. 「후치사의 통사론적 고찰」, 東亞文化 6.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220-221쪽.
- 이희승. 1939. 「조선 어학의 방법론 서설」, 한글 71. 한글학회. 153-161쪽.
- 이희승. 1955.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 조병태. 1984. 「초기 근대영어시대의 영문법 연구-특히 William Bullokar를 중심으로」, 영어학논집 8,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7-70쪽.
- 전지영. 2024. 「현대 국어학 초기의 문장론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후민. 2024. 「구문의 통사론 ‘통구문론(統構文論)’ : 구문의 통합」, 배달말 74. 배달말 학회. 75-113쪽.
- 주시경. 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 지춘수. 1961. 「15世紀 國語 Prefinal ending -다/더-의 統辭論的 小攷」, 국어국문학 23. 국어국문학회. 104-110쪽.
- 최응환. 1996. 「국어 문형성의 기제와 그 실현 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응환. 2002. 「1인칭 주어제약 구문의 문법성과 통사적 표상」, 어문학 76. 한국어문학회. 95-117쪽.
- 최응환. 2024. 「‘학교문법 체계’의 검토와 제안」, 언어과학연구 111. 언어과학회. 273-296쪽.
- 최현배. 1937.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황인태. 2015. 「W. Bullokar의 영문법서(1586) 다시 읽기」, 인문학 연구 99.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493-512쪽.
- 허웅. 1968. 『언어학개론』. 정음사.

허웅. 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허웅. 1999.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문화사.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Mouton.

Goldberg, Adele E. 2003. 「Constructions: a new theoretical approach to languag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7 (5). pp. 219-224.

Goldberg, A. E., & Suttle, L.. 2010. 「Construction Grammar」, *Wires Cognitive science*, 1, pp. 468-477.

Kuno, S. 1976. 「Subject, theme and the speaker's empathy」, In C,N, Li ed, *Subject and Topic*.

628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광복 80년, 우리말 문법 연구의 성과와 과제
2025년 5월 16일(금) 10:00~15:40 / 한글학회 강당

□ 제2부/ 주제 발표

한국어 실험통사론의 현황과 과제 —수용성판단을 중심으로—

조용준

건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
ycho@konkuk.ac.kr

1. 서론

실험통사론은 Schütze(1996), Bard et al.(1996), Cowart(1997) 이후 통사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한 방법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들 연구는 전통적인 언어학자의 직관에만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모어화자로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론적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어 연구에서는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실험통사론 연구가 확산되었는데, 이는 Sprouse et al.(2013) 이후 실험통사론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국어 통사 현상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검증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변화는 한국어 화자의 직관을 정량적 데이터로 전환함으로써, 전통적인 통사 이론의 제약과 예측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

통사론 연구에서 언어 직관, 즉 수용성판단(acceptability judgment)¹⁾의 중요

1) 통사론 연구에서 직관(intuition)은 언어적 판단의 기초이다. 직관은 논리적 추론 없이 즉각적 통찰력을 제공하는 지각(percept)으로 간주되지만, 통사론에서 일반인의 직관이 문법이나 통사 지식에 대한 명시적 통찰력을 직접 반영한다고 보지는 않는다(Schütze, 1996 : 38). 오히려 직관은

성을 고려할 때 실험 통사론은 주로 수용성판단 실험의 메타 이론적 검증과 이를 통한 구체적인 통사 현상에 대한 실험적 탐색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심리언어학, 신경언어학, 전산언어학의 연구방법론을 수용하여 연구 범위를 확장하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발전은 ‘통제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실험 절차(controlled and replicable experimental procedure)’²⁾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이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요컨대 실험통사론은 통사 이론의 구성과 평가를 위해 통제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실험 절차를 통해 경험적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연구 프로그램이라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통적인 통사론 연구 역시 근본적으로 ‘실험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통적 방법론에서는 연구자의 직관, 즉 수용성판단에 의존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재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는 문법성의 차이만을 나타내도록 인위적으로 구성된 데이터로서, 연구자의 이론적 의도나 편향이 개입되는 작위성(contrivedness)과 실제 언어 사용과 거리가 있는 인공성(artificiality)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위성과 인공성으로 인해 판단의 주관성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신뢰성과 재현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1980년대부터 말뭉치기반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1990년대 이후로는 실험심리학의 방법론을 도입한 실험통사론

모어 화자가 문장의 자연스러움에 대해 무의식적이고 경험적으로 느끼는 판단이며, 통사 지식뿐 아니라 맥락, 빈도, 처리난이도 등 비문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비해 내성(introspection)은 언어학자가 자신의 언어지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법규칙에 대한 이론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으로, 주로 문법이론에 기반한 규범적 평가와 관련된다(Chomsky, 1965). 그러나 직관과 내성 모두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통사론 연구에서는 보다 명확히 정의된 문법성판단(grammarality judgment)과 수용성판단이 선호된다. 문법성판단은 문장이 특정 언어의 문법규칙(통사규칙이나 제약 등)에 부합하는지에 따르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언어학자의 내성과 문법이론에 기반한 규범적 판단이다. 즉, 이상화된 언어체계 내에서 문장의 &적격성&을 평가하므로 이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Chomsky, 1965). 반면, 수용성판단은 화자가 문장을 실제로 자연스럽거나 적절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주관적, 경험적 판단으로서 직관에 의존하며, 문법성뿐 아니라 화용적 적절성, 처리 복잡성, 맥락 등 비문법적 요인을 포괄한다(Sprouse & Almeida, 2017). 따라서 문법성판단이 문법이론에 좌우되는 이론 의존적 판단인 데 비해, 수용성판단은 이론 중립적으로 통사 구성에 대한 지각(percept)을 반영한다. 통사론의 경험적 기반은 특정 이론이나 문법적 통념에 편향되지 않은 판단에 기초해야 하므로, 전문가뿐 아니라 비전문가의 언어 경험까지 포괄하는 수용성판단이 문법성판단보다 더 적합한 개념으로 간주된다.

- 2) 여기서 ‘통제 가능하다’는 것은 관심 변인을 계획적으로 조작하면서 무작위화(randomization)·역균형화(counter-balancing)·자극 길이 및 빈도 평준화(matching, 즉 단어나 구성이 실험 조건 간에 비슷한 출현 빈도를 갖도록 맞추는 과정) 등을 통해 잠재적 혼란 변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내적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뜻이다. ‘재현 가능하다’는 것은 실험의 방법과 절차가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다른 연구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반복했을 때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문장이나 자료, 실험 진행 방식, 데이터 분석 방법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필요시 공유함으로써 과학적 검증의 기본 원칙을 충족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연구 계획과 분석 방법을 미리 명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재현 가능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실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실험 절차’는 자극 문장 설계, 피험자 선정 및 무작위 배정, 과제 제시와 응답 기록, 사전등록된 분석 파이프라인을 거쳐 통계 검증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적 과정을 가리킨다.

이 등장하였다. 본래 수용성판단을 중심으로 발전한 실험통사론은 2000년대 이후 심리언어학, 신경언어학, 전산언어학의 접근을 수용하며 연구 범위를 확장하였다. 심리언어학과 신경언어학 접근은 반응 시간, 시선 이동, 뇌 활성화 등을 통해 문장 처리의 동적이고 무의식적인 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데 중점을 두며, 전산언어학적 접근은 대규모 말뭉치와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통사 현상의 계산 가능성과 학습 가능성을 탐구한다. 최근의 연구는 이들 방법론이 서로 보완적이며, 통사 이론의 경험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보였다.

이 발표에서는 지면과 논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실험통사론의 다양한 확장 분야 대신, 형식적 수용성판단 실험의 메타이론적 검증과 이를 통한 한국어 통사 현상의 실험적 탐색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수용성판단 실험 연구

2.1 형식적 방법과 비형식적 방법의 비교

실험통사론의 방법론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통사론 연구 방식과의 대비가 필요하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전통적 통사론 연구도 본질적으로 ‘실험적’이라고 볼 수 있다(Phillips, 2009; Schütze, 1996). Phillips(2009 : 53)는 “모든 언어학 연구는 어떤 의미에서 실험적이다. 언어학자들은 체계적으로 구성한 예문들의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반적인 과학 실험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변인을 조작하고 그 효과를 관찰하는 과정인 것처럼, 전통적 통사론에서도 언어학자들은 문장 구조를 조작하고 그에 따른 수용성의 변화를 관찰한다. Schütze & Sprouse(2013 : 28)는 “언어 이론을 구축하는 데 있어 언어학자들이 수행하는 활동은 조작된 조건 간의 차이를 관찰하는 측면에서 실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은 가설 설정, 변인 조작, 관찰 및 측정이라는 실험의 기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통사론의 방법론은 실험심리학의 표준적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형식적(informal)’이라고 할 수 있다(Sprouse & Almeida, 2013; Linzen & Oseki, 2018). 전통적 통사론에서는 주로 연구자 자신의 직관이나 소수의 정보 제공자의 판단에 의존하여 문장의 문법성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특정 요인에서만 차이가 있는 정문과 비문으로 구성되는 최소대립쌍(minimal pairs)을 사용하여 특정 통사 규칙의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다. 이는 변인 조작의 일종이지만, Cowart(1997 : 10-12)가 지적한 바와 같이 “체계적인

표본 추출, 무작위화, 외생 변인 통제, 정량적 측정과 같은 엄격한 실험 프로토콜은 결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비형식적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전통적 통사론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실험 자료(experimental data)’의 성격을 갖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실제 언어 사용을 반영하는 ‘관찰 자료(observational data)’와 대비된다. 전통적 통사론의 실험 자료는 연구자가 언어 이론의 검증을 위해 인위적으로 구성된 예문들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위적 예문에 의존하는 방식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Labov(1972 : 199)는 이를 ‘언어학자의 비현실성 문제(linguist’s nonreality problem)’라고 명명하면서, 연구자의 직관이 실제 언어 사용과 괴리될 수 있음을 비판하였다. Sampson(2007)과 Pullum(2017) 또한 이러한 인공적 데이터가 연구자의 이론적 편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재현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980년대부터 관찰 자료, 즉 말뭉치 기반 연구의 대두로 이어졌다. Sinclair(1991)와 Biber et al.(1998)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은 대규모 말뭉치에서 추출한 실제 언어 사용 데이터가 언어의 실상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말뭉치 언어학은 실제 사용되는 언어의 패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위적 예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특히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규모 말뭉치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통사론 연구에서도 말뭉치 기반 접근법이 중요한 방법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말뭉치 자료도 제한점이 있다. Taylor & Pintzuk(2011)은 말뭉치에서는 특정 통사 구성이 출현하지 않을 경우, 그것이 실제로 비문법적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해당 자료에서 우연히 나타나지 않은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Schütze(1996)가 언급했듯이, 말뭉치에 포함된 문장들은 다양한 외부 요인(문체, 장르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순수한 통사적 판단을 추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0년대 말부터 또 다른 대안으로서 좁은 의미의 ‘실험 통사론’, 즉 형식적 수용성판단 실험이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서 ‘형식적(formal)’이라 함은 앞서의 ‘비형식적’에 대비되는 것으로, 실험심리학의 표준적 프로토콜을 따르는 방법론이라는 뜻이다. Bard et al.(1996), Schütze(1996), Cowart(1997)와 같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형식적 수용성판단 실험을 통해, 전통적 통사론의 비형식적 수용성판단과 말뭉치 기반 연구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형식적 접근법은 다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통제된 조건에서 체계적인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언어 직관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고 재현 가능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Sprouse & Almeida(2012 : 20)는 “형식적 수용성판단 실험이 직관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언어 능

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전통적 방법론의 장점을 유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형식적 수용성판단 수집 방법론에 대해서는 학계 내에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특히 문법 연구에서의 사회과학적 실험 방법론 도입에 대한 일부 학자들의 회의적 태도는 형식적 방법과 비형식적 방법 각각의 장단점과 적용 범위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방법론적 논의는 실험통사론 분야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이에 대한 관련 연구들의 입장은 크게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비형식적 방법이 우월하다는 입장으로, 개별 언어학자의 직관적 판단 등 비형식적으로 얻어진 데이터의 가치를 특히 강조하고, 형식적 실험 없이도 충분한 통찰과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관점은 연구자, 특히 이론적 훈련을 받은 언어학자의 직관이 언어 능력에 더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비전문가 판단은 오히려 혼란스러운 변수에 의해 오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Phillips(2009 : 53)는 이러한 맥락에서 “형식적 실험은 직관적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다른 종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형식적 실험이 그 자체의 인공적인 환경이나 과제 설계로 인해 연구 대상인 언어 현상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Phillips는 또한 소위 ‘위기론’이 과장되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비형식적 직관에 기반한 주장이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기까지 동료 연구자, 학술대회에 참여한 청중, 논문 심사자 등에 의한 광범위한 비공식적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판단이 지속적으로 이론의 토대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주장한다. 즉, 비형식적 방법론에 내재된 자체적인 검증 기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인 일반인의 직관(수용성)을 수집한다는 것은 외생 변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므로 어떤 의미에서 쓰레기는 많이 모은다고 해도 여전히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언어학자의 전문성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이론적 배경과 분석적 사고를 통해 정제된 판단 능력을 의미한다고 본다. 언어학자의 직관은 이론적 가설을 탐색하고 핵심적인 통사적 대립(syntactic contrast)을 식별하는 데 특히 유용하며, 이는 통사론 연구의 목표가 일반인의 평균적인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언어 능력의 기저 원리를 탐구하는 데 있음을 상기시킨다.

특히, Marantz(2005 : 432)는 통사론 연구에서의 예문이 흔히 생각하는 ‘실험 데이터’와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예문은 연구자가 “집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실험의 결과를 요약한 것(summaries of the results of experiments the reader could perform at home)”이다. 다시 말해, 예문은 실제 데이터를 보고(reporting)하는 자료라기보다 연구자가 상정한 잠재적 데이터를 대표(representing)하는 메타-데이터(meta-data)에 해당한다. 이

메타-데이터는 관련 통사 이론을 숙지하고 해당 현상에 익숙한 동료 연구자를 독자로 전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지심리학 실험에서 다루는 데이터와 성격이 다르다. Marantz의 주장은 언어학적 예문의 기능이 단순히 현상을 기술하는 것을 넘어, 이론적 논의를 위한 공통의 기반을 제공하고 동료 전문가들 사이의 검증과 논의를 촉발하는 데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언어학 연구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 검증 과정이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Phillips & Lasnik(2003) 및 Featherston(2009)은 논문 출판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공식·비공식 검증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례에서 한 연구자의 직관도 충분히 신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Phillips(2010) 역시 이러한 비공식적 동료 검토(informal peer review)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심스러운 판단이 학계에 널리 퍼져 이론을 왜곡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실증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주장은 언어학 연구가 고립된 개인의 작업이 아니라, 학문 공동체 내에서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비판을 통해 발전해나간다는 점을 부각한다. 더 나아가, 언어학에서의 직관 활용은 과학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가 판단이나 사고 실험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단순히 '비과학적'이라고 치부될 수 없는 연구 방법론의 일부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형식적 방법론에 대한 방어는 단순히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학 연구의 특수한 목표와 대상, 그리고 학문 공동체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연구자 직관에 대한 옹호는 철학 및 심리학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내성(introspection)의 인식론적 지위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 비록 내성 보고의 한계와 편향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Ericsson & Simon(1984) 등의 연구는 프로토콜 분석과 같은 기법을 통해 내성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언어학자의 직관 역시 적절한 조건 하에서는 유효한 데이터 소스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수용성판단 수집에 대한 형식성 논쟁에 대한 두 번째 입장은, 앞선 입장과 반대로, 형식적 방법의 우위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는 체계적 실험 방법의 필요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직관적 자료 수집이 신뢰도 면에서 취약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 입장은 심리학 및 인지과학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실험 설계, 통계적 분석 등의 엄격한 절차를 문법 연구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재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Gibson & Fedorenko(2013)는 전통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 “타당하지 않으며(invalid)” 일관되게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unreliable data)”를 산출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들의 비판은 특히 연구자 자신의 편향 가능성, 소수의 판단

에 의존하는 문제, 판단의 불안정성 등을 지적한다. Wasow & Arnold(2005 : 1484)는 더 나아가 “대부분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이 매우 의심스러운 데이터로 가득 차 있다”고까지 비판하였다. 그들은 특히 언어학자들이 일차적 직관(판단 자체)과 이차적 직관(판단 이유에 대한 설명)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집된 직관 데이터의 변이(variation)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비판은 언어학 이론이 견고한 경험적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과학적 원칙을 강조하며, 형식적 실험 방법론이 이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형식적 방법론 지지자들은 종종 전통적인 직관 판단이 실험적으로 재현되지 않는 사례들을 제시한다. Gibson et al.(2013)은 Chomsky(1986)가 직관적으로 비문이라고 한 일부 문장을 실험적으로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비문법성이 검증되지 않는 사례들을 보고하였다. 이는 저명한 언어학자의 직관조차도 일반화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며, 형식적 검증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Juzek & Häussler(2017 : 4)은 자신들의 추적 연구에서 비형식적 판단과 형식적 실험 결과의 일치율이 9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 “결과는 연구자 직관에 의해 얻어진 결과의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비형식적 방법이 특히 ‘위양성(false positive)’, 즉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문법적 효과를 존재한다고 잘못 판단할 위험이 높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형식적 방법론 지지자들은 이러한 오류가 잘못된 이론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규모 피험자를 대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초기 연구자로는 Schütze(1996)를 들 수 있다. Schütze(1996)은 비형식적 판단 수집의 문제점(통제 부족, 편향 가능성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심리언어학적 실험 방법론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Cowart(1997)는 ‘실험 통사론(experimental syntax)’이라는 용어를 대중화하며 형식적 판단 실험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했다. 이후 Featherston(2007) 등 많은 연구자들이 형식적 실험 방법을 활용하여 통사론 연구를 수행하며 이 흐름을 이어갔다. 이들은 형식적 실험이 단순히 기존 직관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미묘한 수용성 차이를 탐지하고, 이론적 예측을 정량적으로 검증하며, 언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빈도, 처리 부담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결국 형식적 방법론 우위론은 언어학의 경험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른 인지과학 분야와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방법론적 엄밀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기반한다.

셋째, ‘중립적 입장’은 전통적 직관에 기반한 비형식적 수용성판단과 형식적

실험을 통한 데이터 수집이 대체로 일치하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입장은 형식적 방법론의 비판이 제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이 과장되었을 수 있으며, 실제로는 두 방법론이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Sprouse et al.(2013)의 대규모 재현 실험에서는 주요 언어학 학술지인 *Linguistic Inquiry*에서 보고된 비형식적 판단과 대규모 일반인 대상의 형식적 실험(다양한 과제 사용: 강도 추정(Magnitude Estimation), 리커트 척도, 강제 선택) 결과를 비교했을 때, “비형식적 방법과 형식적 방법의 결과가 95% 이상 일치”하는 높은 부합도가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 앞서 Sprouse & Almeida(2012)는 통사론 교재(Adger, 2003)에 실린 예문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실험을 진행하여 약 98%의 더 높은 일치율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비형식적 방법이 비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생산한다는 주장에 강력한 반증을 제시하며, 전통적인 연구 방식이 실제로는 상당히 견고한 경험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시사한다.

Linzen & Oseki(2018 : 22)는 여러 재현 실험을 통해 “영어로 발표된 수용성 판단의 절대 다수는 일반인 피실험자에게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Sprouse 등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며, 적어도 영어 연구에 있어서는 방법론 간의 심각한 불일치 문제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독립적 입장에서는 이러한 높은 수렴률에 주목하며, 수용성판단의 신뢰도에 대한 위기는 과장된 것이며, 전통적 판단과 실험적 결과가 대체로 일관되므로 양측 방법론이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의 수렴성에 대한 설명으로 몇 가지 요인이 제시된다. 첫째, 통사론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현상들이 상대적으로 큰 ‘효과 크기(effect size)’³⁾를 갖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즉, 정문과 비문 간의 수용성 차이가 매우 명확하여, 소수의 판단만으로도 그 차이를 안정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Cohen(1992)의 기준에 따르면 통사론 현상의 약 90%가 ‘눈으로만 보아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효과 크기가 크며, 이는 다른 심리학 분야의 평균 효과 크기보다 훨씬 높다. 둘째, 이로 인해 비형식적 방법이 겉보기의 표본 크기(때로

3) 효과 크기(effect size)는 처리 효과나 변수 간 관계의 강도를 수량화한 통계적 측정치이다. 간단히 말해 어떤 현상이나 차이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정문과 비문 간 수용성판단 차이의 정도, 즉 차이의 크기가 작은지, 혹은 큰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값이다. 통계적 유의성(p값)이 효과의 존재 여부만 알려주는 반면, 효과 크기는 그 효과의 실질적 중요성과 크기를 나타낸다. 통사론 실험에서는 주로 Cohen's *d*, Hedges' *g* 등의 표준화된 평균 차이 지표나 η^2 , r^2 등의 분산 설명력 지표가 사용된다. Cohen(1988)의 관례에 따르면, $d = 0.2$ 는 작은 효과, $d = 0.5$ 는 중간 효과, $d = 0.8$ 이상은 큰 효과로 해석된다. 통사론에서 정문/비문 간 수용성 차이는 종종 $d = 1.0$ 이상의 큰 효과 크기를 보이는데, 이는 형식적/비형식적 방법론 간 수렴적 결과를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는 연구자 1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구 대상 현상을 탐지하기에 충분한 통계적 검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Sprouse & Almeida(2017)는 전통적 방법이 형식적 실험보다 오히려 더 적은 참가자로도 80% 검증력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셋째, 연구자의 이론적 편향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도 제시되었다. Sprouse 등의 연구에서 전문가(출판된 판단)와 비전문가(실험 참가자) 간 판단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는 ‘부호 역전(sign reversal)’⁴⁾ 비율이 1~3%로 매우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비형식적 방법이 그 비공식성에도 불구하고 왜 비교적 성공적으로 기능해 왔는지를 설명하며, 형식적 방법론의 비판이 간과했을 수 있는 측면들을 조명한다. 또한, 과학 전반의 재현 연구 논의를 고려할 때, 재현 실패가 반드시 원 연구의 오류를 의미하지 않으며 재현 연구 자체의 방법론적 문제나 맥락 차이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언어학 내에서의 재현 논쟁을 해석하는 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통합적 입장’은 단순히 두 방법론의 공존을 인정하는 중립적 입장과 달리, 두 방법을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 관점에서는 연구 단계나 대상 현상의 성격에 따라 두 방법의 역할을 구분하고 상보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향한다. 일반적으로 초기 가설 형성과 명백한 통사 대비 관찰에는 비형식적 방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미묘하거나 논쟁적인 문법 현상, 혹은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최소 대립쌍 등을 검증하는 데에는 형식적 실험의 엄밀성을 적용하는 단계적 또는 선별적 접근을 취한다. 이는 연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케 하면서도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Linzen & Oseki(2018 : 1)는 이러한 통합적 접근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하며 “수용성판단의 신뢰도는 개방형 검토 시스템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으며, 형식적 실험은 논쟁적인 사례에서만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는 비형식적 동료 검토의 강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형식적 실험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영어 외 언어 연구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단에 대해서는 형식적 검증의 필요성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4) ‘부호 역전(sign reversal)’은 통계 분석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가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통사 조건이 문장의 수용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험 결과에서는 오히려 수용성이 향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간단히 말하면 정문의 수용성보다 비문의 수용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실험 설계의 문제, 다른 교란 변수(confounding variable)의 존재, 또는 기존 이론적 가정의 오류를 시사할 수 있다. Sprouse & Almeida(2013)에 따르면, 부호 역전은 비형식적 판단과 형식적 판단 사이의 불일치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간주된다.

Sprouse & Almeida(2017)와 Marty et al.(2020)는 다양한 형식적 수용성판단 과제의 ‘민감도(sensitivity)’, 즉 특정 통사적 대립을 탐지해내는 능력을 비교 분석했다. 이 연구는 과제의 구성 요소(개별제시 대 쌍제시, 응답 옵션 수, 표지(label) 사용 여부)가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연구자들이 특정 연구 질문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실험 설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들은 이론적으로 관련된 문장들을 함께 제시하는 것(joint presentation)이 응답 척도의 종류와 무관하게 민감도를 높이는 데 뚜렷한 이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는 통합적 접근이 단순히 두 방법론을 병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각 방법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교하게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anselow(2020)의 경우, 비록 통합 방법론 자체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독일어 통사론 연구에서 수용성판단 실험과 같은 형식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론적 논의를 심화시킨 연구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형식적 실험 데이터가 어떻게 이론적 탐구와 성공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제 적용 사례로서 통합적 접근의 실현 가능성과 유용성을 입증한다.

궁극적으로 통합적 입장은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지향한다(Matthewson, 2022). 즉, 연구 질문과 맥락에 따라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고, 가능하다면 여러 방법론(직관, 실험, 코퍼스 분석 등)의 결과를 교차 검증(triangulation)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언어학 연구 방법론이 더욱 성숙하고 정교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두 방법론 간의 소모적인 대립을 넘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수용성판단 수집 방법론에 대한 오랜 논쟁은 통사론의 경험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언어학자들의 폐쇄적이고 주관적인 작관 사용에 대한 비판론자들의 초기 우려와 달리, 대규모 재현 연구들은 특히 영어의 경우 비형식적 판단이 예상보다 훨씬 신뢰할 만하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는 통사론 연구 대상의 큰 효과 크기, 학문 공동체 내의 비공식적 검증 기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실험 방법론은 그 자체의 가치를 지닌다. 특히 미묘한 수용성 차이를 구별하거나, 연구자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중요한 최소 대립쌍을 정밀하게 검증하는 데 있어 형식적 실험은 필수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또한, 덜 연구된 언어나 방언, 혹은 아동이나 제2언어 화자와 같은 특정 화자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형식적 방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느 한 방법론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보다는 각 방법론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연구 질문과 맥락에 맞게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통합적 또는 다원적 접근이 현재 가장 생산적인 방향으로 보인다. 비형식적 방법은 가설 생성과 명확한 현상 확인에 효율적이며, 형식적 방법은 가설 검증, 미묘한 차이 탐지, 결과의 객관성 및 재현성 확보에 강점을 가진다. 이 두 접근법의 상보적인 활용은 언어학 연구의 경험적 토대를 더욱 견고히 하고, 이론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더욱 정교화하고, 다양한 언어와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적 지침을 개발하는 데 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두 방법론(비형식적 직관과 형식적 실험)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비교 연구들이다. 아래 표 1은 영어를 대상으로 한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표 1> 영어를 대상으로 한 형식적 방법과 비형식적 방법의 비교

연구	과제 종류	데이터 출처	수렴률*	통계모델
Sprouse & Almeida (2012)	YN, ME	Adger (2003) 교재 최소대립쌍 234개	98 %	t-검정, 부호 검정, 혼합효과모형, 베이지요인
Sprouse et al. (2013)	FC, LS, ME	Linguistic Inquiry (2001 - 2010) 최소대립쌍 146개	95 %	기술적 방향성, 양측/단측 검정, 혼합효과모형, 베이지요인
Mahowald et al. (2016)	FC, LS	Linguistic Inquiry (2001 - 2010) 최소대립쌍 100개	95 %	혼합효과모형
Juzek & Häussler (2020)	LS	Linguistic Inquiry (2001 - 2010) 단일 문장 200개	$\kappa = 0.457$, 87/83% (매치율)	Cohen's Kappa, threshold test
Langsford et al. (2018)	YN, LS, ME, FC	Linguistic Inquiry (2001 - 2010) 최소대립쌍 150개	약 91 % (14/150 불일치)	Spearman ρ , Cronbach's α , 일반화/선형 혼합효과모형
Langsford et al. (2019)	LS	문장 433개	$\rho = 0.87$ (상관)	상태혼적 분석, 선형 혼합효과모형

* 수렴률은 각 논문이 보고한 '비형식적 직관 vs. 형식적 실험' 일치율, 또는 그에 대응하는 핵심 지표(κ , ρ 등)임.

** 과제 약어: YN 가부판단, LS 리커트척도, ME 강도추정, FC 강제선택

영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Sprouse & Almeida, 2012; Sprouse et al., 2013; Mahowald et al., 2016)는 비형식적 수용성판단과 형식적 실험 결과가 95-98 % 범위에서 수렴한다고 보고하였다. Mahowald et al.(2016)은 *Linguistic Inquiry*에 게재된 예문 100쌍을 재현하면서 효과 크기가 연속체를

이름을 확인하고, 베이스 통계 기반의 소규모 실험 SNAP을 제안하였다. SNAP은 5 명 × 5 항목(FC 또는 LS) 설계에서 만장일치가 나오면 전체 참가자의 75 % 이상이 동일 방향의 판단을 내릴 확률이 95 % 이상(예상 평균 0.91)이라고 추정한다. 실제로 100개의 대조 쌍 중 54개(54%)만이 이 만장일치 기준을 충족하였고, 나머지 46개에 대해서는 더 큰 표본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Juzek & Häussler(2020 : 130-134)는 동일 학술지의 예문 100개를 7점 리커트척도(LS) 과제로 평가한 뒤 일반화 선형 혼합효과(Poisson)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Cohen's $\kappa = 0.457$, $F1 = 0.73$ 이 산출되었는데, 이는 Landis & Koch(1977)가 제시한 '보통 수준 합치' 범주($\kappa = 0.41\sim 0.60$ 범위)에 해당한다. $F1 = 0.73$ 은 Sprouse et al.(2013) 등의 95 % 이상 수렴률과 달리 약 27 %의 불일치 항목이 존재함을 시사하며, 연구 설계(문장 쌍 대조 vs. 단일 문장 평가), 과제 유형, 통계 기준에 따라 합치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들은 '학문 공동체 내 합의 과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언어 현실의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질적·양적 방법의 결합'을 통해 잠재적 문장 집합을 체계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Langsford et al.(2018)은 위 연구들을 확장하여 *Linguistic Inquiry*에서 추출한 150개의 대조쌍을 대상으로 네 가지 과제(LS, ME, FC, Thurstone 기반 FC⁵⁾)를 비교하였다. 과제 간 전역 상관은 $r \geq 0.93$ 으로 매우 높았고, 두 방법 간의 불일치율은 가장 보수적인 리커트척도를 기준으로 1.3%(2개의 대조쌍), 가장 공격적인 '목표 최소쌍(target-pairs)' 기준으로 9.3%(14 대조)에 그쳤다. 또한 부트스트랩 기반 신뢰도 분석에서 리커트 척도와 Thurstone식의 강제선택 점수가 '가장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본 크기 $n \approx 50-100$ 이면 안정적이라는 실험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Langsford et al.(2019)은 수용성을 판단하도록 한 과제의 지시문과 문법성을 판단하도록 한 과제의 지시문이 서로 다른 잠재 차원을 반영할 가능성을 '상태-흔적 분석(state-trace analysis)'⁶⁾으로 검증하였다. 189명의 영어 화자가

5) 여기서 말하는 FC는 강제선택(forced choice)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정적 양자택일법(two-alternative forced choice)을 말한다. 이는 실험 참가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두 문장(정문과 비문)을 항상 동일한 쪽으로 제시하여 비교하게 한다. 반면, Thurstone식의 강제선택(Thurstonian forced choice)은 전체 문장 집합에서 매번 무작위로 두 문장을 선정하여 참가자에게 제시하고, 다양한 문장 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각 문장의 수용성 점수를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Langsford et al., 2018 : 356).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이 심리적 연속체(psychological continuum)상의 점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Thurstone(1927)의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문장의 자연스러움처럼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주관적 판단을 직접 점수로 묻지 않고, 두 자극 간의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점수화하고자 한다. 즉 모든 문장이 하나의 심리적 연속체 위에 위치한다고 가정하고, 참가자의 응답에서 얻어진 문장 간 상대적 비교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 문장의 절대적 수용성 점수를 산출한다(Langsford et al., 2018, p. 356).

6) 상태-흔적 분석(state-trace analysis)은 실험 데이터에서 두 종속 변수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400여 문장을 평가한 결과 두 지시 조건의 점수는 $\rho \approx 0.87$ 로 강하게 상관되었고, 단일 잠재 차원 가설을 기각할 증거가 없었다. 단, ‘비교 구문 환각 (comparative illusion)⁷⁾’ 유형처럼 효과 크기가 작은 문장에서는 지시문별 평균 점수 차가 작지만 유의하였다. 이는 지시문 효과가 존재하더라도 ‘수용성-문법성’ 구분이 대체로 동일한 근거 차원을 측정한다는 점, 그리고 효과 크기가 작은 현상에는 보다 세밀한 형식적 실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Langsford et al. (2018, 2019)은 ① 여러 과제가 높은 상호-신뢰도를 보이며, 특히 리커트척도 \geq Thurstone \gg ME·무작위 쌍 순으로 강건함을 확인하였고, ② 지시문 차이는 대체로 미세하나 효과 크기가 작은 ‘환각형’ 문장에서는 유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Sprouse & Almeida(2013) 계열 연구가 제시한 ‘전통적 방법, 즉 비형식적 수용성판단 실험은 대체로 강건하다’는 결론을 재확인하면서도, 효과 크기 연속체의 중간 그리고 작은 효과 영역을 다루려면 Mahowald et al.(SNAP)-류의 단계적 검증 절차나 Juzek & Häussler류의 대조적 설계가 병행되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형식적 방법과 비형식적 방법에 대한 실험통사론적 비교는 중국어 (Chen et al., 2020), 프랑스어(Feldhausen & Buchczyk, 2020), 독일어 (Kretzschmar & Brilmayer, 2019), 스페인어(Simonson, 2023), 일본어와 히브리어(Linzen & Oseki, 2018) 등 여러 언어에 적용되었으나, 특히 주목할 것은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관련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었다.

잠재적 심리적 차원(latent psychological dimension)에 의해 유발되는지를 판단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Bamber(1979)가 처음 제안한 이 분석법은 실험 결과에서 관찰된 두 변수 간의 관계가 단일 잠재 차원으로 설명 가능한지, 아니면 둘 이상의 분리된 차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상태-혼적 분석에서는 두 종속 변수의 측정값을 x-y 평면에 그래프로 표시하고, 이들이 단조 함수(monotonic function)를 따르는지 검토한다. 만약 단조 관계가 성립하면, 두 측정치는 동일한 근거 차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언어학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통해 수용성판단과 문법성 판단 같은 서로 다른 측정 방식이 실제로 동일한 언어 능력을 반영하는지 검증할 수 있다.

- 7) 비교구문 환각은 문법적 환각(grammatical illusion)의 일종으로, 겉보기에 문법적으로 적절해 보이나 실제로는 문법 규칙에 위배되는 문장을 화자가 무의식적으로 ‘문법적’이라고 판단하는 인지적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환각 문장은 형식적으로는 문법적 구조를 따르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비문에 해당한다. 예컨대 More people have been to Russia than I have와 같은 비교문은 의미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화자가 처음 접했을 때 이를 문법적으로 자연스럽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cf. Phillips et al., 2011).

<표 2>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형식적 방법과 비형식적 방법의 비교

연구	과제 종류	데이터 출처	수렴률	통계모델
송상현 외 (2015)	LS	생성문법연구 문장 240쌍	90 %	t-검정, Wilcoxon rank-sum
송상현 외 (2017)	LS	생성문법연구 (1991 - 2014) 문장 287쌍	82.93 % (κ) / 88.15 % (t)	t-검정, κ-statistic
안희돈 외 (2019)	YN, FC	생성문법연구 (2003 - 2013) 문장 121쌍	69 % (YN) / 78% (FC)	부호 검정, 혼합효과모형, 베이지요인
조용준 외 (2019)	LS, ME	생성문법연구 (2003 - 2013) 동일 121쌍	78 % (LS) / 82 % (ME)	t-검정, 선형 혼합효과모형, 베이지요인
안희돈 외 (2020)	LS	한국어 관련 논문 1만쌍	81%	t-검정

한국어 관련 연구는 형식적 방법과 비형식적 방법 간 수렴률이 69-90 % 수준에 머물러 영어보다 낮다. 특히 이산형 과제(YN/FC)를 사용한 연구(안희돈 외, 2019)는 70%대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고하며, 리커트척도(LS), 강도 추정(ME) 과제에서는 대체로 80 % 안팎의 수렴률이 관찰된다. 이는 과제 종류, 표본 규모, 통계 분석 절차 등이 수렴률에 민감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⁸⁾

비형식적 방법과 형식적 방법 간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요 관점이 존재한다. 우선 Sprouse(2023)의 ‘양적 스펙트럼’ 관점인데, 여기서는 두 방법 간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규모(scale)의 문제”로 간주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두 방법 모두 동일한 기저의 문법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수용성판단을 측정하려 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형식적 방법은 더 큰 표본 크기(N), 더 많은 실험 항목, 그리고 더 정교한 통계 분석을 통해 더 높은 통계적 검정력과 정밀도(precision)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명백한 섬 제약 위반과 같이 효과 크기가 큰 현상($\Delta \geq 1.0$ z-점수)은 소수의 전문가 직관만으로도 충분히 감지될 수 있지만, 미묘한 통사 현상, 예를 들어 that-trace 효과($\Delta \approx 0.4$ z-점수)와 같이 효과 크기가 작은 현상은 수십 개의 항목과 수십 명의 참가자를 동원한 형식적 실험을 통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 관점은 Goodall(2021)의 ‘질적 통제’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여기서는 형식적 실험이 단순히 규모의 문제를 넘어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더 높은 수준의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형식적 실험의 핵심적인 질적 이점은, 첫째로 요인 교차 설계(fully-crossed factorial design)를 통해, 관심 있는 문법적 요인과 잠재적인 교란 변수를 독립

8) 중국어(Chen et al. 2020)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렴률이 관찰되었다.

적으로 조작하고 모든 조합을 체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로 라틴방격 설계나 무작위 블록 설계 등의 역균형화 및 무작위화를 통해 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로 리커트 척도, 강제 선택 외에도 반응 시간, 뇌파, 시선 추적 등 다양한 측정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반응 형식이 다양하고 다중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양적 관점과 질적 관점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2.2 수용성판단 실험의 설계 및 수행

수용성판단 실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험 설계 및 수행 과정 전반에 걸친 면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수용성판단 실험의 과학적 엄밀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쟁점들이 제시되었으며, 신중한 방법론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본 절에서는 참여자 표집, 실험 환경 선택, 데이터 신뢰도 확보 방안, 평가 척도 유형, 그리고 수용성판단의 정도성 문제 등 실험 설계 및 수행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2.2.1 참여자 표집: 전문성과 인구통계학적 요인

수용성판단 실험의 첫 단계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참여자 집단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참여자의 언어적 전문성, 필요한 표본의 크기, 그리고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통사론 연구에서는 통사론자와 같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화자가 미묘한 문법성 대립을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도전을 받아왔다. Schütze(1996)는 오히려 연구자의 특정 통사 이론에 대한 지식이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판단의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의 연구들은 일반적인 모어 화자들도 충분히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수용성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 간 판단 결과에서 차이가 관찰되기도 하였으나 (Culbertson & Gross, 2009; Dąbrowska, 2010), 이러한 차이는 참여자들이 실험 과제에 충분히 익숙해졌을 때, 즉 과제 친숙도(task familiarity)가 높아졌을 때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 이는 관찰된 차이가 언어 능력 자체의 근본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실험 과제 수행 방식에 대한 이해도나 익숙함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실험 설계 시 명확한 지침과 충분한 연습 시행을 제공하여 참여자들이 과제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법론적 장치를 통해 참여자 유형(전문가 대 비전문가)과 실험 방법 간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론적 근거가 없는

한 일반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인 접근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참여자 표집 시 언어적 배경 외에도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사용 방언 등은 언어 사용 및 수용성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변수들이다 (Ellis & Barkhuizen, 2005).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이들 변수가 수용성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령대나 특정 방언 사용 집단의 언어 현상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표집 단계에서부터 해당 집단의 특성을 명확히 정의하고 참여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범위를 설정하고, 특정 집단에 국한된 현상인지 보편적인 현상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2.2.2 실험 환경 선택: 대면 환경과 온라인 환경

수용성판단 실험을 수행할 환경을 선택하는 것 역시 중요한 결정 사항이다. 전통적으로 언어학 실험은 연구자가 참여자와 직접 대면하여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클라우드소싱 플랫폼의 등장은 원격 온라인 실험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온라인 실험은 SurveyMonkey, Prolific 등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비교적 쉽고 빠르게 다수의 모어 화자를 모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Munro et al.(2010)이 지적했듯이, 온라인 실험은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분산된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데 용이하다. 이는 실험실 환경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웠던 표본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연령, 지역, 사회적 배경 등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수용성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거나, 특정 방언 사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전통적인 대면 실험 환경은 연구자가 실험 과정을 직접 통제하고 참여자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Bryman, 2016). 실험 환경은 소음이나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여 참여자가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복잡한 실험 절차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연구자의 직접적인 개입이 용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면 실험은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높은 시간 및 비용 소모, 그리고 실험실 환경이라는 인위적인 상황이 참여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잠재적 단점을 안고 있다(Bryman, 2016).

온라인 실험 환경은 통제 수준이 낮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닌다. 참여자들

은 각기 다른 장소와 기기,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험에 참여하게 되므로, 실험 조건의 완전한 균질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주변의 방해 요소나 참여자의 집중도 저하가 데이터의 잡음(noise)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특정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의 경우 참여자 풀이 특정 국가나 인구통계학적 집단에 편중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실험의 타당성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Sprouse(2011)는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수행된 수용성판단 결과와 온라인(MTurk)을 통해 수집된 온라인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결과, 두 환경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온라인 실험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설계 및 통제 장치를 갖춘다면 충분히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Reips, 2000). 결국, 온라인 실험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편의성을 넘어, 연구의 범위와 접근성을 확장하는 중요한 방법론적 적응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부 통제력을 희생하는 대신 얻게 되는 참여자 다양성과 규모의 증가(Munro et al., 2010)는, 실증적 검증(Sprouse, 2011)을 통해 그 타당성이 뒷받침되면서, 이전에는 수행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방언 연구나 미묘한 인구통계학적 효과 분석과 같은 새로운 연구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2.2.3 온라인 실험 데이터의 신뢰도 확보 방안

온라인 실험 환경의 개방성과 익명성은 참여자들의 비협조적 응답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일부 참여자들은 실험 지시문을 제대로 읽지 않거나, 과제에 집중하지 않고 무작위로 응답하거나, 가능한 한 빨리 과제를 끝내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Juzek & Häussler(2017)에 따르면, 웹 기반 수용성판단 실험에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5%에 달하는 참여자들이 과제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응답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불성실하거나 부주의한 응답은 데이터의 노이즈를 증가시켜 통계적 검정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연구 결과의 방향을 왜곡하여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실험에서는 이러한 비협조적 응답자를 식별하고 그들의 데이터를 분석에서 제외하는 체계적인 데이터 정제(data trimming) 또는 필터링(filtering)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행히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들을 개발하고 활용해왔다.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동일한 실험 문항(또는 의미적으로 동등한 문항)을 실험의 서로 다른 시점에 반복 제시하여 참여자 응답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다(Schnoebelen & Kuperman, 2010). 응답이 불일치하는 참여자는 과제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

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주의력 검사 문항(attention check items 또는 catch trials)을 실험 문항들 사이에 삽입하는 것이다(Munro et al., 2010; Oppenheimer et al., 2009). 이러한 문항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강아지가 멍멍 짖는다”와 같이 명백하게 자연스럽게 수용 가능한 문장으로, 대부분의 참여자가 높은 점수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실행했다”처럼 의미론적으로나 통사론적으로 명백하게 비문법적이거나 무의미한 문장으로, 낮은 점수가 예상된다. 참여자가 이러한 문항들에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한다면, 이는 해당 참여자가 문항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 외에도 참여자의 응답 시간을 측정하여 비정상적으로 빨리 응답을 제출한 참여자를 식별하는 방법이 있다. 너무 짧은 응답 시간은 참여자가 문항을 충분히 읽고 고려하지 않았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실험 종료 후 과제 내용이나 지시문에 대한 간단한 이해 문제(comprehension questions)을 추가하여 참여자의 과제 수행 충실도를 평가할 수도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참여자의 IP 주소를 확인하여 동일인이 중복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모든 문항에 동일한 점수 부여하는 등의) 특정 응답 패턴을 보이는 참여자를 식별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도 활용된다 (Oppenheimer et al., 2009).

이러한 데이터 필터링 절차의 효과는 실증적으로도 입증되었다. Sprouse & Almeida(2012)는 문법적 환각(grammatical illusion) 현상에 대한 수용성판단 실험에서 주의력 검사 문항 등을 이용한 필터링 절차를 적용했을 때, 데이터의 잡음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통계적 검정력이 향상됨을 보여주었다. 이는 온라인 실험에서 관찰되는 비협조적 응답의 문제가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 절차를 통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제 이러한 데이터 정제 기법들은 단순한 사후 보정 수단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통합적인 방법론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2.2.4 평가 척도의 유형과 특성

수용성판단 실험에서 참여자에게 문장의 자연스러움이나 문법성을 평가하도록 요청할 때 사용하는 측정 척도의 선택은 실험 설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연구자는 다양한 유형의 척도 중에서 연구 질문의 성격, 탐지하고자 하는 효과의 미묘함, 그리고 참여자의 인지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척도를 선택해야 한다.

가장 단순한 형태는 이분법적 판단(binary judgment) 또는 가부판단 과제(yes/no task)로, 참여자에게 문장이 수용 가능한지 아닌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수용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통사 현상의 미묘한 차이나 정도성을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세분화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리커트 척도(Likert scale)가 널리 사용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3점, 5점, 7점 등 여러 개의 응답 범주를 갖는 순서형 척도이다. 수용성판단 실험에서는 특히 5점 또는 7점 척도가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7점 척도는 참여자에게 충분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여 미묘한 수용성의 차이를 표현할 여지를 주면서도, 너무 많은 범주로 인한 과도한 인지적 부담은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Juzek & Häussler(2017)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을 때 문장들의 수용성 평가는 보다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 반면, 이분법적 척도를 사용했을 때는 많은 문장들이 인위적으로 양 극단값(완전히 수용 가능 또는 완전히 불가능)으로 분류되어 중간 영역의 정보가 손실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척도의 선택이 데이터의 분포 형태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각 아날로그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는 참여자가 직선 위에 자신의 판단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이론적으로 무한히 세분화된 응답을 가능하게 하여 매우 미묘한 차이까지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이 리커트 척도보다 다소 복잡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접근법은 강제 선택 과제(forced-choice task)이다. 이 방식은 두 개(또는 그 이상)의 문장을 동시에 제시하고 참여자에게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럽게나 문법적인지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Sprouse et al.(2013)은 이 방법이 특히 두 문장 간의 수용성 차이가 매우 작을 때, 즉 효과 크기가 작은 현상을 탐지하는 데 있어 리커트 척도나 강도 추정정보보다 더 민감하고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강제 선택 과제는 문장 간의 상대적인 선호도만을 알려줄 뿐, 각 문장의 절대적인 수용성 수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때로는 세 개 이상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다지선택(multiple-choice) 형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강도 추정(Magnitude Estimation, ME)도 사용되었다. 이는 참여자에게 기준이 되는 문장(standard stimulus)을 제시하고, 다른 문장들의 수용성을 그 기준 문장과 비교하여 수치적으로 비율을 추정하도록 하는 방법이다(Bard et al., 1996).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 비율 척도(ratio scale) 수준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참여자에게 절차를 이해시키고 훈련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오늘날에는 리커트 척도나 강제 선택 과제에 비해 사용 빈도가 낮아

지는 추세이다.

아래 표는 주요 수용성판단 척도들의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표 3> 수용성판단 척도의 유형별 비교

척도 유형	설명	주요 사용 사례	장점	단점	주요 인용 문헌
가부판단 (Binary)	수용 가능/불가능 중 택일	명확한 문법성 대조	간단하고 직관적, 인지적 부담 적음	정도성 포착 불가, 정보 손실 가능성	-
리커트척도 (Likert)	5점 또는 7점 등 순서형 범주 척도	일반적인 수용성 평가, 정도성 측정	비교적 간단, 정도성 반영 가능 (특히 다점 척도)	범주 간 간격이 등간격인지 불확실, 중심화 경향 가능성	Juzek & Häussler (2017)
시각 아날로그 척도 (VAS)	직선 위에 판단 정도 표시	매우 미묘한 차이 측정, 연속적 데이터 확보	세밀한 정도성 포착 가능, 연속형 데이터	데이터 처리/분석 복잡성, 기기/환경 영향 가능성	-
강제 선택 (Forced-Choice)	두 개 이상 문장 중 더 나은 것 선택	미묘한 문법성 대조, 작은 효과 크기 탐지	작은 차이에 민감, 비교 우위 명확	절대적 수용성판단 불가, 문장 쌍 구성 중요	Sprouse et al. (2013)
강도 추정 (ME)	기준 문장 대비 상대적 수용성 비율 추정	정밀한 비율 척도 데이터 필요 시 (과거 사용)	이론적으로 비율 척도 데이터 제공	절차 복잡, 참여자 훈련 필요, 인지적 부담 큼	Bard et al. (1996)

결론적으로, 어떤 척도를 사용할지는 연구자가 답하고자 하는 질문에 달려있다. 극미한 수용성 차이를 민감하게 포착해야 한다면 강제 선택 과제나 리커트 척도, VAS 등이 적합할 수 있으며, 정문과 비문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한 현상을 다룬다면 가부판단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척도를 선택하든 참여자에게 척도의 의미와 사용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충분한 연습 시행을 통해 모든 참여자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에 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Cowart, 1997; Tourangeau et al., 2000). 척도 선택 자체가 수집되는 데이터의 구조(범주형 대 연속형)를 결정하며, 이는 후속 분석 방법과 결과 해석, 나아가 문법성 자체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논의(정도성 문제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2.2.5 수용성판단의 정도성 문제와 관련 요인

형식적 실험을 통해 수집된 수용성판단 데이터는 종종 이분법적인 ‘정문/비문’의 구분을 넘어서는 정도성(gradience)을 보인다. 즉, 문장들의 수용성 등급이 뚜렷한 두 범주로 나뉘기보다는 연속적인 스펙트럼 상에 분포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Sprouse et al.(2013 : 25)의 연구에서도 전통적으로 정문으로 분류되는 문장들과 비문으로 분류되는 문장들의 수용성 평점 분포가 단일 연속선 상에서 상당 부분 겹쳐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수용성판단의 정도성은 통사론 연구에서 중요한 이론적 논쟁거리를 제공한다.

정도성 현상의 해석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이것이 문법성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인지, 아니면 언어 수행 과정에 개입하는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인지에 대한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문법성 자체는 범주적(categorical)이며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가정한다(Chomsky, 1965). 이 관점에서 관찰되는 수용성의 정도성은 문법 규칙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문장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인지적 부담(processing load), 기억 용량의 한계, 문맥 효과, 의미적 개연성 등과 같은 다양한 수행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잡음’으로 간주된다(Newmeyer, 2003).

반면, 일부 학자들은 수용성의 정도성이 문법 체계 자체에 내재된 특성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Keller(2000)는 최적성 이론의 틀 내에서 제약들이 확률적인 가중치를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문법성이 정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Wasow(2009) 역시 특정 통사 구조의 사용 빈도나 확률적 문법 모델을 통해 정도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화자의 내재 문법 자체가 범주적인 규칙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확률적이거나 연속적인 값을 갖는 원리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에는 뇌영상 연구 등을 통해 수용성판단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뇌 영역이 복합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Bornkessel-Schlesewsky & Schlewsky, 2013). 이는 수용성판단이 단순한 이분법적 결정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인지적 요소들이 관여하는 복잡한 처리 과정임을 시사하며, 정도성 문제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수용성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면, 순수한 통사적 구조 외에도 다양한 비통사적 요인들이 관여함을 알 수 있다. Juzek & Häussler(2017)은 특히 통사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오류를 포함하는 문장들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를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즉 의미해석 가능성(intelligibility) 또는 의미적 개연성(semantic plausibility)에 따라 수용성 평점이 달라지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는 참여자들이 문장을 평가할 때 순수한 통사적 규칙 위반 여부뿐

만 아니라 의미적 측면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준다.

맥락 역시 수용성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동일한 문장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맥 속에서 제시되느냐에 따라 그 자연스러움이나 수용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Greenbaum & Quirk, 1990). 예를 들어, 특정 정보 구조를 요구하는 문장은 독립적인 문맥에서는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적절한 선행 문맥이 주어지면 완전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는 문법적 수용성이 화용론적 적절성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함을 시사한다.

결국, 수용성판단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정도성 현상은 문법성, 언어 수행(인지 처리, 의미 해석, 화용론적 요인), 그리고 실험 방법론(척도 선택, 문맥 통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나타나는 결과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정도성 데이터를 해석할 때는 이것이 문법 자체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수행 요인들의 영향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요인들을 가능한 한 통제하거나 체계적으로 조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3 통계적 검정력

실험통사론에서 통계적 검정력(statistical power)은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이다. 통계적 검정력이란 실제로 효과가 존재할 때 이를 탐지할 확률($1-\beta$)을 의미하며, 제2종 오류(β)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수용성판단 실험에서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문법성 차이를 통계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한다.

제2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거짓임에도 기각하지 못하는 오류, 즉 실제 효과가 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위음성(false negative) 오류를 의미한다. 이는 보통 표본 크기가 작거나 측정 도구의 민감도가 낮을 때 발생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제1종 오류율(α)을 5% 이하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만, α 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제2종 오류율(β)이 높아져 실제 효과를 놓칠 위험이 커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Sprouse & Almeida(2017)는 실험통사론 분야에서 통계적 검정력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중요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학술지 Linguistic Inquiry(2001-2010)에서 추출한 47개의 영어 통사 현상을 대상으로 네 가지 주요 수용성판단 과제, 즉 가부판단법(YN), 7점 리커트 척도(LS), 양자택일형 강제 선택(2AFC), 강도 추정(ME)의 통계적 검정력을 다양한 표본 크기(5-100명)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체계적으로 비교했다.

연구 결과, FC 과제가 모든 효과 크기 범위에서 가장 높은 검정력을 보였다. 중간 정도 크기의 효과($\Delta \approx 0.8$)를 80%의 검정력으로 탐지하기 위해 빈도주의

통계(t-검정 혹은 부호 검정)를 적용하는 경우 FC는 약 40명의 참가자가 필요한 반면, 리커트 척도는 약 50명, 가부판단법은 약 65명, 강도 추정법은 약 70명의 참가자가 필요했다. 이 결과는 과제 유형에 따라 동일한 검정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표본 크기가 1.6배까지 차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Langsford et al.(2018)은 Sprouse et al.(2013)에서 샘플링한 문장들을 활용하여 과제 간 민감도를 비교했다. 이 연구에서는 Thurstone 모델이 2AFC보다 약 15% 적은 표본으로 동일한 검정력을 달성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여기서 Thurstone 모델은 Thurstone(1972)이 제안한 비교판단 법칙(Law of Comparative Judgment)에 기반한 심리측정 모델로, 참가자들에게 두 자극을 무작위로 제시하고 어느 것이 더 수용 가능한지 선택하게 한 후, 각 자극의 상대적 선호도를 잠재적 심리적 척도 상에 위치시키는 방법이다. 프로빗 변환(probit transformation)⁹⁾은 이러한 쌍대 비교 결과를 표준 정규분포 척도로 변환하여 각 자극의 절대적 수용성 점수를 추정하는 과정이다. 이 방법론은 참가자들이 직접적인 척도 평가보다 상대적 판단을 더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테스트-재테스트 신뢰도(r_{tt})는 0.92로 매우 높았다.

Marty et al.(2020)은 Sprouse & Almeida(2017)의 후속 연구로, 과제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 방식, 응답 옵션, 라벨 유무 등의 요인이 검정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중요한 발견으로는 응답 척도의 유형과 관계없이, 비교 대상 문장을 쌍으로 함께 제시하는 것(joint presentation)이 각 문장을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민감도를 뚜렷하게 높인다는 점이었다. 이는 FC나 Thurstone 모델의 높은 성능이 상당 부분 이러한 제시 방식에 기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Weskott & Fanselow(2011)와 Sprouse(2011)의 연구에서는 강도 추정(ME)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ME는 비례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해 표준편차가 15-30% 증가하고, 이로 인해 리커트 척도나 FC에 비해 검정력이 20-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과제들의 민감도, 검정력,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9) probit은 probability unit의 줄임말로, 표준 정규분포의 역함수(inverse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사용하여 확률을 변환하는 통계적 방법을 의미한다.

<표 4> 과제별 민감도·검정력 비교 요약

과제	주요 연구·표본	d' (평균)	검정력 (50명)	r ^{tr}	상대 효율*	핵심 관찰
LS	Sprouse & Almeida 2017 (n = 50)	1.10	0.84	0.88	0.92	기반 과제, 안정적 분포
2AFC	Sprouse & Almeida 2017 (n = 50)	1.35	0.95	0.87	1.00	가장 높은 검정력 (영어)
YN	Sprouse & Almeida 2017 (n = 50)	0.90	0.68	0.82	0.74	범주적 한계 → 민감도 ↓
ME	Weskott & Fanselow 2011 (n = 24)	0.85	0.62	—	0.63	변동성 ↑ (+15-30% SD)
Thurstone	Langsford et al. 2018 (n = 36)	1.20	0.90	0.92	0.96	작은 표본 효율 > 2AFC
	Marty et al. 2020 (n = 80)	1.26	0.93	0.91	0.97	과제 특성 통제 시 2AFC ≈ TT

*상대 효율: 2AFC = 1.00 기준(검정력/참가자). 값이 높을수록 같은 Power를 더 적은 표본으로 달성

통계적 검정력과 관련된 연구들은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Sprouse(2018)의 연구에 따르면, 효과 크기가 0.5 표준편차인 현상을 리커트 척도로 30명만을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검정력은 약 0.45에 불과하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효과를 55%의 확률로 놓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정력(≥ 0.80)을 확보한 실험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출판 편향 측면에서도, 검정력이 90%인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와 비유의미한 결과를 모두 보고할 경우, 위양성 비율이 25%에서 10%로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충분한 검정력을 갖춘 연구가 학문적 편향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실험통사론에서 통계적 검정력은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질문과 예상 효과 크기에 맞는 적절한 과제 유형과 표본 크기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특히 미묘한 통사 현상을 다룰 때는 충분한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조용준(2023)은 국립국어원 보고서 「문장 문법성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안희돈 외, 2020)에서 무작위추출한 1만 쌍의 문장에 대해 대규모 크라우드 소싱 실험(7점 리커트척도)를 통해 수집한 수용성판단 결과과 이중 50쌍을 대상으로 2가지 과제(LS, ME)에 대해 Sprouse & Almeida(2017)과 동일한 시뮬레이션 절차를 수행하였다. 먼저 전자의 효과 크기 중앙값은 1.28로 ‘아주 큰 (extra-large)’ 범주에 해당하였고, 후자의 실험은 0.95로 ‘큰(large)’ 범주에 위

치하였다. 이어 7점 리커트(LS)·강도추정(ME) 과제에 대해 표본수를 5-100명까지 1명 단위로 증가시키며 1,000회 재샘플링한 결과(검정력 0.80, $\alpha = 0.05$ 기준), ① 효과 크기가 동일할 때 $LS > ME$, 반복측정 > 독립측정 순으로 검정력이 높고, ② 작은 효과($\Delta \leq 0.4$)는 $n = 100$ 이하로는 80% 검정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Sprouse & Almeida(2017)의 영어권 시뮬레이션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이는 ‘통사적 최소대립쌍’의 효과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한국어에서도 소규모(≈ 20 명) 실험이 가능하되, 미묘한 현상이나 독립표본 설계에서는 최소 80-100명 이상을 계획해야 함을 시사한다(조용준, 2023: 10-12). 결과적으로, 한국어 자료에서도 과제 유형, 표본 크기, 효과 크기 등의 세 변수가 검정력에 미치는 영향이 영어와 동일한 함수적 관계를 보인다.

2.4 수용성 효과의 요인

수용성판단 연구는 단순히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보다 더 수용 가능한지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판단 패턴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용성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통사적 제약(grammatical competence, G)과 처리 요인(processing performance, P)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사적 제약은 언어 사용자의 내재된 문법 지식에 의해 부과되는 제약을 의미한다. 특정 문장 구조가 해당 언어의 문법 규칙을 위반할 경우, 일반적으로 모어화자 집단 전체에 걸쳐 매우 낮은 수용성 점수로 일관되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Sprouse et al.(2012)의 연구는 통사적 제약의 특징적인 증거로 초가산적 상호작용(super-additive interaction)을 제시했다. 이는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문법적 제약($G1, G2$)이 하나의 문장에서 동시에 위반될 경우, 각 제약 위반으로 인한 수용성 감소 효과의 단순 합($G1+G2$)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수용성 감소($G1 \times G2 > G1+G2$)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초가산성은 해당 효과가 단순한 처리 부담의 누적을 넘어서는, 문법 체계 내의 근본적인 제약에서 비롯됨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로 여겨진다.

처리 요인은 문장을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부담이나 제약과 관련된다. Gibson(1998)의 연구는 처리 부담이 문장의 길이, 구성 요소의 어휘 빈도, 구문 구조의 복잡성(내포문의 깊이, 의존성 거리) 등과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Kluender(1998)는 처리 부담이 수용성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제 언어 사용에서 관찰되는 많은 수용성판단은 순수한 문법적 요인이나 순수한 처리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Wagers et al.(2009)은 ‘일치 유인의 환각 (agreement attraction illusion)’¹⁰⁾ 현상을 통해 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복수 명사구가 개입할 때 단수 주어임에도 불구하고 복수 동사 형태가 상대적으로 수용 가능하게 느껴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환각 현상은 처리 과정의 특성과 문법 지식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관찰된 수용성 효과의 원천이 문법적 제약인지 처리 요인인지, 아니면 둘의 상호작용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적 및 분석적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요인 교차 설계(factorial design)이다. 이 설계에서는 연구 가설과 관련된 문법적 요인과 잠재적인 처리 요인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이들의 수준을 조합하여 2x2 또는 더 복잡한 형태의 실험 조건을 구성한다.

Sprouse et al.(2012)은 섬 효과 연구에서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이 연구에서는 섬 제약(G)과 의존성 거리(P)의 효과를 분리하기 위해 [섬 제약 위반 없음 + 짧은 거리], [섬 제약 위반 없음 + 긴 거리], [섬 제약 위반 있음 + 짧은 거리], [섬 제약 위반 있음 + 긴 거리]의 네 가지 조건을 만들었다. 분석 결과, 두 요인 간에 추가산적 상호작용이 발견되었고, 이는 섬 효과가 단순한 처리 비용 증가 이상이며, 기억 용량과 무관한 문법적 제약임을 시사한다.

작업 기억 조절 방법 또한 중요한 진단 패러다임이다. Sprouse et al.(2012)은 참가자들의 작업 기억 용량(WMC)을 독립적인 측정 과제를 통해 측정 후, 이를 수용성판단 데이터 분석 시 변수로 포함시켰다. 섬 제약 위반으로 인한 수용성 저하가 참가자의 WMC 수준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효과가 처리 자원의 제약보다는 문법적 제약 자체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을 뒷받침했다.

Snyder(2000)는 ‘통사적 포만(syntactic satiation)’ 현상을 연구했다. 이는 특정 유형의 비문법적인 문장(특히 약한 제약 위반으로 간주되는 문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초기에는 낮았던 수용성판단 점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What did you wonder whether John bought?”와 같은 ‘whether-섬’ 위반 문장은 처음에는 매우 낮게 평가되지만, 동일한 유형의 문장을 여러 번 판단하게 하면 점차 수용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현상은 참가자의 내재된 문법 지식 자체가 변했다기보다는, 반복적인 노출을

10) 일치 유인 환각은 문법적 환각의 일종으로 문장 내 주어와 동사의 수 일치 오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문장이 문법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인지적 현상을 말한다. 이는 특히 복잡한 명사구 구조에서 나타나며, 주어 명사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수일치 유인어(attractor)가 실제 일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 예컨대 영어 문장 The key to the cabinets are on the table은 주어 the key가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복수 명사 cabinets에 의해 동사 are가 복수형으로 잘못 일치되었지만, 많은 화자가 이를 수용 가능한 문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Bock & Miller, 1991).

통해 해당 구조에 대한 처리 효율성이 증가하거나, 또는 해당 위반에 대한 민감도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연구들은 수용성판단을 단일한 요인의 결과가 아닌 문법과 처리의 상호작용 결과로 보는 통합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Sprouse(2023)는 수용성 점수를 문법 신호(G)와 처리 신호(P)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하는 구체적인 수학적 모델을 제시했다.

$$\text{수용성판단 점수} = \beta_0 + \beta_1 \cdot G + \beta_2 \cdot P + \varepsilon$$

여기서 G는 문법적 요인, P는 처리 용이성을 나타내며, β_1 과 β_2 는 각각 문법 신호와 처리 신호가 최종 수용성 점수에 기여하는 상대적 가중치를 나타낸다. 이 모델은 각 요인의 기여도를 정량화함으로써, 다양한 통사 현상에서 나타나는 수용성 패턴의 점진성을 단일한 틀 안에서 비교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한다.

Dillon & Wagers(2021)는 신호 탐지 이론(SDT)을 수용성판단에 적용하여, 관찰된 판단 이면의 잠재적인 증거 강도(sensitivity, d')와 판단 기준(criterion, c)을 분리하는 접근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문법과 처리 요인이 수용성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수용성판단이 단순히 문법적 지식의 반영이 아니라 문법과 처리 체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용성판단 데이터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다층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문법적 제약과 처리 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분리하여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실험통사론이 단순히 수용성판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그 기저의 인지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5 한국어 통사 현상에 대한 수용성판단 실험 연구

한국어 통사론에서 수용성판단 실험은 주요 통사 현상들의 실증적 검증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어 수용성판단 실험은 Sprouse & Almeida(2023), Szendrői(2023), Kaiser & Runner(2023) 등이 제시한 일반론을 많은 부분 지지하면서도, 몇몇 현상에서는 영어와 다른 양상을 보여 보편 문법 이론에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한국어 주요 통사 현상별로 실험 연구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5.1 섬 제약 연구

한국어의 섬 제약 존재 여부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 Kim & Goodall(2016)은 한국어 의문사 섬 제약을 정량적으로 검증하여, 한국어에서도 의문사 섬 구성에서는 의문사의 위치에 따른 유의미한 수용성 저하가 나타남을 보고하였으나, 부가어 섬(부사절)에서는 유사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김일규(2016)는 한국어 복합명사구 제약(CNPC)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는데, 담화적으로 적절한 섬 위반 문장은 높은 수용성을 보인 반면, 담화 맥락이 불충분한 경우 수용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는 한국어 화자가 형식적 섬 제약보다 의미적 응집력에 더 민감함을 시사한다. 즉 문법적 요인보다는 문장 처리라는 수행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용훈·박연경(2015)도 CNPC 효과를 연구하여, 복합명사구 내 의문사가 문장 내에 있을 때 유의한 수용성 저하가 발생함을 보였으나, 그 효과 크기가 영어 등 통사적 섬 언어보다 작았으며, 화자별 편차도 관찰되었다. 한혜령(2019)은 이러한 개인차에 주목하여 의문사 섬 판단과 작업 기억 능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작업기억 용량이 큰 화자들이 의문사 섬 위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섬 효과의 인지적 기반을 시사하였다. 이는 Sprouse, Wagers, & Phillips(2012)가 영어에서 작업기억과 섬 효과의 관계를 연구한 방법론과 유사한 접근으로, 언어 보편적 제약의 인지적 기반을 탐색하는 시도이다. 정덕호·김윤희·김정석(2017)은 한국어 뒤섞기(scrambling) 문장에서의 섬 효과를 실험하여 복합명사구 제약 조건에서만 기본 어순과 도치 어순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남을 발견했다. 옥성수·김수연(2016)은 한국어 의문사 의문문에서 섬 효과가 한정성, 담화 연결성, 뒤섞기와 같은 언어처리 요인에 영향받음을 보여, 한국어의 섬 효과가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에 따른 산물임을 시사했다. 김일규·지윤주(2023)는 한국어 뒤섞기 구문에서 CNPC 효과의 본질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여, 구조적 제약과 처리 부담의 상호작용을 밝혔다. 김보영(2015)은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화자의 섬 제약 민감성 연구에서 모어 제약이 제2언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한국어 화자들이 영어 피동문 특유의 제약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Ko et al.(2019)은 한국어에서 섬 구조 밖으로의 뒤섞기를 실험적으로 검토하면서, 섬 위반에 따른 수용성 저하는 분명히 관찰되었으나, 영어의 의문사-이동에서 보이는 초가산성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Ko et al., 2019 : 306-308). 이를 통해 한국어의 뒤섞기는 영어의 A'-이동과는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5.2 탈락 및 생략 현상 연구

한국어 생략 현상에 대한 실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Han et al.(2020)은 한국어 공목적어(null object) 구문을 실험으로 검증하여, 이 현상이 논항 생략(argument ellipsis)인지 심층적 대용화(deep anaphora)인지를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화자들은 공목적어를 명시적 선행사 없이도 특정 대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통사적으로 논항 자체가 생략되었으나 의미적으로 복원 가능함을 시사한다. 김정석·김윤희·정덕호(2020)은 좌교점 인상(left-node raising) 구성에서 격 불일치가 있을 때 수용성이 유의하게 떨어짐을 발견했다. 김정석 외(2021)은 한국어 ‘왜’ 생략(why-stripping) 구문에서 부정극어 ‘아니’의 유무보다 선행문이 부정문인 경우 처리 부담이 증가함을 관찰했다. 김정석(2023)은 한국어 ‘왜’ 생략 구문에서 태 불일치 구문에 대해 화자들이 약간 비선호하는 경향은 보이지만 완전히 비문으로 판단하지는 않음을 보였다. 이는 영어에서 태 불일치에 대한 절대 불허와 대비되는 결과이다. 김정석(2024)은 한국어 분열문 병렬 접속(gapping) 구문에서 격 표지 탈락은 개별적으로는 허용되지만, 두 절이 의미적으로 평행하지 않을 때 탈락 구성의 수용성이 크게 저하됨을 보고하였다. 김경민(2019)은 한국어 대용화(anaphora)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여 VP 대용화, 공대명사-관계대명사 등의 현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 ‘하다’ 생략문이 영어 do-지지와 달리 완전한 표면적 대용화로 기능하지 못하며, 담화적 복원이 필요함을 밝혔다. Kim et al.(2020)은 do it 구문에 상응하는 한국어 VP 대용 표현의 통사적 지위를 실험으로 검증하였다. 맥락상 선행절 동사를 받는 되다류 표현을 사용한 문장들은 대응하는 완전한 절 반복문과 유의미한 수용성판단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정석·김윤희·정덕호(2020)는 한국어 좌교점 인상 구문에서 격 불일치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분석했다. 김정석 외(2024)은 한국어 생략과 접속 구문에서의 시제 불일치 현상을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2.5.3 높임법 연구

한국어의 높임법 일치 현상도 실험적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송상현·정덕호·오은정(2017)은 한국어 높임법 파괴 현상을 조사하여 높임법이 문법상 요구되는 위치에서 생략된 문장과 높임 표지가 불필요한 절에서 등장하는 경우 모두 낮은 수용성을 보임을 발견했다. 이는 부적절한 높임 표지 사용이 화자에게 뚜렷이 감지됨을 시사한다. 김정석·정덕호·이진형(2023)은 높임 일치와 관련한 좌변 병렬 주어 구문을 연구하여 한국어 화자들이 가까운 주어(linearly closest

subject)에 일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을 보임을 밝혔다. 즉, 복수 주어 중 앞에 높임 대상이 있으면 주체높임 선어말어미를 사용하는 것을 비교적 허용하지만, 높임 대상 아닌 주어 뒤에 높임 대상이 있을 때는 높임형 사용을 어색하게 판단하였다. 이는 한국어 높임 일치가 통사적 위계뿐 아니라 선형적 순서의 영향도 받는다는 주장으로, 슬라브어 등에서 관찰되는 일치 유인 효과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소영·유명혜(2023)은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의 처리 과정에서 회수(retrieval)와 예측적 처리 메커니즘을 탐구하였다. 높임대상 명사가 나오면 화자들은 뒤따르는 동사에 높임형이 나오지 않을 경우 놀람 효과를 보였고, 해당 문장의 수용성 평점도 낮았다. 반대로 높임대상 없는 맥락에서 높임형 동사는 과잉표지로 인식되어 비문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한국어 화자가 높임 일치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수용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2.5.4 격 현상 연구

한국어의 다양한 격 현상도 실험 연구의 주제가 되었다. 송상헌·정덕호·오은정(2017)은 격중출 구문의 수용성을 조사하였다. 평서문에서의 격중출은 극도로 비문으로 평가되었지만, 일부 종속절 환경에서는 화자들에 따라 약간의 허용도가 관찰됨을 보고했다. 이는 한국어에서 격표지 중출이 맥락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박상희·이은경(2020)는 대격중출구성에서 이해 조건에서는 이중 대격 문장이 다소 낮은 수용성을 보였으나, 산출 조건에서는 비교적 많은 화자가 이를 사용하는 산출-이해 간 비대칭성을 발견했다. 이는 산출에서 경제성이나 방언적 다양성으로 인해 이중 목적어 구조가 산출되기도 하지만, 표준적인 수용성판단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됨을 시사한다. 박상희·이은경(2022)는 이중 목적어 구문이 초점 맥락에서도 전반적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임을 보고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두고, 한국어 화자가 격표지 중복을 회피하려는 강한 통사적 선호를 가지면서도, 담화적으로 동기화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여지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박양숙(2020)은 내포절 내 주제 표지(‘는’)가 대조적 주제 맥락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나, 맥락 없이 사용되면 비문으로 간주됨을 밝혔다. 이는 보조사 ‘는’이 문법 격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속절 내에서는 담화적으로 동기화된 경우에만 허용됨을 보여준다. 박상희·김정수(2021)는 한국어 시제 미표현 대등 접속문에서 첫 절에 시제가 없고 두 번째 절에 시제가 나타나는 경우 화자들이 일관성 부족으로 판단함을 보고했다. 이는 등위절 간 시제 일치가 중요한 문법적 제약임을 나타낸다. 김현우·신규호(2021)는 장기적 언어 사용 경험이 문장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문장 판단의 개인차를 조명하였다.

2.5.5 수량화와 분류사 연구

한국어의 유동 양화사와 관련된 통사·의미 현상도 실험적으로 탐구되었다. 고희정·오은정(2012)는 한국어 유동 양화사 연구에서 양화사와 명사구 사이에 다른 논항이 개입되는 구조, 특히 주어 명사구의 양화사가 목적어 뒤에 위치할 때 크게 비문으로 나타남을 발견했다. 이는 유동 양화사가 문장 경계부를 넘어서 이동할 수 없음을 시사하며, 양화사 유동이 형태격 정보보다는 통사적 위치에 의해 제약됨을 보여준다. Lee & O'Grady(2016)는 양화사-상호작용 문장의 모호성 판단에서 한국어 화자들이 역범위(inverse scope) 해석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표면적 해석을 선호함을 보였다. 이는 한국어에서는 통사적 성분통어 관계가 범위 해석에 강하게 반영되어, 양화사의 상대적 위치가 의미 해석을 거의 결정함을 시사한다. 이지은·송상현(2023)은 한국어 핵내포 관계절 문장을 화자들이 대체로 허용하면서도, 머리절이 내포절 내부에 있을 때 처리 난이도가 증가함을 발견했다. 이는 한국어 화자가 해당 구조를 이해는 하지만, 핵외부 관계절에 비해 선호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김정석(2023)은 사건 종결성과 분류사 표현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다루었다. 분류사가 특정 개체를 지칭할 때 화자들은 사건을 종결적(telic)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분류사 표현이 사건 구조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한국어의 분류사-양화 표현이 의미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오은정·송상현(2016)은 한국어 결과구문의 '-게/도록' 교체 현상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여 이 두 형태의 의미·통사적 차이를 고찰하였다.

2.5.6 결속과 통제 현상 연구

한국어 재귀대명사와 관련된 연구도 실험적으로 연구되었다. 이용훈·김은아·김지혜(2015)은 재귀대명사 '자기'가 통사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주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되어 전통적인 주어 조건(조건 A)과 일치함을 보였으나, 부가어 통제 구문에서는 맥락과 의미에 따라 주어가 아닌 요소가 통제 주어로 인식되는 예외적 사례도 발견하였다. 이는 부가어 통제에서 한국어 화자가 엄밀한 통사 규칙보다는 담화적 추론에 의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Han & Moulton(2024)은 '자기'의 선행사로 성분통어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일 때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수용성도 높았으나, 성분통어하지 않는 선행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밝혔다. 이는 한국어 화자가 '자기' 결속에 여전히 통사적 조건

을 적용함을 보여주며, 성분통어 조건이 심리언어학적 현실성이 있음을 지지한다.

2.5.7 태 연구

한국어의 태(능동, 수동, 사동)도 실험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김정석(2023a)의 '왜' 생략 연구에서 화자들이 능동/피동의 교차 사용에 대해 영어 화자보다 관대함을 보였다. 이는 한국어에서 피동태가 반드시 통사적 제약을 초래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박양숙(2020)의 내포문 주제 연구에서는 사동문의 내포절에서 보조사 '는'의 첨가가 상대적으로 덜 자연스럽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사동이 이미 통사적으로 초점화된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제 표지가 과잉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보영(2015)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모어화자들이 영어 피동문 특유의 제약(that-trace 효과 등)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에 해당하는 유사한 통사 환경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5.8 실험 방법론 연구

수용성판단 실험 방법론 자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임규홍(1998)은 국어학 논문에 자주 인용되는 예문들의 수용성이 실제 화자의 직관과 부합하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연구 논문의 기술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일부 경계 사례에서는 통사론자의 직관과 일반인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Sprouse, Schütze, & Almeida(2013)가 영어 통사론 논문의 예문을 대상으로 수행한 형식적/비형식적 판단 비교 연구와 유사한 접근으로, 한국어 연구의 방법론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도였다. 송상헌·오은정(2016)은 5점 척도와 7점 척도의 효과를 비교하여 척도 선택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전반적 경향은 유사하지만 척도에 따른 미세한 분포 차이가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송상헌 외(2015)은 한국어 수용성판단 실험의 방법론적 민감성을 평가하기 위해, 동일한 문장 쌍에 대해 여러 실험 조건(종이/컴퓨터, 무작위/고정 제시 등)을 교차 비교하였다. 255명의 대규모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제시 매체나 무작위화 여부에 따라 판단 분산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송상헌·최재웅·오은정(2014)는 번역 기반 자극에서의 수용성판단을 비교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용훈·김은아·김지혜(2015)은 7점 척도 대신 강도 추정법(magnitude estimation)을 도입하여 한국어 주어성 진단 기준의 타당성을 측정하였다. 조용준(2015)는 대격중출구문을 대상으로 하

여 과제 유형(YN, 2AFC, LS, ME 등)의 차이, 형식적 방법과 비형식적 방법의 수렴성 여부,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3. 실험통사론의 전망과 과제

실험통사론은 통사론 연구의 경험적 검증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 수집과 분석 기법의 정교화로 대규모 화자 집단으로부터 체계적·정량적인 판단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소수 전문가의 직관에 의존하던 전통적 방법보다 신뢰도 높은 통사 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방법론적 발전으로 통사 현상의 미묘한 차이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고, 통사 이론의 예측을 한층 견고하게 검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게 된다. 통사 이론과 긴밀히 연계하고 심리언어학·뇌언어학 등 인접 분야와 융합함으로써, 실험통사론은 이론의 예측을 엄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이론 발전에 반영하는 선순환적 연구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도 확대되어, 대규모 말뭉치와 딥러닝 언어모델을 가설 검증의 보조 도구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다만 AI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므로 모델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최종 검증은 인간 화자의 직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실험통사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이론적 과제들도 있다. 우선, 실험으로 얻은 통사 데이터가 통사 이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이론적 예측과 실험 결과를 정교하게 연결하는 연결 이론이 중요하다. 또한 통사 판단이 이분법적 옳고 그름을 넘어 연속적인 ‘정도’ 차원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일도 요구된다. 일부 문장이 실험에서 중간 정도의 수용성을 보일 경우, 그 원인이 통사 규칙의 미세한 위계에 있는지 아니면 맥락이나 처리 난이도 등 비문법적 요인에 있는지 규명하여 통사 이론이 이러한 정도적 자료를 포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다른 이론적 과제로는 통사론의 인지적 실재성, 즉 이론상의 통사 원리가 인간의 뇌와 언어 처리 과정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이론이 예측한 제약이 뇌 반응 실험 등에서 특이한 신경 신호로 관찰된다면, 해당 이론의 심리적 타당성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이론상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도 특정 맥락에서는 큰 부담 없이 처리된다면 그 이론은 맥락 효과를 반영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증거들을 축적함으로써 통사 이론을 인간 언어 능력의 실제 작동 원리에 부합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제시된다. 첫째, 자료 수집의 신뢰도와 결과의 재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소수 피험자나 단

일 실험에 의존한 결과는 우연이나 편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표본 규모를 확보하고 반복 실험을 통해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p-값 등 유의확률에만 의존하지 말고 효과 크기나 베이스 통계와 같은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통계 분석의 엄밀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데이터 공유와 사전 등록 등 투명한 연구 절차를 확립하여 재현 가능하고 신뢰도 높은 연구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험 설계와 측정 도구를 개선하여 통사 현상을 다각도로 조명해야 한다. 수용성 판단 실험의 척도나 응답 방식에 따른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여러 측정법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하면 반응 시간 등 복수의 지표를 병행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러한 접근은 동일한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검증함으로써 결과 해석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여준다. 셋째, 심리언어학과 신경언어학의 실험 기법을 도입하여 통사 규칙의 인지적 실현 양상을 탐구해야 한다. 예컨대 뇌파(ERP) 측정이나 안구 추적을 통해 문장의 실시간 처리 과정을 추적하면 특정 통사 구조에서 처리 난이도와 인지 부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통사 이론이 예측한 제약이 실제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다만 이러한 기법을 활용할 때에는 관찰된 실험 효과를 통사 이론의 맥락에서 해석하기 위해 이론과의 연결 고리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넷째, 인공지능과 대규모 말뭉치 등의 새로운 자원을 통사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체계화해야 한다. 대규모 언어모델과 말뭉치 기반 분석은 통사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언어모델을 이용해 실험 자극을 자동 생성하고 본실험에 앞서 예비 검증을 수행하는 등의 절차가 도입된다면 연구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언어모델의 산출을 참고하더라도 최종적인 통사 일반화의 도출과 검증은 반드시 인간 화자의 직관적 판단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연구 기법과 기술을 상호보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실험통사론의 연구 효율성과 엄밀성을 함께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 발표는 수용성판단 실험을 중심으로 한국어 실험통사론의 현황을 살피고 향후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중반 Schütze(1996)와 Bard et al.(1996), Cowart(1997)의 선구적 연구를 계기로 통사론은 실험적 연구 방법론을 적극 수용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개별 언어학자의 직관에 의존했던 수용성 판단은 이제 다수 화자의 체계적인 실험 데이터로 뒷받침되며 통사 이론의

경험적 토대를 한층 강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여러 통사 현상에 대한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자료가 축적되었으며, 다양한 측정 기법과 통계 분석이 도입되어 데이터의 정량적 평가와 객관적 비교도 가능해졌다. 또한 통사론은 심리언어학·뇌언어학 등 인지과학 분야와의 학제적 소통을 확대하며 언어 능력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험통사론이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i) 이론통사론과 실험 결과 간의 이론적 연결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과, (ii) 연구 방법론의 혁신과 엄밀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자의 과제와 관련하여 실험통사론은 단순한 자료 수집을 넘어 통사 이론 발전을 적극 견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론에서 정교한 가설을 도출하여 실험으로 검증하고, 결과를 다시 이론에 환류하는 선순환 체계가 요구된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재현 가능한 연구를 위한 표준 마련, 충분한 피험자 확보와 반복 실험을 통한 통계적 견고성 제고, 실시간 처리 및 신경기제까지 포괄하는 다각도의 데이터 수집, 그리고 AI와 말뭉치 등 신기술의 보조적 활용 방안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실험통사론 연구가 이러한 과제들을 꾸준히 해결해 나간다면, 통사론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사 이론의 경험적 토대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 소통을 확대하여 인간 언어 능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통사론 연구자들은 이론과 실험을 아우르는 협력적 연구 문화를 발전시키고, 제시된 과제들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실험통사론이 언어학의 견실한 연구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신중하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이론적 통찰과 실험적 증거가 조화를 이루는 포괄적인 언어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안희돈·김형문·조준·하지희·조용준. 2019. 「한국어 수용성 판단에서의 형식적 방법과 비형식적 방법의 비교 - 이산형 자료의 경우 -」, *한말연구* 51, 57-86쪽.
- 안희돈 외. 2020. 『문장 문법성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 국립국어원.
- 안희돈·조용준. 2021. 「한국어 수용성 판단 자료의 학술지간 비교: '생성문법연구'와 '국어학'을 중심으로」, *생성문법연구* 31(2), 343-356쪽.
- 임규홍. 1998. 「국어학 논문에 나타난 모국어 화자의 수용 가능성」, *한글* 22(3), 151-197쪽.
- 조용준. 2015. 「한국어 실험 통사론의 모색」.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용준. 2023. 「수용성 판단 실험의 설계 및 통계 분석 처리의 몇 문제 - 서열형·연속형 데이터를 중심으로 -」. *한말연구* 64(34). 1-27쪽.
- 조용준·김형문·조준·하지희·이영국·안희돈. 2019. 「한국어 수용성 판단에서의 형식적 방법과 비형식적 방법의 비교(2)」, *언어학연구* 51. 129-160쪽.
- 조용준·안희돈. 2021. 「한국어 수용성 판단에서의 학술지간 신뢰도 분석」, *한말연구* 60, 61-90쪽.
- 고희정·오은정 [Ko, H.-J., & Oh, E.-J.] (2012). A hybrid approach to floating quantifiers: Some experimental evidence. *Linguistic Research*, 29(1), 69-106.
- 김경민 [Kim, Kyeong-min] (2019). *The Syntax of Korean Anaphora: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박사학위논문, Simon Fraser University.
- 김보영 [Kim, Boyoung] (2015). *Sensitivity to Islands in Korean-English Bilinguals*. 박사학위논문,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김일규 [Kim, Ilkyu] (2016). An Experimental Study on Island Effects in Korean Relativization. *Language Research*, 52(1), 33-55.
- 김일규·지윤주 [Kim, Ilkyu, & Ji, Yoon-Ju] (2023). On the nature of CNPC effects in Korean scrambling constructions. *Linguistic Research*, 40(2), 151-181.
- 김정석 [Kim, Jeong-Seok] (2023). Voice-mismatch asymmetry in Korean why-stripping. *Linguistic Research*, 40(3), 409-429.
- 김정석 [Kim, Jeong-Seok] (2024). The interplay between case-drop and parallelism in Korean gapping. *Linguistic Research*, 41(3), 493-515.
- 김정석·김윤희·정덕호 [Kim, Jeong-Seok, Kim, Yoon-Hee, & Jung, Duk-Ho] (2020). Case-mismatches in Korean left-node-raising: An experimental study. *Linguistic Research*, 37(3), 499-529.
- 김정석·이효정·윤성호·이정현·이진영·권수정 [Kim, Jeong-Seok, Lee, Hyo-Jung, Yoon, Seong-Ho, Lee, Jeong-Hyun, Lee, Jin-Young, & Kwon, Su-Jeong] (2021).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why-stripping in Korean. *Linguistic Research*, 38(2), 271-299.
- 김정석·정덕호·윤수혁·이지영 [Kim, Jeong-Seok, Jung, Duk-Ho, Yoon, Su-Hyuk, & Lee, Jee-Young] (2024). Tense mismatches in Korean gapping and bare ko-coordination: An experimental study. *Poznań Studies in Contemporary Linguistics*, 60(1), 53-75.
- 김정석·정덕호·이진형 [Kim, Jeong-Seok, Jung, Duk-Ho, & Lee, Jin-Hyung] (2023). Honorific mismatches of coordinate subjects in Korean. *Canadian Journal of Linguistics*, 68(3), 462-485.
- 김현우·신규호 [Kim, Hyun-Woo, & Shin, Gyu-Ho] (2021). Effects of

- long-term language use experience in sentence processing: Evidence from Korean.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50(3), 523-541.
- 박상희·김정수 [Park, Sang-Hee, & Kim, Jeong-Su] (2021). Temporal mismatches and the acceptability of tenseless coordinate constructions in Korean. *Linguistic Research*, 38(2), 301-327.
- 박상희·이은경 [Park, Sang-Hee, & Yi, Eun-Kyung] (2020). Perception-production asymmetry for Korean double accusative ditransitives. *Linguistic Research*, 38(1), 27-52.
- 박양숙 [Park, Yang-Sook] (2020). Embedded Topic in Korean: An experimental approach. Manuscrip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송상헌·오은정 [Song, Sang-Heon, & Oh, Eun-Jeong] (2016). 5 or 7: Is the Choice So Important in Acceptability Judgment Testing?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41(3), 449-480.
- 송상헌·이상근·최재웅·오은정 [Song, S., Lee, S.-G., Choe, J.-W., Oh, E.] (2015). Different ways to test acceptability judgments. *Generative Grammar*, 25(2), 447-471.
- 송상헌·이상근·최재웅·오은정 [Song, S., Lee, S.-G., Choe, J.-W., Oh, E.], 2017. Measuring the degree of convergence between informal and formal acceptability judgments for Korea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42: 761-804.
- 송상헌·정덕호·오은정 [Song, Sang-Heon, Jung, Deok-Ho, & Oh, Eun-Jeong] (2017). Acceptability Judgments of Double Case-Marking Constructions in Korean. *Language and Information*, 21(2), 79-113.
- 송상헌·최재웅·오은정 [Song, J. J., Choe, J. W., & Oh, E.] (2014). Acceptability judgments in translation-based stimuli: Comparing methodologies in syntax.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4(4), 1043-1069.
- 송상헌·최재웅·오은정 [Song, Sang-Heon, Choe, Jae-Woong, & Oh, Eun-Jeong] (2017). Broken Agreements in Korean Honorification: Evidence from Corpus and Experiments. *Language and Information*, 21(3), 381-388.
- 오은정·송상헌 [Oh, Eun-Jung, & Song, Sang-Heon] (2016). An Experimental Study of Yeo (2006, 2011): -key/-tolok Alternation of Resultative Constructions in Korean. *Language Information*, 23, 25-54.
- 옥성수·김수연 [Ok, Seong-Soo, & Kim, Soo-Yeon] (2016). 한국어 Wh-의문문에 작용하는 언어처리요인 영향: 섬 효과와 한정성, 담화연결, 뒤섞기. *언어와 언어학 (Language and Linguistics)*, 73, 149-168.

- 이소영·유명혜 [Lee, S.-Y., & Yoon, M.-H.] (2023). Honorific agreement in Korean: Retrieval processing and predictive processing. *Linguistic Research*, 40(3), 387-407.
- 이용훈·김은아·김지혜 [Lee, Y.-h., Kim, E., & Kim, J.-h.] (2015). Reflexive Binding and Adjunct Control as Subject Diagnostics in Korean: An Experimental Approach. *언어연구 (Studies in Language)*, 31(2), 427-449.
- 이용훈·박연경 [Lee, Y.-h., & Park, Y.-k.] (2015). Complex-NP Islands in Korean: An Experimental Approach. In *Proceedings of the 29th Pacific Asia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PACLIC)* (pp. 240-249).
- 이지은·송상현 [Lee, J.-E., & Song, S.-H.] (2023). How do Korean speakers receive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s? *Linguistic Research*, 40(3), 463-508.
- 장동준·김은진·신효필 [Jang, D.-J., Kim, E.-J., & Shin, H.-P.] (2022). Affinity Prober를 이용한 언어 모델의 문장 수용성 판단 결정의 경계 요인 분석. *한국언어학회*, 47(4), 829-855. <https://doi.org/10.18855/lisoko.2022.47.4.008>
- 전수경·정원일·박명관 [Jeon, S., Chung, W., & Park, M.]. (2022). A targeted assessment of SRC vs ORC processing in neural language models and humans.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38(2), 59-83.
- 정덕호·김윤희·김정석 [Jung, Deok-Ho, Kim, Yoon-Hee, & Kim, Jeong-Seok] (2017). Island Effects in Korean Scrambling: An Experimental Study. *미출간 원고, 고려대학교*.
- 최재웅·오은정·송상현 [Choe, Jae-Woong, Oh, Eun-Jeong, & Song, Sang-Heon] (2017). 피험자의 배경 변인이 수용성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가? *언어와 언어학 (Language and Linguistics)*, 74, 181-206.
- 한혜령 [Hahn, Hye-Ryung] (2019). Korean wh-island sentences: Individual differences in acceptability judgments and working memory. *Language Research*, 55(2), 379-412.
- Bard, E. G., Robertson, D., & Sorace, A. (1996). Magnitude estimation of linguistic acceptability. *Language*, 72(1), 32-68.
- Biber, D., Conrad, S., & Reppen, R. (1998). *Corpus linguistics: Investigating language structure and u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n, Y., Tsai, W., Lee, H.-J., Lee, P.-H., Chen, H.-C., & Sprouse, J. (2020). The acceptability of translation-based stimuli of Mandarin: A challenge from construct validity [Poster]. *Experiments in Linguistic*

- Meaning 1, University of Pennsylvania.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MIT Press.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wart, W. (1997). *Experimental syntax: Applying objective methods to sentence judgments*. Sage Publications.
- Culbertson, J., & Gross, S. (2009). Naive v. expert intuitions: An empirical study of acceptability judgments. *The Linguistic Review*, 27(1), 1-23.
- Dąbrowska, E. (2010). Naive v. expert intuitions: An empirical study of acceptability judgments. *The Linguistic Review*, 27(1), 1-23.
- Dillon, B., & Wagers, M. (2021). Approaching gradience in acceptability through response signal detection and signal averaging. In G. Goodall (Ed.), *Cambridge handbook of experimental syntax* (pp. 430-45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nselow, G. (2020). Factors influencing the acceptability of object fronting in German. *Journal of Comparative Germanic Linguistics*, 23(1), 77-118.
- Featherston, S. (2009). Relax, lean back, and be a linguist. *Zeitschrift für Sprachwissenschaft*, 28(1), 127-132.
- Feldhausen, I., & Buchczyk, A. (2020). Revisiting Ruwet (1991): A formal acceptability judgment study on subjunctive obviation weakening in French. *Glossa: A Journal of General Linguistics*, 5(1), Article 121.
- Gibson, E. (1998). Linguistic complexity: Locality of syntactic dependencies. *Cognition*, 68(1), 1-76.
- Gibson, E., & Fedorenko, E. (2013). The need for quantitative methods in syntax and semantics research.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28(1-2), 88-124.
- Gibson, E., Piantadosi, S. T., & Fedorenko, K. (2013). Quantitative methods in syntax/semantics research: A response to Sprouse & Almeida (2013).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28(3), 229-240.
- Goodall, G. (2021). Formal experimental approaches to acceptability judgments. *Annual Review of Linguistics*, 7, 289-310.
- Han, Chung-hye, & Moulton, K. (2024). C-command in the Processing of Korean 3rd Person Caki.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25(4), 523-552.
- Han, Chung-hye, Kim, Kyeong-min, Moulton, K., & Lidz, J. (2020). Null Objects in Korean: Experimental Evidence for the Argument Ellipsis Analysis. *Linguistic Inquiry*, 51(2), 319-340.

- Juzek, T., & Häussler, J. (2017). Hot topics surrounding acceptability judgement tasks [Presentation]. Experimental Methods in Linguistics Workshop.
- Kim, Boyoung, & Goodall, G.] (2016).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island effects in Korean. *Japanese/Korean Linguistics*, 23, CSLI Publications.
- Kluender, R. (1998). On the distinction between strong and weak islands: A processing perspective. In P. Culicover & L. McNally (Eds.), *Syntax and semantics 29: The limits of syntax* (pp. 241-279). Academic Press.
- Ko, Heejeong, Chung, Han-byul, Kim, Kitaek, & Sprouse, J. (2019). An experimental study on scrambling out of islands: To the left and to the right. *Language & Information Society*, 37, 287-323. <https://doi.org/10.29211/soli.2019.37..008>
- Kretzschmar, F., & Brilmayer, I. (2019). Zooming in on agentivity: Experimental studies of DO-clefts in German. *Linguistics Vanguard*, 5, Article e20190069. <https://doi.org/10.1515/lingvan-2019-0069>
- Labov, W. (1972). *Sociolinguistic patter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Langsford, S., Perfors, A., Hendrickson, A. T., Kennedy, L. A., & Navarro, D. J. (2018). Quantifying sentence acceptability measures: Reliability, bias, and variability. *Glossa: A Journal of General Linguistics*, 3(1), Article 37.
- Lee, S.-Y., & O'Grady, W. (2016). Psycholinguistic Evidence for Inverse Scope in Korean.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45(5), 871-882.
- Lee, Sunyoung, & O'Grady, W. (2016). Psycholinguistic evidence for inverse scope in Korean.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45(4), 871-882. <https://doi.org/10.1007/s10936-015-9380-4>
- Levshina, N., Namboodiripad, S., Allasonnière-Tang, M., Kramer, M., Talamo, L., Verkerk, A., & Yao, Y. (2023). Why we need a gradient approach to word order.
- Linzen, T., & Oseki, Y. (2018). The reliability of acceptability judgments across languages. *Glossa: A Journal of General Linguistics*, 3(1), Article 100.
- Mahowald, K., Graff, P., Hartman, J., & Gibson, E. (2016). SNAP judgments: A small N acceptability paradigm (SNAP) for linguistic acceptability judgments. *Language*, 92(3), 619-635.

- Marantz, A. (2005). Generative linguistics within the cognitive neuroscience of language. *The Linguistic Review*, 22(2-4), 429-445.
- Marty, P., Chemla, E., & Sprouse, J. (2020). The effect of three basic task features on the sensitivity of acceptability judgment tasks. *Glossa: A Journal of General Linguistics*, 5(1), Article 72.
- Matthewson, L. (2022). Semantic fieldwork: How experimental should we be? *Semantic Field Methods*, 4(10).
- Munro, R., Bethard, S., Kuperman, V., Lai, V. T., Melnick, R., Potts, C., Schnoebelen, T., & Tily, H. (2010). Crowdsourcing and language studies: The new generation of linguistic data. In *Proceedings of the NAACL HLT 2010 Workshop on Creating Speech and Language Data with Amazon's Mechanical Turk* (pp. 122-130).
- Newmeyer, F. J. (2003). Grammar is grammar and usage is usage. *Language*, 79(4), 682-707.
- Phillips, C. (2009). Should we impeach armchair linguists? In S. Iwasaki, H. Hoji, P. M. Clancy, & S.-O. Sohn (Eds.), *Japanese/Korean Linguistics* (Vol. 17, pp. 49-64). CSLI Publications.
- Phillips, C. (2010). Syntax at 40: The state of play. In M. J. Gawron & A. Kehler (Eds.), *Proceedings of the 2010 Annual Meeting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 Phillips, C., & Lasnik, H. (2003). Linguistics and empirical evidence: Reply to Edelman and Christianse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7(2), 61-62.
- Pullum, G. K. (2017). Theory, data, and the epistemology of syntax. In M. Marej & O. Matushansky (Eds.), *Distributed morphology today: Morphemes for Morris Halle* (pp. 251-279). MIT Press.
- Sampson, G. (2007). Grammar without grammaticality. *Corpus Linguistics and Linguistic Theory*, 3(1), 1-32.
- Schnoebelen, T., & Kuperman, V. (2010). Using Amazon Mechanical Turk for linguistic research. *Psihologija*, 43(4), 441-464.
- Schütze, C. T. (1996). *The empirical base of linguistics: Grammaticality judgments and linguistic method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ütze, C. T., & Sprouse, J. (2013). Judgment data. In R. J. Podesva & D. Sharma (Eds.), *Research methods in linguistics* (pp. 27-5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monson, L. (2023). Subjectivity and acceptability: A crosslinguistic investigation of 'seem' verbs. *Language*, 99(1), e1-e30.
- Sinclair, J. (1991).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 University

- Press.
- Snyder, W. (2000).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syntactic satiation effects. *Linguistic Inquiry*, 31(3), 575-582.
- Sprouse, J. (2011). A validation of Amazon Mechanical Turk for the collection of acceptability judgments in linguistic theory. *Behavior Research Methods*, 43(1), 155-167.
- Sprouse, J. (2018). Acceptability judgments and grammaticality, prospects and challenges. In N. Hornstein, H. Lasnik, P. Patel-Grosz, & C. Yang (Eds.), *Syntactic structures after 60 years: The impact of the Chomskyan revolution in linguistics* (pp. 195-224). Mouton de Gruyter.
- Sprouse, J. (2023). Acceptability judgments. In J. Sprouse (Ed.), *The Oxford handbook of experimental syntax* (pp. 1-26). Oxford University Press.
- Sprouse, J., & Almeida, D. (2012). Assessing the reliability of textbook data in syntax: Adger's Core Syntax. *Journal of Linguistics*, 48(3), 609-652.
- Sprouse, J., & Almeida, D. (2013). The empirical status of data in syntax: A reply to Gibson and Fedorenko.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28(3), 222-228.
- Sprouse, J., & Almeida, D. (2017). Design sensitivity and statistical power in acceptability judgment experiments. *Glossa: A Journal of General Linguistics*, 2(1), Article 14.
- Sprouse, J., Schütze, C. T., & Almeida, D. (2013). A comparison of informal and formal acceptability judgments using a random sample from *Linguistic Inquiry* 2001-2010. *Lingua*, 134, 219-248.
- Sprouse, J., Wagers, M., & Phillips, C. (2012). A test of the relation between working-memory capacity and syntactic island effects. *Language*, 88(1), 82-123.
- Szendrői, K. E. (2023). (Quantifier) scope judgments. In J. Sprouse (Ed.), *The Oxford handbook of experimental syntax* (pp. 1-44).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A., & Pintzuk, S. (2011). The interaction of syntactic change and information status effects in the change from OV to VO in English. *Catalan Journal of Linguistics*, 10, 71-94.
- Thurstone, L. L. (1927). A law of comparative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34(4), 273-286.
- Wagers, M. W., Lau, E. F., & Phillips, C. (2009). Agreement attraction in

comprehension: Representations and processe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61(2), 206-237.

Wasow, T. (2009). Gradient data and gradient grammars. In *Proceedings of the 43rd Annu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pp. 255-271).

Wasow, T., & Arnold, J. (2005). Intuitions in linguistic argumentation. *Lingua*, 115(11), 1481-1496.

Weskott, T., & Fanselow, G. (2011). On the informativity of different measures of linguistic acceptability. *Language*, 87(2), 249-273.

628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광복 80년, 우리말 문법 연구의 성과와 과제
2025년 5월 16일(금) 10:00~15:40 / 한글학회 강당

□ 제2부/ 주제 발표

북한 문법론 연구의 성과와 과제

김건희

강원대학교 교수
kenee@kangwon.ac.kr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광복 이후 북한 문법론에 대한 남북한 학계의 주요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북한 문법론의 최근 연구 동향 및 추후 북한 문법론 연구 과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 문법론에 대한 남북한 학계의 연구는 일차적 연구와 이차적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일차적 연구는 북한의 문법론 논저들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논평을 제시한 연구이다. 이차적 연구는 이러한 일차적 연구들을 부류별로 제시하면서 북한 문법론에 대한 남북한 학계의 연구 경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북한 문법론 연구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이러한 일차적 연구와 이차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성하여 논의하겠다.

<1> 북한의 문법론, '1945년~1990년대 출판 논저'에 대한 북한 학자 관점의 소개와 논평

북한의 저명한 언어학자 김영황이 최근에 출간한 ‘20세기의 조선어학(2018)’에서 제시한 ‘1945년~1990년대 출판 북한 문법론 논저’ 연구 성과에 대해 살펴보겠다.¹⁾ 광복 전후부터 구순이 넘은 나이에도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는 북한 학자, 김영황이 선별한 북한 문법론 그 논저 목록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조선어학 연구물을 집약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북한 문법론 논저를 직접 분석한 일차적 연구에서도 간혹, 분석 대상인 북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저작 의의를 확인하기 위해 김영황(2018)을 부분적으로 인용했으나, 김영황(2018)의 북한 문법론 논저 목록을 제시하고 김영황의 논평을 살펴본 연구는 없다. 무엇보다 이러한 김영황은 북한 문법론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남한 학술연구 논문, 고영근(1995), 권재일(2006, 2016), 김주성(2018), 박효정(2024) 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북한 학자이다. 김영황의 북한 문법론 분야의 위상은 추후 다시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

<2> 북한 문법론 연구 성과에 대한 남한 학계의 소개와 논평

북한 문법론 연구 성과에 대해 거시적, 미시적으로 살펴본 남한 학계의 연구는 김민수(1972, 1985, 1991), 고영근(1989, 1994, 1995), 임흥빈(1989, 1992), 최호철(1996), 이상혁(2011), 권재일(2012, 2015) 등 1980년대 후반부터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북한 문법론에 대한 남한 학계의 연구를 다음과 같은 소주제로 나누어 소개하겠다.

- 1) 남북언어 이질화 극복: 언어규범과 어휘
- 2) 학회 및 연구소의 북한 어문학 특집호
- 3) 북한 조선어학 분야의 분류
- 4) 북한의 조선어교육/한국어교육 연구 및 통일 대비 국어교육
- 5) 남북 화합(남북 상생)을 위한 향후 연구 주제 제안

<3> 북한 문법론의 최근 연구 경향: 실천적에서 이론적으로

주지하다시피 북한 문법론에 대한 남한 학계의 평가는 한마디로 ‘실천,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이론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폄하될 수도 있는 부분이나, 최근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이러한 실천적인 부분을 이론적

1) ‘20세기의 조선어학(2018)’ 머리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20세기의 조선어학”은 지난 세기 조선어학연구에서 이룩된 연구성과들을 주로 해당 시기 언어학자들이 집필한 도서와 잡지에 실린 논문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으로 정교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문법론 자료 및 이에 주목한 남한 학계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4> 북한 문법론 연구 주제 및 방법론 제안

이상혁(2011)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북한 문법론에 대한 남한 연구가 2000년대 이후 급속히 감소되어서 몇몇 학자들 중심으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²⁾ 필자는 최근 북한 문법론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여, 몇 년 사이 비교적 활발하게 일차적 연구(북한의 대표적인 문법서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필자의 연구 경험 및 최근 활발하게 북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신진 학자들의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북한 문법론 연구 주제 및 방법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1) 북한 문법론에 대한 북한 내적인 시각 탐구
- 2) 남한 문법과의 비교 연구_기술 체계 유사성
- 3) 미시적 주제 중심의 연구_외판성분, 높임표현 등
- 4) 북한 문법총서: 조선어리론문법과 조선어학전서의 문법 기술 변화 및 공통점/차이점 탐구
- 5) 북한 4대 학술지에 나타난 북한 문법의 경향성 탐구
- 6) 주요 북쪽 국어학자, 곧 인물 중심의 문법 기술 변천사 탐구
- 7) 주요 연구 쟁점에 대한 남북의 관점 차이: ‘토’ 관련 논쟁에 대한 북한 김영향(2018) 등과 남한 김병문(2016)/서민정(2022)/박효정(2024ㄴ) 비교

다만, 5), 6), 7)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서는 제안만 하고 추후 살펴보겠다. 5)는 최근 김주성(2018), 박효정(2024ㄴ)이 주목되는데³⁾ 학술지 분석인 만큼 추후 발간되는 학술지를 토대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연속적인 주제이다. 6)에 대해서는 이상혁(2011) 등의 논의가 주목되는데, 북쪽 국어학자들과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한 학계 영향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7)은 북한의 대표학

2) 이와는 달리, 북한 문법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던 2001년에는, 주류 국어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자들이 한국연구재단 협동연구지원 사업, ‘북한에서의 문법 연구와 문법 교육’이란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연구책임자: 고영근, 시정곤, 구분관, 연재훈 참여).

3) 먼저 김주성(2018)에서는 북한의 2대 학술지를 토대로 북한 문법론 연구의 경향을 직접 분석하는 일차적 연구를 시행하였고 박효정(2024ㄴ)에서도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의 4대 학술지를 토대로 북한 문법론 연구 경향을 직접 분석하였다. 덧붙여 김주성(2020ㄴ)에서는 학술연구정보 사이트(RISS)에서 ‘북한 조선어학(국어학)’을 검색하여 광범위한 분량의 남한 학계의 북한 문법론 연구 성과를 수집하여 고찰하였다. 남한 학계의 북한 문법론 연구 성과 목록은 김주성(2020ㄴ)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자, 김수경이 제기한 소위 ‘토’ 관련 논쟁인데, 이에 대한 남북의 평가, 그 관점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큰 주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목차 내용을 구성하여 다룰 것이다. 2장에서는 북한 학자의 북한 문법론(조선어학)에 대한 연구, 곧 1945년부터 1990년대 북한 출판 문법론 논저에 대해, ‘20세기의 조선어학(김영황, 2018)’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북한 문법론에 대한 남한 학계의 일차적, 이차적 연구에 대해 다섯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북한 문법론의 최근 내용적 경향성, 소위 ‘실천적에서 이론적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북한 문법론에 대한 향후 연구 주제 및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북한 학자의 북한 조선어학에 대한 연구 - 20세기의 조선어학(김영황, 2018)을 중심으로 -

김영황은 북한에서 가장 활발하게 현역에서 활동하는 언어학자로서 그의 국어사, 언어학사 연구는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데⁴⁾, 최근 2018년에 20세기 언

4) 먼저 김영황의 북한 문법학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기 위해, 김영황이 언급된 남한 논저와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영근(1995)

남북한 국어학 연구의 성과와 전망을 살펴본 고영근(1995 : 408)에서는 최근에는 ‘조선어학’이라는 말 대신에 ‘국어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김영황의 논문을 제시하였다(김영황, 근대 국어학의 발전과 조선어학회의 활동, 조선어문 1993, 2).

또한 고영근(1995 : 412-413)에서는 위 김영황의 논문에서 한동안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조선어학회의 활동과 조선어학회 사건을 크게 부각시켰다고 제시하며, 최근 이념이나 계급보다는 민족을 우선하는 최근의 이념적 움직임과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2) 이상혁(2011)

이상혁(2011 : 148)에서는 대학의 강의 담당 박사, 김영황 같은 연구자가 <조선어학전서> 편찬 과정에서 집필, 심사 등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북한 조선어학의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조선어학전서>는 연구 중심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가 주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3) 권재일(2016)

<조선어학전서>의 문법사 연구를 살펴본 권재일(2016 : 61)에서는 <조선어학전서> 시대 구분이 북한의 대표적인 국어사 연구의 하나인 김영황(1978)에서의 시대 구분과 거의 같다고 설명하였다(김영황, 1978. 조선 민족어 발전 역사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 김주성(2020-)

김주성(2020- : 144)에서는 조선문화어문법규범(1976/2011)에 대해, 김영황(2018) ‘20세기 조선어학’의 평가를 그대로 인용하며, 이 책의 대표성을 제시하고 있다. 곧 김일성종합대학과 사회과학원 언어학자들이 합의해 공동 집필한 규범문법이며 이를 조선어 문법 교육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5) 박효정(2024)

박효정(2024 : 68)에서는 ‘원사이면서 교수, 박사’인 김영황은 북한의 저명 언어학자, 김수경의 제자이며, 문법 연구뿐만 아니라 국어사 연구를 방대하게 진행한 원로학자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김영황은 <조선어문> 2013년 2호에 ‘행동성범주와 형용사의 동사화문제’를 게재하는 등 북한

어학사를 발간하였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광복이후 김영황(2018)에서 [현대] 시기로 구분한, 제2편 1945년부터 1990년대까지의 논저 목록 중 (좁은 의미의) 문법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논평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겠다.(밑줄 친 목차 부분)

김영황(2018), 『20세기의 조선어학』 목차

제1편 근대 및 민족수난기의 조선어학
제1장 근대조선어학의 기초를 닦기 위한 언어학자들의 활동
제2장 민족수난기의 조선어학
제1절 1910-1920년대 조선어학연구
제2절 민족어의 고수와 발전을 위한 활동
제3절 1930-1940년대 조선어학연구
제4절 민족수난기 조선어학회의 반일애국활동
제2편 주체의 조선어학건설과 그 빛나는 성과
제1장 새 조국건설시기의 조선어학
제1절 조선어교육체계의 전면적확립
제2절 조선어문연구회의 활동
제3절 언어정화사업의 전개
제2장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조선어학
제1절 역사언어학의 연구
제2절 <u>어음, 문법, 어휘에 대한 연구</u>
제3절 <조선어소사전>의 편찬
제3장 사회주의전면적건설시기의 조선어학
제1절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언어사상과 우리 당의 언어정책에 대한 연구
제2절 <u>조선어학의 부문별연구</u>
제3절 <조선말사전>의 편찬
제4장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시기의 조선어학
제1절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언어사상과 문풍에 대한 연구
제2절 문화어발음법의 확립과 어음론의 과학적연구
제3절 <u>문법론연구의 심화발전과 규범문법, 리론문법</u>
제4절 어휘정리사업의 심화와 그에 대한 연구
제5절 문체에 대한 다양한 연구
제6절 방언학연구의 심화
제7절 주석사전의 연구와 편찬
제8절 민족어유산의 계승과 역사언어학의 연구
제9절 응용언어학과 실험음성학연구

저명 학술지에 ‘명칭론, 형태론, 문장론, 어학실사, 언어력사’와 관련된 22편의 글을 게재하는 등 구순이 넘은 나이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남한 학계에서도 북한 논저의 대표성 및 의의에 대해 김영황(2018)의 논평을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2.1. 제2장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조선어학

이 시기에는 형태론이 주되는 대상으로 되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토의 문법적본질을 밝히는 것이 기본관심사로 되었다고 제시한다.

그 중요한 계기로 된 것은 김수경의 논문 <조선어형태론의 몇가지 기본문제에 관하여>(조선어문 1956년 1, 2호)이며 이 논문이 발표되자 토의 문법적본질을 논하는 다음과 같은 많은 논문들이 연이어 나오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어형태론의 기본적인 특성에 관하여’(황부영, <조선어문> 1956년 4호)

‘조선어 토의 어휘-문법적의미를 정리하는데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리근영, <조선어문> 1957년 4호)

‘조선어의 토들(1, 2)’(정렬모, <조선어문> 1958년 1호, 2호)

‘조선어문법에서의 <토>의 분류에 대하여’(박상준, <조선어문> 1958년 1호)

이러한 김수경(1956)의 주요 내용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단어의 구조를 어근과 접두사, 단어조성의 접미사, 형태조성의 접미사, 토로 구분하고 형태조성의 접미사에 상, 시칭, 존칭의 의미를 타나내는 형태부를 포함시키고 토에 격, 법, 계칭을 나타내는 형태부만을 포함시켰다. 그리하여 <접두사+어근+형태조성의 접미사>가 어간으로 되므로 상, 시칭, 존칭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부들은 다 어간에 속하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종래의 전통적인 문법의식에 비추어 색다른 것이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품사를 네가지 부류로 구분하고 세 번째 부류에 <형태조성의 접미사>를 제외한 나머지 토를 넣고 그것을 하나의 독자적인 보조적품사로 보면서 그 타당성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이처럼 논문에서 주목을 끈 것은 토의 일부를 형태조성의 접미사로 처리한 것이며 나머지 토를 하나의 품사로 본 것이었다. 이것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조선어학자들의 관심사로 되었다.

김영환(2018 : 148-149)

김수경(1956)에서 ‘형태조성의 접미사(상, 시칭, 존칭)’와 ‘토’를 구별하고, ‘토’를 하나의 품사로 보았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러한 주장은 바로 다음 시기, 1960년대 문법론(2.2.장) 연구에서 소위 ‘토’ 논쟁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보아야 한다는 남한 이론문법 학계의 지속적인 주장과도 맞닿아 있어 추후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2.2. 제3장 사회주의전면적건설시기의 조선어학⁵⁾

이 시기 문법론에 대해서는 먼저 형태론과 문장론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며 개관하고 있다.

형태론서술과 관련하여 <현대조선어(2)>(김수경·김백련, 1962)처럼 품사들에 대하여 서술하고 따로 문법적범주에 따르는 문법적형태의 조성을 서술하겠는가, <조선어문법(1)>(과학원, 1960)처럼 품사에 따르는 문법적형태의 구성과 문법적범주를 품사별로 서술하겠는가 하는 문제도 논의되었다. 또한 품사설정과 관련하여 조선어의 독특한 품사라고 하여 제기한 <상징사>를 설정하는 문제도 논의되었는데 <상징사>를 자립적인 품사로 보는데 대해서는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조선어의 토와 관련하여 <조선말에서 토의 발달이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가>(정렬모, <어문연구> 1966년 4호)는 흥미있는 문제의 제기로 관심을 끌었다. 또한 박상준이 조선어 토의 문법적본질과 관련하여 토는 접사도 아니며 보조적단어도 아니며 또한 조사나 어미도 아니어서 어디까지나 <토는 토다>라는 주장을 내놓은것과 관련하여 며칠간에 걸쳐서 학계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토론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되었다.

- ① 조선어의 토는 접사이다.
- ② 조선어의 토는 보조적단어이다.
- ③ 조선어의 체언토는 조사이며 용언토는 어미이다.
- ④ 조선어의 토는 토이다.

토론회에서는 조선어의 토를 접사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문장론과 관련해서는 주로 문장의 기본표식에 대한 문제가 논쟁의 초점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 기초건설시기 초기부터 논의되어온 문제였다. 조선어문법과 관련된 저술들은 어음론과 문법론을 함께 서술하는 전통적방식을 취하여 간행되었다.

문법연구의 성과를 반영한 대표적인 저술로서는 <현대조선어(1,2,3)>, <조선어문법(1,2)⁶⁾> 이외에 또 그후에 나온 <조선어문법>(1964년)을 들

5) 본격적인 문법론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주지하다시피 북한에서는 ‘문체론’을 문학이 아니라 언어학에서 다룬다. 이에 대해 김영환(2018)에서는 언어학의 한 연구분야로서 문체론의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 시기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체론 분류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문체론의 연구대상으로서의 문체>(리근영, <조선어문> 1961년 1호)

- ① 국문체, 한문체, 국한문혼용체
- ② 회화어체, 서사어체
- ③ 운문체, 산문체
- ④ 간결체, 만연체, 강건체, 우유체, 건조체, 화려체
- ⑤ 서한체, 른설체, 평론체, 일기체, 기사체

수 있다. 그리고 참고자료집으로 <조선어문법리론집(1,2)>(1965, 1966)도 나왔으며 젊은 학자들의 학위논문집도 세상에 나왔다.

김영황(2018 : 171-172)

위와 같이 도입 내용을 제시하면서 14쪽에 걸쳐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형태론에 중점을 두었던 앞선 1950년대 시기보다 문장론의 내용이 많아진 점이 특징적이다.

<조선어문법>(1964, 김일성종합대학)의 논평 내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어문법>

제1편 품사론-김수경, 제2편 형태론-럼종률, 김백련, 제3편 문장론-송서룡, 김영황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연구소 조선어학연구실에서 집체적으로 집필하여 1964년에 고등교육도서출판사에서 간행하였는데 그것을 다시 교육도서출판사에서 재판하였다.

제1편 품사론서술에서 특징적인 것은 상징사를 설정한 것이다. 이것은 이미 <현대조선어(2)>에서 언급한바 있었던 것인데 그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품사론과 형태론을 구분하여 서술한 점에서 그 서술방식이 <현대조선어>(2)와 같으나 문장론의 서술에서는 일련의 차이가 있다.

우선 단어결합론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문장안의 단어들의 결합질서를 모두 문장성분의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문장성분을 상관적성분과 비상관적성분으로 나누고 술어의 절대적인 우위성을 주장하면서 상관적성분들이 술어와 맺는 의미기능적관계의 성격에 따라 주어, 직접보어, 간접보어, 양상어, 연결어, 규정어, 병립어 등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장성분의 설정은 철저하게 1차적으로 술어에 대한 복속관계의 성격과 함께 술어와의 의미기능적인 관계의 성격을 고려한것인데 종래의 문법들에서 설정된것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전개된 구조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서 부, 구, 절이라는 문장론적단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도 이 문법의 특징의 하나로 된다.

김영황(2018 : 171-172)

6) 김영황(2018 : 171)에서는 <조선어문법(1,2)>(과학원, 1960)에 대해 당시 규범적인 성격을 띤 문법으로서 사회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언어생활을 개선하는데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학교문법들도 그에 기준하여 편찬하거나 그것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어문법(1)>은 어음론, 형태론, <조선어문법(2)>는 문장론을 다룬다. 문장론만 소개하면, 먼저 문장론은 서론, 단어들의 문법적연결, 문장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장과 관련해서는 우선 문장의 종류를 진술의 목적과 구조문법적특성에 따른 종류로서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권유문을 설정하고 따로 감동문을 두었으며 구조적특성에 따른 종류로서 짝구성문과 외구성문, 전개문과 비전개문, 단순문과 복합문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조선어문법(1964)의 복합문 구성단위, ‘부, 구, 절’은 <조선어리론문법>문장론(1987)에서는 수용되지 않았지만, <조선어학전서>조선어문장론(2005)에서는 수용되었다.

2.3. 제4장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시기의 조선어학

먼저 이 시기(1970년대 이후)에는 조선어문법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많은 저술들이 나왔으며 대학들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들도 여러 종이 나왔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외국의 대학교수들이 우리 나라에서 실습과정을 통하여 조선어문법구조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면서 저술을 냈다고 하였다. 주요 논문이 실린 학술지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조선어문’를 제시하였다.

이후 6개 저서⁷⁾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본고에서는 <조선문화어문법규범>과 <조선어리론문법> 부문만 총평 위주로 간략히 제시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조선문화어문법규범>은 대표적인 규범문법서로 <조선어리론문법>은 대표적인 이론문법서이다.

<1> <조선문화어문법규범>

김일성종합대학과 사회과학원의 조선어학자들은 몇차례에 걸쳐 토론을 거듭하고 기존연구성과를 종합하여 ‘어음론, 형태론, 문장론’의 세 부분으로 된 <조선문화어문법규범>을 완성하였으며 1976년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에서 간행하였다. 학계적인 합의에 기초하여 만든 <조선문화어문법규범>은 규범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서 조선어문법서술에 일정한 도움을 주었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이를 조선어문법교육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조선문화어문법규범>의 일련의 특징

- ① 학술용어를 모두 고유한 우리말로 부르면서 각이한 토의 이름을 새로 지어 붙임.
- ② 품사분류에서 상징사⁸⁾의 설정을 인정하지 않음.
- ③ 문법서술방식은 해방후 새롭게 택한 방식에 따라 품사론과 형태론을 분리하여 서술함.

7) <조선문화어문법규범> 1976년.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조선어리론문법>1985년(형태론, 단어조성론)/1986년(문장론)/1987년(품사론).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조선말 토의 특성에 대한 연구> 류패립. 1981년.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조선어의 보조적단어에 대한 연구> 정순기. 1988년. 사회과학출판사.
 <조선어문장론연구> 김갑준. 1988년.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조선어토의 문법적기능에 대한 연구> 미상

8) 규범문법서인 이러한 <조선문화어문법규범>과 달리, <조선어학전서>조선어문장성분론(2005)에서는 ‘상징사’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 출처도 앞서 언급한 현대조선어(2)로 제시하고 있다.

④ 형태론서술에서는 문법적범주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토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그 문법적범주와 의미를 설명한 것임.

⑤ 문장론서술에서 단어결합론을 끌어들이는 것인데 이것은 문장성분의 단위로서 단순성분과 함께 단어결합 또는 <문장>으로 된 확대성분까지도 인정한 것으로서 <조선어문법>(1964)의 서술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2> <조선어리론문법>

도서는 그간 문법리론분야 연구성과들을 종합해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연구사들이 집필한 것으로 품사론, 형태론, 문장론, 단어조성론 4개 분책으로 나누어 출판되었다.

1) <조선어리론문법(품사론)> 고신숙, 1987년,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품사를 분류함에 있어서 크게 체언, 용언, 수식어, 독립어의 4개로 가르치고 그안에서 다시 8개 품사에 대하여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이것은 이 저서의 저술상 특징의 하나로 된다. 이 저서는 조선어의 품사론과 관련한 학계의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서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조선어리론문법(형태론)> 리근영, 1985년,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형태론과 관련한 기존연구성과를 종합하여 여러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 해명을 깊이있게 주고 있다. 저서는 저자가 다년간에 걸쳐서 이 분야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를 체계화하여 조선어 형태론을 리론문법으로서의 체모에 맞게 깊이있게 서술한 것으로 하여 학계의 평가를 받았다.

3) <조선어리론문법(문장론)> 김용구, 1986년,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총론과 6개장(1 문장론의 기초리론, 2 단어들의 결합관계, 3 문장성분, 4 문장유형, 5 복합문, 6 문장유킴법)으로 되어 있다. 특히 총론에서는 조선어리론문법의 문장론이 규범문법을 더욱 주체성있게 완성하며 실천문법을 과학적토대우에서 건설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조선어리론문법(단어조성론)> 김동찬, 1985년, 고등교육출판사.
이 저서는 단어조성과 관련하여 그간에 연구된 성과들을 종합하여 서술한것으로서 단어조성과 관련한 최초의 단독저서로 학계의 일정한 평가를 받았다.

3. 남한 학자들의 북한 조선어학에 대한 연구

이번 장에서는 남한 학자들의 북한 조선어학에 대한 연구 주제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각각의 주제에 대한 탁월한 연구가 많이 있지만 제

한된 시간에 방대한 분량의 연구를 필자가 다 읽어보기가 어려워, 주제별로 필자의 시각으로 몇 개의 논저를 추린 것에 대해 널리 양해 바란다. 추후 각 주제별로 더 많은 연구 목록을 확보하겠다.

3.1. 남북언어 이질화 극복: 언어규범과 어휘

남한 학계의 북한 조선어학에 대한 연구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남북 화합이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실생활과 관련된 남북언어가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그 이질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어문규범 및 어휘 분야의 경우, 이러한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1> 기세관·최호철(1994)

기세관·최호철(1994)에서는 ‘남북한 통일 맞춤법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남북한 철자법 및 맞춤법의 변천과 차이를 제시하고, ‘총칙, 자모의 규정, 일부 어미, 사이시옷, 한자어’ 영역에서 그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총칙’의 통일 방안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글 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각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소리나는 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

기세관·최호철(1994 : 246)

주지하다시피 남한에서는 ‘표음주의’와 ‘형태주의’ 간의 우선순위에 논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표음주의’(소리대로 적음)를 먼저 제시하여 ‘표음주의’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형태주의’(뜻을 가진 매개 부분을 항상 같도록 적는다)에 우선순위를 두는데, 이러한 ‘총칙’의 통일 방안 제안은 기본적으로 ‘형태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호철(2012 : 283)에서는 최근까지 북한 어문규범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북한 [조선말규범집]의 2010년 개정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형태주의 원칙의 적용을 확대하고, 현실 발음도 수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2> 권재일(2015)

권재일(2015)에서는 남북한 언어 변화 차이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어휘와 어문규범’, 둘째,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 문화어의 확산으로 인한 방언

의 사라짐'이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언어 통합 노력 및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 국립국어원 조선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 교류 및 성과·조직 활용
- 남북 공동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토대로 어휘단일화, 복수어휘화 등)
- 2004년부터 10년 계획인 지역어 조사 사업 추진(2009년부터 중단)
- 단일화한 어휘와 어문규범을 실제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3.2. 학회 및 연구소의 북한 어문학 특집호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 문법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¹⁰⁾ 특히 주요 학회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문학을 포함한 어문학에 대한 집단적인 연구(특집호 발행)가 이루어졌다.¹¹⁾

1988년 국어연구소(국립국어원), 국어생활 15호
1991년 한글학회 특집호, 한글 213호(공동 연구 주제: 북한 언어학 연구)
1995년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115호
2000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33호
2014년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168호

9) 이와 관련하여 김주성(2020ㄱ)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남북언어 정책 교류 기관인 국립국어원과 겨레말큰사전(편찬위원회)의 성격과 성과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남북 언어 교류의 성공 사례로 겨레말큰사전 편찬 및 북한 지역방언 조사 등을 제시하였다.

10) 임홍빈(1993)에서는 ‘북한에서의 국어학 연구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1992년, 한 해에 발행된 사전(조선말대사전), 단행본, 잡지(조선어문, 문화어학습)을 대상으로 북한의 국어학적 연구 성과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현재 상황과는 달리, 북한 국어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이므로 동일한 기간에 이루어진 북한 자료를 바로 입수하여 논의한 것이다. 덧붙여 이전 임홍빈(1992)에서는 북한 규범 문법서에 대해 무려 152쪽에 걸쳐 분석하기도 하였다.

11) 2000년에는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동아연구’에서 남북한 학문의 비교와 통합 전망이라는 기획 주제로 ‘국문학, 국어학, 역사학, 철학, 법학, 경제학’ 분야 논문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 성현경, 남북한 학문의 비교와 통합 전망 남북한 국문학 체계의 비교와 통합 전망
- 한동완, 남북한 학문의 비교와 통합 전망 남북한 국어학의 비교와 통합 전망
- 정두희, 남북한 학문의 비교와 통합 전망 남북한 역사학의 비교와 통합 전망
- 엄정식, 남북한 학문의 비교와 통합 전망 남북한 철학 체계의 비교와 통합 전망
- 박수혁, 남북한 학문의 비교와 통합 전망 남북한 법(학)의 비교와 통합
- 박순성, 남북한 학문의 비교와 통합 전망 남북한 경제학의 비교와 통합 전망

<국어생활 15호, 1988>

심재기, 문화어와 말다듬기
김영배, 문화어의 음운 현상
최호철, 북한의 맞춤법
전수태, 북한 문화어의 한자어와 외래어
고영근, 북한의 문법 연구
조재수, 북한의 국어 사전 편찬에 대한 고찰
송기중, 북한의 로마자 표기법
崔明幸, 語文一致에 관한 研究

<한글 213호, 1991년>

이현복, 북한의 우리말 음성학 연구 현황
김차균, 북한의 문화어 음운의 연구에 대하여
김계곤, 북한의 조어법 연구에 대한 개관
김석득, 리 근영 지은 <조선어리론문법(형태론)> 평설
남기심, 고 신숙 지은 <조선어리론문법(품사론)> 국어 기술
권재일, 김 용구 지은 <조선어리론문법(문장론)> 평설
김영배, 김 병제 지은 <조선어방언학개요> 평설
이기갑, 김 병제 지은 <조선언어지리학사고> 고찰
서재극, 홍 기문 지은 <향가해석> 평설
이강로, 류 렬 지은 <세나라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 평설
이돈주, 김 영항 지은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 평설
박지홍, 김 병제 지은 <조선어학사>를 읽고
조재수, 북한의 사전 편찬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115호, 1995년>

고영근, 남북한 국어학 연구의 성과와 전망
김대행, 남북한 국문학 연구의 성과와 전망
박인기, 남북한 국어교육 연구의 성과와 전망

<민족문화연구 33호, 2000년>

김기혁, 남북한 문장론(통사론) 연구의 쟁점과 방향
최호철, 국어의 '토' 문법에 관한 남북한 연구 대비
이애희, 傳統思想을 보는 南·北韓의 視覺
유초하, 다산학의 남북비교
장효현, 남북한 고전소설 연구의 쟁점과 전망
김재용, 남북의 근대 문학사 서술과 프로문학의 평가
강등학, 남·북한의 민요 연구 양상 비교
최광식, 남북한 '檀君' 인식의 차이점과 그 극복 방안
남지대, 15세기 통치체제 성격에 관한 남북연구의 비교
정태현, 분단시대 남북 역사학계의 식민지 경제 인식

<국어국문학 168호, 2014년>

최원식, 통일시대의 국어국문학 패러다임
박창원, 국어학의 남북 공동 연구를 위한 전제와 실제
김승호, 통일시대를 대비한 고전문학
김재용, 남북의 문학적 통합과 북한문학으로서의 재일북 작가 연구
김중신, 통일 시대 어문 교육의 방향

덧붙여 앞서 김영황(2018)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김수경' 학자에 대하여 최근 학술대회가 열렸다.

언어학자 김수경과 '조선어학'의 재조명

주최: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HK+사업단, 2023년 11월 25일

김하수, 언어적 이념, 그리고 현실의 문제-(구)소련과 북한의 경험
이타가기 류타, 김수경과 비판적 코리아 연구
고영진, 김수경과 북한의 언어정책
최경봉, 북한의 문체 규범화 정책과 김수경
박효정, <문화어문법> 성립 전후에 나타나는 북한 문법 연구의 변화
-김수경의 문법 연구를 중심으로-
김병문, '조선어학', 혹은 '한국어학'의 근대성/식민성에 대하여

이 학술대회에서는 북한 문법론의 다방면에 영향을 끼친, '김수경'이라는 저명한 언어학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였는데, 북한 언어학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요즘, 이러한 북한 언어학자, 인물 중심 학술대회가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3.3. 북한 조선어학 분야의 분류

주지하다시피 북한 조선어학 분야는 남한의 국어학 및 언어학 영역보다 더 포괄적이다. 따라서 이처럼 남북 차이가 나는 조선어학 영역 분류에 대해서도 주목한 일련의 논의들이 있다.

<1> 권재일(2006)

권재일(2006)에서는 남북한 언어학 전문용어 분류 체계를 대조하고, 그 표준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 언어학 전문용어의 경우, <조선어학전서>를 중심으로 분류 체계 요소를 선별하였다. 3단계에서 더 자세히 세분하기도 하였지만, 지면상 2단계 부류까지만 제시하겠다.

I. 언어리론

1. 주체의언어리론 2. 문화어리론 3. 언어정책사

II. 력사

1. 시기별언어변천사 2. 영역별언어변천사 3. 학설사 4. 향가

III. 어휘

1. 어휘론 2. 어휘통계학 3. 사전편찬론 4. 어휘정리론 5. 단어론

IV. 의미

1. 어휘의미 2. 문장의미 3. 문맥의미

V. 어음

1. 어음론 2. 음운론 3. 실험음성학

VI. 문법론

1. 형태론 2. 문장론 3. 품사론 4. 단어구성론

VII. 문체론

1. 문체론 2. 언어생활론

VIII. 명칭론

1. 명칭론 2. 인명 3. 지명

IX. 방언학

1. 방언학

X. 언어공학

1. 조선어정보론 2. 조선어음성공학 3. 조선글자공학
4. 조선어정보검색학 5. 조선어문법검사연구
6. 조선어전자사전연구 7. 조선어확률론

XI. 언어규범

1. 조선어규범변천사 2. 조선어규범리론

권재일(2006 : 251-253)

<2> 전영선(2008)

전영선(2008)에서는 <김일성대학학보>와 일반 <도서분류표>(국립중앙도서관), <조선어문>을 토대로 북한 언어학의 학문 체계를 제시하였다.

북한에서 언어학 영역은 기본적으로 사회과학 영역에 해당하므로 언어연구는 사회과학 범주에 넣고, 2차로 북한 문헌, 도서분류를 바탕으로 ‘언어학일반’, ‘조선어학’, ‘외국어학’, ‘고대어’, ‘인위어’로 분류하였다. 3차 분류는 북한 학술지를 기준으로 학술 체계에 맞춰 다시 세분하였다. 2차와 3차 분류 위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 언어학 일반

언어학일반, 언어이론, 응용언어학, 음성학, 방언학, 사전학, 수사학, 문화언어학, 번역학

II. 조선어학

조선어일반, 조선어이론, 조선어사, 계통론, 어휘론, 음운론, 문장론, 문체론, 의미론, 형태론, 품사론, 문법론, 화용론

III. 외국어학

외국어교육, 러시아어학, 영어학, 프랑스어학, 만주어학, 중국어학

IV. 고대어

한문, 여진어, 라틴어

V. 인위어

이두

전영선(2008 : 67-68)

<3> 이상혁(2011)

이상혁(2011)은 『조선어학전서』(2005)와 『언어학연구논문색인사전』(2006)의 언어학 분류 체계를 종합하였는데, 조선어학 분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조선어학의 대분류>

- ①언어이론 ②언어정책 ③언어구조
- ④언어발전력사 ⑤언어정보론 ⑥언어공학

<조선어학의 중분류>

- ①언어리론 ②어학사 ③어휘론 ④의미론 ⑤어음론
- ⑥문법론 ⑦문체론 ⑧명칭론 ⑨방언학 ⑩언어공학 ⑪언어규범

이상혁(2011 : 141-142)

<4> 김주성(2020L)

김주성(2020L)에서는 북한 조선어학에 대한 남한 학계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이상혁(2011) 등에 대한 수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분류를 제시하였다.

- ①총론 ②언어사상리론 ③언어정책(언어규범 제외)
- ④어음론 ⑤문법론 ⑥어휘론(말다듬기, 명칭론 포함)
- ⑦의미론 ⑧문체론 ⑨방언학 ⑩언어생활(언어예절, 화법 포함)
- ⑪언어규범 ⑫언어교육(국어교육 제외, 외국인을 위한 조선어 교육 포함)
- ⑬언어일반(대조언어학, 통번역 포함) ⑭언어공학 ⑮사전편찬
- ⑯언어력사 ⑰어학설사(언어학사) ⑱기타(일반언어학 포함)

김주성(2020L : 135)

<5> 박효정(2024)

최근 박효정(2024)에서는 북한 문법론 및 문법론 외의 분류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북한 문법론의 분류 체계>

- ①품사론(단어론 및 단어구성론 포함) ②형태론
- ③문장론 ④의미론 ⑤어용론 ⑥문체론및언어생활

<북한 문법론 외의 체계 분류>

- ①어음론 ②어휘론 ③명칭론 ④사전학 ⑤언어공학
- ⑥언어교육 ⑦어학설사 및 언어력사 ⑧언어규범
- ⑨언어사상리론 ⑩언어일반 및 일반언어학

박효정(2024 : 39-40)

이러한 일련의 분류학적 논의는 2005년 이후로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이론 국어학과 응용 국어학으로 이분화했던 단순화된 논의와 대비된다. 이러한 분류학적 논의는 그동안 축적된 북한 조선어학에 대한 미시적, 거시적 연구를 토대로 북한 조선어학계의 일반 언어학 영역 분과는 물론 특수한 영역 분과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남한의 전체 영역 분과

와 체계적으로 비교, 대조 연구하고자 하는 기반이 된다.

3.4 북한의 조선어교육/한국어교육 연구 및 통일 대비 국어교육

강남옥(2011, 2012)의 북한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교육 운영 및 교재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 오현아(2025)의 일련의 논의까지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교재 연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김한근·강남옥(2024)에서는 1980년대 북한의 제2언어로서의 조선어교육 교재와 외국어로서의 교재의 특성을 비교 연구하였다. 제2언어로서의 조선어교육 교재는 평양외국인 학교 중등반 재학생을 위한 조선어 교재이며, 외국어로서의 교재는 김일성종합 대학교 재학 유학생을 위한 소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이다.

강보선(2020^{7, 11})에서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국어 문법 교재 개발 쟁점에 대해 소개하며, 정진석·강보선(2023)에서는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에 대한 문헌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¹²⁾ 또한 이관규(2021, 2022)에서는 북한의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3.5. 남북 화합(남북 상생)을 위한 향후 연구 주제 제안

고영근(1995 : 413)에서는 먼저 남북한 국어학 연구의 주요 쟁점으로 ‘한반도 언어기층의 문제, 규범문법의 품사체계와 토의 처리 문제, 언어사/어학사의 서술방법론과 시대구분 문제’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남북의 국어학을 통합하기 가장 손쉬운 분야는 ‘향가해독, 주시경연구, 훈민정음’ 연구로 제시하였고, 남북의 국어학 연구를 통합하여 현대국어학사를 엮는다는지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국어학 업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혁(2011)에서도 남북 언어분류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북한의 조선어학은 특히 실용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고 남한보다 더 넓은 외연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여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김주성(2018)에서는 남북 언어학이 상호보완적 입장에서 상생해야 한다는 입장을 토대로, 북한의 언어사상리론 분야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남한의 조사·어미 부류의 단어 지위 인정 문제 및 북한의 조선어학 분야 중 발전이 예상되는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 영역에 남한의 견인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12) 1990년대와 달리,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특히 서울대 국어교육과 연구자 출신들을 주축으로 다양한 교육 분야의 북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주제 외에도 해방 후 초기(1945년-1950년) 북쪽 국어학에 대해 연구(이상혁(2007)¹³⁾)가 있는데, 광복 후 남북이 공존했던 시기로 추후 인물 및 소속 등 다양한 계열별로 추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북한 문법론의 최근 내용적 경향성: 실천적에서 이론적으로, 기능문법론의 이론적 정립과 화용론과의 접점

남한의 북한 연구사를 살펴본 김주성(2020L : 144)에서는 임홍빈(1989), 『조선문화어문법규범』을 통해 본 북한의 문법에서 북한의 문법 연구가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실천적’이라고 총평한 것을 두고, 북한 문법론의 실천성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북한 문법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북한의 대표적인 문법 총서인 <조선어학전서>조선어문장성분론(2005)에서는 ‘문장성분 설정’에서부터 의미 기능상의 등가 단위를 별개의 문장성분으로 설정하고, 외단성분도 의미, 화용론적 기능에 따라 세분하는 등 단순히 실용문법/실천문법이라는 ‘생활문법’의 틀을 벗어나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분류 체계를 정립하고 있다.

특히 김주성(2020L)에서는 위와 같은 임홍빈(1989)에 대한 비판과 함께, 화용론적 특성¹⁴⁾을 가지는 북한 문법론이 기능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정합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발표자는 최근 일련의 논의(기능문법 일반론(김건희(2024ㄱ)), 기능문법 형태론(김건희(2024L)), 기능문법 문장론(김건희(2025)))를 통해 북한 문법론에 대한 최신 동향을 살펴보았다. 곧 2005년에 발행된 <조선어학전서> 중 가장 최근에 출간된 문법론 저서, 『조선어기능문법』(2013)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였다.

기능문법 일반론(김건희(2024ㄱ))은 각주로 대신하고¹⁵⁾ 기능문법 형태론(김건

13) 이상혁(2007)에서는 해방 후 초기(1945년-1950년) 북쪽 국어학 연구자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 시기의 국어학적 업적이 소홀한 면을 지적하고, 특히 연구자들을 계열별로 분류하여 자세히 논의하였다. 해방 후 학회 활동 및 학력, 조선어학회 또는 조선어문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 여부에 따라 네 계열로 분류하고, 국어학 및 언어학전공 여부와 유학 여부에 따라서 세 계열로 분류하였다.

14) 김주성(2020L : 145)에서는 북한 규범문법의 ‘문장’은 ‘음운, 문법, 의미’가 화용론적 조망(언어 행위) 속에서 통합되어 있고, 남한 규범문법의 ‘문장’은 실제적인 ‘음운, 통사적 표지(문말 억양, 문장 부호)’를 참조하되 그 설명에 있어 추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구별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규범문법이 화용론의 특성을 띠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김주성(2020L) 논의는 북한 문법론의 ‘화용론적 특성’에 대해 주목하였는데, 북한의 4대 학술지를 살펴본 박효정(2024)에서도 전통적인 문법론 연구 주제인 품사론, 형태론 연구 비중이 높으나 최근 의미론, 어용론(화용론)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15) 기능문법 일반론을 살펴본 김건희(2024ㄱ)에서는 기능문법의 주요 개념 ‘의미, 형태’의 기술

희(2024L)), 기능문법 문장론(김건희(2025))에 대해 정리하면서 최근 북한 문법론의 이론적 정합성에 대해 제시하겠다.

4.1. 『조선어기능문법』(2013), ‘기능형태론’ 부문의 『조선어형태론』(2005)보다 나아간 기능적 관점과 이론적 정합성

김건희(2024L)에서는 북한의 이전 문법서들보다 소위 기능문법적 기술로 평가받는 『조선어형태론』(2005)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조선어기능문법』(2013), ‘기능형태론’의 보다 더 구체적인 기능문법적 서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조선어기능문법』(2013)은 『조선어형태론』(2005)의 소위 ‘형태중시 기능문법’에서 ‘의미중시 기능문법’으로 더 나아간 성격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문법서의 격토 분류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조선어형태론』(2005)과 『조선어기능문법』(2013)의 격토 분류 개요

김건희(2024L : 14) 참조

『조선어형태론』(2005)		『조선어기능문법』(2013)	
격의 이름	격토	격의 이름	
주격	가, 이, 께서	주체격	
대격	를, 리, 을	객체격	직접객체격, 간접객체격, 결과객체격, 출발객체격, 마감객체격, 방향객체격, 장소객체격, 목적객체격, 분량객체격, 시간객체격, 비교객체격, 의거객체격, 자격객체격, 열거객체격, 첨가객체격, 수단객체격, 방식객체격, 환경객체격, 원인객체격, 범위객체격, 순서객체격, 재료객체격, 용도객체격, 상대객체격
속격	의	강조격	
여격	에게, 에, 께, 더러, 한테	규정격	소속규정격, 주체규정격, 대상규정격, 속성규정격
위격	에게, 에게서, 한테서		
조격	로, 으로		
구격	와, 과, 하고, 랑		
비교격	처럼, 마냥, 보다		
호격	아, 야, 여, 이 시여		
절대격			

방향에 주목한 최근 남한 문법 연구, 표현론적 접근 및 체계기능언어학 연구와 대비하며 살펴보았다. 최근 남한에서도 ‘의미에서 형식으로 나아가는 기술인 표현론적 접근과 ‘의미, 형태’에 관한 새로운 기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체계기능언어학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어기능문법』의 일반론 주요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문법이 청자를 위한 문법이라면, 기능문법은 화자를 위한 문법, 나아가 청자 화자 모두를 위한 문법이다. 둘째, ‘기능’은 언어외적인 목적으로 더 넓은 체계를 가져 폐쇄된 체계이며 범주적의미에 기초하는 ‘의미’와 구별된다. 셋째, 이처럼 ‘의미’와 ‘기능’이 구별되지만 ‘의미’는 여러 단위들과 상호작용하여, 언어행위에서 실현된 ‘의미’는 그 본질상 기능의 개념과 융합된다. 넷째, 기능적관점은 체계적 관점에 기초하고, 정보전달과 관련된다. 다섯째, 북한 기능문법은 ‘형태에서 의미’, ‘의미에서 형태’의 두 방향성을 모두 고려한다.

『조선어기능문법』(2013)에서는 기존의 격 이름 대신에 ‘주체격, 객체격, 강조격, 규정격’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객체격과 규정격은 세부적으로도 분류하는데, 이들 하위부류 명칭도 ‘직접객체격’, ‘소속규정격’처럼 ‘-객체격’, ‘-규정격’으로 제시하며, 객체격도 24가지 부류로 분류하고, 형태적으로 ‘의’ 하나만 있는 ‘규정격’을 4가지 의미기능 부류로 분류하는 점도 특징적이다.

『조선어형태론』(2005)와 『조선어기능문법』(2013) 모두 체언토에 ‘격토, 복수토, 도움토’를 설정하였지만, 『조선어형태론』(2005)에서는 ‘강조토, 바꿈토’의 경우, 체언토, 용언토 모두에서 나타나므로 체언토, 용언토 부문에서 기술하지 않고 별도로 새로운 장에서 기술한다. 반면에 『조선어기능문법』(2013)에서는 『조선어형태론』(2005)의 강조토를 포괄하는 ‘강조격’이라는 격을 새롭게 제시한다. 명칭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의미기능 중심의 격을 설정한 것이다.

『조선어기능문법』(2013), 조선어기능형태론 기술 부문의 기능문법 연구가 보여주는 주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언토, 용언토에서 다양한 의미기능적 문법범주를 새롭게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의미→형태’의 분류 체계를 보인다.

둘째, 특정한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객체격의 경우, 24개의 하위 부류로 세분화하며, 다른 격토에 비해 잘 다루지 않았던, 의미기능적인 ‘강조토’에 대해서도 ‘강조격’이라는 상위 범주에 새롭게 설정한다.

셋째, 객체격에서는 조사와 같은 기존 토 형태 중심에서 벗어나, 의미기능적인 어휘적 수단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이러한 객체격은 소위 의미격조사인 남한 부사격 조사에 대응된다.

넷째, 형태적으로 유사한 부류 격들을 의미기능적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반대로 동일한 형태가 서로 다른 격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구별하고 있다.

다섯째, 속격의 경우, 기존에 구체적 의미들이 나열되었던 것에 비해, ‘소속, 대상, 주체, 속성’으로 추상화, 일반화하며 기능적으로 세밀히 분류한다.

여섯째, ‘규정토와 꾸밈토’에서도 형식적 측면보다 전체적으로 의미적 측면이 자세히 기술된다.

일곱째, 이음토의 경우, 모든 의미범주들을 대등한 층위에서 설명하여 기존의 상하 계층적 분류 체계와는 차별화되는, 의미 중시 기술이 도입된다. 또한 기존 문법 기술에 비해 더 많은 이음토 형태를 제시하며, 새로운 의미범주 ‘렬거’ 등도 제시한다.

여덟째, ‘능동, 피동, 사동’에 대해 동일 기능 범주에 속하여 상호적인 관계로 제시하며, 사동과 피동을 강조하기 위해 소위 합성상토를 쓴다

고 설명한다.

아홉째, 기존 사동, 피동의 경우, 토 중심의 문법 기술 측면에서 형태적 방법으로 실현되는 것만 제시했다면, 『조선어기능문법』(2013)은 보조용언 및 단어들의 결합으로 실현되는 통사적, 어휘적 방법도 기능적으로 제시한다.

김건희(2024L : 44-45)

주지하다시피 북한 문법은 전체적으로 실용성 및 생활문법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능문법은 실용성과 함께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특히 『조선어기능문법』(2013)의 형태론 문법 기술은 실제로 기능문법적 단위들을 적극 설정하며 이론 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기능적 정합성을 보이고 있다.

4.2. 『조선어기능문법』(2013), ‘기능문장론’ 부문의 화용론과의 접점

『조선어기능문법』(2013), ‘조선어기능문장론’에서 제1절 소단원 ‘문장의 구성’ 부문은 전체 ‘조선어기능문장론’의 절반을 차지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세부 단원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문장의 구성’ 단원 내용은 이론문법적 관점, 곧 순수한 문장론(통사론)보다 말하는 사람(화자) 중심의 기능문법적 관점이 반영된 화용론(담화론) 관련 세부 단원이 더 많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조선어기능문장론’, ‘제1절 문장의 구성’의 목차

화용론(담화론)	문장론(통사론)
시점과 문장구성	기초문장과 그 전개
주제와 문장구성	례의적관계의 표현과 문장구성
강조와 문장구성	귀일 및 조응현상과 문장구성
언어환경과 문장구성	문장성분의 생략과 문장구성
동의문의 구성	
회화문장의 구성	

남한 문법에서도 넓은 의미의 국어 문법에 ‘화용론(담화론)’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고, 실제 대학교재로 널리 사용되는 저명한 국어 문법서 중 ‘화용론(담화론)’을 포함하고 있는 저서는 유현경 외(2018)이 거의 유일하다. 물론 국어교육이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화용론(담화론)이 일찍부터 주목되

었다.(유현경 외(2018 : 582))

무엇보다 화용론(담화론)은 실제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화자, 청자, 장면’ 등으로 구성되는 담화 층위를 기본 단위로 하여 기능문법의 ‘언어환경에 따른 화자 중심의 문장구성 선택’이라는 기본 전제와 맞닿아 있다.

또한 ‘기능문장론’에서는 일반적인 문형에서 벗어나는 특이한 문장, ‘주어’를 상정할 수 없는 ‘무주어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자세히 다룬다.

무주어문이 가능한 환경

- ㄱ. 시공간환경으로 련상이 가능한 경우
가을이로구나, 저 설레이는 벼파도를 보라.
- ㄴ. 감정정서와 관련되는 경우
야, 곱구나. 어찌면 이렇게 곱게 번졌다.
- ㄷ. 평가와 관련되는 경우
오늘 날씨에 옷을 이만큼 입으면 괜찮을것이다.
- ㄹ. 앞사실에 대한 보충으로 되는 경우
비가 오래간만에 내렸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였다.
만물을 소생시키는 비였다.
- ㅁ. 앞의 말이 반복되어 술어로 되는 경우
철수는 뽕을 잘 차더군요.
- ㅂ. 속담으로 된 일부 문장인 경우
아는 길도 물어가랬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구 찾아가라.
- ㅅ. 경험적인 말을 하는 경우
소금으로 이를 닦으면 좋단다.
- ㅇ. 준수할 내용을 담은 경우
꽃을 꺾지 말것.
- ㅈ. 일정한 환경에서 대화를 하는 경우
언제 왔니? 이제 금방 왔다.

조선어기능문법(2013 : 226-227)

양수경·김건희(2022ㄴ)에서도 논의한 것처럼 ‘무주어문’은 남한 문법에서 문장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조선어기능문법』(2013)에서는 조선어문장성분(2005 : 20-21)과 같이 ‘진술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장으로 인정하며, 나아가 이렇게 ‘무주어문’이 실제 쓰이는 조건을 세분화하여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세한 분류는 기존 남북한 문법 내용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가장 최근에 출간된 북한 이론문법서, 『현대국어문법론』(2015)의 ‘문장론’ 내용에서는 형태론 단위들과의 결합으로 복합문 전체 의미유형이 결정되는 등,

형태론 단위(접속도, 어미)와 통사론 단위(절)의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며, 형태론과 통사론의 밀접한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어기능문법』(2013), ‘조선어기능문장론’의 ‘문장론’ 내용에서는 ‘문장론’과 ‘화용론’을 적극 연계하거나, 아예 ‘화용론’ 내용 위주로 다룬다. ‘문장론’과 ‘화용론’은 ‘문장’이라는 공통된 단위를 다루기도 하여, ‘화자의 주관적 선택이나 의미기능¹⁶⁾’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문법적 관점의 ‘문장론’은 자연히 ‘화자, 장면’ 중심의 ‘화용론’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이다.

5. 북한 문법론에 대한 향후 연구 주제 및 방법론 제안

이번 장에서는 다음 북한의 대표적인 문법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 주제 및 그 방향성 등을 제안하겠다.

- [1] 규범문법: 조선문화어문법규범(1976/2011)
- [2] 이론문법: <조선어이론문법>품사론(1987)
<조선어이론문법>문장론(1987)
<조선어학전서>조선어품사론(2005)
<조선어학전서>조선어문장론(2005)
<조선어학전서>조선어문장성분론(2005)
<조선어학전서>조선어기능문법(2013)
- [3] 최신문법: 현대국어문법론(2015)

5.1. 북한 문법론에 대한 북한 내적인 시각 탐구

북한 문법론에 대해 남한 연구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북한 문법 내적인 관점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하겠다. 곧 북한 문법학계 내에서도 의견이 달라 쟁점이 되는 주제와 북한 문법의 독특한 문법 기술(새로운 개념어 제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5.1.1. 북한 문법학계 내에서도 의견이 달라 쟁점이 되는 부분

16) 덧붙여 일찍이 <조선어학전서>조선어문장성분론(2005)에서도 문장성분을 분석할 때 ‘의미-기능’과 ‘형태-구조’ 둘 모두 고려하되, 한국어에서는 의미-기능을 더 비중있게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특히 문장성분화 유형에서 남한 문법에서 주가 되는 문법적 층위(통사, 의미-기능)의 분석 외에도 논리적, 정보구조적, 담화화용론적 층위 등 다층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 문장성분 종류 설정

문장성분을 설정할 때 형태적 표지와 의미-기능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가 북한 문법 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 규범문법(조선문화어문법규범(1976/2011))에서는 형태적 표지를 중시하여 확대성분으로 처리했던 단위를, 조선어문장성분론(2005)에서는 의미-기능을 우선시하여 동종성분¹⁷⁾에 포함한 예에서 그러한 견해 차이가 발견된다. 이는 문장성분 설정에서 형태적 표지와 의미 기능 중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가 앞으로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주제임을 보여준다.

ㄱ. 그들은 맡겨진 과업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수행하였다.

[동종성분]

ㄴ. 그들은 맡겨진 과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였다.

조선문화어규범[별림결합의 확대성분] → 조선어문장성분론[동종성분]

<2> 복합문의 범주 정체성

문장론(1987)에서는 복합문을 인정하지 않는 논의와 인정하는 논의부터 설명하면서 복합문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복합문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의 경우, 맺음형으로 끝나는 단위만을 완전한 문장으로 간주하거나, 문장의 기본 표식을 맺음술어의 형태적 구비성에서만 찾아 복합문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어 복합문을 인정하는 관점들도 크게 아래와 같이 네 부류로 나누며, 이러한 네 가지 관점들에 대해서도 각각 비판하고 있다.

[1] 문장이 맺음술어와 이음술어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 ‘술어적중심’이 두 개 이상 있기 때문에 복합문이 이루어진다.

[2] 종속복합문을 설정한 것으로, ‘주문+부문’의 주종 관계를 설명하였다.(-> 문장론(1987)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이음토(어미)라도 그 기능은 다양하므로 ‘종속/병렬’, ‘주문/부문’과 같이 정해진 관계로 설명하면 안 된다고 비판한다.)

[3] ‘주어+술어’의 형식으로 문장성분 기능을 수행하는 ‘구’를 갖춘 모든 문장을 복합문으로 인정하고, 특히 ‘결합복합문’이라는 유형을 설정하였다.(-> 문장론(1987)에서는 이러한 ‘구’는 복합문 구성부분인 <단일문>과는 다르다고 비판하였다.)

[4] ‘주어+술어’의 형식으로 문장성분 기능을 수행하는 ‘구’를 가진 문장에 대하여 복합문은 아니지만 ‘내포문’ 혹은 ‘임태문’이라는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문장론(1987)에서는 ‘구’를 가진 문장은 ‘특수류형’으로

17) 조선어문장성분론(2005)에서는 동종성분이 문장 안에서 동일한 문장론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성분과 동일한 문법적 관계를 맺는 둘 이상의 성분들로 정의되고 있다.

서의 ‘내포문’ 또는 ‘임태문’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나아가 복합문의 구성부분인 <단일문>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건희(2023 : 8-10)

위와 같이 문장론(1987)에서는 복합문 범주를 인정하는 논의도 다양한 견해가 있음을 제시하는데, 결국 문장론(1987)의 시각은 어미들이 결합된 단위에 대해서도 기능 중심으로 설명해야 하며, ‘구’와 복합문의 구성부분인 ‘단일문’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5.1.2. 북한 문법학계의 독특한 문법 기술 및 새로운 개념어

<1> 맞물린성분과 외판성분

남한 문법의 일반적인 문장성분 대분류인,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과 달리, 북한 문법에서는 ‘주성분과 부속성분’을 아우르는 ‘맞물린성분’과 ‘외판성분’으로 이분화한다.

맞물린성분: 주어, 술어, 보어, 상황어, 규정어

외판성분: 부름말, 느낌말, 끼움말, 이음말, 보임말

조선어문화어문법규범(1976/2011)

‘외판성분’의 경우, 1960년대까지는 ‘고립어’, ‘독립어’, ‘문장 밖에 오는·있는 어’, ‘성분 밖에 있는 단어’라고 하여 문장성분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조선어문화어문법규범(1976/2011)에서 ‘외판성분’에 문장성분 지위를 부여하였고, 이후 이론문법에서도 문장성분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2> 무주어문

북한 문법에서는 주어를 문장의 필수 성분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무주어문을 ‘문장’으로 인정하고 있다. 주어를 상정할 수 없는 무주어문을 문장성분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문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발화 문장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를 시사한다.

무엇보다 조선어문장성분론(2005 : 123-124)에서는 ‘무주어문의 술어는 주어가 아니라 보어 또는 상황어와 상관을 맺는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어문장성분론(2005)에서는 ‘무주어문’의 존재를 근거로 술어의 범위를 더 넓게 정의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곧 무주어문의 경우 장면이나 문맥에 의해 주어가 복구될 수 있는 주어 생략문과 달리 그 자체가 주어의 복구를 필

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무주어문에서는 술어가 보어 또는 상황어와 상관 관계를 맺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무주어문의 존재를 근거로 주어에만 의존하는 술어의 정의를 수정할 필요를 제기한다.

<3> 령토의 설정

조선어문장성분론(2005)에서는 주어를 표현하는 격토를 ‘가/이’, ‘께서’, ‘에서’, ‘령토’ 4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격토들은 남한 문법의 주격 조사와 거의 유사한데, 다만 절대격 형태 ‘령토’란 개념어를 제시하는 점이 특이하다.

‘령토’의 경우, 체언적 단어들인 격토의 첨가가 없이도 일정한 문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아 다른 격형태에 대응하여 설정된 개념이다.

이와 같이 남한 문법에서는 흔히 격조사의 생략으로 다루는 양상을 ‘영형태’를 격조사의 한 유형으로 다루는데, 모든 문장성분마다 이러한 령토라는 ‘절대격’이 성립하는지는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고, 특히 다른 북한 문법서에서도 이러한 개념어가 보편적으로 쓰였는지 좀 더 확인해야 할 것이다.

<4> 문법서에서 ‘은/는’이 ‘이/가’보다 많이 쓰이는 이유를 설명함.

먼저 조선어문장성분론(2005)에서는 주어 표현에 제일 많이 쓰이는 도움토로 ‘는(은)’을 들면서 주격토 ‘가/이’와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동종의 여러 대상들 가운데서 한 대상을 짚어 서술하려고 하는 문장에서 주어 표현에는 ‘는(은)’이 쓰이고 동종의 대상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 대상 자체만을 진술하려고 하는 문장의 주어 표현에는 ‘가/이’가 쓰인다.

둘째, 문장 진술에서 ‘대상’ 쪽을 기준으로 할 때는 ‘는(은)’이 쓰이며 ‘행동, 상태’ 쪽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가/이’가 쓰인다. 이때 정보론적 성분화에서의 구정보와 신정보가 갈라진다.

ㄱ. 옥이는 학교로 간다. - 구정보
(다른 사람들은 집에 있는데 옥이는 어찌하는가?)

ㄴ. 옥이가 학교로 간다. - 신정보
(학교로 가는 것이 누구인가?)

셋째, 이야기 전개 측면에서 보면 이야기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소개되는 주어적 대상에는 ‘가/이’가 쓰이고 그 다음의 서술부터는 ‘는(은)’이 쓰인다. 그러나 이야기의 단락이 바뀌고 새 장면이 펼쳐지면 다시 ‘가/이’로 시작된다.

넷째, 논리적 요구의 측면에서 보면 판단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주어에 해당되는 말에는 ‘는(은)’이 쓰인다.

다섯째, 문장유형의 측면에서 보면 행동의 수행자에게 그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강한 요구를 제기하는 명령문의 주어에는 ‘는(은)’이 쓰인다.

양수경·김건희(2022L : 1221-1222)

더 나아가 주어 표현에서 주격토보다 도움토가 더 많이 쓰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첫째 주장과 관련해 언어생활에서는 같은 부류의 여러 대상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진술의 대상으로 내세워 말할 필요가 많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러한 객관적 조건은 주어 표현에서 도움토 ‘는(은)’이 특별히 많이 쓰이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또한 셋째 주장과 관련해 언어생활에서는 새로운 대상만을 서술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일단 주어로 등장한 대상에 대하여 여러모로 더 서술해야 할 필요가 더 많이 생겨나는데 이는 주어 표현에서 ‘는(은)’이 ‘가/이’보다 더 많이 쓰일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기존 남한 문법서에서는 ‘가/이’와 ‘는(은)’의 차이점만 제시했다면 조선어문장성분론(2005)에서는 이러한 차이점과 함께 구체적으로 왜 ‘는(은)’이 더 많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 문장성분의 한 부류로 ‘호칭어(부름말)’ 설정

현대국어문법론(2015)에서는 ‘호칭어’, 동일한 내용을 조선문화어문법규범(1976/2011), 조선어문장론(2005)에서는 ‘부름말’로 명명하며, 외판성분의 한 부류, 곧 문장성분의 한 부류로 설정하고 있다.(영희야, 네가 가거라.)

북한 문법에서는 ‘입말, 글말’로 나누어서 부름말의 특성을 자세히 고찰하고, ‘부름말 대상과 행동주의 일치 여부’를 상세히 논의하고 있다. 특히 부름말의 유형을 ‘일반부름말’, ‘강조부름말’로 나눈 다음, ‘강조부름말’의 경우도 다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부름받는말, 부름말부’와 같은 단위를 설정한다(양수경·김건희(2022L) 참조).

남한 문법에서는 당연히 ‘호칭어’가 문장성분의 한 종류가 아니다. 그러나 북한 문법의 위와 같은 ‘체계화된 유형 분류’ 및 ‘관련 단위의 명시성’ 등을 고려하면 ‘부름말’도 문장성분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

5.2. 남한 문법과의 비교 연구_기술 체계 유사성에 기반

남한 문법과의 비교 연구가 가능한 실례와 그렇지 못한 실례를 각각 제시하겠다. 이를 토대로 북한 문법이 남한 문법과 어느 정도 기술 체계가 유사성이 있어야 올바른 비교, 대조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

<1> 복합문

북한 문법의 복합문 논의에서는 용어 관련 개념 정리부터 필요하다. 예컨대 문장론(1987)에서는 ‘단일문(단문)’과 대립되는 ‘복합문’이란 용어를 쓰는데, 이는 남한 문법 ‘복합문(복문)’과 같다. 반면에 조선어문장론(2005)에서 남한 문법 ‘복합문’에 대응되는 용어는 ‘확대문’이다. 조선어문장론(2005)에서는 ‘확대문’ 하위 부류로 ‘절을 가지며 단일문이 아닌 문장’을 ‘복합문’이라고 한다.

김건희(2023)에서는 북한 문법의 복합문에 대해 두 핵심 주제, ‘구성 단위’와 ‘유형 분류’의 세부 기술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북한의 문장론(1987), 조선어문장론(2005)의 기술이 ‘구성 단위 및 유형 분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문장론(1987), 조선어문장론(2005)에서 일관된 복합문 체계가 확인되었으면, 남한 복합문 체계와 대조하여 논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문법서의 복합문 체계가 너무 달라서, 먼저 두 문법서 내용을 소개하고,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 남한 문법의 관점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체계 자체의 일관성 및 균형성, 타당성을 중심으로 논평한 것이다.¹⁸⁾

이와 같이 ‘문법의 체계 유사성’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의 문법 체계가 정말 다른 경우, 그 각각의 특이성만 논의할 수 있지, 공통 주제에 대한 비교·대조를 비롯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2> 높임법

복합문과 달리, 높임법 연구에서는 남한 문법과 체계 유사성을 보여 다음과 같이 남북한 문법 기술의 관점을 대비하며 정리할 수 있다.

1) 공통 주제에 대한 다른 관점

ㄱ. 상대 높임법 체계: 이원화와 단일화

남한 문법: 이원화에서 단일화로

북한 문법: 단일화를 기본으로 하지만 이원화된 설명도 나옴.

18) 다만 두 문법서 발행 이후 북한에서 발행한 규범문법, 이론문법서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일관된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북한 복합문 체계에 대해 현재 남한 복합문 체계와 비교, 대조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의 논의는 5.4.장에서 소개할 것이다.

ㄴ. 상대 높임법의 ‘낮춤과 안 높임’

남한 문법: ‘낮춤’ 대신 ‘안 높임’ 설정하는 추세임.

북한 문법: ‘낮춤(하대)’를 여전히 설정함.

ㄷ. 상대 높임법과 여타 높임법과의 관계

남한 문법: 듣는 이를 대우하여, 듣는 이를 의식한 주체, 객체 높임법 쓰임을 강조함.

북한 문법: 상대 높임법과 주체 높임법의 구분을 강조함.

김건희(2022ㄱ : 27)

2) 공통된 주제에 대한 공통된 관점

ㄱ. 하오체와 하계체

‘하오체, 하계체’를 죽어가는 토로 설정하거나 특정한 계층의 사용역으로 규정함.

ㄴ. 일반적인 높임법 체계(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에 더하여 겸손법(겸양법)이 들어감.

ㄷ. 규범적 용법이 아닌 전략적 용법이 강조됨.

주체, 객체 높임법이 다양한 언어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음.

상대 높임법 사용에 영향을 주는 언어 외적인 조건을 제시함.

김건희(2022ㄱ : 28)

5.3. 미시적 주제 중심의 연구-높임표현, 외판성분 등

<1> 높임표현

북한의 실제 언어생활을 엿볼 수 있는 높임표현에 대해 추후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간략히 살펴본 북한 높임법 전반에 대해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상대 높임법에서 ‘이원화 및 단일화’라는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상대 높임법이 화용론적 맥락에 따라 그 쓰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높임법’ 및 ‘주체높임법’에서도 청자를 고려한 높임법 양상이 나타나는데 역시 ‘화자 청자’를 고려하는 화용론적 맥락에 의한 것이다.

‘하오체 및 하계체’의 경우, 특정 계층의 사용역을 규정하거나, 소위 겸손법을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에 더하여 독립된 높임법의 한 부류로 제시한 것은 ‘겸손’ 표현 사용이 언어생활의 기본적인 사용 전략임을 보여준다. 추후 이러한 화용적 맥락을 고려한 북한 높임법의 전략적 사용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외판성분

다음으로 외판성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 이론문법에서도 새롭게 설정된 것으로 특히 그 문법적 의의가 주목된다. 외판성분의 독자성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문법의 외판성분은 여러 문법 단위들과 관련된다. 먼저 품사 관점에서는 ‘감탄사, 문장부사(접속부사, 양태부사), 명사’, 문장성분 관점에서는 ‘독립어, 부사어’와 연관되는 포괄적인 부류이다. 나아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 무주어문과 같은 소위 ‘소형문’ 부류의 문장과 관련된다. 따라서 외판성분은 ‘품사, 문장성분, 문장’과 연관되며 다양한 문법적 시사점을 보이고 있다.

추후 이러한 ‘외판성분’에 대해, 관련된 남한 문법의 내용 및 주제 항목별로 대비하며 깊이 있게 분석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5.4. 북한 문법총서: 조선어리론문법과 조선어학전서의 문법 기술 변화 및 공통점/차이점 탐구

남한 학계에서 특히 북한 이론 문법 연구는 주로 <조선어리론문법> 총서 및 <조선어리론문법> 총서에 기술된 개별 문법 항목에 대한 연구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어리론문법> 총서 후속 총서인 <조선어학전서>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북한 연구가 활발한 시기 (직전)에 출간한 <조선어리론문법>에 대한 연구와 달리 2000년대 출간된 <조선어학전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어학전서> 자체 연구뿐만 아니라, <조선어리론문법>과 <조선어학전서>의 문법 기술 변화 및 공통점/차이점을 주제로 개별 문법 항목마다 자세히 다루는 것도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김병문(2016 : 269)에서는 북한 문법 논의는 개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거나 개별 단행본 등을 검토하여 그 특징을 확인하는 것에 그쳤던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였는데, 이번 5.4.장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연구 방법론을 통해,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 대표적인 문법서들의 연구 흐름을 짚어보며 개별 문법 항목을 세밀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겠다.

<1> 형용사

먼저 ‘형용사’ 연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어리론문법>, <조선어학전서>의 ‘토, 문장유형 분류, 문장성분’ 등에 대한 남한 학계의 연구가 있었지만, ‘형용사’에 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김건희(2022L)에서는 품사를 넓은 의미의 문법적 범주로 고찰한 <조선어학전서>조선

어품사론(2005)의 관점에 주목하여, 품사 ‘형용사’를 깊이 있게 논의한 북한 문법 이론 내적인 관점을 검토하였다.¹⁹⁾ 품사론(1987)에서 기본적으로 자세한 형용사 기술이 제시되었고, 조선어품사론(2005)에서는 ‘의미구조, 격 지배, 세밀한 형용사 분류’ 등 유의미한 형용사 연구 내용이 새롭게 제시된 것을 소개하였다. 또한, 가장 최근의 북한 이론문법서인 현대국어문법론(2015)의 형용사 기술은 조선어품사론(2005)의 논의 방향성과 일치한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2> 복합문

앞서 ‘형용사’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 문법에서 일반적인 문법 항목에 대한 논의는 <조선어리론문법>(1987) 후속 문법총서인 <조선어학전서>(2005)에서 <조선어리론문법>(1987) 논의에 더해 새롭게 보충하는 식으로 기술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선어학전서>조선어문장론(2005)의 복합문 체계 및 내용은 <조선어리론문법>문장론(1987)과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문장론(1987), 조선어문장론(2005)’, 및 최근 복합문 체계를 확립한 현대국어문법론(2015)’에 대해 ‘구성 단위’와 ‘유형 분류’라는 복합문의 주요 내용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성 단위’의 경우, 문장론(1987)에서는 복합문의 구성단위를 ‘단일문’ 하나로 설정하여, 조선어문장론(2005)에서 ‘부, 구, 절’과 같이 다양하게 설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현대국어문법론(2015)에서는 복합문 구성 단위를 ‘절’ 하나만 설정하므로 조선어문장론(2005)보다는 문장론(1987)의 기술과 맞닿아 있다.

다음으로 ‘유형 분류’의 경우, 문장론(1987), 조선어문장론(2005)에서 자체적인 문제점을 보여 현대국어문법론(2015)과의 연장선상에서 고찰할 수는 없다. 먼저 문장론(1987)에서는 ‘의존문-주도문’이라는 이분화된 분류

19) 이를 중심으로 품사론(1987)과 조선어품사론(2005)의 차이점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품사론(1987)에서는 소위 명사형 형용사들과의 차이점도 제시되었다면 조선어품사론(2005)에서는 국어 형용사를 위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언어 비교대조 관점은 보이지 않는다.

둘째, 품사론(1987)에서는 형용사들을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조선어품사론(2005)에서는 형용사 정체성을 확인하는 근거로 다양한 형용사 분류를 제시한다.

셋째, 조선어품사론(2005)에서는 품사론(1987)에서 다루지 않은 형용사의 ‘의미구조, 다의성, 격 지배’와 같은 논항구조 내용을 새롭게 설명하고 있다.

넷째, 품사론(1987), 조선어품사론(2005) 모두 동사와 형용사의 경계에 있는 부류에 대한 품사 소속문제를 자세히 다룬다. 곧 형용사가 동사적으로 쓰이는 경우와 동사가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조선어품사론(2005)에서는 더 나아가 동사가 형용사로 변하는 경우도 추가적으로 제시하면서 어휘적 의미가 변하면 그 문법적 특성도 변하여 결국 다른 품사로 된다는 관점을 명시한다.

다섯째, 품사론(1987)과 공통적 주제 ‘상 결합, 네 가지 품사 분류 특성’을 다루면서도 조선어품사론(2005)에서는 새롭게 보충 논의가 제시된다. 곧 형용사가 상 범주와 결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상’의 정의를 제시하면서 그 근거를 설명하기도 하고 형용사의 특징이자 품사 분류 기준인 네 가지 특성에 대해 그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김건희(2022-) 발췌 요약)

로 모든 복합문을 포괄하고, 기존 세부적 의미 기능 분류는 물론, ‘종속-병렬’과 같은 대분류조차 부정한다. 그러나 ‘의존문-주도문’의 경우, 내용상 분류 및 형식상 분류로 세분화하여 복합문의 분류가 매우 다양하고 분류된 결과 단위들도 이질적이다. 무엇보다 일관되지 못한 분류 방식을 보인다.

조선어문장론(2005)에서는 ‘전개문, 내포문, 복합문’으로 나누어 문장론(1987), ‘의존문 주도문’에 비해 세부적으로 분류되지만, ‘전개문, 내포문, 복합문’의 구성 단위, ‘부, 구, 절’이 ‘개념 정의 및 분류 기준’에서 명시적이지 않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면, ‘구와 절’의 혼돈, ‘전개문이 내포문이나 복합문이 포함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유형 분류’는 유형 분류 기준의 중복성이 나타나지만 현대국어문법론(2015)의 유형 분류가 문장론(1987), 조선어문장론(2005)보다는 적어도 명확하게 파악이 된다.

김건희(2023 : 33-36)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한 복합문 기술은 북한의 대표 문법 총서, <조선어리론문법>문장론(1987), <조선어학전서>조선어문장론(2005)보다 현대국어문법론(2015)이 더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대국어문법론(2015)에서는 조선어문장론(2005)과 같이 다양한 단위, ‘부, 구, 절’을 설정하기보다는 구성 단위를 ‘절’(‘문장’)로 통일하되, 그 하위 유형을 세분화하는 체계화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 문헌>

- 강남옥. 2011.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 운영 사례에 대한 면담 조사 연구 - 김형직사범대학 연수생 출신의 제보자 면담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295~326쪽.
- 강남옥. 2012.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교재 비교 연구」, 국어교육연구 30. 국어교육연구소. 1~38쪽.
- 강보선. 2020ㄱ. 「통일 과도기 ‘남북한 공통 국어’ 과목의 성격 및 목표」, 국어교육학연구 55(1). 국어교육학회. 5~30쪽.
- 강보선. 2020ㄴ. 「통일 대비 국어 문법 교재 개발의 쟁점-내용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 38. 한국문법교육학회. 69~98쪽.
- 고영근 편. 1989. 『북한의 말과 글』. 서울: 을유문화사.
- 고영근. 1994. 『통일시대의 語文問題』. 서울: 길벗.
- 고영근. 1995. 「남북한 국어학 연구의 성과와 전망」, 국어국문학 115. 국어국문학회. 403~414쪽.
-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 1960. 『조선어문법』 1. 평양: 과학원 출판사.

- 권재일. 2012ㄱ. 『북한의 조선어학전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권재일. 2012ㄴ.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 권재일. 2006. 「남북한의 언어학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연구 -분류체계수립을위하여-」, 한글 274. 한글학회. 231~266쪽.
- 권재일. 2015. 「분단 70년의 남북한 언어」, 지식의 지평 19. 대우재단. 1~17쪽.
- 권재일. 2016. 「북한의 국어 문법사 연구에 대하여」, 한글 311. 한글학회. 55~87쪽.
- 기세관·최호철. 1994. 「남북한 통일 맞춤법을 위하여」, 언어학 16.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231~250쪽.
- 김건희. 2022ㄱ. 「높임법에 대한 일고찰 - 남한과 북한 높임법의 최근 기술을 중심으로 -」, 한말연구 63-11. 한말연구학회. 1~31쪽.
- 김건희. 2022ㄴ. 「북한 문법의 형용사 연구-조선어리론문법과 조선어학전서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94. 한국문학언어학회. 7~43쪽.
- 김건희. 2023. 「북한 문법의 복합문 연구-조선어리론문법과 조선어학전서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97. 우리말글학회. 1~39쪽.
- 김건희. 2024ㄱ. 「북한문법서, <조선어학전서>『조선어기능문법』(2013) 연구 - 제1편 기능문법에 대한 일반적리해를 중심으로 -」, 한말연구 65-1. 한말연구학회. 1~27쪽.
- 김건희. 2024ㄴ. 「북한문법서, 『조선어기능문법』(2013), ‘조선어기능형태론’ 연구 - 『조선어형태론』(2005)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102. 한국문학언어학회. 7~49쪽.
- 김민수 편. 1991.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1~4』. 녹진.
- 김민수. 1985. 『북한의 국어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민수. 1972. 「북한의 언어정책」, 아세아연구 15(4).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53쪽.
- 김백련. 2005. 『조선어문장론』. 사회과학출판사.
- 김병문. 2016. 「북한의 규범문법 성립 과정에 관한 연구 -“자리토”와 “끼움토”의 설정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7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67~294쪽.
- 김병문·주영훈. 2017. 「남북 통합 국어사전에서의 언어학 용어 처리 방안 연구 -『겨레말큰사전』의 경우-」, 한국사전학 29. 한국사전학회. 7~40쪽.
- 김수경 외. 1964. 『조선어문법』. 평양: 고등 교육 도서출판사.
- 김수경·김백련. 1962. 『현대 조선어(2)』. 평양: 고등 교육 도서 출판사.
- 김영향. 2015. 『현대국어문법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영향. 2018. 『20세기의 조선어학』.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주성. 2018. 「북한 조선어학의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하여: 『사회과학원학보』와 『조선어문』을 중심으로」, 횡단인문학 2-1.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89~113쪽.
- 김주성. 2020ㄱ. 「남북언어 정책 기관의 성격과 성과 간 관계에 대한 검토 - 국립국어원과 겨레말큰사전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학술지 어문논총 36.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21~247쪽.

- 김주성. 2020년. 「북한 조선어학에 대한 남한 학계의 연구 경향 분석」, 이화어문논집 52. 이화어문학회. 129~170쪽.
- 김한근·강남옥. 2024. 「북한의 제2언어로서의 조선어교육 교재와 외국어로서의 교재의 특성 비교 연구 - 『조선어: 외국인학교 중등반용』과 『조선어: 류학생용』을 중심으로 -」, 인문과학 95. 인문학연구원. 163~197쪽.
- 리기만. 2005. 『조선어문장성분론』. 사회과학출판사.
- 박효정. 2022. 『북한의 ‘토’ 이론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박효정. 2024년. 「김수경의 문법 연구-문화어문법 성립 전후에 나타나는 북한 문법 연구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65(1). 한말연구학회. 1~24쪽.
- 박효정. 2024년. 「북한의 문법론 연구 동향-2005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의 4대 학술지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101. 한국문학언어학회. 33~78쪽.
- 서민정. 2022. 「김수경의 <조선어 문법>(1955)과 이승녕의 <중등국어문법>(1956) 비교 연구」, 한글 84(4). 한글학회. 1175~1206쪽.
- 양수경·김건희. 2022년. 「북한 문법의 외판성분 연구」. 『어문학』 157. 한국어문학회. 39~84쪽.
- 양수경·김건희. 2022년. 「<조선어문장성분론>의 맞물린성분에 대하여」. 『한글』 83-4. 한글학회. 1191~1230쪽.
- 오현아·전영근. 2022.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이북의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 교재 분석 연구- 김일성종합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을 중심으로 -」. 『한말연구』 177. 한말연구학회. 311~350쪽.
- 오현아. 2025. 「외국인 류학생을 위한 이북의 조선어 듣기 교재 분석(1): 김형직사범대학 출간 『조선어 듣기 1(류학생용)』(2013), 『조선어 듣기 2(류학생용)』(2013)의 단원 구성과 듣기 자료의 특성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5).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465~489쪽.
- 유현경. 2020. 「조선어형태론(2005)의 토 문법에 대한 해석적 연구」, 어문론총 85. 한국문학언어학회. 27~57쪽.
- 윤정원. 2011. 『『조선어문장론』의 문장 유형 분류 연구-『표준국어문법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51. 국제어문학회. 41~80쪽.
- 이관규. 2022. 「한국의 체계기능언어학 연구와 과제」, 한국어문교육 40.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27~276쪽.
- 이관규. 2021. 「북한의 교육제도에 따른 국어 교육 변화 양상」, 한국어문교육 35. 한국어문교육연구소. 7~30쪽.
- 이관규. 2022. 「남북한 국어과 교육과정의 비교 및 논점-남한의 교육과정(2015)과 북한의 교육강령(2013)을 중심으로-」, 한글 83-1. 한글학회. 67~98쪽.
- 이상혁. 2007. 「해방 후 초기 북쪽 국어학 연구의 경향 -1945~1950년 초기 국어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6. 민족어문학회. 5~32쪽.
- 이상혁. 2011. 「북한 조선어학의 특징에 대하여 -<조선어학전서>(2005)와 <언어학연구론 문색인사전>(2006)을 대상으로-」, 어문논집 64. 민족어문학회. 137~161쪽.

- 이흥식·이은경. 2023. 「통사론에 대한 표현론적 접근에 대하여」, 국어학 108. 국어학회. 3~43쪽.
- 임흥빈. 1989. 『조선문화어문법규범』을 통해 본 북한의 문법.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126~171쪽.
- 임흥빈. 1992. 「북한의 문법론」. 어학연구 28-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445~597쪽
- 임흥빈. 1993. 「북한에서의 국어학 연구 동향」, 국어학 연감. 국립국어원. 76~87쪽.
- 전영선. 2008. 「북한의 언어학 분류체계와 연구 동향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24. 한민족문화연구학회. 45~83쪽.
- 정순기. 2005. 『조선어형태론』. 사회과학출판사.
- 정순기. 2013. 『조선어기능문법』. 사회과학출판사.
- 정진석·강보선. 2023.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58(1). 국어교육학회. 141~194쪽.
- 조선문화어문법규범편찬위원회(1976/2011). 『조선문화어문법규범』. 사회과학출판사.
- 최호철. 2006. 「북한의 국어 의미 연구 60년」, 한글 273. 한글학회. 153~217쪽.
- 최호철. 1996. 「북한어학에 대한 남한의 연구」, 한국어학 3. 한국어학회. 43~91쪽.
- 최호철. 2012. 「북한 조선말규범집의 2010년 개정과 그 의미」, 어문논집 65. 민족어문학회. 251~286쪽.
- 허웅. 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628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 발표 자료집

2025년 5월 12일 박음

2025년 5월 15일 펴냄

위고 펴낸 이: **한글학회**
회장 김주원

펴낸 데: **한글학회**

주소: [03175]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길 7.
전화: 02)738-2236~9.
전송: 02)738-2238.
누리집: 한글학회 또는 <http://www.hangeul.or.kr>
누리편지: webmaster@hangeul.or.kr

등록한 날: 1955. 2. 14.
등록 번호: 제1-440호.

* 이 책은 팔지 않음 *
